

定本 退溪全書

8

定本 退溪全書 Ⅷ

印 刷: 2022年 6月 23日

發 行: 2022年 6月 30日

編 輯 人: 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팀
(研究責任者: 李光虎)

發 行 人: 金光琳

發 行 處: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出版登錄: 1989年 12月 15日 第1-987號

住 所: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빌딩 4층
Tel (02)765-2181~3 Fax (02)741-3478
URL <http://www.toegye.org>
E-mail toegye@hanmail.net

製 作 處: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151번길 24
Tel (02)333-7533 Fax (02)6280-2353

ISBN 978-89-85009-73-7 94150

ISBN 978-89-85009-65-2 (세트)

비매품

定本 退溪全書

8

退溪先生文集

書

卷23(卷31) ~ 卷27上(卷37)

(L0872 ~ L1207)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1차〉

退溪學研究院 院長：李佑成

副院長：李東歡

研究責任者：金彥鍾

共同研究員：李允熙, 李俸珪, 文錫胤

研究專擔人力

資料·編輯：鄭錫胎

校勘：崔秉準, 姜麗眞, 辛泳周

標點：李相夏

〈2차〉

退溪學研究院 院長：宋載邵

行政支援：鄭喆鎬, 金銀永

研究責任者：李光虎

共同研究員：金彥鍾, 李相夏, 文錫胤

研究專擔人力：柳浩珍, 金太年, 姜志喜, 尹相洙

研究補助員：尹璿香

8책 校勘：尹相洙(872~1029), 金太年(1030~1207)

標點：李相夏

標點校閱：李俸珪, 鄭錫胎

校勘·文字校閱：金彥鍾, 文錫胤

*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 AKS-2015-CDM-1231001).

目錄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答趙士敬【穆○庚戌】	1
答趙士敬	2
答趙士敬【○辛亥】	4
答趙士敬【○壬子】	5
答趙士敬	6
與趙士敬【壬子】	7
與趙士敬【癸丑】	8
與趙士敬【○甲寅】	9
與趙士敬·琴聞遠【甲寅】	10
答趙士敬【乙卯】	11
與趙士敬	13
與趙士敬	14
與趙士敬	15
答趙士敬	17
答趙士敬	18
與趙士敬	19
答趙士敬	20
答趙士敬	21
與趙士敬·琴聞遠【丙辰】	22
答趙士敬	24
答趙士敬	25

答趙士敬	26
答趙士敬	27
與趙士敬	28
答趙士敬	30
答趙士敬【○丁巳】	31
答趙士敬【穆】	32
答趙士敬【丁巳】	33
與吳謙仲·趙士敬·琴夾之.	35
與趙士敬·琴夾之	36
與趙士敬·琴夾之	37
答趙士敬【戊午】	38
與趙士敬	39
與趙士敬·琴聞遠	41
答趙士敬·李仁仲	42
與趙士敬·李仁仲·琴聞遠	43
與趙士敬·李仁仲·琴聞遠	44
答趙士敬	45
答趙士敬	46
與趙士敬	47
答趙士敬·琴夾之·金惇叙	48
與趙士敬	49
答趙士敬	50
與趙士敬【○己未】	52
答趙士敬【戊午】	53
答趙士敬	54
與趙士敬	55
與趙士敬【○庚申】	56
答趙士敬	57

目錄

與趙士敬【庚申】	58
與趙士敬	60
答趙士敬【○辛酉】	61
與趙士敬	62
答趙士敬【辛酉】	63
與趙士敬	65
與趙士敬	67
與趙士敬	68
答趙士敬	69
答趙士敬【○壬戌】	71
答趙士敬	72
與趙士敬【壬戌】	77
與趙士敬	78
與趙士敬	79
與趙士敬	80
答趙士敬【壬戌】	81
答趙士敬	82
答趙士敬	83
與趙士敬【癸亥】	84
答趙士敬【癸亥】	85
與趙士敬【癸亥】	86
回答趙士敬	87
慰趙士敬	88
答趙士敬	89
與趙士敬	90
答趙士敬	92
與趙士敬【甲子】	93
答趙士敬	95

(答趙士敬)	96
答趙士敬	97
與趙士敬	98
與趙士敬·琴聞遠	99
與趙士敬	100
與趙士敬	101
與趙士敬	102
與趙士敬	103
答士敬·慎仲·夾之·惇叙·聞遠	104
答士敬·慎仲·夾之·惇叙	105
與士敬·慎仲·惇叙	106
寄趙士敬家	107
答趙士敬·金慎仲	108
答趙士敬【乙丑】	109
答趙士敬【乙丑】	110
與趙士敬	111
與趙士敬	112
與趙士敬·琴聞遠	113
答趙士敬【乙丑】	114
別紙	116
答趙士敬	119
別紙	120
《別紙》	121
與趙士敬	123
答趙士敬	124
答趙士敬	126
與趙士敬	132
答趙士敬問目	133

目錄

答趙士敬	152
與趙士敬	154
答趙士敬問目【《大記》】	156
答趙士敬	158
與趙士敬	160
與趙士敬·琴聞遠【丙寅】	161
與大成·幹之·士敬·聞遠·應休	162
與趙士敬	163
答趙士敬	164
與趙士敬	165
別紙	169
答趙士敬問目【《心經》】	172
別紙	179
與趙士敬	181
與趙士敬	183
與趙士敬	184
答趙士敬	185
答趙士敬	186
答趙士敬	187
答趙士敬	188
答趙士敬【丁卯】	190
與趙士敬·琴聞遠	191
答趙士敬	193
與趙士敬	194
與趙士敬	195
答趙士敬	196
與趙士敬·琴聞遠	197
答趙士敬	198

與趙士敬	200
與趙士敬	202
與趙士敬	203
答趙士敬	204
與趙士敬【戊辰】	205
答趙士敬	209
與趙士敬	210
與趙士敬	211
答趙士敬	212
答趙士敬	213
答趙士敬	214
與趙士敬	215
答趙士敬	216
答趙士敬	218
與趙士敬	219
與趙士敬	220
與趙士敬	221
答趙士敬	222
與趙士敬	223
與趙士敬	224
與趙士敬	225
答趙士敬	226
與趙士敬	228
與趙士敬	229
與趙士敬	230
與趙士敬	231
與趙士敬·琴聞遠【蘭秀○庚午】	232
答趙士敬	233

目錄

與趙·李·權·朴僉上舍	234
答趙士敬諸君	235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四

答鄭子中【惟一○乙卯】	237
與鄭子中【丙辰】	239
答鄭子中【惟一○丙辰】	240
答鄭子中	241
答鄭子中	245
答鄭子中別紙	247
答鄭子中	249
答鄭子中別紙	252
答鄭子中	257
答鄭子中	259
答鄭子中	264
與鄭子中	272
與鄭子中【丁巳】	273
《與鄭子中》	274
答鄭子中【丁巳】	277
與鄭子中【戊午】	280
答鄭子中	283
答鄭子中	286
答鄭子中	289
答鄭子中	291
答鄭子中	294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五

答鄭子中【戊午】	297
答鄭子中	299
與鄭子中【己未】	300
答鄭子中【己未】	302
答鄭子中	304
答鄭子中	306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庚申】	308
與鄭子中	314
答鄭子中	315
答鄭子中	317
與鄭子中	319
答鄭子中	320
與鄭子中	322
答鄭子中別紙	324
答鄭子中	325
答鄭子中別紙	327
答鄭子中	330
與鄭子中	332
答鄭子中【辛酉】	333
答鄭子中	335
答鄭子中講目	337
與鄭子中別紙	341
答鄭子中	343
答鄭子中別紙	345
與鄭子中	353
與鄭子中	354
答鄭子中	356

目錄

與鄭子中	358
答鄭子中	359
答鄭子中	360
與鄭子中【壬戌】	362
與鄭子中	363
答鄭子中【壬戌】	365
答鄭子中	367
答鄭子中別紙	369
與鄭子中	373
與鄭子中	374
答鄭子中	375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六

答鄭子中【癸亥】	377
答鄭子中	378
與鄭子中	379
答鄭子中【癸亥】	380
答鄭子中	383
答鄭子中	384
答鄭子中	385
答鄭子中	387
答鄭子中【甲子】	389
與鄭子中	390
答鄭子中【甲子】	391
答鄭子中	393
答鄭子中	394
答鄭子中	395

與鄭子中	396
別紙	399
答鄭子中	400
答鄭子中	402
答鄭子中	403
別紙	405
答鄭子中	406
答鄭子中	408
與鄭子中【乙丑】	409
答鄭子中【乙丑】	410
與鄭子中	411
答鄭子中	412
與鄭子中	414
答鄭子中	415
答鄭子中	420
與鄭子中	422
答鄭子中【丙寅】	423
別紙	426
答鄭子中	427
答鄭子中	428
答鄭子中	430
與鄭子中	431
別紙	433
與鄭子中	434
別紙	435
答鄭子中	436
別紙	438
與鄭子中	439

目錄

別紙	441
別紙	443
與鄭子中	444
別紙	445
答鄭子中	446
與鄭子中	447
與鄭子中	449
答鄭子中	450
別紙	451
與鄭子中	452
答鄭子中	454
格物・物格俗說辯疑. 答鄭子中.	456
答鄭子中【丁卯】	463
與鄭子中別紙【丁卯】	465
別紙	467
答鄭子中	468
答鄭子中【丁卯】	470
別紙	473
答鄭子中	474
與鄭子中	475
答鄭子中	476
與鄭子中	478
答鄭子中別紙	479
與鄭子中	481
答鄭子中【戊辰】	482
答鄭子中【戊辰】	483
與鄭子中	485
答鄭子中	486

與鄭子中	487
答鄭子中	488
答鄭子中	489
與鄭子中	490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七 上

答鄭子中【戊辰】	491
答鄭子中	492
答鄭子中	493
答鄭子中	494
答鄭子中	496
答鄭子中	497
答鄭子中	498
與鄭子中	500
答鄭子中	501
答鄭子中	502
答鄭子中	503
別紙	505
答鄭子中	506
答鄭子中	507
答鄭子中	508
與鄭子中	509
答鄭子中	510
答鄭子中	511
與鄭子中	512
答鄭子中	513
答鄭子中	514

目錄

與鄭子中	515
答鄭子中	516
答鄭子中	517
與鄭子中	518
與鄭子中	519
答鄭子中	520
答鄭子中	521
答鄭子中	522
答鄭子中	524
答鄭子中	525
答鄭子中	526
與鄭子中	527
與鄭子中別紙【九代孫野淳輯錄.下全】	528
答鄭子中【己巳】	529
答鄭子中	530
答鄭子中	531
答鄭子中	532
與鄭子中	533
答鄭子中	534
答鄭子中【己巳】	535
與鄭子中	536
答鄭子中	537
與鄭子中	538
別紙	540
答鄭子中	541
別紙	542
答鄭子中別紙	544
答鄭子中	546

答鄭子中別紙	547
答鄭子中	550
與鄭子中	552
與鄭子中【庚午】	553
別紙	554
答鄭子中別紙【庚午】	555
答鄭子中	565
與鄭子中	567
答鄭子中	568
別紙	570
答鄭子中	572
與鄭子中別紙	575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KNL0872 (書-趙穆-1) (癸卷23:1右)(樊卷31:1右)

答趙士敬【穆○庚戌】¹⁾

〔前日冒重阻來訪，荷幸爲多。病困未洽晤言，恨缺至今。拙患漸覺瘥已，但苦元氣萎弱之甚，目不接書冊，已浹數旬，羸骨如前不蘇，自悶奈何？遠餉銀鮮，山厨所珍。感愧感愧。〕暮年方窺古人之緒餘，顧心力俱敝，無望於分寸之功，益知年富力强者不可不思勉也。如足下常以如僕老而無及者爲戒，則日進矣。〔惟照諒。不具。謹拜謝。〕

▶ 庚戌年(明宗5, 1550년, 50세) 7월 26일, 禮安.

趙穆(字 士敬, 號 月川·東皋, 本 橫城. 1524~1606)

[編輯考] 退溪가 趙穆에게 보낸 편지는 158통이다. 庚本에 53통이 실렸고, 續集에 16통, 樊本에 89통(內集 83통, 遺集內篇 5통, 遺集外篇 1통)이 추가로 수록되었다.

[資料考] 趙穆이 退溪에게 보낸 편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月川集》(1666年刊, 韓國文集叢刊 38) 권3에 실린 5통이 전부이다. 《月川集》권4에는 趙穆의 질문에 退溪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된 〈心經稟質〉·〈朱書節要稟質〉·〈尙書疑義〉·〈家禮疑義〉 4편이 실려 있는데, “先生答曰” 등의 형식적인 문자를 제외하면 退溪의 답변은 退溪 문집에 실린 것과 동일하다.

[年代考] 初本에 수록된 趙穆에게 보낸 편지들은 대체로 작성 날짜를 제목으로 삼고 있다.

1) 初本 ‘庚戌七月二十六日書’ ; 庚本(경희대본)·擬本 ‘答趙士敬【庚戌】’

KNL0873 (書-趙穆-2) (癸卷23:1右)(樊卷31:1左)

答趙士敬¹⁾

侔人垂問，甚慰病懷。禍患以來，益無生全之望，自近稍稍向蘇，尙畏寒閉縮，憤憤度日耳。示喻雪冤事，此間未有所聞。以勢料之，時論豈遽變至此乎？想以告者謬也。而抱痛之望，亦萬萬不及於此，但日夜兢惴抑塞而已。月初，承紆顧僻陋，適出違奉，亦未追謝，反蒙來示，尤深愧疚。且士患志不篤，所以自樹立者不堅確耳。苟擇術審而植志固，舉世而非笑之，猶不恤，況十九人者乎？故慮人之譏笑而加勉，則善矣；憂人之非毀而自沮，則恐不足以爲士也。未知賢契當何所處也？如僕早年妄嘗有意而昧其方，徒以刻苦過甚，得羸悴之疾。其後苦無人導善，而親舊之中，姑息愛人者，愆與²⁾爲非，遂一向放倒，而又不意失脚世路，徇俗汨³⁾沒，不知

▶ 庚戌年(明宗5, 1550년, 50세) 11월 26일. 禮安.

[資料考] 《師門手簡》에는 이 편지를 포함하여 退溪가 趙穆에게 보낸 편지 101통이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十一月二十六日書’，中本 ‘答趙秀才士敬[‘秀才’에 산거표시]’；樊本·上本 ‘答趙秀才士敬’；《師門手簡》‘士敬 奉復 趙秀才 案右’

2) 與：上本 ‘愆’

不覺之頃，數十年光陰，忽已蹉過。回首茫然，撫躬浩歎，而不可追矣。奈何奈何？愧死愧死！猶幸未死之前，得收身反本，尋繹舊書，則時與意會，信古人所謂欣然忘食者，不我欺也。溪邊縛得數間屋，自今以往，直以蓋棺爲期，嘿坐靜玩，過了殘生。賴天之靈，或可窺隙光於大明之餘，以畢其願，則下土之拙幸矣。他尙何云哉？山梁之餉，感感。但寒素交際，亦不必以是爲禮，并冀諒採。((不宣。謹拜謝。⁴⁾【滉信筆肆言，幸勿示人。】))

3) 汨：甲本‘汨’；李校[‘汨’當作‘汨’]

4) 謹拜謝：《師門手簡》에는 뒤에 ‘庚戌十一月廿六.’이 있다.

BNL0874 (書-趙穆-3) (樊卷31:2左)

答趙士敬【○辛亥】¹⁾

阻對懷悵，承手字，不覺歎煩之祛體也。良慰良慰！秀卿帖卷，政以揮汗寫字，病於夏畦，時閣在刀上，俟乍涼爲之，則當如所戒，呈上。前詩²⁾，非敢靳也，實以蹇滯爲愧故爾。屢蒙索見，何敢終隱？但亦苦改書爲難，後當依示。疑義題，令窩兒謄上，惟照領。對客不盡抱。謹復。³⁾【溪堂無膠。】⁴⁾

▶ 辛亥年 (明宗6, 1551년, 51세) 7월 10일. 禮安.

1) 初本 ‘辛亥七月十日書’；中本·拾遺·上本 ‘答趙士敬【辛亥】’；《師門手簡》‘士敬 奉復 月川【溪堂無膠。】’；中本에는 [추가 溪堂無膠.【本草】]'가 있다.

2) 詩：拾遺 ‘時’

3) 謹復：拾遺에는 없고, 《師門手簡》에는 뒤에 ‘辛亥初秋初旬’이 있다.

4) 溪堂無膠：初本·中本·拾遺에는 없다；中本에는 제목 아래에 [추가 溪堂無膠.【本草】]'가 있고, 《師門手簡》에는 皮封의 수취인 아래에 ‘溪堂無膠.’가 있다.

BNL0875 (書-趙穆-4) (樊卷31:3右)

答趙士敬【○壬子】¹⁾

前者再訪，一違一奉，又奉於壓尊之處，殊未從容。昨偶²⁾迷路過門，可得就面，而又緣曛暮，只以倅問，恨忤不暇。不意臨行騷騷之際，專使委簡，吾何以堪？益增埒然。聞明當發行，必與近處諸人同作舟行矣。兒子未及治具，六日始發，必後於諸人，其單行，可慮念也。唯冀好行高占，餘力旁及，爲幸。謹謝復。³⁾

▶ 壬子年 (明宗7, 1552년, 52세) 2월 3일. 禮安.

1) 初本 ‘壬子二月初三日書【不錄】’，拾遺 ‘答趙士敬’；上本 ‘答趙士敬【壬子】’；《師門手簡》‘士敬 謝復 趙秀才 月川’

2) 偶：拾遺 ‘又’

3) 餘力……謝復：拾遺에는 없다；初本에는 별행으로 ‘右壬子二月書在上’가 있다；《師門手簡》에는 뒤에 ‘仲春初三.’이 있다.

SNL0876 (書-趙穆-5) (續卷5:1右)(樊續卷5:1右)

答趙士敬¹⁾

((方幸麗澤之相益，忽此乖散，歎恨不已．貴譜欣睹甫始，騷騷無暇，未得卒業，尤爲缺然．不敢置空舍，姑付大述之奴送納，後日當更奉借究竟也．²⁾))

聞君說，“以予觀於夫子”等義，不以僕說爲然．然則何說爲當乎？若有他說則善矣，如取“以予”【奴】之義，以爲宰予自以其身比於夫子，而知夫子之賢云云，則吾所不知．

▶ 壬子年 (明宗7, 1552년, 52세) 4월 13일 추정. 禮安.

[資料考] 續集에는 “聞君說” 이하만 수록되어 있는데, 初本·中本·拾遺 및 《師門手簡》에 의하면 이 부분은 편지의 추신에 해당한다.

1) 初本 ‘四月十三日書’；中本·拾遺·樊本·上本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謝 趙生員寓舍’

2) 竟也：《師門手簡》에는 뒤에 ‘十三.’이 있다.

KNL0877 (書-趙穆-6) (癸卷23:2右)(樊卷31:3右)

與趙士敬[壬子]¹⁾

西來倦於人事，一未修問，此心未嘗不懸懸於左右也。見本道榜目，無尊名，不免爲之怪歎。然於足下，何足多恨？惟古人因困窮而學益進，今人因困窮而志遂媮，是爲可懼耳。((意謂去秋西來見試，仍居泮宮，而不爾然，則何時來京?)) 僕一出百違，三冬臥床，明春歸計，未卜諧否。自覺精神氣力，日漸凋謝，病之植根，愈固而難拔，假幸而得歸，其靜中讀書些少工夫，亦難得如往日也，只佳山好水天放之樂，想不異前後，誠不可不急償素志於桑榆之景耳。未間，惟冀益勵功程。不宣。((謹問。))

▶ 壬子年(明宗7, 1552년, 52세) 12월 24일. 서울.

[年代考] 柳校 [案《月川年譜》，辛亥秋，中鄉解；壬子春，中司馬。以書中‘本道榜目無尊名’之語推之，年條壬子，恐誤繫在此。]。柳校의 내용은 《月川年譜》을 보면 趙穆이 壬子年 겨울에 과거를 보았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이 편지를 壬子年에 배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月日條錄》에서는 《月川年譜》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趙穆은 실제로 壬子年 겨울에 親耕 別試 初試에 응시하였으므로 이 편지는 壬子年에 보낸 것이 맞다고 보았다.

1) 初本 ‘十二月二十四日書’；中本·樊本·上本 ‘與趙士敬’

KNL0878 (書-趙穆-7) (癸卷23:2左)(樊卷31:4右)

與趙士敬【癸丑】¹⁾

入城之日，卽辱臨枉，欣慰卽²⁾多，殊未展晤爲恨。茲奉問字，重深感愧(感愧)。第恨芹宮距此之遠，不得以時相從耳。(二簡亦已承見。)琴生近日似長進，必是與君相益之效，深喜。(含消佳餉，珍荷珍荷。)賢關亦有孟門之險，凡百務爲韜晦，惟不自失而日求益，是爲要法。(權上舍前所告如右。謹復。³⁾)

▶ 癸丑年(明宗8, 1553년, 53세) 10월 25일. 서울.

[年代考] 《師門手簡》에는 이 편지가 壬子年 4월 13일의 편지(書-趙穆-5)와 함께 실려 있는데 皮封은 유실되었다.

1) 初本 '癸丑十月二十五日書' ; 中本·樊本 '與趙士敬【○癸丑】' ; 擬校 ['與'字, '答'之誤.]

2) 卽 : 初本·中本·樊本·上本·《師門手簡》 '則'

3) 謹復 : 初本에는 별행에 '十一月十七日書.【不錄.】'이 있다.

BNL0879 (書-趙穆-8) (樊卷31:4右)

與趙士敬【○甲寅】¹⁾

邇來絕未聞信，未知侍奉安否何似？日以馳懷．僕汨沒至此，近方辭退幾成，而竟莫之遂，又抗顏逐隊如此，何時如願？不任愧中愧中．就中念足下居窮值凶年，何以度日？今年之事，不可以常道²⁾處之，苟得免死而已．適有聞慶訓闕，在來正月間，爲圖付之，無乃非足下意耶？見今出闕處，則爭者雲湊，故僅得此邑．願否速須示及爲望．聞遠處，未修別簡，幸致³⁾鄭重之意．大述處亦如右．謹拜⁴⁾【適值歸人，在政廳草草．】⁵⁾

▶ 甲寅年 (明宗9, 1554년, 54세) 8월 7일. 서울.

1) 初本 ‘甲寅八月初七日書’，拾遺·上本 ‘與趙士敬【甲寅】’；《師門手簡》‘士敬 拜白 趙生員宅 禮安 月川’

2) 道：拾遺 ‘度’

3) 致：拾遺 ‘值’

4) 謹拜：《師門手簡》에는 뒤에 ‘甲寅八月初七日.’이 있다.

5) 適值……草草：拾遺에는 없다.

SNL0880 (書-趙穆-9) (續卷5:1右)(樊續卷5:1左)

與趙士敬·琴聞遠【甲寅】¹⁾

比來不審僉體佳否？士敬何爲見屈？外之得失，了無關於己事，然在交契，烏能無恨？前告聞慶事，何無回報？校官乃儒者清職，本無點汙。只緣待人而食，易墮卑屈之坑，挾雌學宮，尤彰穢褻之迹，遂爲人嗤笑之資。此在我所處者如何耳。士敬自度於此定力如何²⁾？《前送《易》落張，印次兒輩失其置處，愧恨。紙則在此，其落張改書以送，爲佳。》告聞遠，齋舍今已³⁾畢功否？靜中，逐日功程不輟，其味無窮。芙蓉香一封，呈似，庶少助發其趣耳。《延平先生答問》等數件書，抄一冊寄去，幸僉覽則可見近世中原⁴⁾道術之得失矣。滯留無聊。草草。⁵⁾

▶ 甲寅年(明宗9, 1554년, 54세) 10월 27일. 서울.

1) 初本 '陽月二十七日書【士敬·聞遠】'，中本·拾遺 '與趙士敬·琴聞遠'；《師門手簡》'士敬 聞遠 僉問'

2) 如何：初本·中本·拾遺·樊本·上本 '何如'；續草本에는 [추가 '如何', 初本'何如'.]가 있다.

3) 已：上本 '以'

4) 近世中原：《師門手簡》'中原近世'

5) 草草：《師門手簡》에는 뒤에 '甲寅陽月廿七.'이 있다.

KNL0881 (書-趙穆-10) (癸卷23:3右)(樊卷31:4左)

答趙士敬【乙卯】¹⁾

豐吏傳書，縷縷具悉，甚慰茅塞之餘。《易》書難讀，紫陽先生已屢言之，況我輩耶？今但隨《傳》隨《義》，求義·文·周·孔之心，不穿鑿爲說，以返潔淨精微之舊，則向所謂難者，將不至終難，而庶有受用處。此在吾君勉之而已，如僕老病無及。近因朝命，試再看《啓蒙》，疑義甚多，研究頗費心力，得所未得處亦多，歸當與君商量可否耳。《聞慶事》，兩書皆得見之。見後書之意，不樂彼處，故欲勿爲下批。然府學，求者多，而吾力莫逮，則寧不擇而批差亦計。滉近者不幸之極，丹城柳家，今方推訊，此何等羞愧事耶？又時宰誤聽人言，爲滉有所論薦於天聽，辭甚溢濫不近似者，不勝惶惑窘悶之至。幸而天鑑洞然，所施不甚過越。是則稍安。然物情必多嫌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1월 2일. 서울.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의 뒤에 〈附答書二月初五日〉, 즉 趙穆이 2월 5일에 보낸 답장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1) 初本 ‘乙卯正月初二日書’, 中本·樊本 ‘答趙士敬【○乙卯】’

怒，滉後日之禍，未必不在於此，深用憂心。以此益自閉縮，不與人往來。雖有府學之闕，何能必圖乎？故如右云耳。院中過夏之計，甚善。第其供頓乏絕，其弊何由？郡境近年不至甚荒，若處之不失舊規，必無陵替如此之甚，深可訝歎。聞金彥彬與人結仇，頗似失據，無乃因此無聊而不顧院事？吾病倦，未暇別修書於金君，若見，爲傳鄙意。鄉閭飢迫，不忍聞也。滉行當作一飢民，念之懷然，奈何奈何？聞遠勢必不留，已料之，果然，可笑。))《延平書》，看否？此老言語，一味親切，警悟人處多，是可尚耳。《易傳》落張，當依戒。歸指仲春，時未定日。未間，千萬以時加鍊。不宣。((新曆一部并上。謹復。))

BNL0882 (書-趙穆-11) (樊卷31:6右)

與趙士敬¹⁾

新春想好. 僕以春半卜歸期, 時未知遂否耳. 《易》落張
四十一印送, 照領. 今方病臥, 無由作與人爭先之事,
改圖府學, 未能如示. 聞慶下批與否, 近當聞知而報之.
但無補爲貧, 而反妨志業, 得無不可於意耶? 然則後日
圖去之, 又何難乎? 謹白.²⁾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1월 29일(그믐). 서울.

1) 初本 '正月晦日書'

2) 謹白 : 拾遺에는 없다.

BNL0883 (書-趙穆-12) (樊卷31:6左)

與趙士敬¹⁾

春來佳否? 僕行在此月內, 會晤有期, 企企. 聞慶有金汝言者圖奪, 已下批云. 此邑雖君所不喜, 僕既不能改圖府學, 則寧仍此邑, 庶無失信, 今則并爲人所占. 凡事如此, 可笑, 又愧失信於君也. 餘留俟面. 謹告.²⁾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2월 8일. 서울.

1) 初本 ‘二月初八日書’ ; 《師門手簡》 ‘士敬 謝復 趙秀才 月川’

2) 謹告 : 初本에는 별행에 ‘四月二十七日, 見.’이 있다 ; 《師門手簡》에는 뒤에 ‘乙卯二月初八日.’이 있다.

KNL0884 (書-趙穆-13) (癸卷23:3左)(樊卷31:6左)

與趙士敬¹⁾

比日，侍奉外素履佳適²⁾？僕方此期慘，病骨委³⁾頓益甚，日處齋中，看書攝心，雖不敢廢，畢竟不得痛下工夫。自念只如此憤憤，恐遂虛過了一生也。在京日，《啓蒙》疑義，與一二友人考訂，草錄以備遺忘。今欲修正寫，其間有欲考《要》·《補解》處。前去《啓蒙》，姑付進僮送來，爲望。《諸經釋義》，鄙見左僻，不欲示人。於公則欲資評駁改定之益，故《易釋》先送去。但此釋《傳》時，被其主等索還元本，指日傳寫，未暇參詳己意，草草殊甚。然間有妄見去取，須細加校量，識錄以示，幸幸。《詩》·《書》·《論》·《孟》，在烏川未來耳。洪應吉《遊山錄》，前日欲覽，故送呈。此人有學有文，遽至不祿，每深歎惜。⁴⁾前得辱書，閒中時復寓目以自遣。但公窘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5월 6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뒤에 〈附十日答書〉, 즉 趙穆이 10일에 보낸 답장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1) 《師門手簡》‘士敬 奉開 趙生員宅 月川’；初本에는 [부전지 ‘與趙士敬’]이 있다.

2) 適：上本 ‘迪’

3) 委：初本·中本·定草本·庚本·《師門手簡》‘萎’

窶太甚，憂貧之累，決科之業，誠難擺脫。然緣此而欲遂輟學問之工，此則大誤矣。猶曰非敢爲自暴自棄，獨不見伊川⁵⁾之言曰“懈意一生，便是自暴自棄”耶？僕廢倦尤極而爲此言者，欲議人病以得己病之藥耳。如見聞遠，亦告如右。((謹問。))⁶⁾

4) 歎惜：初本·《師門手簡》‘嘆惜嘆惜’；中本·樊本·上本‘歎惜歎惜’

5) 伊川：初本·中本·樊本·上本‘晦庵’；初本에는 [추가 按《心經》，‘懈意一生’是伊川論.]가 있고, 中本에는 [부전지 ‘晦菴’, 當作‘伊川’.]이 있다.

6) 謹問：《師門手簡》에는 뒤에 ‘初六.’이 있다.

KNL0885 (書-趙穆-14) (癸卷23:4左)(樊卷31:7左)

答趙士敬¹⁾

前奉回札，知有永嘉之行。佻來，承再辱報簡，詞義懇深，三復慊然，所以慰遣孤悶者多矣。僕慘悼之餘，素患增憊，日夕無以自振拔，撫卷興喟而已。貧者士之常，如足下，眞所謂²⁾無簞³⁾食瓢飲。其處之之道，豈不尤難於古人所遭耶？前書所云，非謂足下實入於暴棄之域，只以處心用工極細極密處告君，令自點檢，知如何耳。今見來示，過自貶損，竊恐如此亦有妨於浩氣之養，如何如何？(適隣長在座，不能盡所懷，俟後更報一一。謹拜謝復。⁴⁾)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5월 10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뒤에 〈附二十六日書〉, 즉 趙穆이 退溪에게 26일에 보낸 편지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1) 初本 '右日答書' [부전지 '答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拜復 趙生員宅'

2) 謂 : 初本에는 없고, [부전지 ■■{字落.}]이 있다.

3) 簞 : 初本·中本 '簞'

4) 謝復 : 《師門手簡》에는 뒤에 '乙卯五月十日.'이 있다.

KNL0886 (書-趙穆-15) (癸卷23:5右)(樊卷31:8右)

答趙士敬¹⁾

頃殊阻闊，忽蒙辱問，兼寄還《啓蒙》等書，感慰無比。因《啓蒙書》來，知貴使近必往來于書院中。彼中事勢，今則如何？方今巨寇侵軼，國無備禦之策²⁾，竟不知稅駕之所，痛歎奈何³⁾？所云前書妄舉浩氣之養一句，公何致疑⁴⁾致謝之如是耶？只於日用間，一言一動得宜，則無害浩氣，纔一有慊，則與天地不相似，便是有害於浩氣之養。雖造孟子不動心底地位，其初，必自此些子地，始下工夫，故前書云爾。公何推遜與他而不自居耶？(適與大成飲，大醉草草。餘當俟面。謹白。⁵⁾)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5월 26일. 禮安.

1) 初本 '答書' [부전지 '答趙士敬'] ; 《師門手簡》 '士敬 拜復 趙生員宅'

2) 策 : 初本·中本·樊本 '責', 《師門手簡》 '策' ; 中本에는 [부전지 {'責'}字無意義, 恐{'策'}字之誤. 校.]가 있다.

3) 奈何 : 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 '奈何奈何' ; 定草本에는 뒤의 '奈何'에 [산거표시]가 있다.

4) 疑 : 上本 '意'

5) 謹白 : 《師門手簡》에는 뒤에 '卽日.'이 있다.

KNL0887 (書-趙穆-16) (癸卷23:5左)(樊卷31:9右)

與趙士敬¹⁾

山間晚聞榜聲，乃知逸駕長騁，果捷高等。此在君未足誇詫²⁾，其於遊從之好，喜慶何限？不知冬間溫習，當往何處？其在白雲等處耶？前示〈關佛疏〉草，病中歷覽，其疏文則平平，亦無甚異於人。惟其歷代考證，可爲鑑戒者，深切著明。頃年，舉朝諫諍，不遺餘力，忠言讜論，不爲不多，而獨無此例。試扣天陛，不無萬一之望，亦草茅願忠之至意。但自高明所處之義言之，似不合語默之宜，不無自輕之嫌。姑待居可言之地而言之，始爲盡善耳。(〔前去《命圖》，此僅付送，爲望。謹奉賀。〕)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10월 27일. 禮安.

1) 初本 '陽月二十七日書' [부전지 '與趙士敬']

2) 詫 : 樊本·上本 '詫'

BNL0888 (書-趙穆-17) (樊卷31:9左)

答趙士敬¹⁾

謂君在奉先庵，僧來坼書，知移寓龍山，鍊候佳勝，欣慰欣慰。所示，輒以妄見注其傍，照詳而去取之，適以冗幹在野次，無書可檢，草率奉報。又有不註三條，愧愧。需取訂說，在審侄處，故未送。且近日再看過，多有未盡處，不欲以謬見誤人。須容改修，勿急索取，爲望。餘未一一。謹復。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11월 12일. 禮安.

1) 初本 ‘至月十二日答書’ [부진지 ‘答趙士敬’]

BNL0889 (書-趙穆-18) (樊卷31:9左)

答趙士敬¹⁾

僕擬於歲前不出山，不意山雪砭人，一夜疾作，劇而得差，意恐復發，欲出則凍阻，欲留則不便調養，其勢當窘，故先事而出。病人去就，一係於病，不得自由，於山亦然，可歎。大抵山中諸寺，可於病人者，皆有故，其餘諸庵，太險絕，棲病未穩，故難安耳。承欲移寓見訪，今不一一，惟照。謹復。²⁾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윤11월 17일. 禮安.

1) 初本 '閏至十七日答書' [부전지 '答趙士敬']

2) 謹復 : 初本에는 별행에 '十二月十七日, 見於溪堂. 丙辰二月二十九日, 見於溪堂.'이 있다.

KNL0890 (書-趙穆-19) (癸卷23:6右)(樊卷31:10右)

與趙士敬·琴聞遠【丙辰】¹⁾

近相次惠枉，慰此離索，幸甚幸甚。數日來，庭梅發葩，孤絕可愛。雖有經寒憔悴之容，乃地使然耳，非關渠事。日夕徘徊其下，懷未嘗不在兩君也。《晦庵書別集》三冊·空冊四十餘幅·白紙一束·筆一柄·墨一笏，送呈，欲煩僉手揮寫。此三冊，所抄不夥，比諸君所寫之例，雖總²⁾作一卷，似不多幅數。仍思大述所寫續集三冊，亦不甚多，欲以此續·別二集，各爲一卷，而通作一冊，如何？然則自始至終，勿分卷段，聯串寫去，爲佳。若是則兩君不得一時分寫，士敬寫至中半，而替與聞遠寫了，爲當。所以必欲兩君皆寫，要觀吾鄉一時文雅之盛，不可欠一故也。就中二集，乃全書所遺而後來追得者，率多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3월 3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뒤에 ‘庭梅二絶. 別紙’, 즉 別紙에 보낸 詩 〈庭梅二絶〉(外集 권1)가 실려 있다.

1) 初本 ‘踏靑日書【聞遠·士敬】’[부전지 ‘與趙士敬·琴聞遠’]；中本·樊本 ‘與趙士敬·琴聞遠【○丙辰】’

2) 總：擬本 ‘忽’[부전지 {‘忽’}, ‘總’字[誤].]

隨事酬答，而論學處殊少，故所抄希略。然其所得之語，警切策勵，不異於全書，無非使人激懦而興奮者。每觀師友間所以相責相期之重如許，乃知朋友之義如此其至，老病昏憤，恒不能竭力於此，然愛之慕之，何得因人之笑怒而暫輟也？僉欲副寫，非獨爲滉成此積願，其必有感發於斯焉。紙束，所以備幅紙之不足者耳。他留面究。
((謹白。))

((鄭之所云，滉亦欲奉規而未果，鄭能言之。此滉之不敏，而鄭不失友道也。前因暮未竟其說，故云。))

BNL0891 (書-趙穆-20) (樊卷31:11右)

答趙士敬¹⁾

示索道谷所寫冊子，送去，照納。寫冊規式，曾作五六件，編²⁾送諸友處。共寫後，不無異同，亦無大害也。今亦欲送而忘記，故只依示呈此。見此，可知大概字之高低，皆依本文，可也。謹白。³⁾

向者聞遠所囑權君黃紙八幅，送去，照傳權君重器。⁴⁾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3월 6일. 禮安.

1) 初本 ‘六日’[부전지 ‘答趙士敬’]

2) 編：中本·拾遺 ‘徧’；初本에는 [교정기 ‘徧’]가 있고, 上本에는 [부전지 ‘編’恐‘徧’之誤.]가 있다.

3) 謹白：拾遺에는 없다.

4) 向者……重器：拾遺에는 없다；中本에는 [부전지 不書.]가 있다.

BNL0892 (書-趙穆-21) (樊卷31:11左)

答趙士敬¹⁾

曾聞公以外舅冰喪，有勞神觀，忽奉書諭，且詢琴君，知歸來好況。且承書惠《朱書》，兼琴君所寫，謹嚴適整，令人寓目生敬，殊非始望所及，無任佩荷佩荷。²⁾ 昨料幾畢作書，叩琴規欲取還，因乏人未遣。今日偶³⁾出，橋巖坐間，琴君携書適至，其爲喜幸，何須言喻？紙與筆墨，何乃送還⁴⁾？是謂過矣，付琴君令還。隔嶺跬步，每阻悵戀，苦被景物攬思，且此。⁵⁾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4월 9일, 禮安.

1) 初本 '四月初九日答書' [부전지 '答趙士敬']

2) 佩荷佩荷：初本 '佩佩荷荷'，上本 '珮荷珮荷'；初本에는 [부전지 ■傍'荷'字, '珮荷珮荷'爲當.]이 있다.

3) 偶：初本 '寓'

4) 送還：上本 '還送'

5) 且此：初本에는 별행에 '五月七日, 見.'이 있다.

BNL0893 (書-趙穆-22) (樊卷31:12右)

答趙士敬¹⁾

昨苦河魚偶發而遽困，不得從容款語，爲恨，今幸復常，但餘憊未殄耳。白雲之事，是非倒置，勢將搥壞了院學，何痛如之？今欲往見，其義甚高。第未知諸人意向如何，且若陳書言，不得不激切。然過激則反有惹生他變之慮，但發彼欺，明此誣，及慮將棄院爲可痛惜之意，足矣。辭貴正而確，不貴訐而誕，更須審處。中間有一人說云：“將有士林之禍。”此言甚可笑，然亦不可不過慮。此紙亦勿示人，但心知此意而善處之，幸幸。謹復。²⁾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5월 8일. 禮安.

1) 初本 ‘八日答書’[부전지 ‘答趙士敬’]

2) 謹復：拾遺에는 없다；初本에는 별행에 ‘十一日, 見.’이 있다.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BNL0894 (書-趙穆-23) (樊卷31:12左)

答趙士敬¹⁾

問來深慰. 方此憊臥, 忽有此事, 處之極難, 要當隨宜, 不至大段疏脫. 但邊事又適如此, 不知²⁾其間有何作梗事耳. 謹復.³⁾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5월 26일. 禮安.

1) 初本 ‘二十六日答書. 拜弘文副提學有旨來到’ [부전지] ‘答趙士敬’,

2) 知: 上本 ‘至’

3) 謹復: 拾遺에는 없다; 初本에는 별행에 ‘六月二十五日, 見.’이 있다.

KNL0895 (書-趙穆-24) (癸卷23:7右)(樊卷31:13右)

與趙士敬¹⁾

昨因暮未得從容，冒雨何以越險？從前覲君，雖志於學，實欠細緊工夫。今此看《心經》甚善，若於此有所得，自是住不得，當知前日疏脫處。僕恰到衰憊之極，方略窺一點半點，都不能著精力，恒自歎慨。聞聞遠懶廢學業，令人悼心失圖。此人當初甚好，不知何故如此？想緣窮裏營生，不知不覺馴致汨沒而然。然此亦志不篤之故，苟志之誠篤，一窮字豈能奪之？古人因窮而動心忍性，故業進；今人因窮而壞志逐物，故業頹。此正吾輩之至戒，甚可懼也。稍俟新秋潦霽，會款中央。²⁾

《章句》，以敬爲存心之方，而言於三不處；臧氏，以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 6월 26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十一月二十六日, 見於溪堂. 是日司馬會〉[부전지 〈次琴士任【輔】韻〉, 是日司馬會.], 즉 11월 26일에 쓴 시가 실려 있는데, 이 시(〈次琴士任【輔】韻〉)는 遺集內篇 권 1(BYP1071)에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二十六日書'[부전지 '與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開 趙生員宅'

2) 會款中央: 《師門手簡》에는 뒤에 '六月廿六.'이 있다.

敬爲去累之道，而言於四有處．此篁墩³⁾所以云不同也．如此看，如何⁴⁾？

3) 墩：初本·中本·樊本‘墩’

4) 如何：初本에는 뒤에 별행으로 ‘七月十一日，見於溪堂.’이 있다.

BNL0896 (書-趙穆-25) (樊卷31:13左)

答趙士敬¹⁾

接得墜簡²⁾，兼獲三章，諷味爽然，慰此悄³⁾寂，忻幸忻幸.⁴⁾ 《延平書》及前來古文青包并送，視至. 詩中“玉色梅”，用事雖若隱晦非倫，實奇語，但絕駢字太隱耳. 溪上雪景，清絕無比，想高齋延望山川，尤奇勝也. 拙和不隱，一笑. 謹復.⁵⁾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12월 9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편지 뒤에 外集 卷1〈寄趙士敬, 三首〉(KWP0818) 중 第1首와 第2首가 실려 있다.

1) 初本 ‘十二月九日答書’[추가 ‘答趙士敬’]

2) 簡：上本 ‘間’

3) 悄：初本 ‘稍’

4) 忻幸忻幸：初本 ‘忻幸幸’[부전지 {‘忻’}落.]；上本 ‘欣幸欣幸’

5) 謹復：初本에는 뒤에 별행으로 ‘十八日, 見.’이 있다.

BNL0897 (書-趙穆-26) (樊卷31:14右)

答趙士敬【○丁巳】¹⁾

新正倍戀，忽奉來簡，具悉諄諭²⁾，深慰深慰。日昨有忤之云，未知指何。若謂辭酒一事，豈拗戾之謂乎？但恐難以久行，故前日奉告云云。其後僕自有過飲之悔。思之，與其小試而不覺沈醉，不若爲君絕飲之爲善也。禹譜，深荷謦示。但大賢之後，零替如此，是可歎耳。禹先生墓，在今道谷云，未知信否？更當審問³⁾耳。金君明日當還，亦以未及見君爲恨。沈字固好，但得詩欣快諷味之時，著此字不得，爲其有鬱而未通之意故耳。對諸人，草報草報。⁴⁾

▶ 丁巳年 (明宗12, 1557년, 57세) 1월 2일. 禮安.

1) 初本 ‘丁巳元月二日答書’[추가 ‘答趙士敬’]；《師門手簡》‘士敬 拜復 趙生員宅’

2) 具悉諄諭：上本 ‘且悉諄諭’

3) 問：上本 ‘聞’

4) 草報草報：《師門手簡》에는 뒤에 ‘丁巳元二.’가 있다.

BYL0898 (書-趙穆-27) (樊遺內卷4:8右)

答趙士敬【穆】¹⁾

春寒，起處何似？就中聞書院自歲末稍稍來集，殆十餘人，春來勢必大聚云，僕向日之言，可謂隘且妄矣。君無乃傳寫示人乎？阻來者之心，沒賢守之美，若使播出，吾過大矣。千萬千萬勿播，幸甚幸甚。此書尙不示道谷，君能隱之，則保無人知，故敢告。聞遠若見，亦切戒之。專伴懇懇。²⁾

▶ 丁巳年 (明宗12, 1557년, 57세) 1월 12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二月十三日’[추가 ‘寄趙士敬’. 當在詩類, 不書可也.]자로 外集 卷1 〈寄趙士敬, 三首〉(KWP0818) 중 第3首가 편지 없이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十二日書. 是日見於溪堂’[추가 ‘答趙士敬’], 中本 ‘答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奉開 趙生員宅’

2) 懇懇: 初本에는 뒤에 별행으로 ‘三月三日, 見於溪堂’가 있다; 《師門手簡》에는 뒤에 ‘丁巳旬二.’가 있다.

KNL0899 (書-趙穆-28) (癸卷23:8右)(樊卷31:14左)

答趙士敬【丁巳】¹⁾

比來頗阻，欲一邀見於中間，以叙幽抱而未果，遽聞西行迫在明發，勢難摻²⁾袂一別，悵惘無堪。僕近作尋山之遊，本爲避煩計，適會忌祭，已還家矣。《延平書》，領納。僕今年自覺衰憊殊極，看書不得，憤憤度日，尙蘄朋友警發之益，而諸人多有故，今又君去。此間離索之歎，如何可云？琴生被謗，未知何等事耶？近久不見，頃嘗³⁾遇於山澤間，坐語移晷，只問坡詩數句而已。每恐此人將不尋〈遂初賦〉矣，今承所喻，益以爲憂。彼若自侮自壞如此，則雖有賢者與處，尙無救拔之路，況如滉者耶？然不敢遽相外也，當如所戒。大抵朋友間，信及者，或至太執而駭俗；不信者，徇⁴⁾俗而自棄，皆可懼也。所謂太執駭俗者，將非謂左右之不飲酒一事耶？不

▶ 丁巳年 (明宗12, 1557년, 57세) 4월 14일. 禮安.

1) 初本 '四月十四日答書' [추가 '答趙士敬'], 中本·樊本·上本 '答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奉復 趙生員宅'

2) 摻: 初本 '穆'

3) 嘗: 初本·中本 '常'; 中本에는 [부전지 '常'疑'嘗'.][추가 傳本亦作'常'.]이 있다.

4) 徇: 上本 '循'

飲極是好意，但從古聖賢，豈有爲不飲而專⁵⁾廢酒禮者耶？
以是意入泮，恐不無礙行處，故聊言之。若見鄭子中，爲
賀，且致不及書之意。((惟冀好行珍重。不宣。⁶⁾))

5) 專：養校 ['專'恐'全']

6) 不宣：《師門手簡》에는 뒤에 '丁巳四月十四日.'이 있다.

KNL0900 (書-趙穆-29) (癸卷23:9右)(樊卷31:15左)

與吳謙仲·趙士敬·琴夾之.¹⁾

((向得謙仲書，卽報去，未知達否？自得士敬·夾之僉書，無便稽報，恨恨。未審三君當暑耐苦，齏鹽之餘，體履何似？懷想未嘗少輟。溫溪·月川·烏川，皆安慶，判官昆季，皆無事除喪。)) 諸君既未免做學業，亦當勉爲屠龍手段，毋自菲薄爲僥幸計也。今人例以徇俗頽靡與作波流爲上策，處身做業，種種如此。願諸君勿落此窠臼中，幸甚。僕於士敬，臨行破戒，所以矯太過處，非欲其遂爲西晉風流也，亦望矜飭。病中心切，妄言如右。勿經²⁾人眼，又幸又³⁾幸。不宣。謹拜。))

▶ 丁巳年 (明宗12, 1557년, 57세) 5월 25일. 禮安.

1) 初本 '五月二十五日書. 與吳謙仲·琴夾之同寄' [추가 '與吳謙仲·趙士敬·琴夾之']

2) 經：初本·中本·樊本 '徑'；中本에는 [부전지 '徑'疑'經'.][추가 傳本亦作'徑'.]이 있다.

3) 又：初本에는 없다.

KNL0901 (書-趙穆-30) (癸卷23:9右)(樊卷31:16右)

與趙士敬·琴夾之1)

滉屏處如昨，無可晤語，傾想僉君，寤寐耿耿。邸吏傳書，知芹況清安，欣慰不可言。許上舍之意如此，可尙，亦聞崔君懇求刊行，但滉之爲此，本不過自取考閱之便，爲暮年補過之資耳，何敢望行於世？況近復勘過，其疏誤尙多。方此臨改，仍思了此一番，亦恐未爲十分成書。如滉愚下之人，加手先正書，已爲妄矣。若未斷手而徑許入梓，豈不爲人嗤笑而得罪尤大耶？千萬爲許君謝之，人有問者，亦以未成書不可用告之，望望。前日〈命圖〉之輕出，至今悔之，故懇云。((惟僉照。示及時事，深荷深荷。餘幾僉慎保重。謹復。))

▶ 丁巳年 (明宗12, 1557년, 57세) 6월 15일. 禮安.

1) 初本 ‘六月望日書【夾之同書】’[추가 ‘與趙士敬·琴夾之’]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BNL0902 (書-趙穆-31) (樊卷31:16左)

與趙士敬·琴夾之¹⁾

涉夏及秋，想食芹如蔗，久而後知佳境也。此間病暑夏旱，秋雨稍覺洗鬱，然民生可念耳。試近，僉勉以副鄉望。餘付窩，不一。²⁾

▶ 丁巳年 (明宗12, 1557년, 57세) 7월 15일. 禮安.

1) 初本 ‘孟秋望日【夾之同書】’[추가 同前.]；《師門手簡》‘士敬 夾之 僉問 趙琴兩上舍前’. 今按: 初本の 추가 ‘同前’은 바로 앞 편지의 추가 ‘與趙士敬·琴夾之’와 같다는 의미인 듯하다.

2) 不一 : 《師門手簡》에는 뒤에 ‘丁巳孟秋望日.’이 있다.

KNL0903 (書-趙穆-32) (癸卷23:9左)(樊卷31:17右)

答趙士敬【戊午】¹⁾

開筒得書，兼寫示南時甫《遊山錄》并本稿，深荷留意。此稿當速還南君，令其完就首尾，顧病難傳寫，爲患。今君有謄本，何異於吾自謄耶？尤喜。俟看了徐還。數日前，漢中李生珥，自星山來訪，關雨留三日乃去。其人明爽多記覽，頗有意於吾學。後生可畏，前聖真不我欺也。曾聞其太尚詞華，欲抑之，不令作詩，去日朝雪作，試使吟咏，倚馬出數首。詩則不如其人，然亦可觀。今入來筒去，覽後付聞遠見還，爲佳。餘祈學履日新。((謹復。))²⁾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2월 9일. 禮安.

1) 初本 '戊午二月九日'[추가 '答趙士敬']; 中本·樊本 '答趙士敬【○戊午】'

2) 謹復：初本에는 별행에 '三月十七日，見於別墅，十八日，見於川沙宴次'가 있다.

KNL0904 (書-趙穆-33) (癸卷23:10右)(樊卷31:17左)

與趙士敬¹⁾

〔頃者，適因客到，殊未款洽，川沙之會，又以坐遠人多，未遂接晤，爲恨。約尋卜地，欲因赴會汾川而早往²⁾約處，則可從容搜覽而亦不後會期也。今聞昨雨水生，旣難騎涉，若遷³⁾從船渡，慮有抵晚後會之勢，未果依約，恨愧恨愧。〕吾鄉先正如禹祭酒風節，東方古今，豈可多得？立學祀賢，旣昉於世，而吾鄉獨闕，此吾輩之恥也。公與聞遠，有所興慕，而至相與覓地指擬，此意甚可尙也。但公等無力，難於倡作，如滉亦非有力，而方處猜危之際，難勇於倡此駭俗事。假使不顧而爲之，本縣事力之不逮，又如前日面論者，今若失此幾會，後世亦不復有人慮及於此，恐遂成千古之恨也。可爲浩歎。然旣聞有佳處，懷不能禁，近當乘便一往，臨時相報會尋。若彼處誠合置院，徐徐更商議看如何。古稱有志竟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3월 26일. 禮安.

1) 初本 ‘二十六日書’[추기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開 趙生員宅’

2) 往：上本 ‘還’

3) 遷：初本·《師門手簡》‘迂’

成，今何爲⁴⁾獨不然？((不宣.))⁵⁾

4) 爲：中本·樊本·上本·《師門手簡》‘謂’；中本에는 [부전지 ‘謂’更詳, 恐是‘爲’字.]가 있다.

5) 不宣：《師門手簡》에는 뒤에 ‘戊午三月二十六日.’이 있다.

KNL0905 (書-趙穆-34) (癸卷23:11右)(樊卷31:18左)

與趙士敬·琴聞遠¹⁾

庵栖畫裏，景趣超然，無任想味。今日霧捲，則晚天當好，欲踐前約，未知僉可往否？回時抵汾川，船上邀大成小話，亦一佳也。酒壺擔送，令庵僧攜待于船，亦可。謹報。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4월 8일. 禮安.

1) 初本 ‘四月初八日書【與聞遠同在屏庵，是日陪遊島淵上，占得基地。】’[추가 ‘與趙士敬·琴聞遠’]

BNL0906 (書-趙穆-35) (樊卷31:18左)

答趙士敬·李仁仲¹⁾

經年不到瀾臺，聞君獨來棲止，不禁矯首想像也．家奴得病二日而死，其後連有病者，雖一二日皆愈，似非病，然不能無疑，縮頭不出耳．近日觀勢，更無續者，則當會晤．謹此奉復．²⁾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5월 1일. 禮安.

1) 初本 ‘五月一日【與李仁仲在月瀾】’[추가 ‘答趙士敬·李仁仲’]；《師門手簡》‘士敬 奉復 月瀾菴【仁仲未修別簡，問安】’

2) 謹此奉復：《師門手簡》에는 뒤에 ‘初一.’이 있다.

BNL0907 (書-趙穆-36) (樊卷31:19右)

與趙士敬·李仁仲·琴聞遠¹⁾

昨見僧來，知僉復來捷，向企向企。因僧言聞士敬有欲來見之意，適有野興，謂僧云：“吾欲出候霞峯，今當出去。”適僮奴有故，遂輟爲恨。亦有明日，而朝前大成伴書，約以明日會於滄波，要有議事云，已許之矣。十四至十六，連有溫溪行祭事。君若速相見²⁾，今日來此，或明來滄波可矣，不必速，則過十六後乃可。十三日，安東府伯欲過訪。恐君不知諸故，來而相違，則徒勞，故歷云耳。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5월 11일. 禮安.

1) 初本 ‘十一日’ [추가 ‘與趙士敬·李仁仲·琴聞遠’]

2) 速相見：初本·中本 ‘欲速相見’

KNL0908 (書-趙穆-37) (癸卷23:11右)(樊卷31:19右)

與趙士敬·李仁仲·琴聞遠¹⁾

昨擬今日，一葉亂流，往叩山門，夜雨暴漲，遂成阻邈，
坐羨飛鳥而已。仁仲·聞遠明赴龜城耶？有饋乾魚，敢
以浼呈，一破食淡之戒，何如？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5월 29일(그믐).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뒤에 詩 한 수(SNP1021/續集권2<趙士敬·李仁仲·琴聞遠讀書瀾寺>)가 실려 있다.

1) 初本 ‘二十九晦’[추가 同前]；《師門手簡》‘僉奉問 月瀾菴’

KNL0909 (書-趙穆-38) (癸卷23:11左)(樊卷31:19左)

答趙士敬¹⁾

積潦狂漲，平陸成江，咫尺相阻，無任懷想。前呈一絕，聊以寫此，不謂大獲珍酬。披閱莊誦，益知高栖所樂，不與尋常比也。雖承取還，要得捧玩，敢此留之。僧還迫暮，不及數句之和，是可愧也。知尋高世臺等處，恨不與同之。王母城，因舊名不雅，故戲換此名耳，無甚異蹟。惟高世·葛仙，爲眞勝概也。俟水落，當面論。(但水災如許，奈何奈何?)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6월 6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十七日酬明字韻〉 6수(內集 권2〈和趙上舍士敬【五首】〉(KNP0217), 外集 권1〈酬趙士敬明字韻〉(KWP0819))와 〈答李仁仲明字韻, 在仁仲所〉 3수(外集 권1〈答李仁仲明字韻〉(KWP0820), 제2수는 別集 권1〈和仁仲〉(KBP0754), 제3수는 內集 권2,〈答李仁仲〉(KNP0218))가 실려 있다.

1) 初本 ‘六月六日書’[추기 ‘答趙士敬’]

KNL0910 (書-趙穆-39) (癸卷23:11左)(樊卷31:20右)

答趙士敬¹⁾

月離于畢，已涉三朔，停雲懷切，獲接詩筒，兼悉簡喻，披寫近鬱，如親晤對。似聞邑內漂壞處，貴田亦在其中，信否？此亦古人所謂非貧者所宜遭也。視近知遠，失業何限？恫歎恫歎。前日續貂之作，特於閒中遣懷，既寫則不敢祕耳。珍報再投，已是難當，又多過情之云，殆非朋友間責勵之意，汗忤汗忤。索還前詩，又有欲送相質之說，皆在別舍，阻水未及取，當俟後便也。滉從前疏淺，不自韜晦，銜取虛名，誤了多少事，雖至白首沈痾，屏跡田間，尚不得免復有此聲云。聞來惶怖，無地容措。所覲，待闕遷延之際，物論騰發，請止下命，則庶不至狼狽之虞耳。不然，極難所處，如之何如之何？晴霽，或於滄浪等處面論。姑此謝復。

((權上舍悼亡，是滉有服之親，驚痛驚痛。卽承告訃，荷感荷感。))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7월 5일. 禮安.

1) 初本 '七月初五日'[추가] '答趙士敬'

BNL0911 (書-趙穆-40) (樊卷31:20左)

與趙士敬¹⁾

前面依依，行日定於何日？聞君無一馬，行計之窘，推此可知，如何如何？僕事，百計無善策，若近無彈駁，不得已出於下策，如前日面云者。然此豈可爲之事乎？可謂窘之極矣。如有見問，但云“心病自聞奇以來轉劇，計無所出云云”，可也。許上舍 忠吉兄弟，近有書勸吾不可不來之意甚勤，此亦見愛之深，故云然。然今未敢答其書。到泮或見之，密傳感意，兼未及奉答之謝，望望。白紙一束，或資²⁾路用。餘望善行巍占。謹問。³⁾

相見未久，君且無馬僕，勿來告別，先此告謝耳。扇一柄亦呈。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7월 20일. 禮安.

1) 初本 ‘二十日’[추가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開 月川 趙生員宅’

2) 資：初本 ‘自’

3) 謹問：《師門手簡》에는 뒤에 ‘戊午七月廿日.’이 있다.

BNL0912 (書-趙穆-41) (樊卷31:21左)

答趙士敬·琴夾之·金惇叙¹⁾

累承僉問，深荷。但前試僉屈，怪訝則深，亦有後試到頭，僉勉僉勉。似聞夾之徑欲下來，無乃爲計之太勇乎？滉厄會非一，前事已不幸，近又自劾，昧於投機，恐獲罪戾。方此惕厲，未暇一一。²⁾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8월 15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시 〈十一月十二日, 自京寄來〉(內集 권2,〈寄月川趙上舍士敬〉) 한 수가 실려 있다.

1) 初本 ‘秋夕. 夾之·惇叙同簡’[추가 ‘與趙士敬·琴夾之·金惇叙’]; 《師門手簡》‘士敬 夾之 惇叙 僉復 館 趙生員 金生員’

2) 未暇一一 : 《師門手簡》에는 뒤에 ‘戊午秋夕.’이 있다.

KNL0913 (書-趙穆-42) (癸卷23:12左)(樊卷31:21左)

與趙士敬¹⁾

卽日學履何如？滉今已病免，杜門苟保，靜而思之，極無意義。但今人不以士君子之道處人，此等事無路善處，只有喑嘿以待明年作如何計耳。僕卜地陶山之南，未構數椽，而來入軟紅塵裏，恨懷懸懸。聞蓮僧欲先結屋，欲聽其所爲，屋圖寫送于大成及君，欲其招蓮指授，庶或可成。旣而窩兒不意復職，似當上來，吾歸若或未及早春，則恐未遂蓮計也。然君須往大成處，看圖及吾書所云，相與議處，爲幸。((新曆一部送上。得少，聞遠處未送，爲恨。²⁾))

((吾鄉近年多闕榜，或人仍有禮安士子不勤業之論。余聞之，若芒刺在背。其說具於烏川·溫溪等書，今不一一.))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11월 25일. 서울.

1) 初本 '二十五日書'[추기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開 月川 趙生員宅【드래 도싱원】'

2) 爲恨：《師門手簡》에는 뒤에 '戊至念五.'가 있다.

KNL0914 (書-趙穆-43) (癸卷23:13右)(樊卷31:22左)

答趙士敬¹⁾

近兩書踵至，知端居養性，深慰企懷。滉一出山門，非但病日滋，誤恩荐加，控辭百懇，竟無脫免之益²⁾。衆皆以不謝而辭爲大愆，不獲已冒受，從前說盡許多羞恥之事，今皆躬自墮落於其中。細思之，正由一疏求免之誤，種種成誤，以至於此，自歎見事之不明也。奈何奈何？方患脹痰³⁾等證，春和歸計，寤寐懸懸。但預憂其人言競起，又有以沮此路，則尤使人無可免之道耳。溪堂已徹⁴⁾，且嫌其太僻，陶山精舍之卜，最是晚來關心事。蓮閣梨勇自擔當，不待吾歸而欲事營葺，心實喜幸，故前送圖子。顧兒亦他歸，蓮獨受圖，不解見，所以託梧老與君，使指授焉。今聞蓮忽化去，無乃吾之此行不正當，不爲天佑而有此魔事耶？(慨歎慨歎。梧老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12월 28일. 서울.

1) 初本 '十二月除夕前一日'[추가 '與趙士敬']

2) 益：鄭校 ['益'恐'望'.]

3) 痰：上本 '疾'

4) 徹：樊本에는 [두주 '徹'恐'徹'.]이 있고, 上本에는 [두주 '徹'恐'徹'.]이 있다.

云：“欲求他僧可以代蓮者，使代之。”不知其許多緇流中，有能奮起自任者乎？有則幸甚，無則成事之計漠然，非細故也。所諭屋制與燒瓦先後，僧幹未定，姑亦未暇於議此耳。後書所云事，未知公何出如此猥言耶？古人舉世尚其事，又皆有所取重，故或自爲，或爲人，無不可也。今何取而爲人所不爲之事乎？此言若出，大爲怪笑於人，慎之慎之。聞遠書來，頗自奮勵，不知能繼續此志否？新曆一部，傳與聞遠。歲除，惟迓休益珍。不宣。謹復。))

BNL0915 (書-趙穆-44) (樊卷31:23左)

與趙士敬【○己未】¹⁾

近阻懸懸， 倅來， 知有寄窩書。 窩以其婦去夜挽²⁾身， 俗忌斷人， 故代坼來書， 因悉近況， 爲慰。 僕念間無他故， 惟十八日爲忌日耳。 但壺酒之云， 似非荒歲簞瓢中所宜， 如何如何？ 今年何處作重陽耶？ 僕與家兄及梧老， 登翠微峯， 殊有佳致。 不忍獨享其美， 欲遣馬邀君。 人言“浮羅大作重九， 君亦入其洞契， 勢不可來”云， 故停之， 恨恨。 舜舉所送挽章紙， 何不直送而問爲耶？ 僕至今闕慰狀， 愧負千萬。 餘俟後面， 姑此。

▶ 己未年 (明宗14, 1559년, 59세) 9월 12일. 禮安.

1) 初本 ‘己未重陽後三’[추가 ‘與趙士敬’]；上本 ‘與趙士敬【己未】’

2) 挽：上本 ‘婉’

SNL0916 (書-趙穆-45) (續卷5:1左)(樊續卷5:2右)

答趙士敬【戊午】¹⁾

(〔承示意，具悉.〕) 所示²⁾事，適與洞中會坐，詢之僉位，皆云：“雖不更進請，似無害事.” 儒家設具請客，本爲難事，請官員，尤似非宜. 況以君簞瓢屢空³⁾之家，何能學人修飾邊幅耶? 惟量照處之. 僕今日得京書，大有所未安者，惘然如失，亦無出入過從之興. 只緣已諾，故不敢負前約耳.⁴⁾

▶ 己未年 (明宗14, 1559년, 59세) 9월 19일. 禮安.

[年代考] 續集의 題下 小註에 ‘戊午’라고 되어 있으며, 續草本·樊本·上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初本·中本에 따라서 이 편지를 己未年에 보낸 것으로 보았다.

1) 初本 ‘十九日. 是日安相書來, 云: “近有講《易》之筵, 將有召命云云.”’ [추가 ‘與趙士敬’], 中本 ‘答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拜復 月川趙生員宅’

2) 示: 初本·中本·樊本·上本·《師門手簡》 ‘云’

3) 空: 上本에는 없다.

4) 前約耳: 《師門手簡》에는 뒤에 ‘重重九.’가 있다.

BNL0917 (書-趙穆-46) (樊卷31:24右)

答趙士敬¹⁾

筒來，滿得投瑯，披玩欣沃，不覺滯思之泮然也．所索拙句，今午聞遠適至，已付之，想尋收覽．筒且留此，病中或得數句，當納以奉還，惟照．餘未一一．²⁾

▶ 己未年 (明宗14, 1559년, 59세) 9월 29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題幽居〉9수(外集 권1〈題士敬幽居【九絕】〉, KWP0821), 〈十月九日來, 次謝相訪二絕〉(外集 권1〈次謝士敬相訪【二絕】〉, KWP0822), 그리고 〈次韻芙蓉峯諸作〉7수(外集 권1〈次韻士敬芙蓉峯諸作〉, KWP0823)가 실려 있다.

1) 初本 ‘二十二日, 來臨草堂. 二十三, 進謝. 二十九, 答書.’[추가 ‘答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復 芙蓉主人’

2) 一一 : 《師門手簡》에는 뒤에 ‘卽夕.’이 있다.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BNL0918 (書-趙穆-47) (樊卷31:24右)

與趙士敬¹⁾

前日適會諸親之來，未暇開懷，不知近況如何？就中
《詩釋》，搜之不²⁾得，或在君所耶？昨琴夾之伴索，君
若覽訖，送之何如？草草.³⁾

▶ 己未年 (明宗14, 1559년, 59세) 12월 15일. 禮安.

1) 初本 ‘十二月望日’[추가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拜白 月川’

2) 不：《師門手簡》‘末’

3) 草草：《師門手簡》에는 뒤에 ‘望日.’이 있다.

BNL0919 (書-趙穆-48) (樊卷31:25右)

與趙士敬【○庚申】¹⁾

氣味想佳. 近緣歲時, 人事擾煩, 殊無好況耳. 聞君去年困於納清, 清二升送去. 分送之餘, 甚略可笑, 補納一番, 何如²⁾?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1월 13일. 禮安.

1) 初本 ‘庚申正月十三日’[추가 ‘與趙士敬’]; 上本 ‘與趙士敬【庚申】’; 《師門手簡》 ‘士敬 奉開月川 趙生員宅’

2) 何如: 《師門手簡》에는 뒤에 ‘十三日.’이 있다.

BNL0920 (書-趙穆-49) (樊卷31:25右)

答趙士敬¹⁾

前有芙蓉之約，不禁夢繞烟霞之上，昨戒兒子將以今日著鞭，早起看日候，似有雨徵，方此遲徊，適奉飛簡，招以明日，敢不早赴？所慮，天公能不作戲劇與否耳。安相之薨，三四日前聞之。雖過於畏愼，不肯擔當國事，清儉向善，可謂難得之人。今又失去，痛怛何勝？餘俟對晤。謹復。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3월 22일. 禮安.

1) 初本 '三月二十二日'[추가 '與趙士敬']

KNL0921 (書-趙穆-50) (癸卷23:13左)(樊卷31:25左)

與趙士敬【庚申】¹⁾

昨遊幸甚. 雖以人多不盡懷, 大概江山之勝, 得未曾有, 深足自賀也. 潭名久被俚俗無稽之呼, 聞之, 令人恍然動心僭思, 易一佳名, 適公有言, 何復²⁾占悵之意? 大抵江山風月, 天地間公物, 遇之而不知賞者滔滔, 其或占勝而認爲一己之私者, 亦痴矣. 洛水之過吾鄉, 勝處非一二, 而公其品題³⁾, 則當以月川爲第一, 宜仁居其次. 風月美號, 歸之第一, 何疑焉? 但絕境佳名, 人當思不至相負, 乃可貴也. 昨日舟中奉規之言, 看君意象, 略不領略, 何耶? 人氣質之病, 多見於剛柔二字. 周濂溪曰: “剛善剛惡, 柔亦如之, 中焉止矣.” 知爲學者矯剛柔之偏而趨於中道, 所以爲貴. 以滉所見, 兩君皆不事學問以矯其偏, 只以客氣相爭, 齊·楚得失, 未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3월 24일. 禮安.

1) 初本 ‘二十三日, 陪遊芙蓉. 二十四日書’[추가 ‘與趙士敬’]; 中本·樊本·上本 ‘與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復 趙上舍前’

2) 何復: 初本에는 [추가 ‘何復’下, 恐脫‘有’字.]가 있고, 中本에는 [부전지 ‘復’下, 疑有‘有’字.][추가 傳本亦無.][此不書‘有’字.]가 있다.

3) 品題: 上本 ‘題品’

見其一可也. 又究極言之, 琴君雖近於柔, 不盡爲柔軟, 而或出於正. 公雖自負於剛, 而不盡爲剛善, 反多出於强戾暴悍之病, 少無謙恭遜順虛以受人之意, 其害德妨物, 有甚於琴君之爲. 吾恐執此終身不⁴⁾變以至道, 則德不加進, 與物睽絕, 兀然有牛山濯濯之憂, 其於光風霽月·清明高遠, 無一毫滯吝氣象, 爲如何耶? 當是時, 潭之美名, 無乃不如俗號之爲安乎? ((呵呵.))⁵⁾

4) 不 : [두주 一本, '不'下有'知'字.]가 있다 ; 初本·中本 '不至'; 樊本·上本·《師門手簡》 '不知' ; 初本에는 ['至'에 교정기 '知'가 있고, 中本에는 [부전지 上'至'恐衍, 更詳.][추가 上'至', '知'字之誤, 元本亦有.]['至'에 부전지 此不書.]가 있으며, 定草本에는 [추가 手本, '不'下有 '知'字.]가 있다. 今按: 《師門手簡》이 원고본이라고 할 때 이것은 '不知'가 되는 것이 옳을 듯하다. 初本에서 '不至'로 잘못 전사되어 교정기가 달렸으나 中本을 편성할 때 본문에 반영되지 못하고 편집 과정에서 교정기를 붙이는데 그쳤다. 무슨 연고인지 庚本에서 또한 본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가 癸本에 이르러 본문은 그대로 두고 상란에 교감기를 두었다. 그러던 것이 樊本에서 비로소 본문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다. 여기에서는 기준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되 관련 편집이력을 밝혀 둔다.

5) 呵呵 : 《師門手簡》에는 뒤에 '卽日.'이 있다.

BNL0922 (書-趙穆-51) (樊卷31:26左)

與趙士敬¹⁾

近日處約，爲況何如？僕且此無他。漢中有金生就勵²⁾者，曾與相識，携一後生，來寓溪齋，日間有所紬叩，不無相益。蓋其志不專汲汲於進取一事故也。前日所議事，竟何以處之？中間似多有齒舌，謂公之於彼家，責出田僕太多，殊未安於聽聞，如何？愚意一二則太少，四五則太多，於此獨未可酌中善處，使美事終不歸於不美乎？頗審物情，似歸咎於老拙導公如此，不能愬然於所處之得失也。³⁾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12월 3일. 禮安.

1) 初本 ‘臘月初三日’[추가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寄問 月川 趙生員宅’

2) 勵：初本·中本·上本·《師門手簡》‘礪’

3) 得失也：《師門手簡》에는 뒤에 ‘臘月初三.’이 있다.

BNL0923 (書-趙穆-52) (樊卷31:27右)

答趙士敬【○辛酉】¹⁾

冬間傳聞，君挈家歸依於郭大夫，意謂可免於凍餒矣。數日前見浮羅諸人，始知其計竟未遂。然則何以過了三兩個月耶？良苦良苦。示事，終歸於不成耶？與俗人謀事，難得好出場，可歎奈何？漢中舊知生金就勵²⁾者，見寓溪舍，欲一奉面，旬後當遣奴馬，庶幾一來話宿，爲幸。不宣。姑復。³⁾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1월 5일. 禮安.

1) 初本 ‘辛酉正五’[추가 ‘與趙士敬’]；上本 ‘答趙士敬【辛酉】’；《師門手簡》‘士敬 奉復 趙生員前 奉先庵’

2) 勵：初本·中本·上本·《師門手簡》‘礪’

3) 姑復：《師門手簡》에는 뒤에 ‘辛正五.’가 있다.

BNL0924 (書-趙穆-53) (樊卷31:27左)

與趙士敬¹⁾

前因客至，避去太早，未遂款晤，恨恨。僕竟爲病挽，不作朝天之行，俯仰愧慄，奈何？琴聞遠處答簡，傳付其奴，令其必達。又李參奉種茂，曾送來宋判書書簡，有故未答，今此答送，亦望付李奴之往醴者，使無沈浮，幸幸。餘未悉。²⁾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2월 6일. 禮安.

1) 初本 '二月初六日'[추가 '與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開 趙生員宅'

2) 餘未悉: 《師門手簡》에는 뒤에 '辛酉二月初六日.'이 있다.

KNL0925 (書-趙穆-54) (癸卷23:15右)(樊卷31:27左)

答趙士敬【辛酉】¹⁾

書來，具悉近況，如濯熱以清泠之水，幸甚。僕比日，未免俗撓。有流傭在戶者，病於他而來死，其終可虞，故出在陶山，今已數日，而家無他患，方以爲適。昨得宜寧書報，妻母病革，事且難料。自以病身行止之間，又有甚礙，欲去不得，止令窩兒馳往，明當發去。見此來辭，甚爲憂煎。人事如此，何時而得身入萬順境界中耶？所詢芙蓉絕第二句，“芙蓉曾見足佳名”云爾，其餘諸作尙多，今此無興，未暇寫呈，可俟後也。示及“清遠”·“光霽”二號，絕有佳致，可爲彼中山水賀也。其末所自警之語，足見顧名省身策勵不已之意。滉於此占得佳勝如此，每念造物所餉，不爲不厚，已逐處命名，又以詩句略略點綴。時自惕念，只如此虛誇，所以律身者疏脫，恐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4월 18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제목 아래에 趙穆이 退溪에게 보낸 편지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1) 初本 ‘清和十八日’[추가 ‘答趙士敬’]；中本·樊本·上本 ‘答趙士敬’；《師門手簡》‘士敬 拜復 趙上舍 芙蓉主人’

古人所謂“山園甚佳而人志則荒”者，人將以此加之我也。今見來喻，實獲我心，惟當相與勉之，庶不歸於自棄耳。琴夾之謂文山不當出，其意未可喻，所論之意，鄙見亦然。文山乞斬董²⁾宋臣，不聽則致仕而去，若將終身；及其再出，則所謂被髮纓冠之急，何暇計陳宜中耶？今欲指小節以議大節，恐未免蚍蜉撼樹之譏也。（溪齋中，大材子³⁾二人則去，而審與安道，隨來于此矣。）近少俟事定，當⁴⁾遣僮驢，庶幾一來款語。（姑此奉報。）⁵⁾

2) 董：初本‘董’

3) 大材子：中本에는 [부전지 ‘{大}材子’, 更詳.] [추가 傳本同.]가 있다.

4) 當：定草本·庚本·擬本·甲本에는 없다；甲本에는 [두주 一本, ‘定’下有‘當’字.]가 있다；擬校 [‘定’字下, 手本有‘當’字.]

5) 奉報：《師門手簡》에는 뒤에 ‘辛酉清和十八日.’이 있다.

KNL0926 (書-趙穆-55) (癸卷23:16右)(樊卷31:29右)

與趙士敬¹⁾

近日簞瓢興味，如何？知君屢空，自困涸轍，漠然如不知。頃有饋米數石者，又緣節日臨時，窮族未備祭需遑遑者多，故分以救急，又未果。只不腆荒稻十斗送似，笑領，以寬數朝之窘，何如？聞君與烏川諸人，共作清涼之遊，不審何日定躡謝屐？病脚未同勝踐是恨。歸時，可共枉陶舍，披說仁智之樂，以洗我滯鬱耶？僕明或明明，出江上耳。餘在面款，不一。

窩姪輩，欲於陶山構小屋，意謂與聞遠·德弘等，隨便草造，故不爲禁止。今聞兩道出回文，與於其事者，二十餘人云。若如此煩張，則與前日所止之舉，何以異乎？況其中彼本無意而并入其名者非一二，此又不可之大者。非徒此也，僕之卜幽居，本欲爲養閒養病計耳，豈欲聚集童蒙輩，勸課誦讀，爲學長役耶？既不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5월 7일. 禮安.

1) 初本 '五月初七[추기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問 芙蓉主人'

副所望，則咎責群興，所不能堪，故爲今之計，不得已
又當止之。而窩等已歸榮川，姑告於君，須速以此意，
通于聞遠。若往竹溪，必過榮川而見窩等²⁾，爲詳告停
之。³⁾

2) 而見窩等：初本·中本·《師門手簡》‘接而見窩等’

3) 停之：《師門手簡》에는 뒤에 ‘初七.’이 있다.

BNL0927 (書-趙穆-56) (樊卷31:30右)

與趙士敬¹⁾

近何久不來耶？僕來此，靜中之味不淺，然豈無離索之懷？況魚梁之築不遠，老夫亦當返溪居，今明須來顧爲幸．僕奴馬皆病，不得送去，恨恨．然蔡家必有之，借來爲佳．壠雲，時方匠役，雖來，居處不穩，未敢多日，只數日共聽鳴泉，可也．《性理大全》初卷，在几間否？有所考處，携來亦望．又〈夙興夜寐箴〉，若有傳本，并持示，幸甚．餘俟面．²⁾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6월 17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七月十八日〉, 즉 7월 18일에 보낸 시 한 수(內集 권3,〈贈趙士敬〉, KNP0263)가 실려 있다.

1) 初本 ‘六月十七日’[추가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問 芙蓉主人’

2) 餘俟面：《師門手簡》에는 뒤에 ‘十七.’이 있다.

BNL0928 (書-趙穆-57) (樊卷31:30右)

與趙士敬¹⁾

近況想佳. 僕家中尙未復, 今偶出江舍, 大成亦到, 至暮當還溪上耳. 前去記草, 進髡付還爲望. 聞遠日與相從否? 一見殊未從容耳.²⁾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9월 19일. 禮安.

1) 初本 '九月十九日'[추가 '與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開 月川'

2) 從容耳: 《師門手簡》에는 뒤에 '十九日.'이 있다.

KNL0929 (書-趙穆-58) (癸卷23:17右)(樊卷31:30左)

答趙士敬¹⁾

見書，知已回駕，向慰。前日記草，有未定處，本不當聽公取去，只緣記中創爲新論，未知得理與否，欲公更詳而指示病敗耳。不意公悵回一句鑄針，而徑播於人人。往者，《天命圖說》正如此，吾不懲，故復至於此，可恨。幸速收還爲懇。清遠之會，甚適高情矣。似聞聞遠將大張唱筵，信乎？未知聞遠之力，能了此後，不至於困蹙之更甚耶？果爾則爲親之事，何敢勸止？不然，恐一朝得閭巷咨嗟之末，未足以償後日貽親之憂也。況古云“孝子仁人之所以樂其親，不在於外至之榮耀”耶？吾見後生輩，得一小小名字，便絕爲傾倒做一件平生大事，可憫²⁾所見之不廣也。前日，君辱和拙句，攜至陶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9월 22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시 〈秋日到陶山發篋得士敬詩次韻〉(內集 권3<秋日, 獨至陶舍, 篋中得趙士敬詩, 次韻遣懷>, KNP0271) 한 수와 〈次諸君清遠臺高會韻【十月二十四日】〉(續集 권2, SNP1035) 한 수가 실려 있다.

1) 初本 ‘二十二日’[추가 ‘答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復 月川’

2) 憫：初本·中本·定草本 ‘憫’；上本 ‘悶’

山，何不見示而藏之弊篋中？吾近出偶檢而得之，兩詩皆好，深足慰滿人意也。漚韻續貂，適因曠暮，今未寫呈，隨後可也.³⁾

3) 可也：《師門手簡》에는 뒤에 ‘菊月廿二日夕.’이 있다.

BNL0930 (書-趙穆-59) (樊卷31:31右)

答趙士敬【○壬戌】¹⁾

分席後，歲時人事，逐日擾擾，加以遽聞宗姪之喪，悲冗非常，不知三元之爲慶。書至，知侍迓新休，甚慰，且賀且賀。近又有新舊主餞迎等事，公私雜撓，更迭不絕。要之，此月中未得閑養意味也。公出無驢僕，禮俗往來，安得如意？惟當閉門做工，是爲第一義，勉之勉之。謹拜復。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1월 3일. 禮安.

1) 初本 '壬戌正月三日'[추가 '答趙士敬']；上本 '答趙士敬【壬戌】'

BNL0931 (書-趙穆-60) (樊卷31:31左)

答趙士敬¹⁾

前蒙鐫誨克己復禮說, 朱子所稱“必訓作理”一句, 惛甚, 終未得理會, 敢茲再稟. 按《心經附註》則作‘又’, 考本文則作‘必’字, 雖未知某字爲勝, 而詳其語勢, 則似皆連²⁾上句讀. 蓋既不快意, 又訓作理. 既不快意, 故必訓作理, 皆不得已而強通之辭也. 所謂“然後已”者, 乃據昔日不快之時, 必如此然後已, 亦不得已而強已之已, 非謂 今既通之後, 決定之辭也. 不然, 則其下方云“今乃知”云爾, 則文勢亦倒置矣. 且朱子此說, 專爲容貌詞³⁾氣上加功⁴⁾, 故若曰“不必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5월 10일. 禮安.

[資料考] 앞 부분에 수록된 것은 趙穆이 退溪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것은 《月川集》권3에도 ‘上退溪先生’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初本에는 趙穆의 편지 뒤에 “七月十一日, 見於退溪. 方檢《語類》, 指示曰: ‘前日汝所言良是.’ 因曰: ‘看書最是難事.’”가 있으며, 中本에도 [부견지 ‘後檢《語類》正論復禮訓詁, 乃覺其非, 故此說自以爲誤.’]가 있다. 즉, 退溪는 이 편지에서 《心經附註》 권1,〈敬以直內章〉에 보이는 朱子의 “先聖說克己復禮, 尋常講說, 於‘禮’字每不快意, 必訓作‘理’字然後已. 今乃知其精微縝密, 非常情所及耳.”(《朱子大全》권43, 〈答林擇之〉)에 대한 趙穆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논하였으나, 뒤에 《朱子語類》에서 克己復禮에 대해 논한 곳을 읽고서 趙穆의 해석이 옳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1) 初本 ‘五月十日書’[추가 ‘答趙士敬’]; 《師門手簡》‘復芙蓉主人書’

2) 連: 初本 ‘遇’

3) 詞: 上本·《月川集》‘辭’

訓作理字，而據禮字自好，如一視一聽一言一動，以至靜時默時坐時立時，無不以禮，則自然心存於靜⁵⁾，而有以克己之私矣。此正精微縝密之義，而從前不悟，今乃知其如是”云爾。況朱子亦謂“喚做禮而不謂之理者，有著實處。只說理，却空去了。這個禮，是天理節文，教人有準則處云云。”此一段說，具在《論語集註大全》中，自作明證。今復攬取空虛無形影之理字，以解著實有憑據之禮字，而欲⁶⁾學者解惑，似無意謂。今《集註》所謂“天理之節文”，則非如只“訓作理字”之謂也。只訓作理，則語空理而遺實事也。必兼言天理之節文，然後言實事而本於理也，亦所謂“精微縝密”之訓也。固不可以昔日只訓作理者，爲今日兼舉節文之訓也；亦不可以今日節文之訓，爲前日只訓作理之語也。但恐如此等語，稍解文字者，一看便破，豈有高明獨見，精義入神，而反不以爲然者乎？穆平日素無分寸之功，茫無一得，而不自涵泳以俟發蒙，而徑以乖謬之見累犯函丈，固不免於⁷⁾躁

4) 功：初本‘工’

5) 靜：初本·《月川集》‘正’

6) 欲：初本‘言’

7) 於：初本에는 없다.

迫偏暗之罪。然心中憤悱，則不得不一發也。幸有以教之。

咫尺伊阻，杳若遐邈，書筒之來，欣得好音，以慰岑寂。⁸⁾ 溪舍只有柳·金·鄭三人尙留，餘皆散去耳。獐穎，荷惠甚珍，爲其曾所未試故爾。所諭《心經》論克己復禮處，朱子所稱“必訓作理字然後已”之說，辨析縷縷，指出鄙見之差，足以開發懵惑，不但以唯阿爲悅而止，甚幸甚幸。然在滉滉見，猶有所未釋然者，亦不敢以唯阿爲悅而止也。滉豈不知先生此一段說話，專爲容貌辭氣上加工而發？所以必用前日之說，而不敢從盛意者，亦以其語勢與義理並先生平日訓釋諸書之例，而知其必不然也。蓋以語勢觀之，“尋常講說”，正爲其不得精切的當之訓，故每不快意。至“訓作理字”，然後始精切的當無餘蘊而快於意，故乃已。所謂理字之訓，卽指今《集註》“天理之節文”六字而言耳。既有精切之訓，然後所謂精微縝密者可見，故“今乃知”云云。所謂今乃者，正指其訓作理字快意之後而言也。不然，若如公說，尋常訓說，既不快意，訓作理字，又不快意，兩語皆說不

8) 寂：上本‘寂’

得禮字意恰好處緣何來歷，遽能知其精微縝密如此耶？此語勢之不然者然也。若以義理言之，所謂“容貌詞⁹⁾氣”，以禮之節文顯著者言之。然節文顯著，何莫非性命之理，流行發見，無物不體，無時不然？即公所謂“一視一聽，以至一坐一立，無不以禮”者，是也。故以性理言則精微，以節文言則縝密，表裏精粗，兼舉無遺，故云“非常情所及耳”。若如公說，以訓作理字爲虛爲不快，而只見得容貌詞¹⁰⁾氣不可不謹爲重處，則是只說得表與粗一邊了，其偏枯不仁甚矣，何有於“精微縝密，非常情所及”耶？此又義理之不然者然也。且先生門人述先生訓釋諸書處，云：“一字未安，一詞未備，必沈潛反覆¹¹⁾，或達朝不寐，或累日不倦，必求至當而後已。”今如公說，尋常既不快意，訓作理字又不快意，然且苟然而遂已，則其視門人所述之禮¹²⁾，合乎不合乎？愚恐先生之必不然也。今徒見先生只說訓作理字，而不及天與節文等字，遂以爲單提理字，誤釋禮字。公誠以爲先生釋禮字曰“禮，理也”乎？雖曰向來未定之

9) 詞：上本‘辭’

10) 詞：上本‘辭’

11) 覆：上本‘復’

12) 禮：《師門手簡》‘例’；上本에는 [부전지 ‘禮’字可疑.]가 있다.

說，必不如是之疏鹵無情理也。況所引《論語》本小註，先生說“喚做禮而不謂之理”一段，乃指孔子告顏淵時，所以不言理而言禮之意如是云爾，非論訓釋禮字之義。今引以爲證，尤未敢聞命也。然此意已曾略陳，未蒙領思，顧乃愈執高見，說得愈密愈堅，固無由入得外說。旣蒙不鄙，勤枉論辨¹³⁾，不容嘿嘿，聊復瀆告，不敢盡所欲言也。黃毛筆一柄·海衣一張附上，并照視至。山舍尙未通人，亦未期晤，臨風依然。¹⁴⁾

聞權景受又喪偶，眞所謂人生儘鮮歡也。

13) 辨：《師門手簡》‘辯’

14) 依然：《師門手簡》에는 뒤에 ‘卽日.’이 있다.

SNL0932 (書-趙穆-61) (續卷5:9右)(樊續卷5:10左)

與趙士敬【壬戌】¹⁾

苦熱近年所無，不審侍奉爲況如何？僕矚山舍底平，適又土純來，相與來處，纔四五日，而魚梁事作，明將還入溪上矣。舍空數月，燕沒已極，今雖芟闢，又將數月之空，心事恨未可賞適也。麥五斗，入一布囊封上，幸補輸公債之缺。固知濡沫之可笑，然當其缺輸時，升斗亦不爲無益也。布囊亦勿還。²⁾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6월 21일. 禮安.

[編輯考] 이 편지는 續集 권5의 趙穆에게 보내는 편지들 중 마지막에 편성되어 있지만, 편지를 쓴 날짜에 근거하여 이곳으로 옮겼다.

1) 《師門手簡》‘士敬 奉問 芙蓉主人’

2) 勿還：《師門手簡》에는 뒤에 ‘謹問. 壬戌夏季廿一.’이 있다.

BNL0933 (書-趙穆-62) (樊卷31:35左)

與趙士敬¹⁾

月已改矣，公東海之行，近想當發．公出無驢馬，何能如意來告去？須徑去，勿強來爲．²⁾ 到彼見士純，多問多問，兼其伯郡守君處，亦致問意，爲佳．生長東海之濱，白首未成一遊，今因公壯遊深慨，長爲大方之家所笑也．遊錄竚俟，以資病漢臥遊之興，亦一段奇事耳．此書亦勿須專報，報留付蔡·琴兩君處，隨便轉來，爲佳．餘萬加珍悖，幸甚．謹拜．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9월. 禮安.

1) 初本 '九月'[추가 '與趙士敬.']

2) 爲 : 中本에는 [부전지 '爲'下恐有闕■■■.]가 있다.

BNL0934 (書-趙穆-63) (樊卷31:36右)

與趙士敬¹⁾

聞遠飲散後，未聞消息。其於徵責等事，何以支堪？觀此舉措，似無好出場也，如何如何？就中昨黃仲舉寄書，兼問《心經》·《近思錄》所疑處，不得已檢本以答之。《心經》自聞遠處轉在君所，進人付送爲望。且向者，鄭子中索題桐江·栗里等畫，已有絕句，曾以示君，君無乃有謄草否？其本稿，尋之不得。子中今來索還，欲題而記念不得，可笑。如有謄草，并須寄來，幸甚。《理學錄》脫草所入空冊，已告黃仲舉，俟其來送呈，惟照。謹此奉問。²⁾

前日大成邀席事，可笑。今日又被幹之固邀，黽俛³⁾赴去，未知復惹生何事耳。⁴⁾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10월 19일. 禮安.

1) 初本 '陽月十九日'[추가 '與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奉問 趙生員 案下'

2) 奉問: 《師門手簡》에는 뒤에 '壬戌陽月十九日.'이 있다.

3) 俛: 初本 '統'; 《師門手簡》 '勉'

4) 前日……何事耳: 初本·中本·《師門手簡》에는 低一字로 되어 있다.

BNL0935 (書-趙穆-64) (樊卷31:36左)

與趙士敬¹⁾

近日讀書玩理，想益有趣。似聞永陽之行，遂已停罷，未知信否？《理學錄》草本一冊，并空冊筆墨，呈去，煩爲下手，幸甚。然適意隨便，不須趁程也。前所節抹，覺似太略，近更加批抹一過，未必盡得其宜。其有未穩處，稍復整頓，何如？且每人傳首，皆當有“史傳略”三字。自元以下，未盡追書，須依樣一例書之。其書全傳者，去‘略’字，爲佳。冷齋硯冰，炭一石，聊備地爐之熏。白紙一束，或納謄書之徵。凍簡草草。²⁾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12월 9일. 禮安.

1) 初本 ‘十二月初九日’[추가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問 是齋 案下’

2) 草草：《師門手簡》에는 뒤에 ‘初九日.’이 있다.

KNL0936 (書-趙穆-65) (癸卷23:18右)(樊卷31:37右)

答趙士敬【壬戌】¹⁾

〔前日人還，知侍奉出外，今得書，又知好還，欣慰欣慰。《理學錄》，得蒙寫諾，幸甚幸甚。〕示喻以忿懣爲切己病痛，若非實下體察克復之功，何能自知之審至此耶？知過固難，改過不吝爲尤難。只在自家能振勵勇爲，他人何得有與於其間哉？《近思錄》大目，謾寫呈納，其細目則公筆自好，何必求野鶩耶？“關楨²⁾”，隨後考示爲幸。“棐”之爲‘榧’，年間亦考得，不知“訓輔”之言，是在何時之謬耶？〔齋中三人，非久將散，今日與聞遠輩往遊丹砂·月瀾等處耳。念間之來，企企。俟面，不具。〕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12월 12일. 禮安.

[資料考] 《師門手簡》에는 “何能自知之審至”까지만 실려 있다.

1) 初本 ‘十二日’[추가] ‘答趙士敬’；中本·樊本·上本 ‘答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復 月川’

2) 楨：初本 ‘振’

BNL0937 (書-趙穆-66) (樊卷31:37左)

答趙士敬¹⁾

承問感荷。落馬不至傷損，但有可寒心事。賴馬適不驚躍，因得無事，是爲幸甚耳。城主之罷，出於不意，恨深。昨與大成往餞，夜還，方以餘憊臥調齋中耳。竹妓謝狀成送，照後封授，爲佳。君出無驢馬，相見何能如意？雪滿溪山，徒有訪剡之興。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12월 18일. 禮安.

1) 初本 '十八日'[추가 '答趙士敬']

SNL0938 (書-趙穆-67) (續卷5:2右)(樊續卷5:2左)

答趙士敬¹⁾

城主罷行，出於愆遽，恐或鄉所及司馬未及設餞，今得示，知及行之猶不失情禮，不系於備不備，幸甚幸甚。但諸處上下事，此亦略聞。此事非常乖義，何可冒受乎？滉已令人告于鄉所，使其具白兼官，入庫堅封，以待新官之來，而聽其所處。又恐言傳或差，今早又簡諭于鄉所矣。旋聞兼官已還，本官想未及入庫，可慮可慮。見罷之後，一物皆非所擅，況如許事乎²⁾？鄉所聽令開出，甚爲無理，異日事出，則同受其罪。奈何？（大抵城主事事過當，可惜其終自取困也。）³⁾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12월 21일. 禮安.

1) 初本 '二十一日'[추가 '答趙士敬']

2) 況如許事乎：初本·中本·樊本·上本 '況如許濫分之乎'；續草本 [추가 '事'上, 初本有'濫分之'三字.]

3) 大抵……困也：續草本에는 없고 해당 내용이追記되어 있다.

BNL0939 (書-趙穆-68) (樊卷31:38右)

與趙士敬【癸亥】¹⁾

春雪凝寒，氣味何似？僕閉門護寒，尙多愆度，爲悶。
筆墨，無乃已乏？今往各一。新曆一部，并視至。俟暄
暖，當會於精舍耳。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1월 23일. 禮安.

1) 初本 '癸亥正月二十三日'[추가 '與趙士敬']; 中本 '與趙士敬【○癸亥】'

KNL0940 (書-趙穆-69) (癸卷23:18右)(樊卷31:38右)

答趙士敬【癸亥】¹⁾

昨日鄙言，亦有如所慮之弊，但直道而行，攻人不避，有所當施處，有不當施處。如昨所論等處，率意用此，則非但有隨人厚薄以行胸臆之嫌，其未必至於立威勢招權力之醜。況已欲推吾所好，而攻人之不知推奉者，至發於朝論而立落人物，此實分黨相攻之漸，尤非所以處此世而安此無狀一老物之道也。故甚躊躇於此一事，公乃以模²⁾稜爲憂。然則亦欲露稜於此等處耶？（示《節要》書二冊，送去，杏花絕句，改補兩字，還呈，并照。謹拜復。）

▶ 癸亥年（明宗18, 1563년, 63세）1월 27일. 禮安.

1) 初本 ‘二十七日. 邑主梁成海, 被臺劾見罷. 或傳子中所謂 [추가] ‘答趙士敬’ ; 中本·樊本·上本 ‘答趙士敬’

2) 模 : 初本·定本 ‘摸’

SNL0941 (書-趙穆-70) (續卷5:2左)(樊續卷5:3右)

與趙士敬【癸亥】¹⁾

今日乃新宰上官之日，齊行之議，竟何如²⁾處之？更思之，齊行則太近俗，俱隱則太近簡，只有司往見，則不至於失體³⁾，而可行於久遠也。如何？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2월 2일. 禮安.

1) 初本 '仲春初二. 新宰, 郭趙'[추가 '與趙士敬']; 中本 '與趙士敬'

2) 何如: 初本·中本·樊本·上本 '如何'; 續草本에는 [추가 '何如', 初本'如何'.]가 있다.

3) 體: 初本·中本·樊本·上本 '禮'

BNL0942 (書-趙穆-71) (樊卷31:39右)

回答趙士敬¹⁾

回簡，具知示意．城主昨宿甕泉，則今日何故不來？可怪耳．府伯處簡修送，但其禁門苛甚，無由呈達．故安奇察訪處小簡，并修去．若未呈簡，依此簡藉安奇圖之，幸甚．適因客來，草草．²⁾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2월 2일. 禮安.

[資料考] 《師門手簡》에는 “處小簡” 이하만 실려 있다.

1) 初本 ‘同日’[추가 ‘回答趙士敬’].

2) 草草 : 《師門手簡》에는 뒤에 ‘初二.’가 있다.

BNL0943 (書-趙穆-72) (樊卷31:39右)

慰趙士敬¹⁾

傳聞嗣孺之疾，竟至不救，不勝驚怛驚怛。慈念本重，況在君事，所系尤重耶？然莫非天也，天豈終昧乎？十分寬抑，以慰親意，甚善。病餘不能一一。謹奉慰。²⁾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7월 3일. 禮安.

1) 初本 '七月初三日'[추가 '慰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慰 趙生員宅'

2) 謹奉慰: 《師門手簡》에는 뒤에 '癸亥七月初三日.'이 있다.

KNL0944 (書-趙穆-73) (癸卷23:18左)(樊卷31:39左)

答趙士敬¹⁾

《安道還，得書具悉.》示喻悼憫²⁾之深，果無可比. 但《家禮》，不成殤者，只云“哭之以日易月”，而別無論適子當爲後不成殤者之如何. 以意推之，只得如公所示爲當. 但如今爲長子斬衰三年之服行之者，亦未有聞，獨於此如是處之，恐又有“問無齒決”之譏，不知於公意如何？吾意於中亦當斟酌以處爲當. 所謂素帶亦不當用布，經帶亦可耳. 《謹復.》³⁾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7월 4일, 禮安.

1) 初本 ‘四日’[추가 ‘答趙士敬’] ; 《師門手簡》 ‘士敬 奉復 趙生員宅’

2) 憫 : 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師門手簡》 ‘悶’

3) 謹復 : 《師門手簡》에는 뒤에 ‘七月初四日.’이 있다.

KNL0945 (書-趙穆-74) (癸卷23:19右)(樊卷31:39左)

與趙士敬¹⁾

近頗阻闊，嚮風悠悠。昨昨見鄭子中，吾未曾言及於君，而彼先念問，且曰：“何以治行赴試？”竊云：“無以爲計。若往慶州，自彼可至於試所矣。”子中云：“然則自吾縣至慶州，吾當措給以送。”謂竊須卽以此意通于士敬，令其自此得人馬，以抵吾縣，則其後吾當處之。故竊委人通報云云。子中爲君之意，可謂曲盡矣。及見君答簡，則大與子中之意相反，無乃竊兒書辭不達子中之意而然耶？不然，將非以過門不入爲憾而云爾耶？此則果爲子中未盡處，然彼意豈不以竊既受其託傳之語，行當知吾意故然耶？大抵吾黨中，雖或有小過，要當盡其委曲之實而情恕豁然，是爲相知之間。若才有小違，便生疑阻，峻加斥絕，此可施於俗流，而不當施於吾輩中也。且君不欲就舉之意，亦恐不可太勇者，以親老家貧也。但今聞監試，清洪舉子有大悖事，勢必罷榜，罷則例兼罷東堂云。如此則似不須拔貧強赴，在所斟酌耳。若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9월 3일, 禮安.

1) 初本 ‘九月三日’[추가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開 月川’

赴則資於知友以赴試，古人亦爲之。君之知友，誰如子中者耶？近日朝廷有大彈擊，莫知其終如何，甚可憂駭。²⁾ 朝報一紙送去，見後還之。³⁾

《十七日府啓，則李戡以大憲受李樸指嗾而爲之也。十九日，以玉堂論啓逐⁴⁾李樸·李戡，而權轍代樸爲吏判，奇大恒代戡爲大憲矣。一二日之間，事機幹轉，聖斷可賀可賀。但猶未保後事之如何，又未詳事之端由，得於傳聞與片幅之間，可爲鬱悶。⁵⁾ 今日城主，要見於江上，其罷箭與否，未可知也。罷則當出江舍，可相面悉。姑此。【十七日府啓，以高談浮節，前正郎朴素立·司正奇大升·前佐郎尹斗壽·大護軍李文馨·府使許曄·縣監尹根壽等，或罷職或削奪官爵，未幾復正，兩李及其黨皆遠竄。】⁶⁾

2) 憂駭：初本·《師門手簡》‘憂駭憂駭’

3) 還之：初本에는 [부전지 ‘十七日府啓則’以下，當移錄於“近頗阻濶”云云書之下，而低一字.]가 있고, 中本에는 [추가 此下有‘十七日府啓’云云，而在《退陶先生集》暑字卷.]가 있다. 《師門手簡》에는 뒤에 ‘初三日’이 있다.

4) 論啓逐：[두주 手本有‘啓’字下‘罷’.]가 있고, 樊本·上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 初本에는 [추가 手本有‘啓’字下‘罷’.]가 있다；《師門手簡》‘論啓罷逐’

5) 鬱悶：初本·《師門手簡》‘鬱悶鬱悶’

6) 十七日府啓，則李戡……皆遠竄：中本에는 없다. 今按：“十七日府啓，則李戡……姑此。”은 추신이며, “十七日府啓，以高談……遠竄.”은 추신에 대한 趙穆의 주석이다. 中本에는 이 부분이 모두 삭제되었으나 樊本·上本에서 복원되었다.

SNL0946 (書-趙穆-75) (續卷5:2右)(樊續卷5:3右)

答趙士敬¹⁾

((塊居苦待來音，簡到知來，已似款接言觀，欣慰欣慰.))
邦家不幸，忽有此變，臣民無所係望，其爲憂慟，難以言悉. 罔措奈何奈何？服之不及士庶，想以儲位雖正，澤未嘗及下，於服義無取故也，此所謂義也. ((就中行事成虛，固無可如何. 但君素好推占，何爲不能預知其成虛而罷其行耶？他日君雖說占，人必不信，此不是小事，如何如何？鷄林尹書，領悉.)) 吳子強去後，獨處山室，悄無晤對. 看事小定，惠顧是望. ((今不一一. 謹復.²⁾))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9월 29일. 禮安.

1) 初本 '二十九日'[추가 '答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復 趙生具宅'

2) 謹復：《師門手簡》에는 뒤에 '卽夕.'이 있다.

KNL0947 (書-趙穆-76) (癸卷23:20右)(樊卷31:42右)

與趙士敬【甲子】¹⁾

人日寒甚，無烟冷齋，氣味何似？年前，諸君與城主相從於杯酒間，多有失言，非獨君也，而卒歸疵於君者，以君言比他，尤近倨傲故也。又聞君嘗見城主於雙碧，城主引大椀以屬君，君時已醉，疑城主以大器相嫚²⁾辱，發忤色忤言不肯飲，徑起趨出，城主甚以爲怪云云。未知信否？城主不飲而先飲君，則果似相嫚，既先飲而相屬，何疑於嫚乎？剛雖君子之德，少過則入於暴悍強忿。從來竊矚君資有此根本，而又每發於酒後，此尤非小患。不知君杜門思過，能念及此乎？君曾見朱先生責蔡西山書矣。以西山清修苦節，一失則下比於郭解。善惡之幾，間不容隙，其可畏如此。故有一絕見意，其引灌將軍罵坐事，非故甚言之也。幸深思而亟改之，朋友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월 7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別紙〉로 詩 한 수(遺集內篇 권1,〈規士敬〉, BYP1072)가 실려 있다.

1) 初本 ‘甲子人日’[추가 ‘與趙士敬’], 中本 ‘與趙士敬【○甲子】’;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嫚 : 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師門手簡》 ‘嫚’

之望也. ((《漢書·叔孫通傳》有考處, 進人付送. 餘在後日. 謹此.³⁾))

3) 謹此 : 《師門手簡》에는 뒤에 ‘甲子人日.’이 있다.

BNL0948 (書-趙穆-77) (樊卷31:42左)

答趙士敬¹⁾

隆寒奪春，砭人病骨，加以新歲人事紛紛，殊無好況，忽奉來音，用慰心悰。子中過此，恨不得與君會晤，不知竟未面否？來初旬，又欲來過耳。榛子歲采，以備官納，二升寄呈，揀取其可者而納之，不能皆可也。前來《名臣言行錄》及《漢書》一冊送去，并照領。日俟妍暖，可相尋也。不一。²⁾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월 19일. 禮安.

1) 初本 '十九日'[추가 '答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復 趙上舍 案下'

2) 不一 : 《師門手簡》에는 뒤에 '卽日.'이 있다.

BNL0949 (書-趙穆-78) (樊卷31:43左)

(答趙士敬)¹⁾

安東府使書簡²⁾, 似有悔過之意, 其牛隻, 姑勿還給以待之, 則勿推放送, 可望也. 如此三四日, 猶未³⁾放囚, 則依法隻在處禮安官移訟之意, 呈所志, 則必爲放送矣.【府使, 權公 應挺也.】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윤2월 1일. 禮安.

[編輯考] 이 편지는 저본(樊本)과 上本에는 제목 없이 BNL0950(書-趙穆-79) 뒤에 低一字로 실려 있다. 한편 《師門手簡》(第4)에는 이 편지가 〈士敬 奉復 月川〉(書-趙穆-79)의 앞에 실려 있다. 初本の 경우에도 이 편지(〈潤二月一日〉)가 앞에, 〈後二月〉(書-趙穆-79)이 뒤에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初本에 따라 두 통의 편지로 나누고 임의로 제목을 부여하였다. 순서 역시 初本에 따랐다. 한편, 中本에는 이 편지가 실려 있지 않으나 〈答趙士敬〉(書-趙穆-79)의 뒤에 추가 '暑字卷有小錄'이 있다.

1) 初本 '潤二月一日'

2) 安東府使書簡 : 初本·《師門手簡》'右安東府使書簡也'

3) 未 : 《師門手簡》'不'

BNL0950 (書-趙穆-79) (樊卷31:43右)

答趙士敬¹⁾

近自省丘墓處，困劇而返，杜門疲臥寥落中，承見來音，慰遣多矣。又知密陽之行，在明日。吾邑古無闕榜，而今之監試，乃有此外間喧喧，殊使人有攘臂下車之意。君等既不免屈首就試，願更勉出口氣，以收摧陷廓清之功，以壓倒人言爲佳。呵呵。惟新²⁾適以侄女之行，一時兩書似難，而前既奉諾，故聊修之，領悉。餘冀好行萬萬。謹復。³⁾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2월 말~3월 초 추정. 禮安.

[編輯考] 앞 편지(書-趙穆-78)의 題下註 참고.

[年代考] 初本에 의하면 이 편지는 '後二月'에 보냈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未詳이다. 다만 편지에 '近自省丘墓處……'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年譜·甲子》에는 "閏二月, 祭高·曾祖墓于安東, 會族人."라고 하였으며, 《月日條錄》에서는 성묘한 날짜를 14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初本에는 이 편지의 예는 뒤에 3월 12일자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보면 이 편지는 2월 말~3월 초에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初本 '後二月'[추기 '答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復 月川'

2) 惟新: 中本에는 [부전지 '惟新'條, 疑次不書.]가 있다.

3) 謹復: 中本에는 뒤에 [추기 '暑字卷有小錄.']이 있다; 《師門手簡》에는 뒤에 '卽朝.'가 있다.

BNL0951 (書-趙穆-80) (樊卷31:43左)

與趙士敬¹⁾

凝川之行，爲況何如²⁾? 翹聞吉語耳．僕近方出江上．
但兄女寡窮中，不意身死，痛割不忍聞不忍聞．卽權好文母也．就中《理學通錄》末端，欲收賀醫閭，有所考閱．
前去《延平答問》等抄，不必趁速，因遇便送來，爲佳．
餘在聞遠，不一．³⁾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3월 12일. 禮安.

1) 初本 '三月十二日'[추가 '與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何如: 《師門手簡》에는 뒤에 '試製自意如何.'가 있다.

3) 不一: 《師門手簡》에는 뒤에 '甲子暮春十二.'가 있다.

KNL0952 (書-趙穆-81) (癸卷23:21右)(樊卷31:44右)

與趙士敬·琴聞遠¹⁾

遊山，滉所首倡，豈非佳致？但適與城主祈雨之舉相值，雖云行事之後，群往攪聒，至爲未安。且恐官中不無預措漁會之事，似若兼舉遊賞之事，使主宰誠意不專，則吾輩之過也。若以此故避由他路，亦非所宜。且想山中澗泉枯涸無興致，不如停之以待得雨後看如何之爲善也。大抵看此事勢，斯民舉將填壑，令人日夕憂惶，罔知攸濟。夜中不寐，思得謬舉之非，呼燈作書，已白此意于城主，兼諭諸處。惟僉諒，幸甚幸甚。²⁾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3월 24일. 禮安.

[年代考] 初本에는 25일자 편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師門手簡》에는 24일 밤三更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1) 初本 '二十五日. 聞遠同' [추가 '與趙士敬·琴聞遠'] ; 《師門手簡》 '士敬 聞遠 僉白'

2) 幸甚幸甚 : 《師門手簡》에는 뒤에 '廿四夜三更.'이 있다.

BNL0953 (書-趙穆-82) (樊卷31:44左)

與趙士敬¹⁾

承²⁾書有來意，何不來耶？就中審侄與安道孫，欲共讀
〈太極圖說〉·〈西銘〉等書。《性理大全》右兩卷，進僅付送，
爲佳。僕明往溫溪，明明還此。謹白。³⁾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3월 그믐. 禮安.

1) 初本 ‘晦日’[추기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白 月川’

2) 承：[두주 ‘承’，手本作‘前’.]가 있고, 樊本·上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 中本에는 같은 내용의 추기가 있다.；《師門手簡》‘前’

3) 謹白：《師門手簡》에는 뒤에 ‘三月晦日.’이 있다.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BNL0954 (書-趙穆-83) (樊卷31:44左)

與趙士敬¹⁾

近日動靜何如？遊山既已面約，不謂中輟，遂未偕轡，至今懷缺。近何不一枉耶？前來唐本《大全》，具帙送還，照納。謹拜姑問。²⁾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4월 24일. 禮安.

1) 初本 '四月二十四日'[추가 '與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姑問: 《師門手簡》에는 뒤에 '廿四日.'이 있다.

KNL0955 (書-趙穆-84) (癸卷23:21左)(樊卷31:45右)

與趙士敬¹⁾

澤燠小雨，亦足以深發山居佳趣，何惜惠然共享此樂？
今遣僮騎，可卽著鞭。斗米在此，不煩齋挈也。見閱《錦
溪集》，欲改吳訥誤稱處，而忘其齋號。公來則自可知之，
如或有故不來，書示其號，幸幸。此人文勝於詩，明快善
論事，平時有未盡知者，今於其文見之，可惜可惜。²⁾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5월 12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詩 한 수(內集 권3<七月既望【并序】>), KNP0324)와 趙穆이
지은 <附次退溪先生>(《月川集》권1, <次退溪先生>)이 실려 있다.

1) 初本 '五月十二日'[추가 '與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邀 芙蓉山下'

2) 可惜 : 《師門手簡》에는 뒤에 '十二日.'이 있다.

SNL0956 (書-趙穆-85) (續卷5:3右)(樊續卷5:3左)

與趙士敬¹⁾

近甚阻闊，履度何似？試期臨迫，行計何以取辦？想未免小撓，如何如何？在自困之中，無所奉助，徒懸情耳。聞遠行否？亦何決耶？兩君皆無馬，雖小出入，尙須索人騎，此間不須來告行也。只當好行，勉旃勉旃，可也。烏川諸人，亦皆以是謝之矣。但方此秋高，山水清甚，獨居殊有味，恨無與共之耳。((昨，鄭眞寶見過，亦匆匆小²⁾頃，何益？))公到都下，如有相問者，略爲致意。餘惟千萬慎輶。((謹拜。))

((戶納清幾許而可？適安東餉來封餘，令人持器來取去，何如？若遲遲，則或不能留也。僕來此，故今未送耳。))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8월 21일. 禮安.

1) 初本 '八月二十一日'[추가 '與趙士敬']

2) 小：初本·中本 '少'

BNL0957 (書-趙穆-86) (樊卷31:45左)

答士敬·愼仲·夾之·惇叙·聞遠¹⁾

得見金遷僉寄書，知僉行船滯陸行，皆出計外，不審何以達京？今者試日已過，佇聞吉語耳。拙患脚澁²⁾，作止無定，又遭期功之慘，尤覺劣劣。因兒子行，草草奉報。不具。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9월 16일. 禮安.

[資料考] 中本에는 이 편지가 권12上和 권21에 두 번 실려 있다. 권21에는 [산거표시], [추기 疊書], [부전지 疊見]이 있으며, 바로 뒤에 수록된 〈答趙士敬·金愼仲〉(=〈與士敬·愼仲·惇叙〉)(書-趙穆-88))에도 [산거표시]와 함께 [추기 此上二書, 已見〈答趙士敬〉.]이 있다.

1) 初本 ‘赴試僉君, 九月十六日. 愼仲·夾之·惇叙·聞遠’[추기 ‘答赴試僉君. 士敬·愼仲·夾之·惇叙·聞遠’]; 中本(권21)·拾遺 ‘答赴試諸君’

2) 澁: 中本(권21)·拾遺 ‘濕’

BNL0958 (書-趙穆-87) (樊卷31:45左)

答士敬·愼仲·夾之·惇叙¹⁾

安道奴還，得僉書，近聞遠下來，又得士敬書，甚慰馳情。但既應科目，固應望得，而獨夾之不讓，僉君皆讓而不屑，何耶？尙不見榜目，未知他知舊得失如何？夾之講以後事，又如何？士敬居泮，果能無前却否？尙有陳省一路，不阻享²⁾衢，何必居泮而後可耶？竊恐徒多失己，無益於事也。所望僉加厲業，勿但歸咎於命途二字，幸甚。謹復。滉餘證尙多，病稍向歇。³⁾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0월 5일. 禮安.

1) 初本 ‘甲子陽月初五日【士敬·夾之·愼仲·惇叙】’[추가 ‘答僉君’]

2) 享：[두주 ‘享’, 一作‘亨’.]가 있다；中本 ‘亨’

3) 滉餘證尙多，病稍向歇：初本에는 ‘餘證’ 이하가 小字로 되어 있으며, 中本에는 전체가 低一字로 되어 있다.

BNL0959 (書-趙穆-88) (樊卷31:46右)

與士敬·愼仲·惇叙¹⁾

近連因夾之·而精等來，得見僉書，知相勵入泮，鼓篋聞侃，足慰馳想。但滿點之計雖善，講讀不預，亦非臨渴所能得泉，須預勤講讀爲佳。滉脚蹇²⁾差歇，而麻痺間作，方服藥治療，未知終如何耳。惠魚感感。但古云：“居山者，不以魚鼈爲禮。”況居泮而以此爲禮，可乎³⁾？呵呵。餘惟勉勉。謹不具。曹光益處小簡，僉可傳否？竊父子，想已出城，故無書耳。修書未遣，而安道來到，始知竊尙滯留，可恨。至月初五，滉再告。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0월 그믐(11월 5일 발송). 禮安.

[編輯考] 中本에는 이 편지가 권12上和 권21에 두 번 실려 있는데, 권21에는 [산거표시]가 있고 [추가 疊書][부전지 此亦疊見][추가 此上二書, 已見<答趙士敬>.]이 있다. <答士敬·愼仲·夾之·惇叙·聞遠>(書-趙穆-86)의 題下註 참고.

[資料考] 初本에는 “曹光益……滉再告”가 없다. 中本 권12上에도 이 부분이 없으나 뒤에 [추가 下十五卷<答趙士敬·金愼仲書>末‘曹光益’云云一條, 當附入.]이 있다. 이에 반해 中本 권21에는 이 부분이 있으나 [추가 此條當移入于九卷<答趙士敬·金愼仲書>‘餘惟勉勉’下.]가 있다. 한편 拾遺에는 이 부분이 低一字로 되어 있다.

[年代考] 이상의 사실과 편지의 ‘至月初五, 滉再告’, 初本の 제목 ‘晦日’ 등을 종합해 보면, 이 편지는 본래 10월 그믐에 쓴 것인데, 11월 5일에 “曹光益……滉再告” 부분을 추가 하여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1) 初本 ‘晦日[士敬·惇叙·愼仲]’[추가 ‘寄僉君’]; 中本(권21)·拾遺 ‘答趙士敬·金愼仲’

2) 蹇: 中本(권21)·拾遺 ‘寒’

3) 乎: 中本(권12上)에는 없다.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BNL0960 (書-趙穆-89) (樊卷31:46左)

寄趙士敬家¹⁾

金而精處慶州所送青魚一冬音送上，一枝以奉甘旨爲佳。
此亦而精意也。謹告。²⁾【穆時在泮，未歸。】³⁾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1월 27일. 禮安.

1) 初本 ‘至月二十七日’[추가 ‘寄趙士敬家’]；《師門手簡》‘士敬 奉開 趙生員宅’

2) 謹告：《師門手簡》에는 뒤에 ‘甲子至月廿七日’이 있다.

3) 穆時……未歸：中本·《師門手簡》에는 없다.

BNL0961 (書-趙穆-90) (樊卷31:46左)

答趙士敬·金愼仲¹⁾

前累承僉書，今又自烏川傳致書，慰感何勝何勝？就中城主被推事，出於不意，全由下吏不謹，以至於此，闔境駭悶.²⁾ 然觀其推辭³⁾似輕歇，勢當終歸次等之罰，豈至於罷乎？況事已發矣，豈片簡營救所能圖乎？故未得如君等示意，恨愧恨愧。知歸期不遠，草草。

雪寒添病，調治甚艱，可悶。⁴⁾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2월 20일. 禮安.

[編輯考] 中本에는 이 편지가 권12상과 권21에 두 번 실려 있는데, 권21에는 [산거표시]가 있고, [추가 上同.][부전지 此亦疊見.]이 있다. ‘上同’이란 바로 앞에 수록된 〈答趙士敬·金愼仲〉(〈與士敬·愼仲·惇叙〉書-趙穆-88)의 [추가 此上二書, 已見〈答趙士敬〉.]과 같다는 의미인 듯하다. 〈答士敬·愼仲·夾之·惇叙·聞遠〉(書-趙穆-86) 및 〈與士敬·愼仲·惇叙〉(書-趙穆-88)의 제하 주 참고.

[資料考] 初本에는 편지의 서두에 詩 한 수(遺集內篇 권1〈答趙士敬·金愼仲〉, BYP1086)가 있으며, [부전지 ■■■似漏, 更考.][■■■連書絕句.][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1) 初本 ‘十二月二十日[士敬·愼仲]’[추가 ‘答趙士敬·金愼仲’]

2) 悶：拾遺 ‘憫’

3) 辭：中本(권21)·拾遺 ‘詞’

4) 悶：拾遺 ‘憫’

BNL0962 (書-趙穆-91) (樊卷31:47右)

答趙士敬【乙丑】¹⁾

竚日久矣，頗怪行遲，來示知己稅駕，慰豁甚至．又得吳子強書，如與其人晤接，亦爲欣幸．僕寒疾未盡祛，日有應接之煩，殊無適意．今又義城前令來告別臨到，草草未悉．俟歇面布．謹報．

中間累得僉書，只修一報付縣人，滯傳空還納，愧恨.²⁾【米二斗·太二斗，一止兒啼.】³⁾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1월 21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의 뒤에 시 〈四月四日，奉次大成調士敬覓紅桃栽絕句〉(續集 권2,〈奉次大成調士敬覓紅桃栽絕句【庚申】〉, SNP1029)가 실려 있다.

1) 初本 ‘乙丑元月二十一日’[추가 ‘答趙士敬’]；中本 ‘答趙士敬【○乙丑】’

2) 中間……愧恨：初本에는 小字로 상단과 연결되어 있으며, 中本에는 低一字로 되어 있다.

3) 米二斗……兒啼：初本·中本·《師門手簡》에는 없다. 今按：初本과 《師門手簡》에서는 이 부분이 아래 〈書-趙穆-94〉 편지의 추신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무슨 연고에서였는지 여기에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SNL0963 (書-趙穆-92) (續卷5:3左)(樊續卷5:4右)

答趙士敬【乙丑】¹⁾

奉問慰慰. 國恤遽出不意, 驚痛之中, 又慮上體如何, 憂悶不可言. 禮云: “以文書到日哭臨, 其後第六日成服.” 然則儒生諸人變服, 亦當以是爲准.²⁾ 但此中因安東所報, 十二日已聞之, 而文書到縣在昨日. 若從昨計則太緩未安, 故只從十二計之, 十七日當成服. 以製服事, 今刻入溪上耳. 十七朝, 出山舍成服, 來則可叙近懷. ((只復.))³⁾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4월 15일. 禮安.

1) 初本 ‘十五日’[추가 ‘答趙士敬’], 中本 ‘答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奉復 趙生員宅’

2) 准: 續草本 ‘準’

3) 只復: 初本에는 뒤에 ‘【初七日, 大妃昇遐.】’가 있으며, 《師門手簡》에는 뒤에 ‘即日.’이 있다.

SNL0964 (書-趙穆-93) (續卷5:4右)(樊續卷5:4左)

與趙士敬¹⁾

近況如何²⁾? 滉初四日, 始拜承有旨書狀, 諭許遞職, 可遂退閒. 聖恩如天, 何以上報? 只有收拾桑榆, 少免罪過, 此一事可庶幾耳. 而病昏至此, 何能如意耶? 近日加以眼疾, 不能看書, 尤恨. ((拙句³⁾八絕呈, 發一笑.)) 《心經》·《禮記》送去. 《心經》既標題不善⁴⁾, 未免貼紙改題, 亦未善, 可笑.⁵⁾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5월 8일. 禮安.

1) 初本 '五月初八日'[추가 '與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何如: 初本·中本·樊本·上本 '如何'

3) 拙句: 中本에는 [부전지 '拙句'條, 議次下書, 書同.]이 있다.

4) 既標題不善: 初本·中本·樊本·上本·《師門手簡》 '標既題不善'

5) 可笑: 初本에는 뒤에 '【先生乞鑄罷同知, 得允.】'이 있고, 《師門手簡》에는 뒤에 '初八日.'이 있다.

BNL0965 (書-趙穆-94) (樊卷31:47左)

與趙士敬¹⁾

問何如？僕眼病往復，殊礙閑興。今以先忌入溪莊，上溫溪，十八後，當復出耳。前呈拙句內“幾人猜”，改‘幾’作‘又’²⁾；“素心羸³⁾得友松筠”，改作‘沈痾羸⁴⁾得付松筠’；“衛武耄期亦警規”，改作‘衛武猶箴九十年’。‘規’字失韻，可笑。“濂·洛”改‘私淑’。⁵⁾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5월 14일. 禮安.

1) 初本 ‘望前一日’[추가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上開’

2) 改幾作又：《師門手簡》‘幾改作又’

3) 羸：上本 ‘羸’

4) 羸：上本 ‘羸’

5) 私淑：初本에는 별행에 ‘米二斗, 太二斗, 一止兒啼.【詩載《陶山拾遺》】’가 있고, 《師門手簡》에는 뒤에 ‘乙丑五月望前一日, 退老. 米二斗, 太二斗, 一止兒啼.’가 있다.

BNL0966 (書-趙穆-95) (樊卷31:47左)

與趙士敬·琴聞遠¹⁾

時雨，想同此喜也。金而精遣人來致書諸處，今此送去。欲答，答付進人何如？其奴有所往，數日當回此告還矣。且叩士敬，而精得《節要》書，欲讀而多未曉，欲看僕曾所解寫在曆紙內者。今不記曆中解本所在處，不知於君有此否？不一。

所云筭本，未至於不可示人，則欲付送之。金之爲人可信，應不失去。²⁾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6월 19일. 禮安.

1) 初本 ‘六月十九日【士敬·聞遠】’[추가 ‘與趙士敬·琴聞遠’]；《師門手簡》‘士敬 聞遠 奉白’

2) 所云……失去：初本에는 小字로 상단과 연결되어 있으며, 《師門手簡》에는 제목 아래에 小字로 실려 있다.

KNL0967 (書-趙穆-96) (癸卷23:22右)(樊卷31:48右)

答趙士敬[乙丑]¹⁾

一僧往回，一筒兩書，兼論《心經》一紙，所以慰發趣味者深矣。田家得雨，喜騰郊野，對山聽泉，境與意會，庭草一般，萬物自得，小堂終日，樂亦無窮，想此意同之也。《心經》舊件送去。但此一件，少時妄加點抹剪補，其勘正亦殊疏漏，不足憑校。近西海柳監司印寄來一件，欲加校點，以資觀省，而時未暇也。子中《名賢錄》，時在此，恐雨濕，隨後送呈。臨安亦江表之說，固然。但其引尋〈遂初〉事，只取不從恢復策一意看，則如所示亦近之。但當先生力主恢復，韓·李諸人並從和議之時，與桓溫·孫綽時，其事情向背邪正得失，大不相侔，故於來說，未敢遽以爲然也。後當面論看如何耳。陶山時無出意，又聞魚梁不久而作，昨約大成，秋初一作月瀾遊耳。鄭子中去後，一嘗通信云：“望間發京行。”今想

▶ 乙丑年(明宗20, 1565年, 65세) 6월 23일. 禮安.

1) 初本‘六月二十三日’[추가 ‘答趙士敬’]；中本·樊本·上本‘答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復 月川’

已發，且無使人可問，來簡還納，而精書當如戒傳之。
《節要》解，附在冊子裏，果難他送，不送而姑留此。但
謬妄雜說，如是筭錄，適以彰過，非但無用而已，汗惡
汗惡。《心經》疑義，寫在別紙。君得《心經》二件，金愼
仲不要一件否？彥遇不事舉業，正好看此等書，未知看
否如何。若看得意味，見君必語及之，故問之耳。聞遠
讀書否？²⁾不讀書，孤山雖好，何益於事？

2) 否：初本·《師門手簡》에는 뒤에 ‘若’이 있다； 樊本·上本에는 [두주 一本, ‘否’下有‘若’字.]
가 있다.

KNL0967A (書-趙穆-96-1) (癸卷23:23右)(樊卷31:49右)

別紙

〈心經贊〉“惟理無形”一語，舊未見有可疑，今如此致疑，儘看得細密．蓋舜之本語，“道心惟微”，既謂之心，則乃指心之發用處言，非指理之微顯¹⁾而言．西山以是爲言，似非本意．然其上文已明言“道心²⁾伊何”，而曰“根於性命”，曰“仁義中正”，而後係之以此言．其意謂道心之所以微妙難明，以性命之理無形象可見故也．其言有漸次脈絡，與整庵之見，固不同矣．來喻亦已見得此意矣．但其下乃復謂“西山下語，偶失照管”，則又非矣．蓋西山語，非失也．

〈心學圖〉，未敢必以爲西山作．然其規模位置，甚精審的當，不可輕看，恨不著作者姓名耳．

更按，圖乃新安 程林隱 復心所作，見林隱《四書章圖》中卷.³⁾

1) 微顯：初本·定草本·庚本·擬本·甲本‘顯微’；擬校[‘顯微’，手本乙.]

2) 道心：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甲本·樊本·上本·《師門手簡》‘人心’；初本·中本에는 [부전지 ‘人心’之‘人’，當作‘道’.]가 있고, 上本에는 [추기 印本, {‘道’}作‘人’, 大山曰, 當作‘道’.]가 있다; 養校 [‘人’恐‘道’.]，柳校 [‘人’字, 大山云, “恐是‘道’字.” 金進仕丈亦云, “當從.”] 今按: 上本 추기와 養校, 柳校는 모두 甲本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래 원고와 제 판 본에 ‘人心’으로 되어 있던 것이 癸本에 이르러 ‘道心’으로 교정된 것이다.

3) 更按……中卷：初本·《師門手簡》에는 小字로 上段과 연결되어 있다.

人心爲私欲，程門只作如此看。朱子初間亦從之，其說見於《大全》書〈答何叔京〉等書者，可考。其以爲非私欲，乃晚年定論，《附註》兼取前後說故耳。

“義理精微難見”一條，嘗考《語類》，非有誤也。蓋於此答“道心惟微”之問，而欲說義理精微處以曉之，以其無形而難於爲說，故且就利害粗淺顯著處，言此之易見則聽者可因以⁴⁾知彼之難知者，因而又言“鳥獸已有不知之”云者，又以見禽獸知飢食渴飲而不知利害，衆人知利害而不知義理，惟君子存其所以異於禽獸者，故能知義理之精微。其大義不過如此云爾。王魯齋圖說，鄙意亦多未瑩，試指擿論之。“知其本無，故曰危”，則近矣；“知其本有，故曰微”，其爲微也，豈本有之故耶？生於耳目口鼻等之心，不失正理，則皆天則也。故人心不可謂之人欲，初非謂正字·私字見于外之故，而不可謂之人欲。不知此老說話如何而有此疏脫。今將大意推之，則非謂本有故微也，由外推入而知，故爲微云耳；非止謂正·私見于外，故不可謂之人欲，乃通指上文“原字”以下所論之意而云然耳。然終是有難解處。微字置下底，與整庵寂然不動爲道心之說相類，正是如此。來喻不易如此看得出矣。但又謂“以私屬形，以危屬氣”，此則不

4) 以：樊本·上本‘而’

然. 其於形氣兩字間, 畫一線屬危者, 實以兩字併屬之意. 其於私字一線, 雖從形字上頭而起, 其實亦併氣字通帶而屬之耳, 非分二字各屬之也.⁵⁾

((附人心道心精一執中圖))



5) 王魯齋圖說……各屬之也 : 《師門手簡》에는 別行으로 되어 있다. 今按: 《月川集》권4 〈心經稟質〉을 보면 이 부분은 王魯齋의 〈人心道心圖說〉(《心經附註·人心道心章》)에 관한 趙穆의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위의 “義理精微難見一條”(《心經附註》同上)에 대한 문답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러므로 《師門手簡》과 같이 “王魯齋圖說” 이하를 別行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KNL0968 (書-趙穆-97) (癸卷23:25右)(樊卷31:51左)

答趙士敬¹⁾

縷縷具悉。示圖，詳在別紙。柳而得兄弟有好意思，但功未深入，而尚氣易言，固爲有病。然愼仲若能受人盡言，則而得之言，寧不爲藥石耶？乃反以爲不恭，而發愠語，何耶？然得好書而不看，名讀書而無得，吾輩皆然，又不當獨怪愼仲也。士純在陶舍，冒熱踰山，講訂《書傳》，因與溫繹律曆諸算之廢忘者，深覺有益。但適此歉秌，加以賓客之擾，猶未專精爲恨耳。愼仲新構草亭，以清涼入望頗自矜，有詩來示，一再往復，謾往視至。烏川諸人，近有來意，未卜何日？玄風 裴上舍 紳，旬望亦有來音云，未知果耳。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7월 3일. 禮安.

1) 初本 '七月三日'

KNL0968A (書-趙穆-97-1) (癸卷23:25左)(樊卷31:52右)

別紙

〈人心道心圖〉，因公言有所改易，然猶未到十分正當精密無可改處。要之，不能躬行心得，而在旁邊闕觀模畫，其未能盡善，宜矣。然反覆乎來圖，亦未悟十分之善，只將兩圖并回納，照處之。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KNL0968B (書-趙穆-97-2) (癸卷23:26右)(樊卷31:52左)

((別紙))¹⁾



‘形氣’二字，既作一體中坵之法；‘私’·‘危’等字，亦同此法，乃爲的當。‘微’字，王氏置於‘命’字下未穩之意，

1) 上本에는 제목이 없다.

公已曾²⁾論辯³⁾，可謂見得到矣。兼舜之語意，實以‘危’·‘微’字，狀心之用，固不合置此字於‘性命’·‘形氣’之先。且惟精之功，朱先生雖有“察夫二者之間”之語。然心有二發，而所以精之之心，非有二用，則‘精’字分置兩邊，亦未爲得。故試以妄意略改動來圖，別紙寫去，并以是參詳，何如？

2) 已曾：[두주 ‘已曾’, 一本乙.]가 있고, 甲本·樊本·上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 ; 定草本 ‘已曾’[앞뒤바꿈표시]

3) 辯：庚本·擬本·甲本·上本 ‘辨’

BNL0969 (書-趙穆-98) (樊卷31:53右)

與趙士敬¹⁾

頃日會議，不謂僉見有大不同如許，故直請停之。及聞僉雖被鄙說尼停，皆有奮鬱攘袂之意，方悔僕不知但告已見而聽諸君自議處也。其間有無限說話，非泓穎所預知，姑不云。鄭子精書，隣居寺奴，有自京回者持來，故傳上，照領。金士純·禹景善，欲讀《啓蒙》。僕何能知？徒爲無事生事耳。²⁾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8월 5일, 禮安.

1) 初本 ‘八月初五日【以請誅普愚尙州檄書至，會議鄉堂，先生以書止，止】’；《師門手簡》‘士敬奉問 月川’。今按：《退溪先生年譜補遺》 권2, 乙丑·七月條 등에 의하면, ‘普愚’는 ‘普雨’(승려, 호는 虛應堂·懶菴)의 잘못된 듯하다.

2) 生事耳：《師門手簡》에는 뒤에 ‘初五日.’이 있다.

KNL0970 (書-趙穆-99) (癸卷23:26左)(樊卷31:53右)

答趙士敬¹⁾

頃奉謀野之報，蒙被獲益多矣。幸幸。諸友不意來集，欲借視聽於盲聾，舊忘新昧，無以相發明，甚孤僉來之意，愧疚無已。若得如君彊輔在此，庶幾相資，而又不得，恨恨。《心經》，領得。但所謂筭錄者，不謂君枉作此等事，適所以彰謬拙於人之見聞，令人瑟縮失據。又曾略窺一二，則其間不無脫誤，欲一番過目檢點，近緣諸人更迭相守，病力無暇他及而未果，今姑未應索還，幸垂寬恕。《理學錄》事，又非如來喻之云，君何見責之峻耶？嘗見朱先生說人以未成底文字輕示人傳出者之爲非。滉不能遵依至戒，已往之事，不可勝悔。此書又其未成之尤甚者，故姑未出付人看耳，更安有猜嫌而然乎？《心經》疑義改訂本，謹奉置案上，徐就上面入思議，卒業而後奉報也。〈人心道心圖〉改本在此，但滉謬本，看得多病敗，稍加移動整貼，而夾置冊子裏，更求之，忘其爲某冊，尙未改作。凡事昏眩類此，何望於精微之學乎？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8월 10일. 禮安.

1) 初本 ‘十日’[추가 ‘答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復 趙生員 案右’

直可一笑. 自明日往來上墓節祠²⁾等事, 要是十七八日
乃定, 其後看如何? 且此草草. ((照諒. 謹復.))³⁾

((改圖))



2) 祠：定草本에는 [부전지 ‘祠’, 刊板作‘祀’.]가 있다；養校 [‘祠’恐‘祀’.]

3) 謹復：《師門手簡》에는 뒤에 ‘即日.’이 있다.

KNL0971 (書-趙穆-100) (癸卷23:27左)(癸卷31:55右)

答趙士敬¹⁾

所論程林隱〈心學圖〉，謹悉雅意。然滉所疑，惟求放心一節，置之似差。嘗諦思之，欲只與其上心在換置，則‘求放心’與‘心思’相對，‘心在’與‘養心’相對，能求放心則心得其官矣，心無不在則心得其養矣。自餘諸目，但見其可敬可法，未見有謬誤須改處。今來示乃歷指其病而詆訾之，其精思至此，雖若可喜，竊恐思之過，而或反害於趣尚也。蓋林隱於心圈²⁾上頭，對置‘良心’·‘本心’，兩旁對置‘赤子心’·‘大人心’者，非欲以此分類於‘人心’與‘道心’，同其精擇而去取之也。要以見心之爲物，渾然全體之中，隨其所發所就地頭分劑，而有如此般樣名目，欲使學者因其名目而究其義意，玩味而體認之，久則衆理融會，而心之全體在是矣。乃於其下，始對舉‘人心’·‘道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9월 1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시 〈十六日, 過月川〉(續集 권2〈過月川〉, SNP1043) 한 수, 〈十月八日○題鄭子中《關東行錄》〉(外集 권1〈題子中《關東行錄》〉, KWP0829) 한 수가 실려 있다.

1) 初本 ‘九月一日’[추가 ‘答趙士敬’]

2) 圈：上本 ‘圖’

心’，而繼之以‘精一’·‘戒懼’·‘克復’·‘操存’之屬，其間有無限要妙³⁾功夫旨趣。此是程隱⁴⁾翁四五十年林下潛心所得，恐難以一朝率然立論所能攻破也。且公以養心爲用工之初，而林隱圖繼‘養心’於‘心思’之後，深斥其非，此亦鄙見所未喻也。孟子曰“養其大體爲大人”，大體之謂心也。吾未知此所謂養者，只養於用工之初，可恃以爲平生地乎？抑通乎爲學始終本末而言也？周濂溪〈養心亭說〉曰：“予謂養心不止於寡而存耳，蓋寡焉以至於無。無則誠立·明通，誠立，賢也；明通，聖也。是聖賢非性生，必養心而至之。”夫程翁之所謂養心，亦若是，其不可以爲用工之初，明矣，何可輕議之耶？如又以此等義類推言之，向所疑求放心處，却恐不必爲疑也。何者？舉其大概而泛論之，求放心，固若爲始學之事；若推其極而細論之，有大不然者。夫所謂放心，非止謂逐物營營奔馳之心，一刻一念些少走失，皆放也。夫所謂求，非謂一日一餉乍然尋來⁵⁾捉住，便爲終身爲學之基本。蓋日日念念，在在處處，才覺有透漏，便卽收攝整頓得惺

3) 妙：上本‘抄’

4) 隱：上本‘穩’

5) 來：定草本·庚本·擬本·甲本‘求’；中本에는 [부전지 ‘來’疑‘求’，更詳.] [추기 傳本亦作‘來’.]가 있고, 甲本에는 [두주 ‘尋求’之‘求’，一本作‘來’.]가 있으며, 上本에는 [추기 ‘來’，一作‘求’.]가 있다；擬校 [手本作‘來’.]

惺，是之謂求。故程子曰：“聖賢千言萬語，只是欲人將已放之心約之，使反復入身來，自能尋向上去，下學而上達也。”觀程子此言，直以聖賢許多言語，皆若以爲求放心設。誠若是焉，此一事占地步，不亦廣博而悠長乎？愚恐自大賢以下，皆不可謂無此事。顏子“三月不違仁”，當其覺違而復仁也，便似微有些此個意思。“其餘則日月至焉”，當其未至之時，未知幾放而幾求，及其至也，或以日，或以月，則亦豈免‘求放心’之節度乎？但其放也，其求也，各隨其人之才分學力，而有大小·精粗·遠近·難易之不同耳。【《大學》言誠意功效，至於心廣體胖，若可以無放矣，其言正心處，又有四不正·三不在，斯皆放心之病，其可不求而自正乎？既言意誠·心正，若可以無放辟之虞矣，至言修·齊處，又有五辟·二莫知之戒，以此見求放心不可輕言也。】苟放心之求，只在於始，而無與於終，孟子當曰“學問之始，必求放心”，可矣。今以“學問之道無他”六字包括而言之，是固程子之意也。然則求放心所置之處，亦不必疑而欲移動之也。不知盛意終以爲如何？

《心經》諸說，看得亦甚密。其中所引《四書》諸章處，病舊註多疏脫，欲去舊註而一用朱子《集註》·《章句》之說，此意固善。滉向來亦欲依此去取，則所去者或人之註，

所取者朱子之說，似爲無害。但以此經之行於今，殆與《四子》·《近思錄》同其尊用，一朝輒以己意有所改動，非徒人共駭怪，於心亦甚未安，久而未果。茲承示及，亦難以爲公謀，所以不敢索性說也。示喻於本註·附註中，遇有爲說未善者，有若衍字者，並欲削去。公能如此考覈得出，可謂不易。雖然，更細思之，使人不能無疑。竊見古經傳中誤字·衍文，自漢·唐諸儒以及有宋諸老先生，皆謹存而不敢輒改，只註其下曰“某當作某”，“某字當爲衍文”而已，何嘗有一覺其有誤·有衍·有不可於義⁶⁾，卽奮筆句抹而削除之耶？王魯齋學術固多病，〈人心道心圖〉，誠有可疑處，其自叙說，亦殊未瑩。然今但當講明其是非，或別爲圖以訂其差，要得我不爲其說所誤則可，至欲就經中削去則未可也。毛·鄭二說固不切，然寂寥數句，存亦何妨？《附註》中程·朱諸說，其聯章累引處，或有再出“程子”·“朱子”字，揆之他例，固近於衍。然《論語》中，除一章內再有“子曰”字者，先儒以衍文或非一日之言處之外，其他每章首加“子曰”·“孔子曰”字，不見有重複之病。今此書雖或偶有再出之處，有何大妨而欲一一削之耶？范氏〈心箴〉，先生每加稱賞，而呂東萊

6) 誼：《師門手簡》‘意’

反輕視之。後學於此，當思東萊之輕視得失如何，先生之稱賞旨意何在，正是吾身因有所省發得力處。公既不能思及於此，乃以其文字有少難曉處，直欲削去之，無乃不可之尤者乎？願公三思焉。〈上帝臨女⁷⁾〉章舊註“愚謂”一條，滉深愛其言，每誦味之，不勝其感衷激懦，以爲非朱先生，不能以發此。況舊註雖疏鹵，皆引諸說而不用註者說，則已爲定例，何可以此一條獨指爲西山說耶？今《詩集傳》雖無之，安知或見於他書而舊註引之耶？〈無名指〉章附註末“程子·鄭氏”一條，果可疑。然亦或西山曾有此說於他處，而篁墩引著于此，未可知耳。惟上蔡稱“明道一團和氣”處，葉氏註語，誤而綴書，公能考出，甚善甚善。然亦不欲遽削，但註其下云云，宜亦可也。大抵人之所見苦不同，好惡亦不齊，若人人用己意更易削除，則古經之傳於今者，無復完理，其害豈少哉？晦翁先生責張·劉二公力主胡本《程集》也，引程夫子之言曰：“人之爲學，其失在於自主張太過。橫渠猶戒以自處太重，無復以來天下之善。”今於此經，若一如來喻之云，得無近於自處太⁸⁾重自主張太過乎？滉鄙鈍無聞，

7) 女：初本·中本‘汝’

8) 太：樊本‘大’

幸於此經·此註中，略似有窺尋路脈處，年來隨分用工，多在這裏。只默念聲⁹⁾誦其經文，已覺一生知得不能盡，行得不可窮。矧乎《附註》，實濂·洛·關·閩之淵海，每入其中，不自勝其望洋向若之歎也。願公且勿以抉摘文字上瑕疵爲務，須虛心遜志，一向尊尚其書，如許魯齋之於《小學》然，則其中一言一句，師法奉持之且不暇，更安有工夫點檢其他耶？既蒙不鄙，俯詢及此，不得不罄竭愚慮。悚仄悚仄。

9) 聲：養校〔‘聲’疑‘成’〕

SNL0972 (書-趙穆-101) (續卷5:4右)(樊續卷5:5右)

與趙士敬¹⁾

頃者汾會，因君戲言，致罰於君，不覺喧笑，皆是酒失，追思悚惕。就中前寄〈人心道心圖〉，欲於往復之間，或有啓²⁾益，而細思多有齟齬，不可示人。近聞柳而得過君而見其圖云云，恐如此或爲人傳播³⁾，爲具眼人所譏罵。向以〈天命〉一圖，招拳惹踢非一，今豈可又作此過耶？初改兩圖，并收付還爲望。((謹拜.))⁴⁾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10월 10일. 禮安.

1) 初本 ‘十日’[추가 ‘與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問 月川’

2) 啓：初本·中本·樊本·上本·《師門手簡》‘契’

3) 播：初本 ‘□’

4) 謹拜：《師門手簡》에는 뒤에 ‘十日.’이 있다.

KNL0973 (書-趙穆-102) (癸卷23:33右)(癸卷32:1右)

答趙士敬問目¹⁾

《晦庵書節要》十二卷¹⁾〈答徐子融書〉“更向他頭上過去”，是更求“一唯”以上一層妙處求到也耶？

是. ‘過’是超過此地位去也.

(《〈答陳器之書〉“綱理之大者”，‘理’疑作‘領’.))

(《未可必.【按國本《性理大全》，作‘領’.】》)

(《〈答葉味道書〉問目第三條“女之本喪”，或疑‘本’字是‘奔’字之誤.))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10월 10일~22일 추정. 禮安.

[年代考] 이 편지는 中本 12권下의 첫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의 앞에는 〈與趙士敬〉(書-趙穆-101)(中本 12권上의 마지막 편지)이, 뒤에는 〈答趙士敬〉(書-趙穆-103)이 있다. 한편, 初本에 의하면 전자는 乙丑年 10월 10일에, 후자는 10월 22일에 보낸 것이다. 이상에 근거하여 이 편지를 10월 10일~22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하였다.

1) 十二卷 : 養校 [考《朱書節要》，書今在十六卷.], 柳校 [案, 今爲十六卷.], 李校 [今定編次, 爲十六卷.]

((有理.))

〈答張敬之²⁾書〉“比較父祖年甲”，祖先於父，父後於祖，其年甲高下，雖痴人亦不當較也。

非謂將父與祖相較，謂將己之父祖與他人父祖相比較耳。

〈答林正卿書〉“季通書來云云”，此因正卿有異論，而有憾於季通前日過譽之辭耶？“渠病處”云，則非責過譽，乃正卿所學不切於身，皆自季通帶累來，故不責正卿，而直論季通所學之病而已耶？

此說是。但“有憾於”三字未穩，改作‘始覺得’。

“旬呈。”

謫人每旬呈文字於所管州縣也。

((“洪”，按《論語》，作‘弘’。))

2) 之：庚本·擬本·甲本‘夫’；定草本에는 [교정기 ‘夫’][추가 ‘之’字恐是‘夫’字.]가 있다；養校 [考《朱書節要》，‘敬夫’作‘敬之’，是.]，李校 [‘夫’當作‘之’.]

〔‘弘’與‘洪’義通。〔按《大全》，‘弘’多作‘洪’。疑宋太祖父名弘殷，故當時諱‘弘’字不用也耶？〕〕〕

“文義”·“文理”，何分？

書中意旨曰文義，書中道理曰文理。

〈答楊子順書〉，論克己復禮，而引夫子·子路事，看不破。

乘桴之歎，雖云假設，其無一毫惹絆，可知。辦得如此胸懷，然後克復可言耳。

〈答吳斗南書〉第二條“決不能發此聽信身心”，言不能起發此聽從篤信於身心性命之學之意耶？

言不能起發此聽從篤信之身心耳。‘身’字，只於‘心’字帶說，不作別意看。

〔〈答輔漢卿〉第四條“在彼者”‘彼’，指漢卿所處耶？〕〕

((漢卿，嘉興人，近臨安，故揔指都人云。))

〈答陳衛道〉第二條“却好且拈向一邊”，是謂姑撥置別處，勿爲想像云否？

是。

“罩占”，是遮蔽掩覆之意否？

魚罟之自上籠下者。

((〈答陳才卿書〉“當有處”，謂當有處之之道否？))

((是。))

((或恐“處”字上下，有闕字。))

((無闕文。))

((“棒喝禪宗。”))

〔問禪，答者或用棒打，或呵喝而令人悟道。〕

〔第四條“水北。”〕

〔似是才卿講學之所，未詳何地。〕

〔〈答余正叔〉“對塔說相輪。”〕

〔‘相輪’，塔上所有之物。觀塔，不由中上層層歷覽，但於平地，對塔說相輪之狀，雖說得分明，無少益於觀塔之實。〔本程子語。〕蓋空言不踐履之喻。〕

〔“一直。”〕

〔猶言一向，直如此也。〕

〔〈答趙恭父〉第三條“鼠藥。”〕

〔置毒於鼠食物中，以斃鼠耳。〕

〔〈答趙致道〉末段“大須”，疑乙。〕

((不當乙。))

((〈答周純仁書〉“一番除拜”，何事?))

((當時政事也。))

((所謂“故舊”，何人?))

((謂如蔡·呂等諸賢。))

((“謹出”，疑作‘讀書’。))

((不是。))

((〈答周南仲〉第二條“體究”，向承面教云：“저주다.”
如此等處，則義不然，是體驗窮究之謂。))

((一語而取義各異。))

((〈答許生書〉“看話頭”，何意?))

((謂其言之題頭。禪家謂道無不在，只謾舉一話頭，道

便在此。))

〈答杜叔高〉³⁾ ((第一條“仁里諸賢”，謂誰？))

叔高，婺州人。諸賢，卽諸呂等諸人。

第二條⁴⁾((“千生萬受。”))

((未詳。【謹按《字解》，“艱苦也，又貧乏也。”】))

“亂道”，是道理之道，說道之道？

說道之道。

“辛丈”，何人？

辛棄疾也。

((“小未安者”，何事？))

3) 答杜叔高：定草本에는 없다.

4) 第二條：定草本에는 없고 [추가 ‘亂道’上, 當有‘答杜叔高第二條’七字.]가 있다.

((‘未安者’，辛之所爲事，未知何事。))

十三卷⁵⁾〈答汪易直書〉“無待於自欺”，未曉．或恐‘欺’作‘訟’．

或說恐是．不然則“無待於自欺”，謂無待於自欺而後改之也．

((〈答曾無疑〉第二條“固有而循習之”者，即人之所以異於禽獸者也；“昔之舊者”，即自謂無本原之學也；“今日之新”⁶⁾，即古昔聖賢之遺訓也。))

((是。))

〈答潘子善問〉第四條“尤不免”，按《韻會》，“尤，通作猶。”而〈詩傳序〉“尤⁷⁾非後世能言之士所能及”，《性理群書》·《朱子大全》，並直作‘猶’字．《書·大禹謨》“舍己從人”註：“程子尤懼守己者固”；《近思錄》·《大全》，並直作‘猶’字．此所云“聖賢尤不免遭此厄會”，亦甚無義，

5) 十三卷：養校〔‘十三卷’，今爲十七卷。〕，柳校〔并上‘答杜叔高’以下，今爲十七卷。〕，李校〔亦今十七卷。以下同。〕

6) 今日之新：上本‘今日之新者’

7) 尤：樊本‘又’

語勢疑當與〈詩序〉·《書》註，同作‘宄’字看，何如⁸⁾？

考據精審，此說極是。(((此說指“〈大禹謨〉”以下。)))

〈答林德久〉第三條⁹⁾((“彭書”，何書？))

((先生與彭公書，托林以傳，而彼已謹傳，故云。))

“非晚定須別求捷徑”，未解。

言“不久，定必別求捷徑以入之矣”，‘須’，必也。

((第九條“干堂”.¹⁰⁾))

((干求於中書堂也。當時宰相有罪人，一路人多求此，非也。))

((“隨時”下，疑闕‘隨’字。))

8) 何如：中本·樊本·上本‘如何’

9) 答林德久第三條：定草本에는 없고, [추가 ‘非晚’上, 當有‘答林德久第三條’七字.]가 있다.

10) 堂：上本‘當’

〔無亦不妨，但不似先生文法。〔謹按《性理大全·太極圖說》小註，
西山真氏所引有‘隨’字。〕〕〕

〔上云“待次閑中”，則宜與漢卿相從；此云“難得相聚”，豈以兩人所處不同而然耶？抑別有以耶？〕〕

〔漢卿，嘉興人；德久，華亭人，固不同處。然又不知何故耳。〕〕

〈答嚴時亨〉第二條“首尾”，何事？是編集《禮書》首尾否？

是。

第三條“隙中日光”，何語？

隙之大小，日光有大小，以喻氣之不同，性有不同。

〈答曾景建書〉第一條“指本心”，則似謂禪學。“講端緒”者，何謂也？

‘講端緒’，似指湖南學問也.

((第二¹¹⁾條“料理.”))

((料檢整¹²⁾理之意.))

((第四條“征苗”，是禹征苗，而景建自有論說否?))

((是.))

((〈答張元德〉¹³) ((第二條“用功【ㄴ ㅍ ㅌ ㅍ】”，“此【ㅂ ㅅ】”，
“害【_那】”))

((‘功【_引 ㅌ ㅍ】’，‘處【ㅂ】’，‘害【_那】’))

((第三條“此字.”))

((‘此’指‘命’字.))

11) 二：上本 ‘三’

12) 整：上本 ‘精’

13) 答張元德：定草本에는 없고, [추가 ‘第四條’上, 當有‘答張元德’四字.]가 있다.

第四條“彭丈”，是龜年？是他人？元德所勸，是講學事耶？若然則先生嘗云“非關門閉戶所能避”，與此異矣。

非但他書所言如彼，此書下文，亦自言講學事。蓋所云“勸彭丈”事，託辭以戲言之耳，豈可作實意看耶？

“寧略毋詳，寧疏毋密”，朱先生平日教人讀書，詳審精密，最是第一義，而此則不然。恐是當時，隨人淺深，抑揚開闔，各有其妙，故語意自不同也。孟子所謂“教亦多術”，正此意也。但此‘略’字，是總略之略，非忽略之謂；‘疏’，是疏通之疏，非疏漏之謂。‘詳’，則細瑣之謂，而非詳審之意也；‘密’，是拘滯之謂，而非精密之意也。字義亦隨處活看，當不失當時訓誨之意。不審然否？

先生嘗語李方子，有“寧詳毋¹⁴⁾略”等語。言固各有當也，字義如此看，亦善。

第五條所謂“通復二字”，程子謂“復下面一畫便是

14) 毋：上本‘有’

動，安得謂之靜”，朱子亦謂“在人則爲靜極而動”，與此不同.

《通書》云：“元亨，誠之通；利貞，誠之復.” ‘二字’出於此，非復卦之復也.

第七條，此段問答之意，未知.

元德意，衆人，物欲之根常存，不可謂未發之中，故答之如此.

((第八條“根鈍”，多作‘鈍根’，恐字倒.))

((非倒.))

((〈答王晉輔〉¹⁵⁾第三條“徒近”之‘近’，是淺近意，似無妨.))

15) 答王晉輔：定草本에는 없고 [추가 ‘六條’上, 當有‘答王晉輔’四字.]가 있다；柳校 [今案, ‘王晉輔’, 當作‘杜仁仲·良仲’], 李校 [按《朱書》, 此〈答杜仁仲書〉第五條.] 今按: 해당 내용은 현재 통행하는《朱子書節要》권17에는 〈答王晉輔〉제3조에 나온다. 柳校와 李校의 교정내용은 庚本을 편성할 때 본문이 刪節되어 아래 본문 “咕咕”으로 이어지면서 생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李校에서 第5條라고 한 것은 〈答杜仁仲〉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答杜仁仲·良仲〉을 기준으로 한다면 第6條에 해당한다.

((‘近’，疑當作‘欲’。淺近意，未知無妨處。))

((“何乃爲”是句絕？“此”字是句絕？))

((‘爲’字句絕不是，‘此’字連‘爲’字看。))

((第四條“程糾”誰？“《年譜》”何？))

((未詳。糾謂尉也。))

((季章若未來，朱先生欲遣人極力招致，非干晉輔事。
“逸居獨學”以下，是朱先生自謂，仍以警晉輔耶？))

((謂季章若未來晉輔處，晉輔當極力招致耳。))

((〈答杜仁仲·良仲〉第三條“少副”之‘少’，疑作‘以’。))

((果然。))

六條“咕咕”，字訓義云云。“‘咕’音帖，咕囁耳語。又
‘咕咕’，小貌。王叔文¹⁶⁾‘咕咕小人。’”¹⁷⁾

16) 王叔文：養校·柳校 [按，‘文’下缺‘傳’字。王叔文，唐時小人。]，李校 [瓢谷柳丈謂，‘王叔文’]

‘咕’字考訂甚詳，始知滉前說之誤。但今只當合耳語及小貌兩訓而看，則咕囁小人之義，自在其中。蓋耳語，自有猥瑣之態，故又有小貌之訓。而先生所稱，亦不過此意，只如此平易明白看了，足矣。恐不當復以‘嘗’字之訓攙¹⁸⁾插其間，更引‘喋’¹⁹⁾·‘諜’等字，推說蔓衍，愈巧愈鑿，恐不免支離剩出之病。如何如何？

((〈答奚仲淵書〉“義理之間”，‘理’，或恐作‘利’。))

((元本亦作‘理’，恐或說是。))

((〈答傅敬子書〉“大字二卦說”，是何文字？))

((傳所須耳。))

下缺‘傳’字。] 今按： 현재 통행하는《朱子書節要》권17〈答杜仁仲·良仲〉에는 ‘傳’이 있으므로, 교정기록들에 따라 보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17) 咕音帖……小人： 中本에는 [부전지 ‘咕音’以下, 似是問目, 當連書, 圈去之. ‘咕字’云云, 極行書.]가 있다. 今按： 中本에는 “咕, 音帖……小人”이 別行에 極行으로 되어 있고, 뒤에 ‘○’이 있으며, 이어서 “‘咕’字考訂……”이 있는데, 이는 “咕, 音帖” 이하를 退溪의 答변으로 본 것이다. 부전지의 내용은 “咕音帖……小人”을 趙穆의 問目으로, “‘咕’字考訂” 이하를 退溪의 答변으로 보고 그에 따라 편집을 바꾸라고 한 것이다.

18) 攙： 庚本·擬本·甲本 ‘儻’； 擬校 [舊校時云, ‘嘗’字未詳. ‘イ’, 傳本作‘才’云.], 養校 [‘儻’恐[‘攙’].]

19) 喋： 樊本·上本 ‘諜’

((〈答高國楹書〉“競”字·“勝”字，意未曉。))

((古有“與病爲敵”之說，今欲去“不能處事”之病，故有‘競’·‘勝’二字。))

((〈答常鄭卿²⁰⁾書〉“須招致能作舉業者，誘進一等後生”，是何道理？

此段重在“依本分·識道理”六字。旣不能廢舉業，只得如此，所謂“教亦多術”也。

〈答李晦叔²¹⁾〉(書)“纔說性”以下，似與上文義不相蒙。))

((隨所問而答，固不得首尾一意。))

((第二條“偏【今ホ】”，“疑【ソ也】”，“夫【ソヒヒ】”。))

((恐只得如此看。))

第六條伊川語，未詳。

20) 常鄭卿：中本에는 [부전지 ‘常鄭卿’更考.]가 있다.

21) 答李晦叔：定草本에는 없고 [추가 ‘第六條’上, 當有‘答李晦叔’四字.]가 있다.

言諸生遭期功之服，冒哀在學中如常者，不禁也。

第八條，第六卷〈答陳明仲書〉云“繼室爲別廟”，與此不同。

〈答陳書〉五廟之說，常所未曉，恐只謂龕爲廟耳。

〈答李敬子²²⁾〉(書)一行，恐當低一字.)

((是.))

第二²³⁾條，此所謂“伎倆”云者，當作何意看？

爲學，當平平地做將去，久自有得處。今云以四勿靠定，又以義理融液之，豈不是‘做伎倆’耶？

第三²⁴⁾條問目云“先以博約爲先”‘先’字，似疊。且先

22) 答李敬子：定草本에는 없고 [추가 '第二條'上, 當有'答李敬子'四字.]가 있다.

23) 二：養校 [‘二’，今當作‘一’.]，柳校 [案，‘二’，今當作‘一’.]，李校 [‘第二’之‘二’，當作‘一’.]
今按： 해당 問目은 현재 통행하는《朱子書節要》권17〈答李敬子書〉에 의하면 제1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一’로 고치는 것이 옳을 듯하다.

24) 三：養校 [‘三’，今當作‘二’.]，柳校 [按，‘三’，今當作‘二’.]，李校 [‘三’，當作‘二’.] 今按：
해당 問目은 현재 통행하는《朱子書節要》권17〈答李敬子書〉에 의하면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二’로 고치는 것이 옳을 듯하다.

博而後約，此一併說，何如？

前‘先’虛辭，後‘先’實辭。

朱先生答云“非二事”，是指博文與約禮耶？（抑博約與四勿，非二事云耶？【自“抑”至此十一字，先生爻周。】）且敬子所問皆要切，而上則云“不須如此做伎倆”，此則云“既知如此，何不用力”，豈敬子長於問難而不力於行，故責之耶？

上問有病，故云“不須做伎倆”；此問無病，故云“何不用力”。

（〈答孫敬甫書〉“薄冗”，屬下句，屬上句？）

（當做上下兩間讀。）

（末段“前輩”，謂誰？）

（未詳。）

《〈答孫仁甫書〉第二條“奉告”》

《謂承書也。》

《〈答余正甫書〉“荊舒”》

《王安石也。》

《〈答易簡書〉，考〈戾太子傳〉，別無“游燕後宮”事。》

《太子致敗之故在其傳，非謂漢帝游燕事在〈太子傳〉。》

KNL0974 (書-趙穆-103) (癸卷23:38左)(癸卷32:12左)

答趙士敬¹⁾

頃承示諭“一有之而不能察”之義，卽當回復，只緣自家所見不能洞然到無纖芥之疑處，又患時令，多日廢業，因循至今，疏慢爲愧。來喻之說，非但高見如此，舉世人人，皆用其說，雖滉亦嘗知有其說。只爲本章有四“有所”字，朱子又有“期待”·“偏繫”·“留滯”等語，所以從來讀者，便將這意思賺連看了。此其爲說，固若明白的確，更無他義於其間也。然而滉有他說者，非欲立異而不從衆說。只爲如此，則“人所不能無”以上，方論其理而已，未說到心與物接處，而遽以一向偏重有之云云，非但語意闕促，亦只徑說得不察而不得其正者一邊了，更不容能察而得其正者占地位了，似非先生平日語意之圓活，以此爲疑。及看《或問》說此章處，“亦其用之所不能無者”下，有“未感之時”云云，又有“感物之際”云云，至“亦何不得其正之有哉”而後方言“唯事物之來，有所不察，應之旣或不能無失，且又不能不與俱往，則其喜怒憂懼，必有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10월 22일. 禮安.

1) 初本 ‘二十二日’[추가 ‘答趙士敬’]

動乎中者”云云。蓋於“所不能無”之下，既說靜時之體，又說²⁾動時之用；其於應接處，猶不直言偏重之失，只平說事物之來，必至於有所不察，然後乃³⁾有偏重等之病。以此意思揆之謬見，似不能不相契也。滉所以恐或有他說者，此也。然《或問》則遠矣，而本章“有所”二字及“期待”等六字，已先在人人鑑空之中·衡平之上，何可以滉將信將疑之左見，與之爭是非而必從吾說耶？柳而得所謂滉意如是不動者，是乃過傳之語也。近得都下友人寄聲規責，大意謂“爾輕接後生，其後生豈人人識理爲正當人耶？既還都下，妄爲推重，欲以爾一動一靜一言一行，皆爲模範云。此等事爾可堪當耶？”云云。此乃切至之誨，聞之驚汗浹背，三日不止。以此自反⁴⁾，凡世之不用吾說者，乃真助我者也；外我叱我者，卽真重我者耳。⁵⁾以此等意，苦辭來者，而景善輩尙且未去，亦見其愚之過我也。((呵呵。《心經》一段，示意，謹承悉矣。《伊洛》·《續集》二冊送呈。且休紙十幅·白紙十幅，寒齋禦風。))

((《益會》已來。))

2) 說：上本‘有’

3) 乃：上本‘迺’

4) 反：上本‘返’

5) 耳：上本‘也’

KNL0975 (書-趙穆-104) (癸卷23:40左)(樊卷32:14右)

與趙士敬¹⁾

晨興望山，懷想悠然，倅至爽豁．“尋〈遂初賦〉”，似微有如來示之意，但卒乍間，未敢深信，當更思之．寒暄丁憂事，問於其孫立，則云：“寒暄母夫人歿²⁾，在寒暄卒後數年之後，丁父憂爲是．”然則〈李績行狀〉所云內憂，非誤也，亦謂父憂爲內憂耳，蓋古人固有以內憂稱父憂者故也．但如此，則行狀上文“省大夫人”處，乃³⁾是具慶之時，而只稱大夫人，斯爲誤矣．(昨，子中來，意欲邀君共宿，從容叙別，自云：“其家行在奈城，明明當發京行，不得已趁往措處．”匆匆數刻而去，殊多未盡，良可恨也．簡紙一卷，呈似．))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11월 22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趙穆이 丙寅年 2월 退溪에게 보낸 詩(〈丙寅二月上先生【先生時被召命在豐基】〉) 3首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第2首 1首만 《月川集》권1에 〈伏呈退溪先生〉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1) 初本 ‘十一月二十二日’[추가 ‘與趙士敬’]

2) 歿：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甲本·上本·樊本 ‘沒’

3) 乃：上本 ‘迺’

《當朱子時，宋都臨安，乃浙地；至垂亡，乃播遷閩·廣，今云都閩·廣，誤也。》⁴⁾

4) 當朱子……誤也 : 初本·中本에는 없다 ; 中本에는 [부진지 ‘當朱子時, 宋都臨安, 乃浙地. 至垂亡, {乃播遷閩}廣, 今云都閩廣, 誤也. ’]가 있다.

SNL0976 (書-趙穆-105) (續卷5:4左)(樊續卷5:5左)

答趙士敬問目【《大記》】¹⁾

“自其因地之初.”

‘因地’, 未詳. 此必釋氏有此語, 恐指爲入山修道之地, 如下文所謂“入山林, 求空寂之地”之類, 謂因其地而修道云耳.

“不舍一法.”

吾所謂道, 彼所謂法也, 謂不遺却一道理也.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10월 10일 이후~12월 말 추정. 禮安.

[編輯考] 續集의 編次에 의하면, 이 편지는 〈與趙士敬〉(書-趙穆-101)과 〈與趙士敬·琴聞遠【丙寅】〉(書-趙穆-108) 사이에 있다. 그런데 전자는 初本에 의하면 乙丑年 10월 10일에 보낸 것이고, 후자는 續集의 題下 小註에 의하면 丙寅年에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乙丑年 10월 10일 이후~12월 말에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편지를 乙丑年의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1) 答趙士敬問目【《大記》】: 今按: 이 편지는 《晦庵集》권70 〈讀大紀〉에 대한 趙穆의 질문에 답한 것이므로 ‘大記’는 ‘大紀’가 되어야 할 듯하다. 본문 중의 ‘大記’ 역시 마찬가지이다.

“實見之差”與“幻見空說”，有以異乎？

不見《大記》，未知果誰指也。然觀其語，似泛指吾黨之士爲吾學而闢異端者言也。

BNL0977 (書-趙穆-106) (樊卷32:15右)

答趙士敬¹⁾

遠書問疾，感慰交集。滉出山以後，病日益甚²⁾，上章乞辭，甚非得已。嶺雪阻險，伏俟於豐郡，其人過期不還，不知何故？且得請與否，時未知如何，方深危惕。昨見銓曹人，知被薦除，喜賀之至。病拙蹤跡既如此，君若不爲趨謝，人將指目，恐不可不審處之。來詩三絕甚有意思，警切於昧者，至矣。但方此兢仄，不暇吟咏，故不及和呈，恨愧恨愧。若未蒙許退，則有極難處者，無聊中不能一一，姑此奉謝。³⁾

銓人訶使勿往，不聽而往，甚憎甚憎。此風古無，而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2월 8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편지의 앞에 趙穆의 詩〈丙寅二月上先生【先生時被召命，在豐基.】〉3수가 있다. 또한 初本 및 《師門手簡》에는 〈別紙〉에 退溪의 詩(內集 권4〈豐基館，答趙上舍士敬【時士敬寄詩來頗譏余行，適聞其有恭陵參奉之命，故詩中戲云.】〉，KNP0351)가 실려 있다.

1) 初本 [추가 '答趙士敬']; 《師門手簡》'士敬 奉謝 趙參奉宅'

2) 甚: 初本·中本·拾遺 '深'

3) 奉謝: 初本에는 뒤에 '【丙寅二月初八日燈夕. 某.】'가 있고, 《師門手簡》에는 뒤에 '【丙寅二月初八日夕燈. 滉.】'이 있다.

出於近世貪官爵者顛喜妄給之餘，富者亦不當給，
況貧如君乎？雖擯逐勿接，無不可也。

BNL0978 (書-趙穆-107) (樊卷32:15左)

與趙士敬¹⁾

幸免死來歸，然未得許命以²⁾來，危惕曷喻？吾旣如此，君何復然？益有未安．餘可面晤，且草草．³⁾

〈行狀〉，領得．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3월 16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시 〈病留豐基□趙士敬. 時士敬寄詩, 頗譏余行, 而適聞其恭陵參奉之除, 故詩中云〉(遺集內篇 권1, 〈病留豐基, 時士敬寄詩, 頗譏余行, 而適聞其恭陵參奉之除, 故詩中云〉, BYP1073) 3수와 〈四月日. ○士敬未赴恭陵祠官, 寄詩六絕來, 病未盡和, 和首尾二絕云〉(內集 권4 〈趙士敬親老且窮, 不堪遠宦, 未赴命, 寄詩來, 奉和【二絕】〉, KNP0365)가 실려 있다.

1) 初本 ‘三月十六日’[추가 ‘與趙士敬’] ; 《師門手簡》 ‘士敬 奉復 月川’

2) 以 : 《師門手簡》 ‘而’

3) 草草 : 《師門手簡》에는 뒤에 ‘暮春望翌, 滉.’이 있다.

SNL0979 (書-趙穆-108) (續卷5:5右)(樊續卷5:6右)

與趙士敬·琴聞遠【丙寅】¹⁾

書院事，昨與聞遠粗言其概．但卜地事，更思之，前卜之地，若有耕地如聞遠之言，恐不須改卜於他，而定於此．所恨者，西向爲未便耳．若丹砂，則雖或有可當處，有司人往來²⁾不便近，此似爲難．近日若僉會更卜，姑除丹砂，只先會東村，看凌雲巖可否，然後來審前卜地議定，可也．又有一事不可不先定者．若定此地，與匠戶隔遠，又不可使司馬所人都幹其事，必別有一可信幹事者都付，然後可議其他．此恐難得其人，奈何？公等近當見城主云，故告之如右．((僉照.))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3월~4월 추정. 禮安.

[年代考] 初本과 中本の 編次에 의하면, 이 편지는 丙寅年 3월~4월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1) 初本 ‘士敬·聞遠僉白’[추가 ‘與趙士敬·琴聞遠’]；中本·拾遺 ‘與趙士敬·琴聞遠’；《師門手簡》‘士敬 聞遠 僉白’

2) 往來：上本 ‘來往’

SNL0980 (書-趙穆-109) (續卷5:5左)(樊續卷5:6左)

與大成·幹之·士敬·聞遠·應休¹⁾

痴兒送²⁾使行還任所，送此物來．平日，每戒兒勿爲老父索物於人，不知於何而得．恐或覬覬之肉，然却之又近矯，敢略呈，一笑．所以具白所從來者，慮士敬後聞，出而哇之故也．(進退惟命，又呵呵.)³⁾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4월 26일~29일 추정. 禮安.

1) 初本 ‘大成·幹之·士敬·聞遠【以上錢魚各五尾】·應休【三尾】’[추가 ‘與大成·幹之·士敬·聞遠·應休’]；《師門手簡》‘大成 幹之 士敬 聞遠 以上錢魚各五尾 應休 三尾’

2) 送：初本·中本·樊本·上本·《師門手簡》‘從’；續草本 ‘送’[추가 ‘送’, 初本‘從’.]

3) 進退……呵呵：續草本에는 없고 해당 내용이 追記되어 있다；《師門手簡》에는 뒤에 ‘浬.’ 이 있다.

KNL0981 (書-趙穆-110) (癸卷23:41右)(樊卷32:16右)

與趙士敬¹⁾

近日有何工程? 何所用心處? 僕臍腹恒覺不平, 端午前入溪上, 因而不出陶舍, 職事曠廢, 奈何? 海州印本《朱書》, 曾得一件, 近方校勘, 誤字甚多. 若如此輾轉²⁾承訛襲謬, 終不成書, 可慮可恨. 就中右書第一卷, 僕未發行前已校正矣, 歸來尋之不得. 恐或爲人借去, 不記爲何. 念君自有星本一件, 似無借此卷之理, 聊此言及之耳. 今此讀過, 更覺先生爲人之意如此其深切, 而自恨年齡衰晚, 不能痛下工夫, 日用之間, 若存若亡, 旋得旋失, 他日將無以見先生於地下. 然未死之前, 不敢不勉爾. ((不具.))³⁾

((知君僮奴無閑, 如欲垂報, 徐遇便風, 或附赴場市人, 可傳來也.))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5월 8일. 禮安.

1) 初本 '五月初八日'[추가 '與趙士敬'];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輾轉 : 初本·中本·定草本·庚本·甲本·樊本·上本·《師門手簡》 '轉轉'. 今按 : 기준본(癸本)에는 글자를 수정한 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실제로 같은 癸本 계열의 판본에도 '轉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轉轉'으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輾轉'으로 교정한 것일 수 있다.

3) 不具 : 《師門手簡》에는 뒤에 '丙寅午月初八.'이 있다.

BNL0982 (書-趙穆-111) (樊卷32:16左)

答趙士敬¹⁾

書至，并獲評駁《心經》一冊・盛詩一封，如得百朋，喜倒。適琴熏之來對話，未暇披閱，且捧置几間，先此回報，徐擬從容卒業後²⁾更報耳。草草。惟恕諒。³⁾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5월 11일. 禮安.

1) 初本 ‘十一日’[추가 ‘答趙士敬’]；《師門手簡》‘士敬 奉復 月川’

2) 後：拾遺에는 [부전지 ‘業’下有‘後’字.]가 있다.

3) 惟恕諒：《師門手簡》에는 뒤에 ‘丙寅五月十一日, 滉.’이 있다.

KNL0983 (書-趙穆-112) (癸卷23:41左)(癸卷32:16左)

與趙士敬¹⁾

前惠詩簡·《心經》等，所當報者甚多，彼日對人草謝，後來亦一向因循，闕然至此，殊愧逋慢也。細看公詩，近覺有長進得趣味，可喜。但其間不無有誇逞矜負自喜之態，而少謙虛斂退溫厚之意。恐如此不已，終或有妨於進德修業之實也。其首章“歸來十里江村路，宿鳥趨²⁾林只自知”，此一句正是公所以自言其超然獨得於人不及知處，以詩人趣味論之，亦甚得意。然以學問意思看來，正恐病處在此句上。何者？以其太早計也。自古有志此事者多矣。人心本自³⁾靈明，苟有意讀聖賢書，當其始也，豈無一知半解窺得其影象之髣髴處？於是此人之心，遽已侈然自足，以爲吾已知之而世人皆不知之，乃自以其身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5월 21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別紙〉 뒤에 시 〈七月八日, 山居偶書病懷, 寄士敬·聞遠.【丙寅夏】〉 (續集 권2, SNP1057) 한 수가 실려 있다.

1) 初本 ‘二十一日’[추가 ‘與趙士敬’] ;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趨 : 上本 ‘移’

3) 自 : 上本 ‘有’

抗而賓之天下第一流上，不復知有求益與來善之事。至甚則不唯於一世人爲然，雖古昔儒先之列，亦率欲陵⁴⁾跨躡轢，必出於其上而後爲快者，滔滔皆是，此卽⁵⁾明道先生所謂“輕自大而卒無得”者也。去冬所論《大學·正心章》章句“一有之不能察”一句，公因見柳雲龍後，辱示論辨，極其詳確。滉雖未能遽解其惑，亦未敢以愚見爲必是而無疑，故更不能往復詢究。近緣校海州本《朱書》，偶於元本大全集中見數條，正是此句之類，錄在別紙，幸公詳以見教。若并此以爲不然，則非滉所知，如以爲然，公前日之負自知，無乃太早乎？故拙句僭⁶⁾有云云，不知何如？又聞公以滉前與奇明彥論四端七情理氣之分，謂奇說爲是，此亦未可曉。滉閒中細看其所謂〈天命圖〉者，其圖內固有病處，已略爲更定，猶未到十分，甚悔當初輕出未成本也。至四七分理氣，本非吾⁷⁾說，乃考亭元有說如此。近又見程林隱〈心統性情圖〉，正用此⁸⁾說，亦錄在別紙，可更虛心游意，勿遽揮斥而看，恐可信鄙說非出

4) 陵：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師門手簡》‘凌’

5) 卽：上本‘則’

6) 僭：初本‘潛’

7) 吾：上本에는 없다.

8) 此：擬本‘此’[부전지 ‘此說’之‘此’，手本作‘是’]；《師門手簡》‘是’

於妄見也。如何如何？至如《心經》，則考訂甚詳，改正加減，務欲令此一卷書無疵而盡善。其中有向日所詆，如“惟理無形”之語·〈心學圖〉之病·〈范箴〉下朱子說之類，皆不加斥出，固亦致謹之意當然。苟依此流布，豈不爲學者之幸？所可疑者，亦不無太早之嫌，而有違於先儒存衍文闕疑殆之意耳。然《大學》·〈武成〉之錯簡，先儒固已更定，亦或無妨也。惟是篁墩先生，吾昔日尊仰，不啻如山斗如神明，自見考示，不勝悼心失圖，且疑且怪，無以自釋也。朱先生晚悔向來浮泛之弊，誠有之，故門人述行狀，亦公誦言之。然遂以是爲與陸同道，則誣之甚矣。“勢利脫不得”之論，未知虛實如何。然所見之差既如彼，則其見於行者，又安保其必無病耶？以此知爲學之人到真實得力處，絕非易事，可懼之甚也。然其所謂《道一編》及《學菴通辨》·《編年考訂⁹⁾》等書，得見未易，亦可恨耳。頃讀《晦庵書》，見其〈與蔡季通書〉，論“陳廷臣議論勁切不易得”，“然見其詩頗跌宕，想亦以此不爲人所敬耳。”今於篁墩，以平生尊敬之心，一見“勢利”二字，便使人不覺失其慕仰之惻。天理人欲之間，才有毫釐之分，而其驗於人如影響，此古人所以兢業戒惕，未

9) 訂：庚本·上本‘證’

嘗頃刻而可忽也. 雖然, 《心經》一部書, 所萃皆孔·孟·
濂·洛·閩·湖群哲之緒言, 又未可緣此而略萌慢易之心
也, 此又吾輩之尤當切戒也. 《心經》中諸有商量處, 今不
暇及, 當俟後日. 謹此草白.¹⁰⁾

10) 草白 : 《師門手簡》에는 뒤에 '丙寅五月二十一日.'이 있다.

KNL0983A (書-趙穆-112-1) (癸卷23:44左)(樊卷32:19左)

別紙

〈答黃子耕書〉曰：“云云，近修《大學》，此章《或問》頗詳，今謾錄去，可以示斯遠也。”

“或問：喜怒憂懼，人心之所不能無也。而曰有是一者，則心不得正，而身不可修，何哉？人之心湛然虛明云云。”其下又云：“苟其胸中，一有不誠則云云。”【見五十一卷三十八板。】

周舜弼問：“忿懣·恐懼·好樂·憂患，人之所不能無者。然有一于此，則心不得其正，何哉？蓋此心不可以頃刻而不存，苟喜怒憂懼一萌于中，則心有係累云云。”【見《大全》五十卷五十六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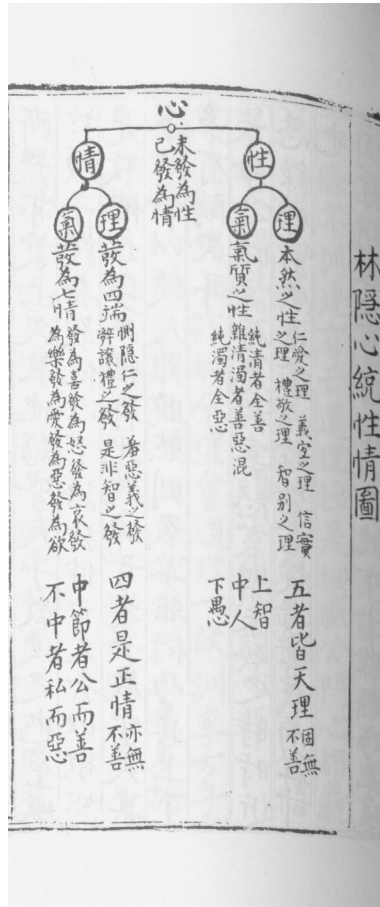
今按，上一段〈正心章〉《或問》，與今《或問》大異¹⁾，乃後日更修而棄此段不用者也。然必以他文義未盡而改修耳，非以“有是一者”及“一有不誠”等語爲失本旨而改也。至舜弼所問，先生答之曰“有喜怒憂懼，則四

1) 與今或問大異：[두주 一本, ‘今或問’下有‘文’字.]가 있고, 甲本·癸本·樊本·上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 ;《師門手簡》‘與今《或問》, 文大異’ ; 擬校 [‘大異’上, 手本有‘文’字.]

者之發，不得其正；無喜怒憂懼，則四者之發，何不正之有？”而已。亦不以舜弼“有一于此”·“一萌于中”兩語爲非。

據此數語，以看《章句》“一有之而不能察”之‘一’，爲專一·主一之義爲是乎？爲對上文“四者”之‘一’爲是乎？“一有不誠”·“一萌于中”，兩‘一’字雖與兩‘有一’字少異，亦非專一·主一之義也。

((林隱心統性情圖))



((其論性情，又云：“感通之謂情，則四端者理之發，七情者氣之發也。”【此全用朱子語輔漢卿之說。】))

KNL0984(書-趙穆-113)(癸卷23:45左)(樊卷32:21左)/(續卷5:6右)(樊續卷5:7右)

答趙士敬問目【《心經》】¹⁾

《心經》誤字疑義²⁾, 考校³⁾精詳, 皆以⁴⁾依樣傳寫. 此間本, 其中除泛例考出者外, 取⁵⁾緊要⁶⁾不易思得者若干處, 錄上如左.

▶ 丙寅年(明宗21, 1566년, 66세) 7월 11일. 禮安.

[編輯考] 初本·中本·《師門手簡》을 보면 內集 권23의 〈答趙士敬問目【《心經》】〉과 續集 권5의 〈心經誤字疑義〉는 본래 하나의 편지였다. 그런데 庚本을 편성할 때 趙穆이 제시한 〈心經誤字疑義〉의 구체적인 세목은 “正心章恐懼·憂患云云”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退溪가 직접 쓴 부분만을 남겨두었다가 續集을 편성할 때 그 세목들을 다시 〈心經誤字疑義〉라는 제목으로 복원하여 수록하였다. 여기에서는 初本·中本·《師門手簡》에 따라 합편하였다. 또한 癸本에서는 趙穆의 問目이 低一字로, 退溪의 答면이 極行으로 되어 있으나, 續集에서는 趙穆의 問目(“〈敬恕〉註” 이하 9條) 역시 極行으로 되어 있다. (다만 《心經附註》의 한 章에 대한 問目이 2條 혹은 3條가 있는 경우, 제2條 이하는 低一字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癸本을 기준으로 하여 趙穆의 問目を 모두 低一字로 보고 편집에 반영하였다.

[資料考] 初本에는 뒤에 〈心經後論〉(雜著-2)이 실려 있다.

- 1) 初本 ‘七月十一日’[추가 ‘答趙士敬問目’]; 中本 ‘答趙士敬問目’[부전지 ‘《心經》’]
- 2) 心經誤字疑義: 續草本 [추가 依初本次. 初本〈答趙士敬問目【心經】〉, 此《心經》云云六字, 初本在‘考校精詳’之上.]. 今按: 續集·續草本에는 ‘《心經》誤字疑義’가 제목으로 되어 있으나, 初本·中本에는 본문의 일부로 보아 뒤의 ‘考校精詳’과 이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初本·中本에 따랐다.
- 3) 校: 初本·中本 ‘較’
- 4) 以: 中本·《師門手簡》‘已’
- 5) 取: 中本에는 없다.
- 6) 緊要: 初本·中本·《師門手簡》‘要緊’

〔“克復”註朱子說，‘益’爲‘蓋’。〕⁷⁾

敬恕註末段“一般藥”，‘般’爲‘服’。

〈正心章〉“疑病”小註，呂氏說，“擇義不正”，‘正’爲‘精’。⁸⁾

〈正心章〉“恐懼·憂患云云”，按《大學章句大全》所記與此文小⁹⁾異，而無“都不得”三字。且看此文勢，問者以忿懣·好樂爲在我，以恐懼·憂患爲外面來。故朱子答曰“都不得如此說，四者皆是外面來底”云耳。先生解“都不得”意，如“無可奈何云云”，似不然。按〈平天下章〉“絜矩”下，朱子第九條說云“不成自家老其老，教他不得老其老云云”，末云“便不得”，語勢與此略同，不審何如？〔且此條，考之《語類》本文看如何。〕¹⁰⁾

7) 克復……爲蓋：續草本에는 없고 해당 내용이追記되어 있다. 今按 樊本(內集)·上本(內集)에는 이 부분이 極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退溪의 답변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初本·《師門手簡》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克復註……”부터 “〈正心章〉‘恐懼·憂患’云云……”까지, 그리고 아래의 “〈禮樂章〉……”부터 “〈尊德齋〉註……”까지는 모두 趙穆이 제기한 ‘《心經》誤字疑義’ 가운데 退溪가 ‘緊要不易思得者’라고 간주하여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다른 부분과 같이 趙穆의 問目으로 보아 低一字로 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8) 〈正心章〉……爲精：續草本에는 [추가 依初本次. 初本此行接書于上行‘註’字下.]가 있다. 今按 續集에는 ‘呂氏說’ 이하가 別行으로 되어 있으나, 初本·中本과 樊本(續集)·上本(續集)에는 위의 ‘小註’에 이어져 있다. 이 부분은 《心經附註·正心章》“疑病……”條 小註의 東來呂氏說에 보이는 글자상의 오류(誤字)를 지적하는 내용이므로 初本 등과 같이 앞에 이어서 쓴 것이 옳은 듯하다.

9) 小：上本 ‘少’

今詳“都不得”三字，鄙說甚誤，如公說看方好。所引“便不得”，語意亦同，甚善。但其謂“四者皆是外面來底”，此恐未然。蓋先生謂“都不得如此說”者，謂雖是外面來底，亦當由自家有道理以處之乃可，不得但以喜怒爲在我可勉，以憂患爲不由我而不勉也云耳。所以救問者不由自家不容力之失，故其言如此。此‘便是’字，恰似作‘雖是’，語勢看，乃得其意。他處‘便是’，亦有然者。¹¹⁾ 此段下文“只看此便是”，滉欲於‘看此’下句絕亦誤，當從公說‘便是’下句絕。蓋謂只看聖人此等事，便是恐懼·憂患徒然處。

〈禮樂章〉“糊囟”小註，“自警于”下“於”字，衍。

夜氣註“又曰李先生”條，“心下¹²⁾大惡念”，‘大’下當有‘段’字。

10) 〈正心章〉“恐懼·憂患云云”……看如何：初本·續集·續草本·《師門手簡》‘同上註“問恐懼憂患”條’；中本‘同上註“憂患恐懼”條。附，按《大學章句大全》所記……看如何?’[‘同上註“憂患恐懼”條。附’에 부진지 ‘〈正心章〉“恐懼·憂患”云云’]；續草本에는 [추가 初本此條，已入原集。且條下之目，今不見載於此，合商處.]가 있다；樊本(續集)·上本(續集)에는 없다. 今按：이상을 종합해 보면，退溪의 原稿에는 ‘同上註“問恐懼憂患”條’로 되어 있었는데，中本에서 “按《大學章句大全》所記……看如何?”를 附錄으로 추가하였고，다시 이에 대한 교정(中本 부진지)을 거쳐서 定草本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착된 듯하다. 한편，이 조목은 ‘原集’(=庚本)에 이미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續集에서 다시 수록하였다.

11) 然者：《師門手簡》에는 뒤에 ‘○’이 있다.

12) 下：初本·中本·《師門手簡》‘中’

同上“范純夫女”條，“物接”作‘接物’.

末〈答張敬夫書〉，“貫”上當有‘通’字.

〈求放心〉註勉齋說，“失其至理”，‘至’，疑‘正’字.

〈尊德齋〉¹³⁾註〈答直卿書〉，“定本之誤”，改作‘差誤’.

(其未能無疑者，別紙錄呈.))¹⁴⁾

(《心經》當還痴，使人赴場市，恐所歷不便，故姑上此數紙，覽後早晚收還爲望. 滉所聞多未安，惶悚惶悚.))¹⁵⁾

“敬以直內”註¹⁶⁾，“知如何所寓”，‘如’字，《近思錄》雖無，《遺書》則有之，恐宜兩存，未可抹去也.

〈敬恕章〉末段“教”字，嘗看《語類》答朱飛卿，有“告顏子底，本領已自堅固了，未免有些¹⁷⁾私意，須一向克除教盡”之語，以此爲證，疑‘教’下脫一‘盡’字. 今因‘教’字

13) 尊德齋：初本·中本 ‘尊德性齋’；續草本에는 [추가 ‘德’下脫‘性’字, 初本添入.]가 있고, 樊本·上本에는 [두주 ‘齋’下恐脫‘銘’字.]가 있다.

14) 其未……錄呈：續草本에는 없고 해당 내용이追記되어 있다.

15) 《心經》當還……惶悚惶悚：續草本에는 없고 해당 내용이追記되어 있다.

16) 〈敬以直內〉註：初本에는 前行에 ‘《心經》考訂可疑處【別紙】’가 있고, 中本에는 前行에 ‘別紙. 《心經》考訂可疑處’가 있다. 今按: “〈敬以直內〉註” 이하는 趙穆이 보내온 ‘《心經》誤字疑義’ 중에서 退溪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사항들에 대해 논한 부분인데, 아마도 退溪는 이를 〈別紙〉에 써서 보낸 듯하다.

17) 些：初本 ‘□’

當爲衍之示，更考《語類》，論顏·冉之學問答甚多，此乃¹⁸⁾合數段而裁節成文。“公看顏子”以下，曾祖道錄；“譬如賊來”以下，董銖錄；“又克己復禮”以下，是合萬人傑·曾祖道錄而加增損也。其董錄：“云云，他力量大，聖人便教他索性克去，比如賊來，顏子是進步與之廝殺；教仲弓以敬恕，是教他堅壁清野，截斷路頭，不教賊來。”今詳此“教仲弓云云”，則‘教’字當屬下句，而顏子之進步廝殺，亦蒙上文“教他”語，皆夫子教使之也。篁墩於顏子，既去‘教他’以下語，於仲弓，又去“以¹⁹⁾敬恕是教他”六字，而獨存此“教仲弓”之一‘教’字，失其本意，所以使人難曉。然則‘教’字非衍，乃其上下，多有闕文耳。

“天命之性”註，“存養於喜怒哀樂未發之時”，‘時’，《近思錄》作‘前’。然《遺書》作‘時’，恐當從《遺書》，或兩存可也。

同註“胡季隨”一條，按《大全》此下十餘條，乃季隨與諸友論學，而季隨寄質於先生者，其下有“友恭字恭叔”，則此實潘恭叔語。篁墩失照勘以爲季隨也。

18) 乃：上本‘迺’

19) 以：初本‘而’

〈正心章〉小註，仁山 金氏說，“當懼而懼”，‘而’之²⁰⁾作‘則’，以上下文例之，似當然矣。而又恐或於此語意當變文，故下此一字。但恨他無據信，恐不如且存舊耳。

（〈夜氣章〉註，“問程子教人靜坐”條，所疑“要多慮”，‘要’字，固可疑。然此語《語類》訓徐寓·劉砥處兩出，又出《性理大全》，皆有‘要’字，恐不可以誤與衍處之。又兩處‘慮’上有‘思’字，恐有‘思’字者是。))

（〈仁人心也章〉註，“養得此中昭明洞達”，所疑‘此’爲‘心’字，或‘中’爲‘心’字。按《語類》·《性理大全》，此乃訓門人石洪慶之語，皆作“此中”，‘此中’固爲心也。然恐不當致疑而輕改也。惟其上文“在費工夫”，‘在’，皆作‘枉’耳。‘中’爲‘心’字猶可，‘此’爲‘心’字，尤不當。))

〈仁人心也章〉註²¹⁾，“又謂一學者”條，“今公問學”，滉曾據《語類》，謂當改‘問’作‘門’，明校謂‘問’字爲是。然本文既分明²²⁾作‘門’²³⁾，又《語類》稱門人爲“公門”，自不爲少。雖未知其爲何等稱謂，然不可緣我不知，而改

20) 而之：中本에는 [부전지 ‘之’疑衍, 更詳.] [추가 傳本亦同.]가 있고, 樊本·上本에도 동일한 내용의 두주가 있다; 李校 [大山云, “而之’兩字恐乙.”]

21) 仁人心也章註：初本·中本·樊本·上本 ‘同上註’；中本에는 [부전지 ‘仁人心也章’]가 있다.

22) 明：養校 [‘明’本作‘門’.]

23) 門：庚本·甲本 ‘問’；李校 [大山云, “‘作問’之‘問’, 恐當作‘門’.”]

前賢文字，以從己意也。況此乃訓沈莊仲語，而此上一條，亦訓沈有云：“道理極是細膩，公門心都麤大，入那細膩不得。”其語勢正與此同。若改‘公門學’爲‘公問學’，亦可改‘公門心’爲‘公問心’耶？

〈尊德性銘〉小註，“如今理會道理”一段，訓李方子，見《語類》。所疑“個頭”之‘頭’上，亦當有‘源’字，然本語凡三稱“個頭”，並無‘源’字，至其下，始著‘源’字說耳。

KNL0984A (書-趙穆-113-1) (癸卷23:48左)(癸卷32:25右)

別紙

爲建學卜地，烏潭爲勝，所論皆有理．不知城主與諸君，曾俱見此說否？如未，則須將此徧¹⁾呈而決之，爲佳．但有一事，殊²⁾非所急，然漫³⁾及之．潭名用‘烏’字，已定否？烏之爲物，雖有靈烏·慈烏·義烏之稱，然終是⁴⁾可賤惡，非佳物也．如邑中仁里，亦有此稱，稱來已久，今卒難改，亦不須改爲．若此潭名，但俚音近烏耳，非前稱⁵⁾．今始定字，爲永世之號，豈無佳好⁶⁾可願之物，而須用此物耶？然則何者爲可？愚意以⁷⁾‘鼇’字，何如？字書鼇訓海鼇，古有六鼇戴山之語，故山名多以鼇．況以水物名潭，豈不可耶？昔熊退齋築鼇峯書堂，

1) 徧：初本·上本 ‘編’

2) 殊：上本 ‘雖’

3) 漫：上本 ‘謾’

4) 是：初本·中本 ‘始’

5) 非前稱：[두주 一本, ‘非’下有‘有’字.]가 있고, 甲本·癸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 ; 中本에는 [부진지 ‘非前稱’三字考次.][추가 ‘有’, 傳本亦同.]이 있다 ; 《師門手簡》‘非有前稱’ ; 擬校 [‘非’字下有‘有’字. 手本]

6) 好：上本 ‘號’

7) 以：《師門手簡》에는 앞에 ‘代’가 있다.

講道其中。然則以此字名學舍，古亦有之矣。又其地名火衿，尤不雅。愚恐俚語火衿，與說‘橫’字聲相近。今若改以橫丘·橫原·橫村之類稱之，則稍爲近雅，如何？然此等亦當僉議允愜⁸⁾而定之，乃可久遠無後議耳。

8) 僉議允愜：《師門手簡》‘僉議取其允愜’

BNL0985 (書-趙穆-114) (樊卷32:26右)

與趙士敬¹⁾

子中書，縣人之還，齋來于此，赴²⁾趁虛³⁾人送去，領悉。滉辭致皆不得，而極多未安之旨，惶恐無地。但其末有待差病上來之教，玆實非迫促必來之辭，緣是稍自寬慰耳。然從前不自韜晦，馴致文字傳播，終有意外事如此。淺⁴⁾陋羞愧，不可名⁵⁾言。邸報內“六行具備，被⁶⁾薦人在京者韓修⁷⁾·南彥經與三提學一時詣闕事，傳教”，後以韓修⁸⁾出廣州姑停，而在外林薰·金範·成運·李恒皆驛召。此必有考試咨問等事，不知此人等去就，當⁹⁾何以處之？深可慮也。又兩司論元繼儉自原州還京城切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8월 1일. 禮安.

1) 初本 ‘八月一日’；《師門手簡》‘士敬 月川’

2) 赴：初本·中本·拾遺·《師門手簡》‘付’

3) 虛：拾遺 ‘墟’

4) 淺：上本 ‘賤’

5) 名：上本 ‘明’

6) 被：上本 ‘彼’

7) 修：中本에는 [부전지 ‘脩’][추기 傳本作‘修’.]가 있다；《師門手簡》‘脩’

8) 修：《師門手簡》‘脩’

9) 當：《師門手簡》‘尙’

近處，窺覘時事，請遠竄，不許，只令還原州。然其勢似不但已此，亦皆未安，不知終如何。¹⁰⁾

10) 如何：上本 '何如'；《師門手簡》에는 뒤에 '八月初一日.'이 있다.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BNL0986 (書-趙穆-115) (樊卷32:26左)

與趙士敬¹⁾

間闊悠悠. 初五日子中當來此, 右日爲枉共話, 爲佳.
聞之子中, 與君同宿陶山有約云. 僕有故不²⁾得出山舍,
故欲望君來同此話, 夕往陶山耳. 謹邀.³⁾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10월 3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시 〈士敬攜酒來訪【季秋】〉(續集 권2)이 실려 있다.

1) 初本 ‘十月初三日’ ; 《師門手簡》 ‘士敬 奉白 月川’

2) 不 : 上本 ‘末’

3) 謹邀 : 《師門手簡》에는 뒤에 ‘十月初三日.’이 있다.

BNL0987 (書-趙穆-116) (樊卷32:27右)

與趙士敬¹⁾

《晉書》來矣. 曾有二絕句, 有抹改處, 欲改寫, 不出.
今因使至, 只以前稿附²⁾上. 一笑.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10월 9일. 禮安.

1) 初本 '九日'; 《師門手簡》 '士敬 白'

2) 附: 上本 '付'

KNL0988 (書-趙穆-117) (癸卷23:49左)(癸卷32:27右)

答趙士敬¹⁾

去後未聞行色，行期又似忽忽，爲慮。忽奉手札，知好到好試。想已登占前列，遙深馳慶，尙未見榜，未知諸友如何²⁾？在鄉皆依舊，惟老拙病深，畏寒縮如凍龜，頗悶撓耳。南冥·一齋，有何言論？指其登對之言而云云乎？似猶勝於申公力行之對，而人多不滿。處士之出，自古多言，亦何怪哉？知君欲作南行，果似有可虞。((蘇相公之子，名遂，曾有半面之分，今不知其存沒。然試作小簡，有要則傳之，否則不須傳也。簡面未知其官銜，不書而送，問得書填而用之亦何？然公遂騫³⁾騰，則此事遂廢矣。來使立俟，不一。諸友各爲致意。⁴⁾)

((蘇遂曾經守令，未知何邑耳。))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윤10월 8일. 禮安.

1) 初本 '閏十月初八日'；《師門手簡》'士敬 拜復 趙生員 寓舍'

2) 如何：上本 '何如'

3) 騫：上本 '騫'

4) 致意：《師門手簡》에는 뒤에 '丙寅閏十月初八日.'이 있다.

BNL0989 (書-趙穆-118) (樊卷32:27左)

答趙士敬¹⁾

點額徒勞，燒尾竟失，未免交遊之恨。然²⁾當以古人所云“此字安在頂門上”以處之，更何足云耶？【“安在頂門上”，非本語，全文記不得，加杜撰耳。】送來諸簡·朝報及笥，領荷。孫兒無騎，困滯可憐。俟歇幸面，姑草報。³⁾【朱子〈與張元德書〉云：“且將此字頓在面前。”註：“‘此字’，卽‘命’字。”見《節要》三卷。】

領相能如此，眞所謂差強人意，爲國家賀。【李俊慶上疏。⁴⁾】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11월 6일. 禮安.

1) 初本 ‘十一月六日【朱子〈與張元德書〉云“且將此字頓在面前”註：“‘此’字，卽‘命’字。”見《節要》三卷。】’；《師門手簡》‘士敬 拜復 趙生員宅’。今按：“‘此’字，卽‘命’字”는 《朱子書節要》권17〈答張元德〉第2條의 註에 보인다.

2) 然：《師門手簡》에는 뒤에 ‘亦’이 있다.

3) 姑草報：《師門手簡》에는 뒤에 ‘卽日.’이 있다.

4) 李俊慶上疏：中本·拾遺에는 없다.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BNL0990 (書-趙穆-119) (樊卷32:28右)

答趙士敬¹⁾

前日，以病遇稠，見如不見，今奉尺紙，可洗病鬱。拙者所患，向年亦屢發，今比前者，倍覺暴猛，以其發後失調也。八九日之間，爲所侵剝，衰殘精力，損壞殆盡，心自悶然。自去夜，小覺減歇，庶望從此²⁾得痊平耳。³⁾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1월 14일. 禮安.

1) 初本 '丁卯上元前日' ; 《師門手簡》 '士敬 奉復 月川'

2) 此 : 上本 '前'

3) 得痊平耳 : 《師門手簡》에는 뒤에 '上元前日.'이 있다.

BNL0991 (書-趙穆-120) (樊卷32:28左)

答趙士敬¹⁾

緣君方在攻苦，不敢相煩問，阻闊殊甚，忽爾承簡，欣幸如何？正當此時，撥窮作行計，窘束可知。每深奉慮，自困涸轍，無以出手，皆可歎愧。所諭惟新行謗²⁾，近有人自君所來云，略聞之。但彼所謗，止於吾所聞者，則不知何所爲病而以爲毀耶？假使窮生尋逃，僕徒行立庭，是豈爲其人之累耶？況無其事乎？願君勿以介意。如僕聞命未行，憂罪日積，悠悠之談，不勝多多。一坐席得好官之語，公亦聞之乎？人心險陂，一至於此，而滉之一身，不幸而當其衝激虛名之患，終不知稅駕之所。然則君之得毀損名，未必非君之大幸也。許欲垂訪，當面一笑。未間珍勵，姑草草奉報。

林君事，未知可措手與否。窩兒近在任所，奈何？書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5월 11일. 禮安.

1) 初本 '五月十日日'

2) 謗：上本 '訪'

院事幾何？運瓦當用闔境人力，屢勸聞遠早爲之，尙未爲之，今當極務，恐未可役大衆也，奈何？愚意不得已少停，待七月少歇而爲之，無大不可者，如何如何？

SNL0992 (書-趙穆-121) (續卷5:6左)(樊續卷5:7左)

答趙士敬【丁卯】¹⁾

問紙之來，用慰悄結．今者召旨，若仍以前辭，則猶有復辭之義，茲乃有稍變從輕之意．如此而每欲堅辭，匹²⁾似無說，千思百度，卒歸於苟作一行，以爲目前之計．向之出萬死辭退之意，果安在哉？不勝愧痛．況進難出³⁾難，有不可勝言耶？許欲再枉，餘俟面展．((姑謹報上.))

((清瀾，可問則當問.))⁴⁾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6월 4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以天使之來，有召旨.】’가 있다.

1) 初本 ‘六月四日’；中本·拾遺 ‘答趙士敬’

2) 匹：中本에는 [부전지 ‘匹’恐(‘匹’).][추기 傳本亦作‘匹’.]이 있고, 拾遺에는 [추기 ‘匹’恐當作‘匹’.]가 있다.

3) 出：樊本·上本 ‘退’

4) 姑謹……當問：續草本에는 없고 해당 내용이 追記되어 있다.

KNL0993 (書-趙穆-122) (癸卷23:50右)(樊卷32:29左)

與趙士敬·琴聞遠¹⁾

前答聞遠書，已達僉聽否？就中今來天使問東國亦有能知孔·孟心學者否，禮曹議所答，舉先儒十餘人以答，而李晦齋先生彦迪，亦在其中。其集中〈與忘機堂論無極太極書〉，錄其名下。天使無乃欲見其書，故禮曹欲取其書來，發馬馳人去。但家中無子孫在者，只有寂，目不辨字，不能搜出。君二人中，須速馳去搜付，爲可爲可。其書箱在溪上東齋架上，箱上書“李晦齋先生遺稿入箱”。其箱有白衣二冊，前面題《晦齋集》者，是也。((而其一卷則詩也，其第二卷乃文類。取此卷，白紙內封，油紙外裹，授送爲可。兩紙皆取於家中，爲可。又有一焉，士敬若傳得其書，只送付其件，不須吾家所藏

▶ 丁卯年(明宗22, 1567년, 67세) 7월 14일. 서울.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의 앞에 〈七月七日答聞遠書〉(書-琴蘭秀-32)가 실려 있다. 〈七月七日答聞遠書〉에는 ‘士敬前未及別簡, 幸示此紙’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에 따라 琴蘭秀가 趙穆에게 편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趙穆이 이 편지의 寫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初本 ‘十四日聞遠同寄’

也，量處之.)) 天使十七入京，二十日間還發云，故如是急也. (([天使許國·魏時亮，皆陸學之人也.])²⁾

2) 天使……人也：初本에는 [산거표시]가 있다；中本에는 없다.

KNL0994 (書-趙穆-123) (癸卷23:50左)(癸卷32:30右)

答趙士敬¹⁾

頃答聞遠書，兼致微意於左右，未知達否？彼時遭變蒼黃，痛迫增病，未奉各問，愧愧。繼又搜書事，一書奉煩，未知能副所囑否？驛者時未回到，如何如何？如今聖作物睹，群情大悅。兩使皆吉人，清風高節，足以動人，其哀有喪重東魯之意，至矣。才留三日，明早發還，百弊俱除。使遇天使每如此，何患於傾一國乎？滉病深，當速歸。卜葬在九月廿二，過此寒凍難行，其前²⁾有未安，悶悶不可言。權思敏事，差備亦每每被侵，不如移關定軍役之爲便，故欲圖出關，已蒙子中之許，多事未成。此意告于權參奉，爲佳。不宣。謹報。))

((今聞廷議，以九月廿二日未滿五月而葬未便，故將改用十一月某日云，尤爲極寒，爲悶。))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7월 17일. 서울.

1) 初本 '十七日'

2) 前：初本·中本에는 뒤에 '則'이 있다.

BNL0995 (書-趙穆-124) (樊卷32:31右)

與趙士敬¹⁾

近爲況何如？滉苦被病昏，然比之都下日，稍似可耳。而間得京舊書，諸公皆以滉歸爲非，勢難戶喻，奈何？公參昭格望，想已聞知。幾不免爲禮羅所冒，可笑可笑。向索心學答辭，已爲土梗，見之何用？謾以呈上。行狀，烏川諸人處曾送之。前來兩使持稿，并除目亦往，視至。西行，度在何時？臨時或可面別，姑此奉問。

得近報，兩司方攻沈領樞，數日未允，不知終如何，觀其辭，始知其難容。【心學答辭，先生答詔使²⁾也。行狀，康陵也。沈，道源³⁾也。】⁴⁾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9월 9일. 禮安.

1) 初本 '重陽日'

2) 先生答詔使：初本 '先生答詔使語'

3) 道源：初本 '通源'. 今按:《宣祖修正實錄》즉위년(1567) 9월 1일자 기사에 의하면 '通源'이 옳은 듯하다.

4) 心學……源也：中本·拾遺에는 없다.

KNL0996 (書-趙穆-125) (癸卷23:51右)(癸卷32:31左)

與趙士敬¹⁾

昨纔面，已薄晡暮，殊未從容，恨恨。向者鄭子中《名臣續錄》，在公所否？今去髡付還。有考處敢云。夜來思昨所言，多費頰舌。邵堯夫云：“若言必使他人信，瀝盡丹誠誰肯知？”居常深有味於此言。纔遇人責，便不免開口分疏，真可謂淺之爲丈夫矣。但所不能不懼者，平生讀聖賢書，不覺終墮於率獸食人之異學。他日以此成罪，或不無連累交遊之事，如之何如之何？京師如見素輩²⁾，勸其各自勉勵，早改擇術，勿³⁾差路陌，庶脫同歸於禽獸之域，亦一事也。((餘惟珍重，尤冀登聞。不一.⁴⁾))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9월 16일. 禮安.

1) 初本 ‘十六日’

2) 素輩：養校 [‘素輩’當考.]

3) 勿：上本 ‘忽’

4) 不一：初本에는 뒤에 ‘【時傳聞，京人有謂先生爲爲我之學者，故云.】’이 있다.

BNL0997 (書-趙穆-126) (樊卷32:32右)

答趙士敬¹⁾

簡至欣慰。滉以日寒漸劇，方窘悶之至。廿六忽伏承奉有旨云：“年高之人，當此隆冬，慮或畏寒，不克就道。其勿拘遲速，待時日溫和，從容上來事有旨。”聖恩如天，可謂生死肉骨²⁾，感泣無地無地。但如此聖眷愈重，微臣進退益難，奈何奈何？趙生將歸，適見留行，遂不肯歸，百端開喻，固不聽，姑往龍寺，與宏仲輩同棲。如是有何所益？可笑其愚且執也。子固考誤，深荷錄示，今傳錄還上。“彪丈”非有別人，似是‘美’誤作‘遠’耳。吾幸且留，何必冒寒速相就？徐而會晤，乃佳。不宣。³⁾【趙振，乃松岡族子。尹執義根壽考《晦庵書》誤字處。】⁴⁾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11월 29일. 禮安.

1) 初本 ‘十一月二十九日’

2) 肉骨：上本 ‘骨肉’

3) 不宣：拾遺에는 없다.

4) 趙振……字處：中本·拾遺에는 없다.

BNL0998 (書-趙穆-127) (樊卷32:33右)

與趙士敬·琴聞遠¹⁾

龍壽寺頭頭僧數輩來陶山，因淨一僧致懇於此曰：“龍壽在境內爲巨刹，於官於私，不無所關。位田雖屬公，若在官則猶可蒙惠於官；若盡屬書院，無復可望之勢，寺僧何賴？舉將散去。今且願得其中道谷前石畓，存留以爲寺資。”答以“書院莫大重事，官及一鄉，方務措置，豈汝等所可干乞移動？然汝等之意，吾當告于僉會處，以聽僉裁云云。”聞之，在寺田中，此一處稍腴，故此輩爭望如此，可笑亦可矜。惟在僉議。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12월 12일. 禮安.

1) 初本 ‘十二月十二日聞遠同簡’

BNL0999 (書-趙穆-128) (樊卷32:33左)

答趙士敬¹⁾

近阻鬱懷，筒來豁然．寺田事，如所示，不無其意．但滉非敢欲從其請，只通其悶而已．周·安兩公，久有唇舌，然豈至發於彈駁耶？恐或流傳之誤耳．答宏仲書，只用先儒說，以酬一時問²⁾意，本不足觀，緣公意如此，今且還之．或欲留之，可以謄草代寄無妨．《晉書》，令士任·審姪傳寫，至今未了，今已督之，了寫來後回納．元本《筆苑雜記》，架上搜不得，應在書堂，後當搜上．接客畀詩之戒，敢不警惕？但自數年來，寅緣苟且之際，不覺浸淫至此，猶未有肯意，適見其子出語驚人，真是奇特，謾以一絕答其來意．觀其意，甚不滿望，可笑．挽詞送去．〈晦齋行狀〉草，近自李全仁處來還，故并送，照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12월 12일. 禮安.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時間周慎齋·安相國珪, 被追論彈駁. 〈康陵挽詞〉·〈晦齋行狀〉, 先生撰. 〈送景靜城主詩〉, 穆製稟.】’이 있으며, 시 〈二十日, 喜士敬來訪雪中, 因次其近寄五言律詩韻二首〉가 실려 있다. 第1首는 遺集內篇 권1(BYP1074)에, 第2首는 續集 권2〈喜士敬雪中來訪, 因次其近寄五言律詩韻〉(SNP1060)에 수록되었다.

1) 初本 ‘十二日’

2) 問：上本 ‘問’

覽見還．與大成對話，未悉只復．

明府送詩如此，不易得也．如我病民，亦不得無一言，
時未構思，見詩心服，謹將回納．行狀亦忘置，更隨
後得送．

KNL1000 (書-趙穆-129) (癸卷23:51左)(樊卷32:34右)

與趙士敬¹⁾

近心事苦不好。歲客紛擾，困於酬應，氣餒神疲，病兆多端，艱保度日。所草自劾疏，僅繕寫垂上，而天使接應促召書狀又下矣，則春寒不異冬日，遇寒路斃，固所難計，而自劾難進之義，最不可中罷不以徹聞于新寧，不得已同日之中，先上劾章，繼上辭狀，方此席稿俟命，或恐惹致駭機，未可測知。自古曾有爲世患困迫如滉者否乎？自怪²⁾自歎。〈書院紀事〉草本，如示送還。其中一二處，鄙意未穩，旁註或表抹以去，并垂採去取，爲佳。示喻序齒之事，院中則君未諾而烏川諸人已諾之，鄉中則君與諸君皆不念聽於鄙說。滉亦當與諸君辨論時，有所未聞，而其後乃知諸君所以然之故。諸君但執“恥下賤”三字，以遂欲上人之心，亦不可謂全非。然禮義由賢者出，諸君皆以一時鄉賢，當此等處變處，當深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월 14일. 禮安.

1) 初本 '戊辰上元前日' ; 《師門手簡》 '士敬 拜復 月川'

2) 怪 : 樊本·上本 '愧'

求古義，細考禮文，必須洞見其所處之宜，能不失先王設鄉法鄉禮之意如此其重處，然後優而爲之。顧乃逞氣爭勝，只據一時一邊不便宜處，求自便而已，不復問古義如何鄉禮如何，專³⁾不類賢人君子處事⁴⁾氣象⁵⁾，是爲可歎耳。((餘俟後日。幅紙何知⁶⁾?)

((問諸聞遠，書院住處，俗號鼇潭豆等，然後可名以鼇陵。【丘字，避聖諱。原字，音同院字，故爲陵。】今已得紙，欲作大字，以心無聊不果耳。【子中爲城主，幸幸。】))

3) 專：養校 [‘專’恐‘全’.]

4) 事：庚本·擬本·甲本 ‘心’；甲本에는 [추가 ‘心’，一本作‘事’.]이 있다；擬校[‘心’，手本作‘事’.]

5) 象：樊本·上本 ‘像’

6) 何知：上本 ‘如何’；《師門手簡》에는 뒤에 ‘戊辰上元前日.’이 있다.

BYL1001 (書-趙穆-130) (樊遺內卷4:8右)

與趙士敬¹⁾

十七日，詩簡一紙，傳自夫浦而來。其翌日，訪趙振，出陶山，馬上思詩，至山而成。欲寄而適值召命下臨，比前尤駭懼，入伏溪窩，至今脅息未定。自古身處山林，而爲世患驅迫，曾有如滉者乎？今以星州鄭述秀才來訪後，往問疾於金渚，以事遣人追尋，因錄前一絕，奉寄座隅，兼還痴《晉書》·《筆記》。溪上病漢白。

李庇遠妻，昨日身死。憂懼遭哀悼，益無以爲心也。

【以貳相有召命.】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1월 25일. 禮安.

[資料考] 初本·《師門手簡》에는 편지의 앞에 詩〈二十五日, 次士敬〉(遺集內篇 권1, BYP1076) 이 極行으로 실려 있다. 또한 初本에는 ‘十七日’ 이하가 低二字로 되어 있는데, 이는 《師門手簡》의 체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과 편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편지는 詩를 보내기 위해 쓴 것으로, ‘十七日’ 이하는 詩를 짓게 된 배경 및 그 외의 몇 가지 용건을 전하기 위해 덧붙인 부분으로 생각된다.

1) 初本 ‘二十五日’

KNL1002 (書-趙穆-131) (癸卷23:52左)(樊卷32:35左)

與趙士敬¹⁾

昨奉下旨，非但未蒙聽許²⁾，誤加獎飾，責望踰越，如山壓重，震怖惶悸，求死無路，罔措奈何？然以其陞品之故，萬無進受之理，不得已又上狀固辭。看此事勢，必至得罪狼狽而後已焉。前得閔右相論救之力，甚非輕，而今聞其頃日無病暴卒云。自今更無人可望拯救，尤深痛恨(痛恨)。昨金彥純·士純來訪，緣此事不交一言而去，歎悵歎悵。³⁾ 釋奠致齋⁴⁾，不可用素，當用吉無疑。飲福則未可知，疑亦當用吉爲宜。更須商處。(謹拜。))⁵⁾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월 30일. 禮安.

1) 初本 '三十日' ; 《師門手簡》 '士敬 奉復 月川'

2) 聽許 : 上本 '許聽'

3) 歎悵歎悵 : 初本·《師門手簡》 '嘆嘆悵悵'

4) 齋 : 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甲本·樊本·《師門手簡》 '齋' ; 養校 ['齋' 恐 '齊']

5) 謹拜 : 《師門手簡》에는 뒤에 '卽朝.'가 있다.. 今按: 初本에는 편지의 뒤에 다음의 글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二十四日有旨云: "觀卿疏中之辭, 謙讓過矣. 卿以累朝舊臣, 德行之高, 學問之正, 雖閭巷之民, 孰不知之? 予亦聞焉久矣. 卿先朝累被召赴, 至於末年, 始至都下, 奄遇罔極之變, 遽卽還歸, 是必新政之無道, 尊賢之不誠故也. 予之悔恨, 其可勝言? 古之人君, 雖明聖必求賢爲師, 而況予自少, 不受嚴師之教, 遽承艱大之業. 慈教亦曰, '予無知識, 況在癸亥之中, 我何教導乎? 當如李某則可也.' 常望卿之上來. 慈意如是之勤, 而卿不肯來, 無乃卿未之思乎? 當今朝廷, 雖多有宿德之人, 予之望卿, 亦如星斗, 卿須不以進退爲嫌上來, 勉疾留廷, 以輔予愚末之質事下諭可也." 【金承旨就文書云: "此自上傳教之語, 非知製教所撰云."】

BNL1003 (書-趙穆-132) (樊卷32:36右)

答趙士敬¹⁾

示及院事，該暢周悉，無餘憾矣。但恐吾無以堪發揮之責耳。許欲臨顧，當俟面詳。謹拜。²⁾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3월 28일. 禮安.

1) 初本 '三月二十八日' ; 《師門手簡》 '士敬 奉復 月川'

2) 謹拜 : 初本 '謹復' ; 《師門手簡》 '謹復. 三月廿八.'

SNL1004 (書-趙穆-133) (續卷5:7右)(樊續卷5:8右)

與趙士敬【戊辰】¹⁾

〔試圍摘華，想居前列，佇聞榜聲耳。鄉里諸友，想無不如意矣。〕院記，力疾草得，澁劣不成文字，可恨。覽後與諸君評訂，有未安處，一一指出塗改，庶免後人嗤點，幸甚。前來筭示事實中，私見有疑處，紙條黏²⁾標，或妄自改下語以呈，亦望詳照。蓋來示非不善，間有多剩處，用以傳示後來，似未盡，故僭加櫟括³⁾，悚息悚息。⁴⁾

“文華”二字，其名甚好。但地誌⁵⁾無此稱，只因土俗所傳而如⁶⁾此稱之，人不知爲清涼，而認爲別有他山，不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4월 그믐 전날. 禮安.

1) 初本 ‘四月晦前一日’，中本·拾遺 ‘與趙士敬’；《師門手簡》 ‘士敬 奉問 趙生員宅’

2) 黏：初本·中本·拾遺·樊本·上本·《師門手簡》 ‘粘’

3) 括：中本·《師門手簡》 ‘括’；續草本 ‘括[교정기 ‘括’]

4) 悚息：《師門手簡》에는 뒤에 ‘戊辰四月晦前一日’이 있다. 今按: 初本·中本·拾遺 및 《師門手簡》에는 別行에 ‘後’ 한 글자가 있고, 다시 別行에 “‘文華’二字” 이하가 있다.

5) 誌：樊本·上本 ‘銘’

6) 如：樊本 ‘加’

如稱本號爲穩.

○⁷⁾向見聞遠，謂墨峯太遠於院之形勢云，故欲改以‘翠屏’. 但翠屏爲名，自我撰出，似未安耳.

((○“有所興作”一條，似⁸⁾未安.))⁹⁾

○“司馬禕¹⁰⁾所”此一段，固爲實事. 然此等處，不可不少加¹¹⁾回護. 何者？若言侯意初不在立院云，則凡侯所力措者，皆歸於虛. 且古之選士，三升而升司馬，謂之進士，則士升司馬，謂之進士可也，謂進士爲司馬，殊無意謂. 故每疑¹²⁾此稱出於後人之謬誤. 只隨俗泛稱，雖不能免，不欲稱之於傳後文字. 況司馬所·寶上契¹³⁾會等事，尤爲猥屑. 故只欲如此泛稱曰：“付諸生員以主之.” 如何如何？

○“雖非文學¹⁴⁾”一段，亦不必如此明說.

7) ○: 기준본(續集) 및 初本·中本·拾遺·續草本·《師門手簡》에서는 ‘○’을 가지고 條目을 구분한 반면, 樊本·上本에서는 別行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그에 따라 別行으로 구분하되 ‘○’도 남겨두었으며 樊本에서 복원한 부분에도 ‘○’을 넣었다.

8) 似: 《師門手簡》에는 없다.

9) 有所……未安: 續草本에는 없고 해당 내용이 追記되어 있다.

10) 禕: 初本·中本·拾遺·樊本·上本 ‘稷’

11) 加: 樊本·上本에는 없다.

12) 疑: 初本·中本·拾遺·樊本·上本·《師門手簡》‘意’; 續草本에는 [추가 ‘疑’, 初本作‘意’.]가 있다.

13) 契: 拾遺 ‘稷’

14) 學: 樊本·上本 ‘字’

○“董”字，从艸¹⁵⁾从重，若从童則草名。

〔○尹公復·金君富弼二事，入於一大段事下，文意語勢，緩散無力，故欲改入於此，如何?〕

○“𠂔”字，俗下雖用此字，不見有出處，不如改“麻”字。

〔○“士釋其經”上，列叙諸君監董¹⁶⁾之勤，不須更著此四字。且與其下“吏”·“工”爲三語，皆〈白鹿賦〉語。連稱三語，語亦未著，去此四字，然後下二語，方爲穩當。〕

〔○下有“者”字，“取字”¹⁷⁾二字可去。〕

○“帑藏”上有“耗餘穀”·“作紙布”等語，此只當云“前件布穀”，可也。若云“帑藏”，則似侵用國儲物，爲未安也。

○末段¹⁸⁾議論，似以興學之事歸責於無狀之¹⁹⁾人，不知此何見識耶？若祠院作養之實，止於今日之爲，則何用爲貴而勞一鄉營作耶？凡事有兆有漸，今日

15) 艸：初本·中本·拾遺·樊本·上本‘草’；續草本‘艸’[추가 ‘艸’，初本作‘草’.]

16) 董：上本‘董’

17) 字：初本·中本·拾遺·《師門手簡》‘者’

18) 段：初本·中本·拾遺‘端’

19) 之：初本·中本·拾遺·樊本·上本·《師門手簡》에는 없다.

作此，欲望因此爲兆，而有大奮大作於後，以期於千百世之下而無窮也。今乃以如此四分五裂，無頭緒無倡隨，一時虛聲無實者，有此歸重云云，豈不取笑怒於人人，爲祠院之羞病乎？千萬千萬，戒勿復云。((似聞有二人，自試所尋我，今明當至云，不知此何人耶？此乃琴夾之輩同年云。琴·金輩知我心事，何不勸止之耶？君亦知此人等來否？))²⁰⁾

20) 否：初本에는 뒤에 ‘【全慶昌輩】’ 있다.

BNL1005 (書-趙穆-134) (樊卷32:36右)

答趙士敬¹⁾

書至開慰。滉行計似難中輟，意甚不佳。又老姊在醴泉，聞其病重，遣人探問，阻水空返。今復遣未還，未知消息如何，煎灼無以爲心。又水災太酷，溫溪尤甚，門族將無以存活，悶惻奈何奈何？示記承接，心興如此，恐無親筆硯之暇也。今日景瑞見訪而去，其過高隱否？四季兩栽送似，盆則不來耳。謹復。²⁾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28일. 禮安.

1) 初本 '五月二十八日' ; 《師門手簡》 '士敬 奉答 月川'

2) 謹復 : 《師門手簡》에는 뒤에 '戊辰五月廿八日.'이 있다.

BNL1006 (書-趙穆-135) (樊卷32:36左)

與趙士敬¹⁾

書院幸接，曠暮遽別，悵黯何喻？滉日昨艱到永嘉，但朝涼似好，昨反爲所中，腹冷泄下，終夜呻苦，今得少歇。前程若此者，不知有幾，深自危慮。所示事，抵醴泉，必見權都事【文海】²⁾，當囑付稱念。監司處書簡，亦當曲盡成送。但其接主，既認作己物，入籍據執，萬無送奴受答之理，不得已爲相訟得決而後乃可，是爲可慮耳。餘惟珍好。不具。³⁾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27일. 安東.

1) 初本 ‘六月二十七日’；《師門手簡》‘士敬 奉復 月川趙生員宅’

2) 文海：中本·拾遺·《師門手簡》에는 없다.

3) 不具：初本에는 뒤에 ‘【益山逃奴婢推尋.】’이 있고, 《師門手簡》에는 뒤에 ‘戊辰六月廿七日.’이 있다.

BNL1007 (書-趙穆-136) (樊卷32:37右)

與趙士敬¹⁾

來路累見除目，去廿日政，君除孝陵參奉，思前日“林中一鳥笑呵呵”之句，正爲今日之事。又恐君之事勢與前無異，則難於赴謝也。及今得窩兒書，兼見政草，則君換集慶殿矣。猶可謝恩赴任，以遂昔人奉檄²⁾之喜，可喜。其間雖多有礙事，須撥置勉強來謝，爲佳。病暑昏燈，眼暗不一。³⁾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7월 1일. 禮泉 추정.

[資料考] 初本에는 이 편지 뒤에 시 〈趙士敬以集慶殿祠官來謝東歸，贈別，三首【中秋】〉(內集 권 5, KNP0423)가 실려 있다.

1) 初本 ‘七月初一日’；《師門手簡》‘士敬 奉開 月川 趙參奉宅’

2) 檄：初本 ‘檄’

3) 不一：《師門手簡》에는 뒤에 ‘戊辰七月初一日.’이 있다.

KNL1008(書-趙穆-137) (癸卷23:53右)(樊卷32:37左)

答趙士敬¹⁾

塵祛一摻，九秋向盡，杳無消息，人來接書，略知上殿以後體況佳勝，深以遣豁。但何遽有不耐還縮之云耶？固知公寡合難容，應至如此。然奉檄²⁾之喜，初既有爲而屈，則獨不能小忍一期間，以順適老親意耶？滉來看事勢，雖終不來，未爲不可，而不堅所執，既以妄動而來，一入之後，事事纏繞，極力辭脫，又復重繞。所得解者，惟文任一事，如實錄·經筵等事，皆不得免，抽身出去，又不得如去年之爲。頃於榻前，乞骸不得，又上筭不得，退自鬱鬱爲過冬計。尸位素餐，難逃世議，愧歎將無以見故舊也。在困亨貞，君可如意，而我罔自由，愈不自快，奈何奈何？玉山泉石，絕致瓌奇，君不南行，何由探歷？前賢遺跡，宛在目中，所得多矣。似我匏³⁾繫，但有馳羨不已。想多賦詠後人，毋惜寄示，以洗俗流，((幸甚。謹報。⁴⁾))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9월 21일, 서울.

1) 初本 '菊月二十一日'

2) 奉檄：初本 '捧檄'

3) 匏：上本 '瓠'

4) 謹報：上本에는 없다.

BNL1009 (書-趙穆-138) (樊卷32:38右)

答趙士敬¹⁾

曾見在州寄書，又得來禮安寄書，深慰別後之思。後書云“將還任所”，想今已在彼矣，體中想亦佳裕。第觀書意，似有不樂在彼之意。理勢固如此，然既繫名韁，安可望在處便適意耶？只今失賢主人爲可恨耳。就中冬深，掩耳不可無，與子精同議貿造，付審姪之行以送，照收爲佳。僕漸不耐寒，將作尸素之人，愧不可言。餘未一一，惟珍悵是望。²⁾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1월 9일. 서울.

1) 初本 ‘至月初九日’；《師門手簡》‘士敬 奉問 趙參奉 慶州’

2) 是望：《師門手簡》에는 뒤에 ‘戊辰至月初九日.’이 있다.

BNL1010 (書-趙穆-139) (樊卷32:38左)

答趙士敬¹⁾

鄭校理 子中入都，得見抵安奇寄書，知有決不還任之意。是雖善矣，第恐老親意有不樂爲此，則當如何也？公之去就，大非彦遇之比，旣已就之，獨不可少忍以至期滿而去之乎？然此等事，正古人所謂如飲水，冷煖當自知之，他人何能豫知？家姪輩恒在膝下，一出而遽遭酷禍如此。尼聖遠遊之戒，眞不可忽，不勝痛慘。滉歸失趁秋，病臥過冬，曠闕之罪，身自冒犯。明春乞退，不爲無辭，猶以有甚魔障，每切虞憂。書院書冊事，詳在聞遠書。城主臨發【孫英濟】²⁾，不暇一一。謹報。³⁾【李魯卿除省峴察訪，與君美赴京。右尹夫人捐館⁴⁾。】⁵⁾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12월 12일. 서울.

[資料考] 《師門手簡》에는 “當自知之” 이하가 逸失되었다.

1) 初本 ‘臘月十二日’；《師門手簡》 ‘士敬 答上 趙參奉宅 月川【드래 도청원적】’

2) 孫英濟：中本·拾遺에는 없다.

3) 謹報：拾遺에는 없다.

4) 館：初本 ‘棺’

5) 李魯卿……捐館：中本·拾遺에는 없다.

BNL1011 (書-趙穆-140) (樊卷32:39左)

與趙士敬¹⁾

安奇一書，鄭校理來傳，今又歲吏齋書，知決意再辭。古人所謂已入清涼境界中者，君已身親見之矣。唯是老拙，計決而事未卜，憂撓中，王春又換，坐待冰泮之日。²⁾

聞遠想好。恐此人懶不讀書，君其屢督之。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1월 2일. 서울.

1) 初本 ‘己巳元月初二日’

2) 之曰 : 初本·中本·拾遺에는 別行에 詩 ‘月川主人捧毛檄, 嘗世方圓不相入. 歸來風月滿前川, 獨坐欣然尋舊業.’ (內集 권5〈寄趙士敬〉, KNP0445)이 있으며, 中本에는 [부전지 詩則錄于 詩集, 聞遠以下連書.]가 있다.

BNL1012 (書-趙穆-141) (樊卷32:39左)

答趙士敬¹⁾

前見正月十一日書，具悉近況，甚慰馳思。但辭職事，竟如何也？此前書一辭不得，再以老親辭云，意謂決辭無疑。又寄而精書，要得近官教職則猶可。吾意以爲如此，則其辭參奉，只爲不欲遠離，非有不屑之嫌，殊爲不惡。適會吏參議尹斗壽來見，言及之，其翌日政，移裴德文 星教者，爲君作闕而待之也。監司啓狀，至今不來，不知何故而然也。無乃監司以君用薦所授，不欲輕受其辭。祠官不可久曠，君還赴任，則吾囑尹之言，竟落虛矣，可笑。欲囑新監司以受辭之意，又不知其中事勢之如何，故姑不言耳。吾行以水路尙寒，欲退來朔初掛帆，度日如年。所不測，未卜許命之如何。雖不快許，不有堅拘牢執之事，則必去爲計耳。書院冊，畢印幾盡粧來，載船而去，須令書院人與吾家迎行人，一時來丹山輸去，一駄不能輸，并知而處之。餘木七匹²⁾，欲私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2월 18일. 서울.

1) 初本 '二月十八日'

質《韻府群玉》·《韻會》二書，已約冊工矣。《儀禮通解》，果如所示。但其價不下二十疋云，無從備價，奈何？似聞前監司給屬公奴婢五口于書院，果爾則稍可成形矣。謹不宣。³⁾

2) 匹：拾遺 ‘疋’

3) 謹不宣：初本·中本에는 뒤에 ‘更問安道，則一駄可載云.’이 있다；拾遺에는 없고 대신 ‘更問安道，則一駄可載云.’이 있다.

BNL1013 (書-趙穆-142) (樊卷32:40左)

答趙士敬¹⁾

頃於梅邊，稠座未款，不任依然。慶州送人事，今已太晚，以勢言之，似不至無事。但前憲既置之而去，都事似不爲請擅離之罪，今憲在京已知而來。以此疑尙無事，須速遣人爲佳。憲狀覽後封授送之。謹復。²⁾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3월 20일. 禮安.

[資料考] 《師門手簡》에는 “事, 今已太晚” 이하만 실려 있다.

1) 初本 ‘三月二十日’

2) 謹復：拾遺에는 없다.

SNL1014 (書-趙穆-143) (續卷5:8左)(樊續卷5:10右)

與趙士敬¹⁾

近有阻思，子中之來，公可來見．今雖以忌不來，昨日獨不可來耶？假使昨亦爲忌，昨乃國忌，汾川三人，服未盡而猶來，公豈不可來耶？且聞公當子中在縣時，與諸人唱酬往復無算，而公終始無一句，不知此何等情理意思耶？不無怪訝．謹告．²⁾

《夾之·惇叙來，共宿朝話耳．)》³⁾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3월 25일. 禮安.

1) 初本 ‘二十五日’；《師門手簡》‘士敬 奉問 趙生員宅’

2) 謹告：《師門手簡》에는 뒤에 ‘廿五日.’이 있다.

3) 夾之……話耳：拾遺·續草本에는 없다；續草本에는 해당 내용이 追記되어 있다.

BNL1015 (書-趙穆-144) (樊卷32:41右)

與趙士敬¹⁾

使答送去，覽悉後，其書不須還此也。內賜胡椒，分多
畧少，笑領。夫浦²⁾三封，照傳亦望。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3월 26일. 禮安.

1) 初本 '二十六日'

2) 夫浦：拾遺 '浮浦'

BNL1016 (書-趙穆-145) (樊卷32:41右)

與趙士敬¹⁾

間闊，閑況何如？京來二簡送去，照領。似聞銓曹欲付
安東教，銓長以非式年入格沮之。其他爻象甚不好，將
恐馴致²⁾之末，不但沮公一事而已也。非面只此。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5월 10일. 禮安.

1) 初本 '五月十日'

2) 致：上本 '馳'

BNL1017 (書-趙穆-146) (樊卷32:41左)

答趙士敬¹⁾

連日聯床之餘，得書爲慰。滉雖免疾痼，小小愆攝，不離於身，衰朽無足怪²⁾也。荷患如許，可慮。芎歸湯本無，四物湯有無，考出溪篋。有之當送上，但恐儲盡耳。索取壁間謬句，固非所靳，但此乃〈山居四時四吟〉【朝晝暮夜】共十六絕中之夏四吟耳。立索間，猝難應寫，後日看如何？又似近戲，亦不須取索者矣。謹報。³⁾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5월 19일. 禮安.

1) 初本 '十九日' ; 《師門手簡》 '士敬 奉復 月川'

2) 怪 : 上本 '愧'

3) 謹報 : 拾遺에는 없다 ; 《師門手簡》에는 뒤에 '己五十九.'가 있다.

KNL1018 (書-趙穆-147) (癸卷23:54右)(樊卷32:42右)

與趙士敬¹⁾

試問近日事如何？滉雖幸端居，困於積雨，床床屋漏，殆無乾處。無雨傘之家，可知其難也。漢陽書生李咸亨見留隴雲。其人開悟，刻意向學，共處令人有益，早晚講訂《心經》，更知此書，不易得也。向日妄論篁墩爲人及《心經》不可廢，有一篇文字，此中無稿。若君所有之，可付進人。李生欲見之故云。前徵〈山居十六絕〉，已用采賤寫訖。旋思自曩日輒僭論盛作後，致令雅意斷定不作詩，乃以鄙述惡詩，自寫冒呈，誠恐非宜，事屬不便，故隱不敢出，勿訝幸甚。((謹問。))²⁾公能作詩來，謝者當爲出呈。

▶ 己巳年(宣祖2, 1569년, 69세) 윤6월 4일. 禮安.

1) 初本 '閏六月四日' ;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謹問 : 《師門手簡》에는 뒤에 '己巳閏六月日.'이 있다.

BNL1019 (書-趙穆-148) (樊卷32:42左)

與趙士敬¹⁾

公之赴試，或云欲停，或云當行，未知於斯二者何定？果欲停之，無乃有太勇之悔耶？《中庸》二件，其一朴民俊，其一金就礪所送，而兒輩之行，附來。又《聖學十圖》十二幅，亦就礪送于君者也。白厚紙十張，知君新廟已成，且有昏事，以補窓戶之需，惟照。只此奉問。²⁾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9월 11일. 禮安.

1) 初本 '菊月十一日' ;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奉問 : 《師門手簡》에는 뒤에 '己巳菊月十一日.'이 있다.

KNL1020 (書-趙穆-149) (癸卷23:54左)(樊卷32:42左)

與趙士敬¹⁾

嘗見《小學》中有云：“人附書信，不可開拆沈滯。”此言常所記念。寫題目，披閱卷次，偶見第五卷初面，有此二書。因思開見，則與拆人附書無異，故既不開見。又思挾置而還²⁾，則君必疑我披見，亦似不便，故如是封還，且告其故。但恐吾之所爲，無乃太周遮耶？³⁾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1월 22일, 禮安.

1) 初本 ‘庚午正月二十二日’；樊本·上本 ‘與趙士敬【庚午】’

2) 又思：[두주 一本, ‘又思’下有‘如前’二字.]가 있고, 甲本·樊本·上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中本·定草本에는 [추가 手本, ‘又思’下有‘如前’二字.]가 있다；擬校 [‘又思’下, 手本有‘如前’二字.]

3) 遮耶：初本에는 뒤에 ‘【一, 朴民俊寄送新印《小學》書也. 一, 李種茂寄送新曆書也.】’가 있다.

KNL1021 (書-趙穆-150) (癸卷23:55右)(癸卷32:43右)

答趙士敬¹⁾

審悉示意。夾簡事，非謂其中有不可對人言之事，自是古人不拆人簡，不窺人私書，道理當如此耳。乃以我爲過慮之深，不亦異乎？奈城事，此亦爲之憂系多端，甚欲一番鐫喻，但其言，豈可上之紙墨，使人傳致乎？見面則又無緣，不知公未可一往共宿，從容密告之否？爲李伸冤事，來諭皆是。雖至親同居者，或不能盡知，況異居異鄉，何以必知，而勇於洗雪，至此極耶？大抵此人慮事甚疏，而作用多舛，方在積毀中，又有此舉措。不知如何收殺，深可憫²⁾鬱。然吾輩外作憂憫³⁾，而久不以告，太乖忠告之道，奈何奈何？渠近有一問目，非久當答，意欲略及之，然不得深言者，兩事皆難於簡中顯說也。書院記，姑留看如何？《節要》書，從前雖有校點過，恐未免有疏鹵之病，何可取某件爲定本而送納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 2월 4일. 禮安.

1) 初本 '二月初四日' ; 《師門手簡》 '士敬 奉復 月川'

2) 憫 : 初本·中本·定草本·《師門手簡》 '悶' ; 上本 '憫'

3) 憫 : 初本·中本·定草本·《師門手簡》 '悶'

乎？ 夏間欲一過目， 今且未敢也。 ((議得膳草在箱篋，
眞寶宰當到門，未暇搜上，隨後謹復。))⁴⁾

4) 復：《師門手簡》에는 뒤에 ‘庚午二月初四日.’이 있다.

BNL1022 (書-趙穆-151) (樊卷32:44右)

與趙士敬¹⁾

氣味何如？今來陶舍，海州印《節要》書無之．想在柳
而得處不來，故未送，只送前索還雜草本耳．謹問.²⁾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2월 12일. 禮安.

1) 初本 ‘十二日’；《師門手簡》‘士敬 奉白 月川’

2) 問：《師門手簡》에는 뒤에 ‘十二.’가 있다.

BNL1023 (書-趙穆-152) (樊卷32:44右)

與趙士敬¹⁾

前書具悉. 獄事正如示, 當此際, 發言尤難. 故彼有他所問, 已答而時未寄者, 以欲及其事則難於言, 欲不及其事則害於義, 把筆復放, 遲遲至此, 奈何奈何? 有所考慮, 《漢書·叔孫通傳》送來. 家無《漢書》, 不記書中有〈禮樂志〉與否, 有則并送爲佳.²⁾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2월 14일. 禮安.

1) 初本 '十四日'; 《師門手簡》 '士敬 再白 趙生員宅'

2) 佳: 《師門手簡》에는 뒤에 '十四日.'이 있다.

BNL1024 (書-趙穆-153) (樊卷32:44左)

與趙士敬¹⁾

比來端居味道，爲況何如？嘉澤大霽，百物欣欣，閭閻有笑聲，簞瓢增樂意，於此想同之也。近得京信，金而精書尾有小報，不欲不使君知之，同封呈似。曾聞朴和叔在銓任時，欲於被薦許多人中，拔其尤陞叙六品職，畏物議稟議於相位。小報所云，卽其事也。和叔不肯非他，以君與老拙相往來之人，欲避有私於其間而如是。其所陞叙者，成渾·閔純·全曄也。然則君之不陞，與我相連染之故，可笑。²⁾ 程林隱爲親老辭朝職，而求郡博士以歸。君之求安東教，頗類此，彼得而君不得。然則彼時林隱，亦以講經入格得之耶？又呵呵。³⁾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 3월 28일. 禮安.

1) 初本 '三月二十八日' ; 《師門手簡》 '士敬 奉問 月川'

2) 可笑 : 《師門手簡》에는 뒤에 '庚午暮春廿八.'이 있다.

3) 呵呵 : 初本에는 뒤에 '【趙穆以無講經入格, 未付安東教授. 吏曹有六品陞叙議論, 非徒大臣不許, 前吏判朴淳亦不肯云云. 成渾言: "吾非其人, 何敢出仕乎? 矧此六品, 非由君命, 亦未仕出云云." 朴漸出身後, 白仁傑於經席, 以學問孝弟特用清班事啓之, 允可. 左相亦贊云云. 朴漸輕妄浮薄, 識者深憂. 〔而精小報也.〕』'가 있다.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BNL1025 (書-趙穆-154) (樊卷32:45右)

與趙士敬¹⁾

靜居想好. 僕今在陶窩. 前去《十圖》, 有校訂處, 可付書院人送來.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4월 23일. 禮安.

1) 初本 '清和二十三'

BYL1026 (書-趙穆-155) (樊遺內卷4:8左)

與趙士敬·琴聞遠【蘭秀○庚午】¹⁾

聞之，會在初四日，歉歲無易事，不知何以措耶？滉以
兒孫等病患，未得趨陪席末，恨仰無已。只將紅柿子二
十五個·生鰕食醢大小并三十個送呈，僉領是幸。謹拜。²⁾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10월 3일. 禮安.

1) 《師門手簡》‘士敬 僉白 聞遠’

2) 拜：《師門手簡》에는 뒤에 ‘庚午陽月初三日.’이 있다.

BYL1027 (書-趙穆-156) (樊遺內卷4:8左)

答趙士敬¹⁾

承來使所傳，兼得子龍書，甚慰病懷。僕傷餘憊極，痰嗽心恙，殆不復更爲人矣，如何如何？前蒙紆顧，未得使欸，迨絕恨愧。兒子苦瘡，此無居處，贅寓烏川，惟照。謹拜謝。²⁾

子龍書，當自此修復。

▶ 年月未詳. 禮安.

1) 《師門手簡》‘士敬 拜謝’

2) 拜謝：《師門手簡》에는 뒤에 ‘即日, 滉臥草.’가 있다.

BYL1028 (書-趙穆-157) (樊遺內卷4:9右)

與趙·李·權·朴僉上舍¹⁾

寒齋蠶鹽，何以遣苦？奉戀奉戀。聞士敬《四書釋義》廣求，可借送來者送來，不可借者，君須傳寫。不獨《四書》，《經書》力可及，則亦如右，以俟他日，溪上閑中，究竟了爲佳。白紙一卷·筆墨各一送去，照收。乾小廣二尾呈，僉笑頷。謹問。²⁾《四書釋》則借送來，《經書釋》則君傳之。³⁾

▶ 年月未詳.

1) 《師門手簡》‘趙·李·權·朴 僉上舍 奉問’

2) 謹問：《師門手簡》에는 뒤에 ‘混浩.’가 있다.

3) 四書釋……君傳之：《師門手簡》에는 제목 아래에 追記되어 있다.

BIL1029 (書-趙穆-158) (樊遺外卷2:23左)

答趙士敬諸君

士敬所詢及前來詩賦皆送還。但凡述作，本題外事實，雖不當盡爲援引，然有不可不略略說及者。尹公平生風節如彼，皆自學問兢畏中出來者。且三畏齋，乃在涪州北巖。當是時，公逃難流離，出萬死之餘，而學益力，節益苦，此尤人所不及而可尙可貴者也。詩賦中一不說著，而謾言在洛時事，已爲不近。又況公實終於紹興，豈有返歸三畏齋之事乎？今若不考，後遇此題，亦復如是，故《言行錄》·《一統志》付標送去，試僉考之。

北巖，程伊川謫涪時註《易》之地，事在《一統志》付標張上面，并考之。

► 年月未詳。

BNL1030 (書-鄭惟一-1) (樊卷33:1右)

答鄭子中【惟一○乙卯】¹⁾

辱垂問札，承侍履佳慶，欣慰。滉前患積脹，間間發動，此非小病，無藥可治，益以無慘。清涼之遊，頃嘗作意，緣冗未往之際，適有過客之見問者，邑人以遊山對之耳，不意傳及於雅聽也。近日了得許多人事後，可遂振衣，想在月晦間而時未定矣。公今偶失鄉薦，正合朴希正之戒。若得相從於山社，豈不好哉？第以世人橫生嫌謗，惹致紛紛，未必不由於此，如何如何？且滉此行，本爲養病計，而門里少輩願從者頗多，盡拒則不近情，不拒則山間亦非靜境，反害於恬養，此一事已難處矣。其在左右，

▶ 乙卯年 (明宗10, 1555년, 55세) 11월 7일. 禮安.
鄭惟一 (字 子中, 號 文峯, 本 東萊. 1533~1576)

[編輯考] 退溪가 鄭惟一에게 보낸 편지는 178통인데, 癸本에 80통, 樊本에 98통이 실려 있다. 그 중 9통의 편지는 《自省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資料考] 退溪가 鄭惟一에게 보낸 편지들은 初本 제4책(黃)과 제5책(字)에 편성되어 있다. 그 표지 이면에 ‘而見校’라고 하여 교정자가 柳成龍임을 밝혀 두었다. 中本에는 12책과 13책에 실려 있다. 12책은 권15와 권16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표지이면에 ‘重校 成龍·垓’라는 부전지가 붙어 있고, 13책은 권16과 권18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표지이면에 ‘重校 誠一·成龍·垓·光胤·詢’이라 하여 重校者 다섯 사람의 이름이 차례로 기록된 부전지가 붙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乙卯至月初七日】’, 中本 ‘答鄭子中【○乙卯】’

無乃益厭之耶？惟量處爲幸．所欲言者甚多，適家有行奠事，不具，謹奉報．

BNL1031 (書-鄭惟一-2) (樊卷33:1左)

與鄭子中【丙辰】¹⁾

頃日惠訪，深幸。而齋舍不堪留枕，晷刻別去，悵懷至今。今此和妍，侍奉想益佳慶。此間，身病作止不一，里近病疫蔓延，使人懍懍。《晦菴書》前去冊，寫至幾許？其次冊昨日金惇叙寄來，故送去，照領。又其次則隨到隨送，但恐君或有他行，或別有課業，與此事相掣礙，則不須強也。李貳相疏文，則令兒子求來矣。其所謂私儀者，無由得見。如有傳本，寄示深幸。溪居無人告語，憤憤度日，欲資以叩發一端²⁾，既卽回納，惟照。不宣。³⁾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2월 1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丙辰仲春朔日】’

2) 上本에는 [부전지 別【晦 〔止〕 一端.】]이 있다.

3) 不宣：初本에는 뒤에 ‘謹奉聞’이 있다.

KNL1032 (書-鄭惟一-3) (癸卷24:1右)(樊卷33:2右)

答鄭子中【惟一○丙辰】¹⁾

夫士之所病，無立志耳。苟志之誠篤，何患於學之不至而道之難聞耶？雖然，以公如是之志願，而不得夫一世有道之君子以親依之，顧乃過自貶損，以有叩於如滉性慳之人，豈非公爲不幸而滉爲愧懼之甚耶？向者於公，固有一二往復之言，今來諭則非但講疑，所云大非其宜。古人之執禮愈恭者，施當其可，而卒能有成，所以爲貴。不然，其爲愈恭，豈不適足爲笑罔耶？況無實盜名，古者比之穿窬，滉所以尤不欲得此於梁·楚之間也。雖然，公云“不懼世譏”，若只是朋友講學之名，則滉亦安能盡避乎？故從前犯笑侮論學，自不爲少。請公去他名而講所疑，其亦可乎。²⁾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 2월~3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4)에도 실려 있다.

1) 初本·擬本 ‘答鄭子中’；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見《自省錄》.】’；定草本·庚本 ‘答鄭子中【惟一】’

2) 初本에는 [부진지 此下無他語否.]가 있다.

KNL1033 (書-鄭惟一-4) (癸卷24:1右)(樊卷33:3右)

答鄭子中¹⁾

春盡不得聞問²⁾, 僧來辱教, 承悉近況.³⁾ 所云承家幹蠱, 不免反爲所累⁴⁾, 因此省悟, 思所以勇改者⁵⁾, 甚善.⁶⁾ 然於愚意, 猶有所未盡也. 蓋嘗聞之, 古人所以爲學者, 必本於孝悌忠信, 以次而及於天下萬事盡性·至命之極. 蓋其大體無所不包, 而其最先最急者, 尤在於家庭唯諾之際, 故曰: “本立而道生.” 今以幹蠱之故, 至妨於爲學之功⁷⁾, 無乃與古所云者有異乎? 然則其所以承幹者, 得無緩於義理而急於營爲, 故馴至於此耶? 請無改其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4월 11일.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5)에도 실려 있으며,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3에도 그 일부가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問目’으로 되어 있다.

- 1) 初本 ‘答鄭子中【四月十一日】’[추가 晩年定本見手錄.], 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見《自省錄》】’. 今按: 여기에서 晩年定本으로 여긴 手錄은 곧 《自省錄》에 수록된 해당 편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2) 問: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懸想殊極’이 있다.
- 3) 況: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脫去俗累, 入山靜處, 所得不比尋常, 令人跂羨無已.’가 있다.
- 4) 累: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覺得學問之工漸鑠.’이 있다.
- 5) 者: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此意’가 있다.
- 6) 善: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甚善’이 있다.
- 7) 功: 初本 ‘工’

名，而改其所從事之實，自承順歡奉之餘，一切唯盡義理之所在，則其向所營爲者，未必不在其中矣。如其節目之詳，具在方冊，在審擇而力行之如何耳。所可懼者，今之所謂頓減者，不能保於後日，如先正所戒“野火燒不盡，春風吹又生”耳。滉病患如前，讀書躬行，皆不能十分用⁸⁾工，又無朋友切磋之益。時復思之，懍惕靡容。《朱子書》，今幾寫畢。⁹⁾ 每一人寫來，隨將元本校正，病中頗費¹⁰⁾心力。然因此不無見到親切處，眞覺聖賢不我欺也。而難形於紙墨以告人，又未知天假幾年於此做得晚¹¹⁾境工夫也。心爲太極，卽所謂人極者也。此理無物我，無內外，無分段，無方體。方其靜¹²⁾也，渾然全具，是爲一本，固無在心在物之分。及其動而應事接物¹³⁾，事事物物之理，卽吾心本具之理，但心爲主宰，各隨其則而應之，豈待自吾心推出而後爲事物之理？北溪在朱門，最精於窮理，豈不知此而云哉？但於此，下一出字，似微有如來喻所疑之嫌，乃語言小疵，善讀者

8) 用：初本·中本·樊本·上本‘加’

9) 畢：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惟金彦遇兄弟所分三兩卷未寫.’가 있다.

10) 費：上本‘煩’

11) 晚：初本·樊本·上本‘暮’

12) 靜：上本‘正’

13) 應事接物：初本·樊本·上本‘應接’

以意逆志，自無所礙。恐不當云“自在心者片片分來”也。且來喻“在心在事只是一理”者，得¹⁴⁾矣。但又云：“所謂一本者，指理之總腦處¹⁵⁾，非指在心者。”夫既曰“只是一理”，則理之總腦，不在於心，更當何在？但須知在心在物本無二致處，分明透¹⁶⁾徹，然後始爲眞知。苟爲不然，謾曰“只一理”，則恐於一本萬殊處，猶有所未瑩也。此滉前日每云“理字難知”者，此也。如何如何？《通書》“聞者求於明”，“篤其實而藝者書”，及朱子“體有偏正”之論¹⁷⁾，皆已得之。“幾動於彼，誠動於此”，彼此二字，果爲¹⁸⁾可疑。鄙意幾者動之微。感物而動，故於幾言彼；誠者理之實，自內而發，故於誠言此耳。“有善不及”，是¹⁹⁾設問，其下²⁰⁾當有如之何等辭，而今無之，此濂溪立語太簡處。然此自吾東人以辭吐讀之，故爲難爾²¹⁾。若如²²⁾漢人既無辭吐之拘，則但曰“有善不及”，

14) 得：初本·中本·樊本·上本‘善’

15) 處：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而言’이 있다.

16) 透：初本·中本·樊本·上本‘融’

17) 論：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來喻’가 있다.

18) 爲：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9) 是：初本·中本·樊本·上本‘爲’

20) 其下：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1) 爾：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2) 如：上本‘使’

卽係以曰以下之文，有何不可乎？²³⁾ “動靜”首節·次節，但以形而上下者，分言有方體者有滯超形器者莫測之意。今以“分之一定命之流行”言之，恐未安。熟玩註解說，可見。凡此皆以臆²⁴⁾見率爾²⁵⁾奉告，不知可否？如有悖理，悉以反教，以資講益，幸甚。²⁶⁾

23) 乎：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今當依此讀之，便沒事。其下有不善亦同.’이 있다.

24) 臆：初本·中本·樊本·上本 ‘妄’

25) 爾：初本·中本·樊本·上本 ‘易’

26) 幸甚：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고 ‘李相疏并儀，今在道谷廬所，從當推送。兄子名騫者，娶於昌/所大村云，與仁里切近。當付此姪以傳。自今公亦欲惠問字，不煩專使，只托此姪，無不傳也。兼亦使來。旋索答書，卒遽未究所欲言者如此，書亦緣是草略，殊不盡意。如右傳之，無此慮也。前來帖，粗浣呈納，惟照領。所祈勉加進修，以副此懷。謹復./ 齋號承悉。今亦未暇耳.’가 있다.

KNL1034 (書-鄭惟一-5) (癸卷24:4右)(樊卷33:6右)

答鄭子中¹⁾

今因景昭²⁾，知自山回．想靜中讀性理書，所得超詣，恨不得聯床講究以祛³⁾蔽惑⁴⁾也．前論“心爲太極”，北溪之說，細思之，終是有病．但以延平謂朱子“從此推出分殊處爲非”之說．朱子《大學或問》補亡⁵⁾章，“心主一身，理在萬物，互爲體用”之論及程子“他人食飽，公無餒乎？”等說推之，可知北溪之說爲未穩．公能悟其語病，甚不易也．貳相疏儀⁶⁾納呈⁷⁾．僕近日脹痞頻作，不得盡力於此事⁸⁾，如此．疏儀⁹⁾，雖甚愛之¹⁰⁾，亦不¹¹⁾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4월 29일(그믐).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6)에도 실려 있으며,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3(韓國文集叢刊42, p.202)에도 그 일부가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問目’으로 되어 있다.

- 1) 初本 ‘答鄭子中【清和晦日】’[추가 晩年定本見手錄]；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見《自省錄》】’；定草本 [부진지 ‘丙辰四月’]；庚本·擬本 ‘答鄭子中【丙辰】’
- 2) 昭：上本 ‘照’
- 3) 祛：中本·庚本·擬本 ‘祛’
- 4) 惑：上本 ‘惑’
- 5) 亡：中本·樊本·上本 ‘忘’
- 6) 儀：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及權秀才帖, 同封’이 있다.
- 7) 呈：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照領.’이 있다.
- 8) 事：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尋常愧慊至’가 있다.

得傳寫，可歎其衰之甚也。《晦庵書》，諸人今已畢寫，託李大用粧績¹²⁾，未來。了此一事，閒中大幸，但精力如此，未知其終有絲毫之益與未也。¹³⁾

左右學問，誠不易，但常有急迫期必安排扭捏之意，此正延平所謂“積下一團私意”，亦孟子所謂“揠苗助長”之患。然則所由雖善，而爲心害甚重。況左右不無心恙，尤當深戒於此，故敢白。然曾傷於虎者，滉也，而爲此言，亦可笑耳？¹⁴⁾

9) 儀：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等’이 있다.

10) 之：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1) 不：初本·中本·樊本·上本 ‘末’

12) 績：初本·中本 ‘漬’

13) 也：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時向熟，惟冀侍慶之外，學履加珍，不宜，謹拜.’가 있다.

14) 左右……笑耳：《自省錄》에는 없다.

KNL1035 (書-鄭惟一-6) (癸卷24:9右)(樊卷33:7右)

答鄭子中別紙¹⁾

細詳來示，每有一病，輒能知有其藥。朱子所謂“卽此欲去之心，便是能去之藥”者，公皆²⁾得之矣。³⁾ 恐更不須問人，但能默默加工，向前不已，積習久久，至於純熟，則自然心與理一，而無隨捉隨失之病矣。程子曰“學貴於習，習能專一時方好”，又曰“整齊嚴肅則心便一，一則自無非僻之干”者，正謂此也。然其習之之方，當如顏子非禮勿視聽言動，曾子動容貌·正顏色·出辭氣處做工夫，則庶有據依而易爲力。至於眞積力久而有得焉，然後“三月不違仁”，及“一以貫之”之旨，可得而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 5월. 禮安.

[編輯考] 定草本과 庚本에서 癸本에 이르기까지 木版本들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편지가 KNL1037(書-鄭惟一-8)의 뒤에 편차되어 있다. 初本과 中本 그리고 樊本과 上本の 편차에 따라 바로 잡았다.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7)에도 실려 있다.

1) 初本 ‘答鄭子中別紙【五月】’[추가 晩年定本見手錄.], 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別紙【見《自省錄》】’

2) 皆 : [두주 一本, ‘皆’下有‘已’字.]가 있고, 甲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已’가 있다 ; 擬校 [‘皆’字下, 手本有‘已’.]

3) 矣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此’가 있다.

議. 今來諭則不然. 患操存之不能常, 則驗鼻息於虛靜, 論此心之未發, 則疑知覺之有無, 而深以把捉收拾爲難. 竊恐就此而習操心, 愈見紛擾, 而無寧息之期矣. 故程子每以坐忘爲坐馳, 而其答蘇季明未發之問, 反覆論辨, 而卒之不過以敬爲言. 朱子之論中和, 亦曰: “未發之前, 不可尋覓, 已發之際, 不容安排. 惟平日莊敬涵養之功至⁴⁾, 而無人欲之僞以亂之, 則其未發也鏡明水止, 而其發也無不中節矣.” 今以⁵⁾此語, 觀⁶⁾來諭之云, 其尋覓安排, 亦已甚矣, 無乃有乖於莊敬涵養而積⁷⁾久有得者耶? 至於未發之前知覺有無之說, 朱子〈答⁸⁾呂子約書〉, 論之詳矣. 兼情意·理氣之辨⁹⁾, 來諭亦不能無可疑.¹⁰⁾ 適此病倦, 來使回晚, 姑俟後便.¹¹⁾

4) 功至: 初本·中本·樊本·上本 ‘力勝’

5) 以: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朱子’가 있다.

6) 觀: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7) 積: 上本 ‘精’

8) 答: 初本·中本·樊本·上本 ‘與’

9) 辨: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在講學之道, 皆所當論’이 있다.

10) 疑: 初本·中本·樊本·上本 ‘議’

11) 便: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心要在腔子裏’, 所諭已得之.’가 있다.

KNL1036 (書-鄭惟一-7) (癸卷24:5右)(樊卷33:8左)

答鄭子中¹⁾

前月中，鵞姪傳書，具悉佳況。²⁾端午後，能復還山否³⁾? 滉平生不幸之極，虛名欺世，老病⁴⁾益甚⁵⁾，以⁶⁾至⁷⁾上誤天聽，旬月之間，再蒙召旨，駭窘戰惕，不知所出。初欲冒恥奔走⁸⁾適苦河魚殊劇，勢難昇行，又於私心，極有所難者，不得已昧萬死，再上辭狀。今聞物論深以爲非，未知終如何? 日夕危慮，以俟譴罰之至。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 6월 28일.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10)에도 실려 있다. 편지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年代考] 初本에 題下 小註로 ‘六月二十八日’이라 하여 작성 연대가 밝혀져 있으나, 定草本에는 ‘丙辰五月’이라는 부전지가 붙어 있다. 착오가 있는 듯하다.

- 1) 初本 ‘答鄭子中【六月二十八日】’[추가 晩年定本見手錄.] ; 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見《自省錄》.】’ ; 定草本에는 [부전지 ‘丙辰五月’]이 있다.
- 2) 況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欣慰無比.’가 있다.
- 3) 否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卽今見在何處?’가 있다.
- 4) 病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摧頽而’가 있다.
- 5) 甚 : 庚本·擬本·甲本 ‘深’ ; 甲本에는 [두주 ‘深’, 一本作‘甚’.]가 있다 ; 擬校 [‘深’本作 ‘甚’.]
- 6) 以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 7) 至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於’가 있다.
- 8) 走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上去’가 있다.

今世進退⁹⁾之難如此¹⁰⁾, 奈何奈何?¹¹⁾ 來書¹²⁾稽報, 亦緣此無聊之故¹³⁾, 愧恨愧恨.¹⁴⁾ 示喻¹⁵⁾以事過多悔, 歸於踐履之未得力. 又云: “格物致知, 亦非歲月工夫可¹⁶⁾至, 因以知欲速之妨於進學.” 可見自飭勵¹⁷⁾之意. 本領如此, 更加不¹⁸⁾能不¹⁹⁾措之功, 遲以數十年之久, 氣質之難變者, 豈不可變? 此道之難聞者²⁰⁾, 豈終不可聞²¹⁾耶?²²⁾ 如²³⁾滉者, 憊懣²⁴⁾日甚, 雖²⁵⁾知此意²⁶⁾, 不能痛下工力, 凡與朋友往復之言²⁷⁾, 恐卒歸

9) 進退: 初本·中本·樊本·上本 ‘處身’

10) 此: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令人氣悶’이 있다.

11) 何: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緣此無聊’가 있다.

12) 書: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闕然’가 있다.

13) 亦緣……之故: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4) 愧恨愧恨: 定草本 ‘愧愧恨恨’[부전지 {愧愧恨恨}本作‘愧恨愧恨’].[추가 {鄭}司諫家藏]

15) 示喻: 初本·中本·樊本·上本 ‘喻及’

16) 可: 初本·中本·樊本·上本 ‘所’

17) 自飭勵: 初本·中本·樊本·上本 ‘檢飭自勵’

18) 不: 初本 ‘弗’

19) 不: 初本 ‘弗’

20) 難聞者: 初本·中本·樊本·上本 ‘高深遠大亦’

21) 聞: 初本·中本·樊本·上本 ‘至’

22) 格物致知……不可聞耶: 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 목은 ‘別祿【此下摭出退集長牋中問答句語.】’로 되어 있다.

23) 如: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但’이 있다.

24) 滉者憊懣: 初本·中本·樊本·上本 ‘滉懣病’

25) 雖: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一日’이 있다.

26) 意: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而’가 있다.

27) 往復之言: 初本·中本·樊本·上本 ‘講論之說’

於空言也.²⁸⁾ 比來，點檢平日應接之間，流徇敝²⁹⁾俗，因³⁰⁾自失已³¹⁾者，十常六七。見示“知處世之難，且嘆規矩之嚴，外銷中³²⁾變”等語³³⁾，此在吾輩，非小病也。³⁴⁾ 所當亟改，但改之亦非易事。只以言語一事言之，其曲折正如所³⁵⁾喻。然如此預作閒安排，不³⁶⁾濟事，只當敬以³⁷⁾無失，涵養深厚，而發於應接者，不敢輕易放過，至於久久³⁸⁾漸熟，則自然已無所失，而應人中節，雖有所不合，人亦不甚怨怪³⁹⁾也。⁴⁰⁾ 如何?⁴¹⁾ 秋涼，惟珍鍊。⁴²⁾ 不宣。⁴³⁾

28) 也：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고 ‘尋常自愧.’가 있다.

29) 敝：初本·中本·樊本·上本 ‘於’

30) 因：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以’가 있다.

31) 已：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2) 中：上本 ‘內’

33) 語：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喜君先能道吾心中事也.’가 있다.

34) 也：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5) 所：初本·中本·樊本·上本 ‘來’

36) 不：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亦’이 있다.

37) 以：初本·中本·樊本·上本 ‘而’

38) 久：初本·中本·樊本·上本 ‘而’

39) 怨怪：初本·中本·樊本·上本 ‘怪怨’

40) 也：初本·中本·樊本·上本 ‘矣’

41) 何：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別紙，不敢不復，粗以獻疑，其疏妄處，評誨懇懇.’이 있다.

42) 秋涼惟珍鍊：初本·中本 ‘惟祈秋清珍鍊’；樊本·上本 ‘惟冀秋清珍鍊’

43) 宣：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謹復.’이 있다.

KNL1037 (書-鄭惟一-8) (癸卷24:6右)(樊卷33:10右)

答鄭子中別紙¹⁾

“在心在事”之說，看得透.²⁾ 知此，則理之難知處³⁾，漸可融會矣.

日在地下，亦當明曜⁴⁾，只看其光之能射出而爲月之明，則可知矣. 然冬爲四時之陰，地下爲地上之陰. 地上日景，至冬而差微者，日非微也，窮陰使然耳. 然則大地積陰之下，雖有光景，與出地爲晝者當⁵⁾有間，故《易》以“明入地中”爲明夷也.⁶⁾

“惻隱之心，人之生道”，程子此一段語，朱門辨說三條. 詳見下文，可考也. 蓋此生字，只是生活之生，“生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 7월 추정.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9)에도 실려 있고,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3에도 실려 있다. 제목은 ‘上先生問目【丙辰】’으로 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別紙【晚年定本見手錄.】’[부전지 ■■(考)次.] ; 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別紙【見《自省錄》.】’

2) 透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甚善. 鄙意正如來喻.’가 있다.

3) 處 : 初本·中本·樊本·上本 ‘者’

4) 曜 : 初本·中本·樊本·上本 ‘如晝’

5) 當 : 初本·中本·樊本·上本 ‘亦必’

6) 日在……夷也 : 定草本·《自省錄》에는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生不窮”之義，卽與天地生物之心貫串，只一生字，故朱子答或問“天地生物之心”，曰：“天地之心，只是個生。凡物皆是生，方有此物。人物所以生生不窮者，以其生也。才不生，便乾枯死了。”以此觀之，桀·跖不能無是以生，亦是生活之生耳。來諭以爲生出之義，又以爲動用之意，恐非本意也。⁷⁾⁸⁾

心體包含，無所不具。仁固心之德，智亦不外於心德。知覺，智⁹⁾之事，故謂之心之德，何疑之有？

“稟氣之惡，亦性之理也。”此語似可駭，然程子以來，論此理¹⁰⁾非一。蓋性比於水，清而安流，水之性也。其遇泥滓而汙濁，遇¹¹⁾險而波濤洶洶，非其性也。然不可不謂之水，特所值者異耳。然則¹²⁾稟氣之惡，雖非性之本然，豈不可謂性之理耶？來諭謂¹³⁾“陰氣生於理而陰

7) 惻隱……意也：初本·中本·樊本·上本 ‘惻隱之心，人之生道，此生字，生活之生，卽是生生不窮之意，上文心生道生生也，下文不能無，是以生生活也，皆一義也。惟中間具是形以生，此生字，乃爲生出之義，要之天理生生不已，故人物得是理以生出，亦生生不窮，則生出與生生之義，亦相離不得。朱子曰，心一言以蔽之曰生而已，人受天地之氣而生，【此生出之義。】故此心必仁，仁則生矣，【此生生之義。】亦兼二者，一申言之。來諭桀跖之生，以動用言之，恐非本意也’；上本에는 [부전지此生出此生生兩註，先生自註，不當雙行書.]가 있다.

8) 也：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행을 바꾸어 ‘思慮動作皆天，此一句，不記本語首尾云何。後日因書示及，庶得研究發蒙，今不敢妄爲之說也.’라고 한 조목이 있다.

9) 智：擬本·《文峯集》‘知’；擬校[‘知’字本‘智’字.]

10) 理：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1) 遇：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或’이 있다.

12) 然則：初本·中本·樊本·上本 ‘以此言之’

爲惡”，以此爲惡亦性之證．此則¹⁴⁾恐未然．夫謂惡爲陰者，以淑慝之類分之，以爲當屬乎¹⁵⁾此耳，非謂生於理之陰氣必爲惡¹⁶⁾，亦能由是而¹⁷⁾爲人物之惡也．若如此說，是惡之生，亦原¹⁸⁾於性，與善¹⁹⁾相對出來．其可乎?²⁰⁾

“氣之始，無不善”，乃氣生源頭處，非稟受之初也．然氣有一日之始，有一月之始，有一時之始，有一歲之始，有一元之始．然²¹⁾此亦概舉而言之耳．²²⁾推來推去，其變無窮，當隨處活看，不可執定爲某氣之始．苟²³⁾指認一處爲定²⁴⁾則²⁵⁾不通，不足以語造化之妙．²⁶⁾

13) 謂：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4) 而陰……此則：初本·中本·樊本·上本 ‘之說’

15) 乎：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6) 生於……爲惡：初本·中本·樊本·上本 ‘理生陰氣而爲陰之惡也’

17) 而：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8) 原：樊本·上本 ‘源’

19) 善：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爲兩物’이 있다.

20) 乎：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不然，何以曰“氣之始，無不善”乎?】’가 있다；中本에는 [부전지 小註‘不然’以下無‘《錄》’字，可疑.]가 있고，上本에는 [부전지 ‘不然’云云，亦恐不當雙行.]이 있다.

21) 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2) 耳：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3) 苟：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欲’이 있다.

24) 爲定：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5) 則：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爲’가 있다.

26) 妙：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행을 바꾸어 ‘枯槁之性，所論甚精.’이라고 한 조목이 있다.

程子“心本善”之說，朱子以爲微有未穩者，蓋既謂之心，已是兼理氣，氣便不能無²⁷⁾夾雜在這裏，則人固有不待發於思慮動作²⁸⁾，而不善之根株，已在方寸中者，安得謂之善？故謂之²⁹⁾未穩。然本於初³⁰⁾而言，則心之未發，氣未用事，本體虛明之時，則³¹⁾固無不善。故³²⁾他日論此，又謂³³⁾指心之本體，以發³⁴⁾明程子之意，則非終以爲未穩，可知矣。

非性則亦無自而發，猶之非水則何自而爲波濤³⁵⁾耶？“氣有生死，理無生死”之說，得之。以日光照物比之³⁶⁾，亦善。然日光猶³⁷⁾有時而無者，以³⁸⁾有形故也。至於理，則³⁹⁾無聲臭，無方體，無窮盡，何時而無耶？釋氏不知性之爲理，而以所謂精靈·神識者當之，謂⁴⁰⁾“死

27) 無：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許多’가 있다.

28) 動作：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9) 謂之：初本·中本·樊本·上本 ‘云’

30) 初：初本·中本·樊本·上本 ‘性’

31) 則：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2) 故：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朱子’가 있다.

33) 又謂：初本·中本·樊本·上本 ‘以爲’

34) 發：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5) 濤：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36) 比之：初本·中本·樊本·上本 ‘設譬’

37) 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8) 以：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9) 則：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本’이 있다.

而不亡，去而復來”，則安有是理耶？

‘蛙’，陰物，欲雨則類感而先鳴，固然。雉乃陽物，而性警且善鳴。大地掀撼，百物皆驚，顧雉能應時而作鳴耳，非必氣感而然也。⁴¹⁾

40) 謂：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41) 蛙陰……然也：《自省錄》에는 없다.

KNL1038 (書-鄭惟一-9) (癸卷24:10右)(樊卷33:13左)

答鄭子中¹⁾

《梅溪集》²⁾，此人雖不知此學，其遺風餘韻，足以使人興起，心常慕之。得委侔寄示，荷幸荷幸。³⁾ 辱示爲學之意，因見日用檢飭誠切如此，甚善。大抵⁴⁾足下於學，既知其方，又知其病之所在，苟能持⁵⁾進銳退速之戒，不已其功，久久習成，質變而仁熟，庶幾得見人生一大歡喜事⁶⁾，正恐⁷⁾欲速不得也。觸處皆然，當處便行，但見得如此，未行得到此，深⁸⁾愧聖門“先行後從”之訓也。來示⁹⁾欲須靜處專一下工，此又似不盡然也。¹⁰⁾ 若如應俗

▶ 丙辰年(明宗11, 1556년, 56세) 8월 2일.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일부가 《自省錄》(8)에도 실려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韓國文集叢刊42, p.225)에도 실려 있다.

- 1) 初本 ‘答鄭子中【八月初二日】’[추가 晩年定本見手錄.][부전지 ■■■考次.] ; 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見《自省錄》.】’
- 2) 梅溪集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書來具悉, 所以慰釋病鬱者深矣.’가 있다.
- 3) 荷幸荷幸 : 初本·中本·樊本·上本 ‘幸荷幸荷’ ; 擬校 [荷幸本乙.]
- 4) 梅溪集……大抵 : 《自省錄》에는 없다.
- 5) 持 : 上本 ‘指’
- 6) 辱示爲學……歡喜事 : 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실려 있다.
- 7) 恐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 8) 深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承諭’가 있다.
- 9) 示 : 初本 ‘教’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欲以事親爲大本, 深以身與理不相關爲慮,’

紛紛，則果有妨學之時，如家庭日用事，則無非所以立大本專一用功之地，且靜處專一非難，鬧¹¹⁾處專一爲難．若必要靜工，則所謂《雜儀》¹²⁾者，亦殆爲緩歇第二件事¹³⁾，可¹⁴⁾乎？格物說，未敢輕易，前教〈克齋記〉，亦未敢下筆．蓋既有晦翁先生記，今何得贅一辭乎？如欲以是定號，佩服晦庵之言，足矣．丁景錫以其才望門地，長途逸駕，自是分內事．今得如此，凡在交遊，皆可喜，但學未成而驟得路，自古鮮有不失其故步者，則其可憂有¹⁵⁾大於可喜，誠如所喻．滉於此人，愛重期許不淺，而不敢屢通問者，勢有所難而然，自今尤難發也．未知其所處，終又如何？足下契分既密¹⁶⁾，又非吾比，有欲相規，不妨與書，但傳書須極委曲，令勿犯他眼，書辭亦當有商量，爲佳．適有京居生員金命元來見，欲留讀《易》，苦辭不聽．今且出接，草草報謝．¹⁷⁾

皆得之. 但'이' 있다.

10) 似不盡然也：初本·中本·樊本·上本 '却不然'

11) 鬧：初本·中本·樊本·上本 '動'

12) 雜儀：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子中集先賢格言，爲《日用雜儀》.】'가 있다.

13) 事：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耳'가 있다.

14) 可：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其'가 있다.

15) 有：上本 '者'

16) 密：上本 '蜜'

17) 格物說……報謝：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錄》無'格'以下二百一十字.】'이 있고, 中本에는 [부전지 '格物' 以下二百一十(字當)存.]이 있다；《自省錄》에는 없다.

KNL1039 (書-鄭惟一-10) (癸卷24:11左)(樊卷33:15右)

答鄭子中¹⁾

滉²⁾病作止無定³⁾, 衰老目昏⁴⁾, 漸不辨細字. 時有一二來問之人, 率皆學業, 覺無益於彼己. 有漢城人金命元, 來此⁵⁾讀《易》. 象數之學⁶⁾, 雖亦爲性理之源·玩養之助⁷⁾, 然於身心日用工夫, 不甚親切. 每日講究數卦, 便覺疲倦, 無精力可及他書⁸⁾, 殊⁹⁾浪過了日子. 忽蒙來喻, 未敢率易¹⁰⁾而復之, 增愧增愧.¹¹⁾ 況凡此衆理, 來意已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10월 6일.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11)에도 실려 있다.

- 1) 初本 ‘答鄭子中【陽月初六日】’[추가 晩年定本見手錄.][부진지 ■■(考)次], 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見《自省錄》.】’
- 2) 滉: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頃來, 欲因鶯姪往來時, 附書相問, 恐或已作京行, 未果也. 忝惠書, 備審侍歡之餘, 勵志爲學如此, 既有以釋戀紆鬱, 而尤足以警發於昏惰, 幸甚甚.’ 이 있다.
- 3) 定: 初本·中本·樊本·上本 ‘常’
- 4) 衰老目昏: 初本·中本·樊本·上本 ‘衰老日甚目視眩暈’
- 5) 此: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數月’이 있다.
- 6) 象數之學: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고 대신 ‘滉初問苦辭, 只欲因而一番理會易書, 亦一事, 故留之. 但此書多所遺忘, 每日講究, 了幾卦便覺倦甚, 更無精力可及他書. 象數之學·精微之緼,’이 있다. 그런데 上本에는 ‘遺忘’이 ‘遺妄’으로 되어 있다.
- 7) 雖亦……之助: 初本·中本·樊本·上本 ‘雖固性命之原修省之助’
- 8) 每日……他書: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 9) 殊: 初本·中本·樊本·上本 ‘緣此殊覺’

自得之耶¹²⁾?¹³⁾ 但所云¹⁴⁾流行日用者，千條萬緒，儘無窮，自事親以及萬事萬物，儘多端。以無窮處多端，一一恰好，非窮理居敬之極功，卒難致之。故觀古人爲學，雖乾乾惕厲，靡容一息之間斷，然亦必積累工程，持以悠久，優游厭飫，然後所知所行，自然循次而有得焉。¹⁵⁾ 竊謂公之於此學，似有急迫求之之病，故未免於計較近功，而恒有戛戛難行之慮。竊¹⁶⁾恐似此不已，駸駸然入於私意，反害於義理之實，非細累也。且事親節目，無非天衷所在，至理所寓。量古今之宜，至誠溫謹，以漸而行之，安有上拂¹⁷⁾親意¹⁸⁾而下爲一家之驚怪乎？其不免有拂¹⁹⁾親意而²⁰⁾爲驚怪者，得非亦由於急迫求之爲之太銳之故耶？亦無乃不量所宜，行之無漸，其迹太

10) 易：養校〔‘易’恐‘爾’〕

11) 未敢……增愧：初本·中本·樊本·上本 ‘惟增愧赧何敢妄易而復之哉’

12) 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3) 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如曰天理流行於日用之間，一一踐履，方始爲人，且欲以家庭唯諾之際爲本而行之，斯可謂見之明而守之得其要矣.’가 있다.

14) 云：初本·中本·樊本·上本 ‘謂’

15) 有得焉：初本·中本·樊本·上本 ‘得之’

16) 竊：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17) 拂：初本·定草本·庚本·擬本 ‘拂’；定草本에는 [추가 ‘拂’本作‘拂’.]이 있다.

18) 親意：中本 ‘意’

19) 拂：初本 ‘拂’

20) 親意而：初本·中本·樊本·上本 ‘意’

露而然耶？行有不得，反躬自訟，固不可無，然至曰云云則²¹⁾過矣。以此意象，行於家庭之間，宜其有所謂云云之患也。橫渠曰²²⁾：“事親奉祭，豈可使人爲之？”躬親甘旨，乃事親中緊要²³⁾事。其以²⁴⁾謂妨於學業而勸止者，亦異於²⁵⁾餘力學文之旨矣。²⁶⁾但末俗刳敝，人家子弟鮮有行之者，一朝卒然每親調膳，或未爲親意所安，則亦當隨宜²⁷⁾斟量，以漸成慣。要在²⁸⁾自盡其²⁹⁾心而無忤親意，可也。若率意驟³⁰⁾作，反致違拂，則所爲雖善，恐³¹⁾非養志³²⁾之道也。滉³³⁾風樹悲懷，終天罔訴，其於³⁴⁾辱問³⁵⁾，雖不敢自外而妄對³⁶⁾，深有所³⁷⁾戚戚然也。至於操存節

21) 云云則：初本·中本·樊本·上本 ‘附膺叩頭無地容措則’

22) 曰：初本·中本·樊本·上本 ‘云’

23) 要：初本·中本·樊本·上本 ‘切’

24) 以：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5) 勸止者亦異於：初本·中本·樊本·上本 ‘勸止者無乃與’

26) 矣：初本·中本·樊本·上本 ‘異乎’

27) 宜：樊本·上本 ‘意’

28) 斟量……要在：初本·中本·樊本·上本 ‘善處要令’

29) 其：初本·中本·樊本·上本 ‘吾’

30) 驟：初本·中本·樊本·上本 ‘強’

31) 恐：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亦’이 있다.

32) 養志：初本·中本·樊本·上本 ‘悅親’

33) 滉：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孤露餘生’이 있다.

34) 風樹……其於：初本·中本·樊本·上本 ‘風樹懷悲，追思未盡分者，十而八九，終天之痛，罔極無訴’

35) 問：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忘對’가 있다；中本에는 [부전지 {‘忘對’}未詳. 疑下‘妄’字.]가 있다.

度·正助病痛，所喻皆當。滉亦嘗粗³⁸⁾窺³⁹⁾此意，行⁴⁰⁾之不力，未有一得⁴¹⁾，不能加一辭於其間。在公力行而究竟之耳。⁴²⁾ 丘瓊山所見，誠不可曉。⁴³⁾ 大抵三代以下，士大夫進退之義，莫善於宋朝諸君子。瓊山獨非議之如此，其亦陋矣。而欲論此事，爲說甚長，今不暇⁴⁴⁾悉也。丁景錫處與書，未知何所言⁴⁵⁾，後日可得寄來相示否？彼或有復書，亦望見示爲幸。滉於此人，甚愛之重之，意謂不乖於終始。但來鄉後只得一書，其後寂然⁴⁶⁾，此必有所以然，非其人有所差池也。⁴⁷⁾ 今公至都下，必一相見，爲我亦略⁴⁸⁾致意。然公方布衣，滉在閒廢，其於新

36) 妄對：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7) 深有所：初本·中本·樊本·上本 ‘深自’

38) 粗：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9) 窺：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得’이 있다.

40) 行：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但’이 있다.

41) 未有一得：初本·中本·樊本·上本 ‘至今無一端的有得處’

42) 耳：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고 대신 ‘愚陋之至望也。又因四端而推事物之理，其說亦善。唯所謂“既無此物，方無此理”，此一語，揆以《中庸章句》“所得之理既盡”之語，則可矣。然嘗聞之，物有聚散，而理則常存，尋常有疑於《章句》此說，故來喻之云，亦不能無疑。更須將此意講究而有得，則幸望具以示及，洗此昏滯也.’가 있다.

43) 所見……可曉：初本·中本·樊本·上本 ‘所見之差，正如所喻’

44) 暇：上本 ‘可’

45) 何所言：初本·中本·樊本·上本 ‘所言何事’

46) 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無音’이 있다.

47) 也：擬本 ‘池’；擬校 [‘池’本作‘也’字.]

48) 略：初本·中本·樊本·上本 ‘煩’

得路之友，若徒以愛重其人之故，過爲汲汲憧憧⁴⁹⁾，則不無自失之悔⁵⁰⁾，此則所⁵¹⁾不可不知⁵²⁾也。滉前所云云，亦慮此故耳，非設畦畛於道義之朋也。⁵³⁾

49) 汲汲憧憧：初本·中本·樊本·上本‘憧憧汲汲’

50) 悔：初本·中本·樊本·上本‘慮’

51) 所：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52) 知：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者’가 있다.

53) 也：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公以爲如何？雜儀，如戒送納，俟改正後，當更求看。寓兒處索書欲傳，深荷不遺。但其奴明日上京，故書不奉煩。此意照亮。寒天遠道，冀珍重萬善。不具。謹拜復.’가 있고, 中本에는 또한 [부전지 {‘公’以下}六十字, 當去.]가 있다.

KNL1040 (書-鄭惟一-11) (癸卷24:13左)(樊卷33:19右)

答鄭子中¹⁾

滉²⁾孤陋日甚，雖不忘³⁾舊業，正苦疲劣，不能自力於做工，日夕懍然而已。權好文與騫姪見在清涼，而⁴⁾孤山菴則⁵⁾安東 權春蘭與滉從孫宗道來寓。但此菴距此殊不近，溪路冰雪阻塞，頗以往來爲艱。公來此本無益，若寓此菴，又有此⁶⁾礙，尤未穩耳。學非一蹴可到，誠然，而又云⁷⁾：“向時期功於一二年。”若用意如此⁸⁾，眞是⁹⁾疏脫。¹⁰⁾ 此事乃¹¹⁾終身事業，雖到顏·曾地位，猶不可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12월 7일.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12)에도 실려 있다. 《文峯集》에도 내용 일부분이 실려 있다.

- 1) 初本 ‘答鄭子中【臘月初七日】’[부전지 ■■{考}次.], 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見《自省錄》.】’; 定草本에는 [부전지 ‘丙辰冬’.]가 있다.
- 2) 滉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如京水凍, 半途而旋, 亦曾傳聞, 顧恨無便奉問. 專使辱書, 具審侍奉茂福, 深以慰浣.’가 있다.
- 3) 忘 : 上本 ‘妄’
- 4) 而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 5) 則 : 初本·中本·樊本·上本 ‘有’
- 6) 此 : 樊本·上本 ‘自’
- 7) 又云 : 初本·中本·樊本·上本 ‘公言’
- 8) 若用意如此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 9) 是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大’가 있다.
- 10) 脫 : 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可笑也.’가 있다.

言已了¹²⁾，況其下者乎¹³⁾?¹⁴⁾ 心¹⁵⁾氣之患，滉乃曾傷於虎¹⁶⁾，前已屢進藥說．其不服驗，而復有如何之問，何耶？病之所起，公自知之．今¹⁷⁾若就心上求去此病，愈去而愈撓，不¹⁸⁾勝其勞撓，而成大病矣．且公於此學，已略¹⁹⁾見得路脈入頭處，不須更加許多強探索，許多閒安排．所謂操存·省察工夫，權且勿上念，只看日用平常²⁰⁾明白處，寬著意思，游泳其間，虛閒恬愉以自養，如朱子〈調息箴〉之爲者，及夫歲月積久之餘，非徒心恙自然有效，收斂·操存²¹⁾之實，亦不能無²²⁾得力於此矣．所云²³⁾“操存·省察勿上念”之說，非謂學者常法爲然，只是²⁴⁾心恙必²⁵⁾如此然後可安也．況此道理，無間

11) 乃：初本·中本·樊本·上本 ‘直是’

12) 言已了：初本·中本·樊本·上本 ‘謂已到’

13) 其下者乎：初本·中本·樊本·上本 ‘下於此者乎’

14) 學非……者乎：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上本에는 [부전지 ‘學非一蹴云云’，‘所云心氣云云’，恐當依印本連書.]가 있다. 今按: 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別祿【此下摭出退集長牋中間答句語.】’라고 되어 있다.

15) 心：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所云’이 있다.

16) 虎：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者’가 있다.

17) 今：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然’이 있다.

18) 不：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蓋’가 있다.

19) 略：初本·中本·樊本·上本·《文峯集》에는 없다.

20) 常：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義理’가 있다.

21) 自然……操存：初本·中本·樊本·上本 ‘自去操存省察’

22) 不能無：初本·中本·樊本·上本 ‘必’

23) 所云：初本·中本·樊本·上本 ‘所謂’

內外。凡致謹於外，乃所以涵養其中也。²⁶⁾ 故孔門未嘗言²⁷⁾心學，而心學在其中。²⁸⁾ 滉當時無引喻之人²⁹⁾，不知此理³⁰⁾，徒畏心恙³¹⁾，而遂全然放下了，坐失數十年光陰，是所恫³²⁾恨。公當視以³³⁾爲戒也。³⁴⁾ 矯揉氣質，在我不在人，固不易之³⁵⁾論，然嚴師畏友，日與之處，其薰陶切磋之益，亦豈少哉？景昭，善人之未學者，誠可惜也。吾鄉，却多文學之士，但皆梏³⁶⁾於學業，其讀書率皆匆匆趁逐，未有回頭住脚料理此事之意。雖趙士敬輩不無有意，亦不³⁷⁾免移奪於此，相見無甚講論，無大段相資之益。³⁸⁾ 唯李大用深用力於《朱書》，今已寫畢，

24) 非謂……只是：初本·中本·樊本·上本 ‘固非可爲學者之常法然’

25) 必：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須’가 있다.

26) 也：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7) 言：初本·中本·樊本·上本 ‘拈起’

28) 在其中：初本·中本·樊本·上本 ‘不外於日可見之處’

29) 無引喻之人：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30) 此理：初本·中本·樊本·上本 ‘出此’

31) 恙：初本·中本·樊本·上本 ‘病’

32) 恫：初本·中本·樊本·上本 ‘痛’

33) 以：樊本·上本 ‘而’

34) 所云錄無……戒也：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上本에는 [부전지 此以下，皆恐當連書.]가 있다.

35) 之：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至’가 있다.

36) 梏：樊本·上本 ‘括’

37) 不：初本 ‘末’

38) 講論……之益：初本·中本·樊本·上本 ‘講究又何有相資之可冀乎?’

逐一勘過，思索儘得³⁹⁾到底。⁴⁰⁾又有金惇叙爲學亦甚力，每事必欲求其是處，亦有意於《朱書》。但其人厄會非常，長⁴¹⁾在憂患中，不得專意此事，爲可歎耳。⁴²⁾窮而買田，本非甚⁴³⁾害理，計直高下之際，約濫從平，亦理所不免。但一有利己剋人之心，便是舜·跖所由分處。於此，亟須緊著精采，以義利二字剖判⁴⁴⁾，才免爲小人，卽是爲君子，不⁴⁵⁾必以不買爲高也。然⁴⁶⁾此等事，留心之久，易陷人於⁴⁷⁾汙賤之域，切宜常自⁴⁸⁾激昂，庶不墮落也。⁴⁹⁾體用之說，甚善。⁵⁰⁾惻隱，情也，其未發則性也。若所謂性之流行卽情，是耳。豈情外別有性之流行耶?⁵¹⁾

39) 得：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40) 底：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其人天資超等，其爲此，但默默加工，無膚淺駁雜之病，將來不可量也.’가 있다.

41) 長：初本·中本·樊本·上本 ‘常’

42) 矯揉……歎耳：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43) 甚：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44) 判：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判置’가 있다. 또한 初本에는 [부전지 一‘判’字恐疊.] [추가 非疊.]이 있다.

45) 不：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正’이 있다.

46) 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雖’가 있다.

47) 留心……人於：初本·中本·樊本·上本 ‘久久留意必陷人於’

48) 自：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錄》無‘自’字.】’가 있다；《自省錄》에는 없다.

49) 窮而買田……落也：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또한 뒤에 별행으로 ‘祠堂晨謁一條，來示甚當，但嫌其僭之云，未詳何謂也.’이 있고 또한 이어서 역시 별행으로 “‘六經，畫出道理底物事’，言至於此，意已悉矣. 以下推說太蔓衍，眞所謂刺語，恐當裁之.’가 있다.

50) 甚善：初本·中本·樊本·上本 ‘極是’

放失亡三字，固指已發後言，然⁵²⁾梏之反覆，夜氣不足以存，則清明純一之體，十分昏鑿⁵³⁾，謂之不亡，可乎？延平有⁵⁴⁾“無主”之說，朱子亦譏〈樂記〉之語，謂⁵⁵⁾“天理不待好惡無節而後滅⁵⁶⁾”，皆此意也。惟其日夜之所息不窮，故雖亡而有未嘗息⁵⁷⁾者存，能隨感而隨發，如未嘗亡耳。⁵⁸⁾心纔覺其放，便在於此。此亦先儒已論之，來說皆然。但⁵⁹⁾以“既屈方伸，往過來續”爲比，則⁶⁰⁾爲衍說耳。⁶¹⁾游定夫倍師從夷之惑⁶²⁾，至此爲極。“如遇孟子，恐異於曾子”之歎，不獨發於陳相也。⁶³⁾可怪可歎。⁶⁴⁾朱子初得陳安卿，甚喜之，屢稱於朋友間。蓋其學⁶⁵⁾長

51) 體用……行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然則“當惻隱”之語，實無下落矣.’가 있고, 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52) 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人心’이 있다.

53) 昏鑿：初本·中本·樊本·上本 ‘斷蝕’

54) 有：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55) 亦譏……語謂：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56) 滅：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之論’이 있다.

57) 息：初本·中本·樊本·上本 ‘亡’

58) 放失……亡耳：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59) 但：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又’가 있다.

60) 則：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似亦’이 있다.

61) 心纔……說耳：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62) 惑：上本 ‘感’

63) 恐異……相也：初本·中本·樊本·上本 ‘其責當不在陳相之下矣.’

64) 游定……可歎：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65) 學：初本·中本·樊本·上本 ‘人’

於辨說，門人鮮⁶⁶⁾及之者。惜⁶⁷⁾其⁶⁸⁾局⁶⁹⁾於所長，不屑踐履工夫，正所謂“智⁷⁰⁾者過之”也。嘗於講席，先生覺其有誤⁷¹⁾處，欲極論以曉之，他便隱其說。以是觀之，其心術隱微之間⁷²⁾，病亦不少，不但其言之少餘味也。然⁷³⁾先生所謂“所行與所知相反”者⁷⁴⁾，未必專⁷⁵⁾爲安卿發也。似⁷⁶⁾泛指門人而戒⁷⁷⁾勵之耳。⁷⁸⁾ 滉嘗竊怪⁷⁹⁾ 朱子發程門所未發，而門人得力，不及於程門人。亦如孟子發前聖所未發，而萬章·公孫丑之徒，不及於游·夏，未⁸⁰⁾知此⁸¹⁾何故也。雖然，此⁸²⁾自傳道⁸³⁾一大事言⁸⁴⁾耳。其

66) 鮮：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有能’이 있다.

67) 昔：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而’가 있다.

68) 其：初本·中本·樊本·上本 ‘乎’

69) 局：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終’이 있다.

70) 智：初本·中本·樊本·上本 ‘知’

71) 誤：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入’이 있다.

72) 之間：初本·中本·樊本·上本 ‘處’

73) 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而’가 있다.

74) 者：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75) 專：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76) 發也似：初本·中本·樊本·上本 ‘而發實’

77) 戒：初本·中本·樊本·上本 ‘策’

78) 耳：初本·中本·樊本·上本 ‘也故’

79) 竊怪：初本·中本·樊本·上本 ‘謂’

80) 未：初本·中本·樊本·上本 ‘不’

81) 此：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82) 此：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特’이 있다.

83) 道：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統’이 있다.

相與發明斯道之功之盛，亦豈獨朱子一身之力哉？一時及門之士，隨材⁸⁵⁾成就，傑然樹立者，不可勝數。傳相授受，以⁸⁶⁾至於元·明之世，而扶植斯文者，不絕⁸⁷⁾如彼。此又⁸⁸⁾不可不知者也。⁸⁹⁾ 胡致堂事⁹⁰⁾，人倫大變，其所處亦甚未安。然以文定爲父，而一時師友，皆大賢之人，致堂爲人，又極剛正，直道而行，豈無禮義而妄⁹¹⁾爲之乎？⁹²⁾ 恐既養於嫡母，則⁹³⁾所生母爲其所厭⁹⁴⁾，如⁹⁵⁾人君入繼大統，則不得顧私親之義，故不得不然耳。⁹⁶⁾ 丁景錫無答書耶？⁹⁷⁾ 頃⁹⁸⁾因窩兒寄一書

84) 言：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85) 材：初本·中本·樊本·上本 ‘時’

86) 以：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87) 扶植……不絕：初本·中本·樊本·上本 ‘蔚然相望者又’

88) 又：初本·中本·樊本·上本 ‘尤’

89) 朱子……者也：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90) 事：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고 이어서 ‘乃胡文定妾產也，初生將不舉，文定夫人取之水中，而自抱育。稍長無賴不可訓，文定怒，閉置樓上數月，樓有積材，盡刻作物象，極其巧。文定奇之，試多置書冊於樓上，未幾盡讀其書。自是始改過，卒爲大儒。所云本生，卽指所生母也。此事散見於諸書，可考也，則《通考書》兄弟字，誤無疑也。此其’가 있다. 또한 中本에는 [부전지 ‘乃’以下百一十二字，當去.]가 있다.

91) 妄：上本 ‘忘’

92) 爲之乎：初本·中本·樊本·上本 ‘處之耶’

93) 既養……母則：初本·中本·樊本·上本 ‘既爲嫡母所養則’

94) 厭：中本·樊本·上本 ‘壓’

95) 如：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正’이 있다.

96) 胡致……然耳：中本·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어서 별행으로 ‘向者承寄書修報，言急迫求近功之非，疑此爲十月初間書也。此後則更未見書矣.’가 있다.

97) 無答書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來云⁹⁹⁾：“年來大病廢業¹⁰⁰⁾，不意入仕，尤有礙。今病稍蘇，稍繙習古書。”其書欲奉寄，偶尋不得，未果耳。¹⁰¹⁾

98) 頃：初本·中本·樊本·上本‘近’

99) 寄一來書云：初本·中本·樊本·上本‘附書來自言’

100) 業：初本·中本·樊本·上本‘書’

101) 古書……果耳：初本·中本·樊本·上本‘古書云。其言止此。觀此，此人似亦難保其立定脚跟也。如何如何？前云盛書，其無答耶？曆書一部送呈。惟照納。餘懷不宣。謹復。’ 또한 中本·樊本·上本에는 앞의 ‘丁景錫’이하의 내용이 별행으로 되어 있다.

BNL1041 (書-鄭惟一-12) (樊卷33:24左)

與鄭子中¹⁾

氣味何如？滉²⁾塊嘿如前。就中閑閱舊篋，見向日報書草內“惻隱之心人之生道”一條，語意未瑩，方欲改之，而歲時多酬應，未果也。因思去年至月臨入清涼時所報書及心爲太極書，亦恐有誤處，但此無本可考。右二書若在書室，寄示何如？騫姪處往來人不絕，可附來也。惟侍迓多慶。謹白。

▶ 丙辰年 (明宗11, 1556년, 56세) 12월 26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臘二十六】’

2) 滉：初本·中本 ‘僕’

BNL1042 (書-鄭惟一-13) (樊卷33:25右)

與鄭子中【丁巳】¹⁾

近阻相問，未審侍履安否何似？無任懸懸。僕依舊保拙，病懷耿耿。就中清州牧李剛而索見《程氏遺書》第二十一卷初張甚勤。右卷附²⁾騫姪送來爲望。近有下南之人，欲附³⁾其人而傳之故耳。似聞君欲來寓樹谷齋舍云，此舍時未畢粧，四無遮蔽，山君屢近，勢難寓止，雖爲好事，恐不可也。惟照諒。適因行祭，稠中草草。謹拜。

▶ 丁巳年 (明宗12, 1557년, 57세) 10월 15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丁巳陽望日】’

2) 附：初本 ‘付’

3) 附：初本 ‘付’

KNL1043 (書-鄭惟一-14) (癸卷24:19左)(樊卷33:25左)

((與鄭子中))¹⁾

景瑞，聞其近日窮空特甚，殆無以自存云，令人憫念，而自困涖涖，愧無以相及耳。滉在都日，求得經書釋義各數件，互相參酌而傳寫，其有可疑處，頗以臆見附說，以備遺忘。歸來，欲更加芟正，以示兒姪，而病未暇顧。欲資朋²⁾友看過，得以指抉其差謬而改之。故於趙士敬等數人，許其借看。看後並無一句評論，徒然見還，此豈朋友磋³⁾磨之義耶？近景瑞爲來要看。滉懲於士敬輩，初不欲示，被渠煎迫，不得已授去，且懇其須惠評駁之益。近得渠書，但云：“多有曉不得處，欲來

▶ 丁巳年(明宗12, 1557년, 57세) 11월 추정. 禮安.

[編輯考] 上本에는 [부전지 印本, 此書在下宋名臣事蹟條下, 恐當從.]가 있다. 癸本을 포함하여 庚本 이하 모든 木版本들에서는 이 편지가 별도의 제목 없이 KNL1044(書-鄭惟一-15)의 뒷부분에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初本과 中本, 그리고 樊本과 上本の 편성에 따라 일단 분리 배치하였다. 한편, 上本에서는 印本 곧 목판본의 편성에 따라야 한다는 부전지가 붙어 있다. 목판본 편성이 당시의 어떤 교정의견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견해 또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初本 ‘與鄭子中【冬】’

2) 朋：上本 ‘明’

3) 磋：上本 ‘嗟’

面質”云，此則當有相發之望。但面論雖好，或值他撓，恒未盡意，不如抄出所論之條寄示，則可以專意細加考論，以承誨益也。如見景瑞，爲致此意爲佳。大抵此等事，甚不可易爲，易爲則不足以期久遠；亦不可耽著，耽著則有妨於下工夫。嘗見朱先生與南軒書，深歎伯恭駁雜之病，以爲“如《閩範》之作，指意極佳，然讀書只如此，亦有何意味耶？范淳⁴⁾夫一生作此等工夫，想見將聖賢之言，都只忙中草草看過，抄節一番，便是⁵⁾事了，元不曾子細玩味。所以從二先生許久，見處全不精明，是豈不可戒也耶？”又與劉靜春書，戒其玩物喪志之非曰：“《班范外事》⁶⁾，不知編得，於己分，有何所益，於世教，有何所補？而埋沒身心於此，不得超脫，亦無惑乎？子靜之徒，高視大言，而竊笑吾徒之枉用心也。”夫東萊·靜春與范淳⁷⁾夫諸公道德事業爲如何？而先生之所爲嘆惜若此，況在吾徒，而可易言耶？可不知懼而更自策勵耶？朴龍巖，固今世難得之士，其所纂集，亦甚可貴。然觀其書，頗未免有疏漏。想其爲此書，正如

4) 淳：初本‘醇’

5) 是：養校[‘是’恐‘謂’]

6) 事：養校[‘事’恐‘史’]

7) 淳：初本‘醇’

先生所以譏范淳⁸⁾夫者，是亦吾輩所當視以爲戒者也。欲還其書而少⁹⁾獻愚衷，適爲黃仲舉借去其書，姑未果耳。然滉所以爲此言者，非直以公所纂輯爲非也。竊以吾徒所就，揆古人事業，不啻黃鵠與壤蟲¹⁰⁾之間，而顧汲汲以此等事，爲最上第一件¹¹⁾，埋頭沒脚於其中，不暇顧親切工夫，其與聖賢爲己之學，寢¹²⁾遠寢¹³⁾忘，而反自以爲吾事已了，則大不可。故區區奉規，且以自規云爾。不知盛意以爲如何？

8) 淳：初本‘醇’

9) 少：上本‘小’

10) 壤蟲：上本‘蟻虫’

11) 件：上本‘殄’

12) 寢：初本·中本·樊本·上本‘寢’；中本에는 [교정기 ‘寢’]이 있다.

13) 寢：初本·中本·樊本·上本‘寢’；中本에는 [교정기 ‘寢’]이 있다.

KNL1044 (書-鄭惟一-15) (癸卷24:17左)(樊卷33:27左)

答鄭子中【丁巳】¹⁾

謂公南行且返，第未收安信，懸懸之至，忽枉問字，知曾罷南行，侍歡之外，學履勝迪，欣寫無比。所云追悔事，未知何謂？先正格言，以爲“既不可長留在胸中爲悔，又不可不悔。”凡此皆公所自知。正惟此處爲難，而其欲捨不得，卽是心病。今欲治此病，亦不待他求，只就來喻存心法，平平存在，略略收拾處，能接續用工，至於純熟，則自然心地虛明，不累於事物，非有意放下，而自放下矣。滉得心恙最早，而曉治法太晚。自近用工，始似有實地可據，日用動靜間，往往若有契合融會處。然心平氣和，事順理愜時，覺得如此，而苦於間斷不接續，不能打成一片，介然之頃²⁾，已復放失，或遇逆境，到急衰處，依舊纏繞放不下。蓋於古人所謂“晝

▶ 丁巳年(明宗12, 1557년, 57세) 12월 2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臘月初二日】’；中本·定草本·樊本·上本 ‘答鄭子中’

2) 頃：《文峯集》‘頃’

卜諸妻子，夜卜諸夢寐³⁾”者，每有愧焉。遽使之言，眞是先獲我心者也。示喻“纔覺放去，不要苦著力收拾，但覺時便在”等語，得之。其下復云：“勿復思此事而已。”此語用之於勿留悔一事則可，若於其他，則似有告子“勿求於心”之病。如何如何？⁴⁾

宋名臣事蹟⁵⁾，眞可師法。自《言行錄》所載外，名公鉅賢，纂輯成書，豈非偉事有補於治己，波及於世人？但觀古人纂述之事，率多不得行於時者之所爲⁶⁾。公方此逸駕修道之初，何遽匆匆爲此計乎？其必以爲此非作者立言之比，但哀集前言往行，而爲自修之鑑云爾，則宜亦可矣。然愚⁷⁾意亦望勿爲一時率易之計，擬作生平遠大之期，目今所得者，且勿硬做已得，俟後日入都，廣求文籍，博收而精揀⁸⁾之，一一秤停，反覆考校⁹⁾，至於成帙之後，亦必參訂審覆，無復改評，然後乃可爲成書。若草草易爲，則非徒不滿人意處必多，自家看來，

3) 寐：上本 ‘寢’

4) 所云追悔事……如何如何：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別錄【此下摭出退集長牋中問答句語.】’라고 되어 있다.

5) 宋名臣事蹟：初本에는 이하의 내용이 앞 단락과 連書되어 있고, 앞에 ‘○’ 표시가 있다.

6) 爲：樊本·上本 ‘謂’

7) 愚：上本 ‘憂’

8) 揀：上本 ‘鍊’

9) 校：甲本 ‘枚’[교정기 ‘校’]

亦不免病敗愈看愈出矣。滉病中，有少¹⁰⁾備忘所述一二編，自謂已成。後來看得，自悟其病處甚多。身所驗知，故敢此獻愚耳。考亨以後諸儒¹¹⁾，欲考錄以自警範，窮山無書可檢¹²⁾，欲俟公入漢，求宋·元史，抄其所載寄來而後，參以散出諸書之人而爲之，未知其果能成未也。《鶴林玉露》四冊·《大全》書二冊，附¹³⁾來使。《翰墨全書》，乃主詞翰之書。其氏族類雖記，人物甚疏略，徐當更考有無面稟。《輟耕錄》，嘗見之，不無人物可采處，但覺其人心術不正，有深可惡可賤處，不可不知也。汪玉山事跡，滉亦未詳。頃日所云，是《輟耕錄》所載，或《齊東野語》，兩書中未的何書所載也。梅·陸·韓三人，皆詩人之有風操者。陸雖小有清議之譏，亦是小疵耳。¹⁴⁾ ((訪具來時，許欲過枉，跂¹⁵⁾俟登音。不具。謹拜復。))

10) 少：上本‘所’

11) 儒：上本‘孺’

12) 檢：庚本·擬本·甲本‘驗’；甲本에는 [두주 ‘驗’，一本作‘檢’.]이 있다；擬校 [‘可驗’之‘驗’，本作‘檢’.]

13) 附：初本‘付’

14) 疵耳：庚本 이하 모든 목판본에는 뒤에 행을 바꾸어 ‘景瑞聞其近日’ 운운하는 KNL1043(書-鄭惟一-14)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와 관련해서는 KNL1043의 [編輯考] 참조.

15) 跂：初本‘企’

KNL1045 (書-鄭惟一-16) (癸卷24:21左)(樊卷33:29左)

與鄭子中【戊午】¹⁾

間者辱訪，兩日相從，爲幸多矣．別後猶有無限合理會底²⁾事，日日心未嘗不在左右也．未知西行無進退，廿一著鞭否？前云《言行錄》事，固不爲無益，故不爲勸止，且贊成之矣．然閒中仔³⁾細思之，君之此行，求見諸未見書籍，以成此書之志，太銳太急，恐或因而致悔咎，召喧鬧，切不可不慎也．君子之言行，豈視時世而有所變易？然其行於世也，凡吾之顯晦語默，不可不隨時消息以善身也．故以朱子之剛立不屈，晚年所以應世者，與乾道·淳熙間所爲，大不同．非志變也，時不得不然也．滉頃年在城中求書論學等事，自今思之，多有觸忌取笑者．然皆與吾同志之人乘間而密爲之，雖不無指目，而不大段起⁴⁾鬧者，時然耳，今則又與彼時懸殊．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1월 19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與鄭子中【戊午正月十九日】’，定草本 ‘答鄭子中【戊午正月十九日】’[교정기 ‘與’]

2) 底：樊本·上本 ‘之’

3) 仔：初本 ‘子’

向聞君之題目，已自不入時宜。今自草野新入都城聲利海中，不計禁諱，不問生熟，徒以求見之切，苟有書籍者，東問西逐，汲汲遑遑，唯恐不及。人之見聞，必甚駭異。駭異，所不足恤也，但以吾輩今日學問緩急言之，著述非急，行身顯晦言之，晦藏爲上，乃忘上策而急非急，以橫起犯世患之端，君子之所當慎也。故聊言之。然非欲左右畏時議而輟所爲⁵⁾以徇之，但欲其勿太露太忙，惟吾素相知相熟之人，隨宜索取，其可疑處，雖聞有書，不枉祈覓，自然無患矣。況《宋史》·《一統志》既得之，則餘外零碎，亦何必盡要？又不必於今行盡得來而今年畢其書也。大抵朋友中如左右者，何處得來？所以心常傾向。⁶⁾但每事皆有欲速之意。意緒常若匆匆，於沈深悠遠氣象，似欠，切望常自點檢思矯也。昨得宋參判台叟書，有《道學名臣言行錄》二冊，今行新得來云。考亭門人以下諸賢，想必具載於斯。然則吾所云者，不爲可也。宋公侯看了，許欲寄示，未卜其遲速，如渴之思水也。此公無可疑，君若因景錫而求之，宜可

4) 起：樊本‘氣’

5) 爲：樊本‘謂’

6) 朋友中……傾向：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나온다. 다만 ‘向’이 ‘嚮’으로 되어 있다.

得見，因達我意，君還以隨行簞而來，何其幸也！又聞《今獻彙言》書，校書館今已畢印，都中必多有之。得見則程敏政事如可考，考而謄來，亦望。黃仲舉亦印右書⁷⁾來，則欲示⁸⁾云，而未可必，故云耳。本戒求書之急，而終以求書奉囑，亦足以發一笑。惟冀好行多慎。不宣。（謹叩。）

7) 書：上本‘事’

8) 示：上本‘云’

KNL1046 (書-鄭惟一-17) (癸卷24:23左)(樊卷33:31左)

答鄭子中¹⁾

昨昨人還，併得兩書，縷縷具悉。因見近日用功²⁾曲折，深有警作於心也。見得的確處明白處，滉亦時到此境界，而不足恃此以爲得者，纔間斷時，便依前失去，無捉摸³⁾故耳，來喻所云與所見全然相反者，是也。⁴⁾而希正所舉湖南李隱君之言，乃持敬節度，是其身親經歷來，故其言真實而有味。非公得於希正，滉何緣得聞？吾輩所當佩服而不忘也。“正義明道”·“不忘不助”等語，實見親切正好用力⁵⁾之地⁶⁾，何故却云“刻苦之病，無藥可瘳”？既云無藥可瘳，又何以復云“更數年，可救得七八分”耶？滉意救得七八分，其地位已甚高，難可期於數年之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1월.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中本 ‘并答鄭子中【一二三書】’；定草本에는 [부전지 ‘戊午正月念■’]가 있다.

2) 功：上本 ‘工’

3) 摸：上本 ‘模’

4) 兩書縷縷……相反者是也：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5) 力：上本 ‘工’

6) 正義明道……用力之地：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後也。而如此爲心，恐猶未免謀利計功正助之病，請更思之。《言行錄》，滉前後之言，非欲公焚其稿而勿爲，但告勿太沒溺以妨進修工夫，勿太匆遽以害悠遠氣象⁷⁾云爾。朱先生初見路德章編集《春秋》，謂曰：“此等，得暇爲之，不可以此妨涵養之功。”後見其用心之差，乃曰：“當時見所編精密，心利其成，不欲一向說殺。以今觀之，所謂‘爲人謀而不忠’者。爲學本以治心，今不唯不能治之，乃使向外奔馳，而反爲之害。豈不爲惑甚乎？”今公所爲，正不可不慮此，故云云。來喻至云“二三十年，誓不復作此等工夫”，則又似有未相悉者而固必太過也。況以不近之事推之於病昏之人，而欲責其成，此尤涉於相誣相誑，以取怒於世人。公之於我，實禍福所同。公不能慎言如此，此滉不得不致深憂於公之行世也。《晦庵書》誤處，所喻皆精當。滉亦知鑄本有公私改不改之異，但公本既不可得，而據家藏私本，其決然謬誤，所不可不改。然又恐有妄⁸⁾輒之失，故用先儒⁹⁾存舊之例，有元作當作之云。今示考據正誤公本，欲去兩作之煩，甚善。已就貼紙處，悉用朱抹去之矣。

7) 象：上本‘像’

8) 妄：上本‘忘’

9) 儒：上本‘孺’

其〈與臺端書〉，有誤作可，〈與欽夫書〉，聖誤作正，皆依改正。丞相之爲趙雄，不易如此考出，亦已依書題下。至以泰兒爲塾，疏謬非常。先生末年，塾豈在乎？老昏如此，可笑可駭。但終未辨爲埜爲在，故只去塾字耳。〈與留丞相書〉，念字本闕，今亦當闕，然其爲會字，似無可疑。故加注曰：“念，元本缺字，恐當作會。”如此，如何如何？此書寫了，已經五六次讎校，猶有此失，令人恐惕。今得公如此改正，幸莫大焉。但二十四卷何在而不得校乎？此卷首尾，皆未經校過。如此誤書，雖印何貴？且其印不印，姑所不論，書本則必欲無訛，而此無公本可校。聞西行尙隔六七日，冀得更藉¹⁰⁾精力，少加校閱，故一二冊，附來便送去。切望留意。晦間，當使人取來。其未了餘冊，隨後更作如何料理也？〈與朴龍巖書〉，窩父子偶皆出外，獨琴生 蘭秀在書齋，代寫送似，此亦豈無病處？何不說來耶？

((第二書示意，要不出第一書。奉答之外，不別爲條報。))

10) 藉：上本‘籍’

KNL1047 (書-鄭惟一-18) (癸卷24:26右)(樊卷33:34右)

答鄭子中¹⁾

李參奉便來，今復睹第三書．所謂“變化氣質最難”，非徒公患，正是滉病，三復悚厲．范冲，以其時世事蹟考之，似不容有兩人，或疑其字有兩稱．《王梅溪集》，元無誌銘，他未有可考，惟他日考之《宋史》以定，可矣．宋·尹兩公，皆是願見之人，當見何疑？但公方今爻象，如聘而未行之處子，何可輕自往見人耶？²⁾ 蓋不論他可見與否？只是在我時不當故耳．古人雖云“事其大夫之賢者”，今日使此說不得，正須內植其志，壁立萬仞，而所以行於世者，則每以“退人一步，低³⁾人一頭”爲第一義，閉門自守，聽天所命．如是而或有險難，可謂之命，以其非自召也．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1월 20일경 추정. 禮安.

[編輯考] 初本·中本에는 이 편지가 앞의 서간 KNL1046(書-鄭惟一-17)의 뒤에, 제목 없이 이어져 있다. 그러나 樊本과 上本에서는 목판본과 똑같이 독립시켜 편성하였다.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中本에는 제목이 없다 ; 中本에는 [부전지 ‘答鄭子中’].[추가 上一二三書三字去.]가 있고, 定草本에는 [부전지 ‘戊午正月念後’]가 있다.

2) 宋尹兩公……往見人耶 : 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3) 低 : 樊本 ‘底’

後進登先進之門，主人雖是可信，其在門賓客，皆可信耶？故於一投足一開口之間，不得譽則必得毀。得毀固可畏，得譽更可憂。古人戒後進之言曰：“今日人主前得一獎，明日宰相處得一譽，因而自失者多矣。”此誠切至之論。公前在都中⁴⁾，已有聞譽。鄭大提至自臨門致意，此皆⁵⁾非可喜之事。公知之乎？⁶⁾書末所云公自處之意，甚善。然如錢若水急流中所以能勇⁷⁾退者，以有求退得退之一路，故能遂其高志。今則一入要路者，非被驅逐，無可退之路。此今之爲士進退極難之勢也。“富貴易得，名節難保”，“末俗易高，險塗難盡。”難易之間，正當明著眼審著脚，庶不負平生所學也。不然，要路拘牽，險塗惶惑，雖欲如杜·馬兩公之戒，恐不得如其意。故滉之愚見，不願賢者之得時譽而登要路也。如滉者，中年報國無狀，幸因沈病，得遂退志，朝廷若付之相忘之域，固爲至幸，宜公之爲賀。樞府之命，今四年矣。近得本府郎官書，知其尙未遞⁸⁾也。此正辭章

4) 中：《文峯集》‘下’

5) 皆：《文峯集》에는 없다.

6) 公前在都……公知之乎：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7) 勇：初本·中本 ‘通’；初本에는 [부전지 {通}作‘勇’.]가 있고, 中本에는 [부전지 ‘通’考次][추가 傳本亦作‘勇’, ‘勇’字恐是.]가 있다.

8) 遞：初本·中本·定草本·庚本·甲本 ‘替’；定草本에는 [교정기 ‘遞’]가 있다；養校 [‘替’本

免筭，十上廿上，期於得請之日也。而非宰相，非臺諫，不敢煩瀆辭免，乃國之故。⁹⁾ 疏遠拘掣，無路控辭，暗嘿屏藏，流聞時論，或有大以爲非者。欲加之罪，何患無辭？得罪固所不計，在人臣之義，一向如此廝喏，實有所未安者。況今年，國有事故，非常時之比，不無激生他論之勢。滉度今年，如度九折，而見謂“安臥溪山，放心事外”，可乎？此言甚長，非尺札所究，當默會也。李察訪碣陰銘，以敦囑之故，不敢無一辭，甚知不中。用告參奉，不如改求他文也。〔青袱，已付窩。皮袱裹冊奉還。並照。不宣。謹復。〕【夜作此書，眼暗筆澁，殆不可讀。】1))

作‘遞’]

9) 故：中本에는 [부전지 ‘故’下恐有‘落’字.] [추가 傳本無‘落’字.]가 있다.

BNL1048 (書-鄭惟一-19) (樊卷33:36右)

答鄭子中¹⁾

前月，得在京辱報書，知當下來，今朝得仲舉書，又知已下來，顧拘務阻水，末²⁾由奉問。忽此投翰，具悉慶侍外素履珍勝，無任慰沃。滉碌碌保田里，所與酬接，率多冗末，未有嚴憚警益之事，習成媮惰，時復自循，悚懼爲深。送示《言行錄》，甚荷不鄙。才看姓氏，未暇窺閱，而自計疏淺，亦將豫被³⁾渠成之利，跂⁴⁾幸跂⁵⁾幸。宋·元·麗史，不得求見而來，大可恨也。當因仲舉求《宋史》於崔見叔，或公爲求〈列傳〉而侔人，則兼求道學諸儒附卷而來，則可易轉取來看矣。宋同知所送《言行錄》及簡，如獲拱璧⁶⁾，喜不可具述。鄭相公碑文之屬，不知吉元公何以輕及於滉乎？大抵有大名大業人，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6월 8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六月初八日】’

2) 末：初本·中本 ‘末’

3) 被：上本 ‘彼’

4) 跂：初本 ‘企’

5) 跂：初本 ‘企’

6) 璧：上本 ‘壁’

須得大手筆，可以傳信後世。以相公大節，如滉微末，僭妄⁷⁾有述，豈不適爲相公累耶？則在後賢失屬之譏，亦非小，故滉雖欲⁸⁾吉元公勉承其懇意，何可得乎？但相公德業之盛，但得於口耳之一二而未悉，今可因是而得見，是則深自慶躍。來使以雨作阻水爲恐，索報頗急，掛一漏萬。惟祈養鍊益茂。謹拜謝復。

7) 妄：上本 ‘忘’

8) 欲：初本에는 아래에 [부전지 疑有‘爲’字.]가 있고, 中本에는 [부전지 ‘欲’下疑有‘爲’字.]
[추가 傳本亦挾書‘爲’字.]가 있으며, 樊本·上本에는 [두주 一本, ‘欲’下有‘爲’.]가 있다.

KNL1049 (書-鄭惟一-20) (癸卷24:28右)(樊卷33:37右)

答鄭子中¹⁾

近者，頗阻聞問，懷不可言。倂來拆²⁾書，喜審侍慶外學履佳勝。如滉病與衰謀，眼昏特甚，不能看書。積雨，山路四斷，孤坐寥落。今才晴霽，又困秋熱，日間殊憤憤爾。“摧³⁾頽”·“疏漏”等語，不易點檢至此。⁴⁾但雖知此爲病，而不能奮起矯揉。吾輩之患，正在此處。若每每如此，何益之有？因來言而⁵⁾惕然故云⁶⁾耳。⁷⁾且環顧其中，枵然無物，而上誤聖朝，辱賜除召，在前非一⁸⁾二。今年來，似有永棄之論，稍自爲幸。不意復聞

▶ 戊午年(明宗13, 1558년, 58세) 7월 25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 1) 初本 ‘答鄭子中[七月二十五日.]’；定草本에는 [부전지 戊午七月.]가 있다.
- 2) 拆：初本·中本·樊本·上本 ‘拆’；庚本·擬本 ‘拆’；擬校 [‘拆’字當作‘拆’.]
- 3) 摧：初本·中本 ‘頽’；初本에는 [부전지 {‘頽’}字可疑, 更詳.][부전지 上‘頽’疑‘摧’.]가 있고, 中本에는 [부전지 上‘頽’字恐‘摧’字.][傳本, 亦挾書‘摧’字.]가 있다.
- 4) 摧頽疏漏……點檢至此：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 5) 而：上本에는 없다.
- 6) 故云：《文峯集》에는 없다.
- 7) 因來言……故云耳：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 8) 一：上本 ‘人’

此事，而啓謬之意，更甚於前．不知滉作何等罪過，致得如此虛僞？欺天欺世之罪，無計逃免．奈何奈何？所幸，政院以東班除授後，下書請之，以此，時無來報，其間必有彈駁之發，庶有停召之理．不然，早晚被命，則進退俱無正當道理，實難善處．然於此有一條路稍通，計欲從此結末，但未易以語人，故人⁹⁾傳將赴云．所深慮者，未聞有來報耳．若時議之有無，正是難說，此亦何常之有？作止隨時，寧可據在京時爲必無也．雖然，不以謗議有無爲進退，只當視吾義所安，而被命之後，則尋所安處極多閱¹⁰⁾，故憂心耳．《言行錄》，才一看過，爲金惇叙借覽，今雖來，未及再閱．然此無書冊，所取諸條，無以考證，只據時見而言，似甚精博，殊有益於人，可愛又可傳．¹¹⁾然吾意勿遽¹²⁾以爲了業，徐更鍛鍊得到十分而後出之，尤好．前卷，要有更考，姑未呈納．《道學錄》，深幸得見，其人有失正派者，姑且勿論，但中朝，至今猶有作者不絕，非偏方所可及．讀之，令人

9) 故人：中本에는 [부전지 ‘故人’以下, 更考次.] [추기 傳本同.]가 있고, 樊本에는 [두주 ‘故人’以下, 可疑.]가 있다.

10) 閱：初本 ‘礙’；樊本에는 [두주 ‘閱’, 一本‘礙’.]가 있다.

11) 言行錄……又可傳：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 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文峯集》에는 ‘言行錄, 似甚精博, 殊有益於人, 可愛又可傳.’으로 되어 있다.

12) 遽：上本 ‘據’

感歎不歇。今已傳寫畢，未經讎校。校後，元本當還之。
(台叟罷沈事，實未聞知，所示果然果然。古錄收得。
示喻開月許枉，企企。但尚熱，山路未成蹊，姑俟暑退，
似亦無妨。惟照量。餘俟奉悉。謹拜謝復。))

KNL1050 (書-鄭惟一-21) (癸卷24:29左)(樊卷33:39右)

答鄭子中¹⁾

謙仲傳辱書，喜審比日侍慶外學履佳勝。滉病昏依然。自劾章，捧去人，至今不來，怪訝深矣。伏想留中無發落，或有他故，皆未可知。竊自悚仄而已。不能預料其如何，如有所聞，毋惜示及。承喻保養方便，未免從事於雜技，既有患苦，固當爾也。但此等伎倆，皆滉所身親歷試來，只爲滉每事不能，故終不被他所使。如公本有俊銳之氣，加²⁾此衆技鼓發，竊恐自此無回頭住腳時分也。“不有博奕者乎？”，非勸人爲博奕也。惟射爲男子之事，古所最重。然觀德之意，寂寥久矣。日與麤人雜流相狎³⁾，損害既深。又朝廷所以見處者，或專以軍馬邊圉之任。自非諸葛孔明·岳鵬舉事業，恐不如從吾所好之爲得也。大抵此學，有志者難得。才有志，便過於用力而有所苦，才有苦，便背馳而去，個個皆然。世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8월.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八某日】’

2) 加：上本 ‘如’

3) 狎：上本 ‘押’

無眞儒⁴⁾之主盟，學不得其門而入，故如此，可歎。滉每以此自憫⁵⁾，不意公亦將有其漸也。((《言行錄》三冊，謹以還納。西行將近，恐必以隨行故也。《晦菴書》三冊並上。請依前樣校過，標貼出元作某字之可去者見教，何如？欲借其善本來自校，卷帙不少，致之不易故也。且只看上端朱字而校之，不至費心力也。吉元令前答簡並送來。行狀等同封回納，望須善傳，兼達鄙意。不宣。))

((日昨承奉有旨，旨意極有未安。不知何所措躬，又不知如此終何所底止也。《晦菴書》，若速校過，則不遲見還，尤幸。向來疏草，家兄不見屢索。見之，望須送回。人皆煎迫，不可安坐，亦似有理，而入城甚有所礙。以此，進退皆難，舉趾還罷者日三四。此可付高人一笑也。))

4) 儒：上本‘孺’

5) 憫：樊本·上本‘閔’

KNL1051 (書-鄭惟一-22) (癸卷25:1右)(樊卷33:40左)

答鄭子中【戊午】¹⁾

近書率易傾倒，方深悚惕。今奉報示，不但不却，乃大有悔責之意。鄙言豈足以激發高明？自是樂於遷善，勇於徙義，故能如此，不勝敬歎。但文武兼治，方是全材，今欲勿事射藝，無乃以僕之無他技誤左右之多能耶？是則不能無愧然於來諭也。有志中廢之歎，誠是可畏之甚。近見《理學錄》所載諸公，其美質邃學，若無瑕玷，而揆以前後蹤²⁾跡及《哀談》所記，其不能滿人意者多矣。信乎此學之難明·此志之易渝，能自樹立於頽波激浪之中者，益難得矣。滉自劾疏批教，別紙寫上。天意峻嚴如是，物情時議，又從而激發，洵洵方劇。其中稍見愛者，皆以爲不可不上來。滉反復思忖，誠有未安者，月望念間，不得已爲扶病西行之計。身遭不幸，一至於此極耶？足跡一入城中，所難處者，不啻九折百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9월 2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九月初二日】’. 中本·上本 ‘答鄭子中’；樊本 ‘答鄭子中【戊午】’；定草本에는 [부전지 戊午九月.]이 있다.

2) 蹤：上本 ‘縱’

盤，此後事何能預料其如何耶？彼時，若知兩擬皆免，則豈有蘄免之疏耶？惟其³⁾以前承傳之意，有旨臨門，則進退狼狽，不容言矣。故爲是不得已之舉，乃反因是而自納於畏塗，可謂噬臍莫及，奈何？（田家秋務之繁，正如所示。滉亦欲速行，奴馬兒孫輩率行，疲困且缺，以致遲遲。未至京間，或已有彈章，皆未可知也。）《節要》書，得一看過，何幸如之？兩草皆來。與龍巖書，兒子未及膽，欲付後便云。知欲讀《性理》·《綱目》等書，甚善甚善。用工於此，其益殆不勝道。但滉雖在城中過了一冬，病中怯寒牢關，何可屢接清眄？是固一撓，而勢不得不然也。（《要覽》等書，來使云“天雨不齋來”云。行狀雖更封，亦不脗合，且不必取合，故仍前還上。《理學錄》，已膽，故送之。紙盡不一。）

3) 惟其：中本에는 [부전지 '惟其'以下, 更考.][추가 傳本亦同.]이 있다.

BNL1052 (書-鄭惟一-23) (樊卷33:42右)

答鄭子中¹⁾

昨來坼書，如接晤語。滌二十一日，不遑西行。此間時義，思之爛熟，極有難處者，只以如此退伏，深有未安，不得不往，宜爲公之所歎也。適此寒冷，強扶跋涉，難保無事，城中舊寓，無溫房，過冬極難。此等細礙，不可歷數，姑皆任之，況其大者耶？承同日發行，行必常先一二日，途間不相值也，入城亦不必遽相尋，務相收閉爲佳。送來《晦菴書》三冊已至。歸自洞會，夜作書，眼暗老草，尙冀原照。謹拜。

▶ 戊午年 (明宗13, 1558년, 58세) 9월 1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九月十九日】’

BNL1053 (書-鄭惟一-24) (樊卷33:42左)

與鄭子中【己未】¹⁾

別袖一揮，但因奴傳，知無事過嶺，餘無消息，那免鬱懷？卽今春日暄妍，想榮觀之餘，趣緒日益超勝矣。病人心事，大概不異於前，而肚脹有增無減，脚膝緩弱，步履辛痛。初欲辭遞水曹，置之散地，然後請由下歸。更思之，如此則呈乞畏²⁾煩，似不免上冒天威之壓³⁾，而下激物情之猜。姑此隱忍，至春暮，乘便請由爲計。旣居其職，不得不以時力疾從政，是爲悶⁴⁾耳。月初流聞物議，謂槐院新員不待免新，或在京托病，或徑棄下鄉。其人豈皆中玉堂翰院之選者？而自處如此，大是異事，將有臺論云，已而寂然。假使其論遂發，亦非所患也，況不發耶？因槐院公事，頻見尹·具諸人云“以林滌

▶ 己未年 (明宗14, 1559년, 59세) 1월 27일. 서울.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與鄭子中【己未正月廿七日】’

2) 畏：初本·中本 ‘猥’

3) 壓：初本·中本 ‘厭’

4) 悶：初本·中本 ‘憫’

正字，病不出尙無免新之期”，君誠難待之勢也。近玉堂始爲錄薦，只奇明彦參末。銓曹政府時未爲耳。款晤未卜何日，惟勉勉以副所望。謹問。

KNL1054 (書-鄭惟一-25) (癸卷25:2右)(樊卷33:43右)

答鄭子中【己未】¹⁾

自入秋來，每遇親舊外至，輒問公下鄉與否，頗以遲遲爲訝。今忽擎手翰，披讀之餘，悅接警²⁾歛，且慰且幸，不以言喻。滉去夏一病，幾死僅蘇。病人難進，雖曰素定，亦緣增病太劇，所以不果西還。非徒未謝恩命，又至累煩有旨，極有未敢承當者，罔攸措躬，兢懼日積，奈何？況聞時論不恕，紛紛如此耶？然以焚黃不可不謝者，此固至當不易之論也。而責之平人則可矣，若執此論，并不恕病人，則如何如何？一病長年，坐是不盡於臣子之分者甚多，沈痛罔訴而已。所喻涉世情致，向學心惓，讀之令人感歎無已^{3).4)} 因自念弱冠已有此志，而遽爲病祟，既失所學，而輕出世路，展轉沒蝕，至於

▶ 己未年 (明宗14, 1559년, 59세) 9월 9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重陽日】’，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

2) 警：初本·中本·定草本·庚本·甲本·樊本·上本 ‘警’；養校 [‘警’恐‘警’.]

3) ‘無已’：初本·中本·樊本 ‘無已無已’

4) 所喻涉世……感歎無已：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衰病之極而後，始乃回頭著脚．有所進就，烏能有望？若如賢契，青年盛氣，所見之超詣，所志之篤實，已如此.⁵⁾ 若能不受變於俗，而繼之以無倦，其所至何可量耶?⁶⁾ 但人之所患，“靡不有初，鮮克有終.” 滉雖愚鄙，生世日久，見人亦多，始者粗有可觀，而能終不染俗者，極不易得也．公與奇明彥皆於涉世第一路頭，厲志若此，誠爲可貴．所望，能勉以終之⁷⁾，勿似老拙枉度光陰而有難追之歎也．明彥書中所云及〈性情說〉，極荷不鄙．書當俟後修報，說則靜而曾以草本見寄，閒中略草擬報，無便未寄，今以奉洵．蒙許晦間來訪，其時持以見還，且指示病處，庶得竄改以送也．(昨偶出江臺，倅來投書後，往宿他所，當曉來受答書云．暮還聞此，曉燈草報，眼暗筆麤，殊未審悉．留俟對床之款．就中考亭《淵源錄》⁸⁾，至今未成頭緒．欲考《語類》訓門人處，前去《語類》四冊，有便寄來．無便，來時携到，未晚也．並照．未間珍重．謹拜復．))

5) 賢契……已如此：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6) 其所……量耶：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7) 公與……勉以終之：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文峯集》에는 ‘終之’ 뒤에 ‘也’가 있다.

8) 淵源錄：初本에는 [부전지 {淵源錄} 卽《理學通錄》.]이 있다.

KNL1055 (書-鄭惟一-26) (癸卷25:3左)(樊卷33:44左)

答鄭子中¹⁾

權君昆仲惠然來訪，又傳辱書，承悉歡侍外學履珍茂，所以慰釋病憊者深矣。示喻“有好學之名，而無爲學之實，有愧一身，取譏衆人，及昔以爲戒者，今先犯之”等語，此皆吾輩之大患。讀之，令人惕然汗出也。眞當相與十分策勵，庶不至²⁾頽墮，幸甚。³⁾ 景錫，誠不可曉。觀其趣操，一一皆入時樣，何能爲渠深說耶？明彥直是奇士，但其爲學，初從駁雜處轉身來，猶有轉未得底，而遽自主張太過，略無虛心遜志却步求進之意，深恐難於造道之極致也。大抵這邊人，一或爲世所知，爲時所用，便是不好消息。公與明彥既皆出身世路，不患無嘐嘐志願，誠恐仕宦奪志，進退掣肘，學不能專，而

▶ 己未年(明宗14, 1559년, 59세) 9월 20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九月廿日夕】’

2) 至：《文峯集》‘知’

3) 有好學之名……幸甚：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別錄【此下摭出退集長牋中間答句語.】’라고 되어 있다.

志不能守也。如明彥之不就翰試，去不欲來，豈不是甚好？果能如錢若水·文文山，尤可尚矣，如不聽其爲錢爲文何？此說甚長，未易究也。惟公欲速一念，亦是大病，切不可爲親爲辭而不痛斷其根株也。如滉迷塗既遠，方始回頭，庶做晚功，追補往愆，而病蹤纔斂，謗議如山，每得京書，身不帖⁴⁾床。以病拙之難處，亦憂公等之難處也。如之何如之何？所喻辨⁵⁾論數說，權君別後，燈下報書，疲倦不及究言，徐俟後便，或可面論。未間，更冀珍勉。不宣。(謹復。)

4) 帖：養校〔‘帖’恐‘貼’。〕

5) 辨：初本‘下’

BNL1056 (書-鄭惟一-27) (樊卷33:46右)

答鄭子中¹⁾

想公近將西行，或者一來相尋，日有佇望，忽得來報，知以使命急作行程，固無他顧之暇。事之喜違，每每如此，可歎可歎。其行僕亦嘗之，彼時家兄以銓郎在政廳，適前差者有故，改望之際，欲令滉因來覲，毋擬而得差，專是出於不意，又無圖免之暇，而遂行。其後思之，多有悔吝。蓋新出之官，未習於事，又到處人人妄相推尊，不知不覺之間，多有自失之事，乃一不幸之舉也。知公學力素定，不至如謬者之失，然已之前失，不可不告公耳。前來盛書所云冲漠森然體用等說，正好研索，欲俟面論，故不形之文字。今既未面，又未書報，可謂兩失之，當俟後日耳。奇明彦已歸湖南否？其書今亦未及修送，情說亦不可不送，然不可浪傳，須付公行，乃可無浮沈之患，而匆匆不及，深恨不敏於事。如或在京，曲傳此意，幸甚幸甚。歲暮風厲，行色萬重，回使恐遲。

▶ 己未年(明宗14, 1559년, 59세) 10월 12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陽月十二日】’

不宣。謹拜復。

送還冊三件皆到，未到之件，承悉。尹正字，屢因公事相見，知是好人。其空帖，時未下筆，病甚故也。爲致不敏之謝。²⁾

2) 送還……之謝：初本에는 [부전지 可存否.]가 있다.

KNL1057 (書-鄭惟一-28) (癸卷25:4左)(樊卷34:47右)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庚申】¹⁾

論沖漠無朕萬象森然已具.²⁾

程子曰：“沖漠無朕，萬象森然已具云云.”【語見《近思錄》一卷】朱子曰：“此言未有這事，先有這理. 如未有君臣，已先有君臣之理，未有父子，已先有父子之理. 不成元無此理，直待有君臣父子，却旋將道理入在裏面.” 又曰：“今人只見前面一段事無形無兆，將謂是空蕩蕩，却不知道沖漠無朕，萬象森然已具.” 又曰：“未有事物之時，此理已具. 少間應處，只是此理.”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2월. 禮安.

[編輯考] 樊本の 경우, 이 편지부터는 卷次가 권34로 바뀌지만, 판수는 앞의 권33에 이어서 연번으로 표시되어 47판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는 樊本에 기재된 판수를 그대로 따라서 표기하였다.

[資料考] 이 편지는 《自省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別紙【庚申二月】’, 中本 ‘答鄭子中別紙【○庚申 見《自省錄》.】’[別행 【《錄》有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二十六字].], 樊本·上本 ‘答鄭子中別紙【庚申○見《自省錄》.】’[別행 【《錄》有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二十六字].]

2) 論沖……已具 : 初本·中本에는 없다.

《太極圖說解》曰：“自其著者而觀之，則動靜不同時，陰陽不同位，而太極無不在焉；自其微者而觀之，則沖漠無眛，而動靜陰陽之理，已悉具於其中矣。”

〈易序〉“體用一源，顯微無間”注，朱子曰：“自理而言，則卽體而用在其中，所謂一源也；自象而言，則卽顯而微不能外，所謂無間也。”又曰：“言理則先體而後用，蓋舉體而用之理已具，所以爲一源也；言事則先顯而後微，蓋卽事而理之體可見，所以爲無間也。”

朱子³⁾答呂子約書曰：“道之得名，只是事物當然之理，元德直以訓行，則固不可。當時，若但以當行之路答之，則因彼之說，發吾之意，而沖漠之云，亦自通貫矣。今且以來示所引一陰一陽·君臣父子·形而上下·沖漠氣象等說，合而析之，則陰陽也，君臣父子也，皆事物也，人之所行也，形而下者也，萬象紛羅者也。是數者，皆各⁴⁾有當然之理，卽所謂道也，當行之路也，形而上者也，沖漠之無眛者也。若以形而上者言之，則沖漠者固爲體，而其發於事物之間者爲之用；若以形而下者言之，則事物又爲體，而其理之發見者爲之用，不可概謂

3) 子：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嘗’이 있다.

4) 各：上本 ‘各’

形而上者爲道之體，而天下達道⁵⁾爲道之用也。”又答曰：“謂當行之路爲達道，沖漠無眛爲道之本原，此直是不成說話。不謂子約見處乃只如此，須看得只此當然之理沖漠無眛，非此理之外別有一物沖漠無眛也。至於形而上下，却有分別，須分得此是體彼是用，方說得一篇，分得此是象彼是理，方說得無間。若只是一物，却不須更說一篇無間也。”

滉⁶⁾按，“沖漠無眛，而萬象森然⁷⁾已具”，向來愚見，亦與明彥同。及得來示，因檢出朱先生說六七條，子細參詳，而會其微旨，乃知前見之差。其答呂子約兩條，義尤明白。蓋眛字雖訓萌兆，無眛⁸⁾，不可專作無萌兆看，只是言無聲臭無形影云爾，則明彥所謂無萌兆之意，已包在其中矣。而所謂若天地既判萬物既生之後，則不可著無眛字者，誤矣。子中因前儒舊說而爲言，故別無病痛。但其曰“此理無形無影，而萬事萬物之理”，此上下兩理字相帶累，當去上理字。

5) 道：初本에는 [부전지 朱書, '道'下有'五'字.]가 있다.

6) 滉：初本에는 없다.

7) 森然：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8) 眛：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二字'가 있다.

不然，下理字代以象字，可也。

體用，當隨處活看，不可硬定說。

“形器已具，其理無昧。”此無昧⁹⁾卽沖漠無昧，豈有異耶¹⁰⁾？

論所當然所以然是事是理？¹¹⁾

《大學或問·格物傳》註，問：“所以然而不可易，是指理而言，所當然而不可已，是指人心而言？”【此輔漢卿問也】朱子¹²⁾曰：“下句只是指事而言。凡事固有所當然而不容已者，然又當求其所以然者，何故？所以然者，理也。”

八條目，論格物曰：“天下之物，必各有所以然之故與其所當然之則，所謂理也。”注，朱子曰：“所當然之則，如君之仁，臣之敬；所以然之故，如君何故用仁，臣何故用敬云云，皆天理使之然。”新安陳氏曰：“所當然之則，理之實處；所以然之故，乃其上一層理之源頭也。”

〈格物傳〉曰¹³⁾：“自其一物之中，莫不有以見其所當然

9) 此無昧：上本에는 없다.

10) 耶：樊本·上本 ‘也’

11) 論所……是理：初本·中本에는 없다.

12) 朱子：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而不容已與其所以然而¹⁴⁾不可易者。”注，西山 眞氏曰：“如爲君當仁臣當敬之類，乃道理合當如此，不如此則不可，故曰所當然。然仁敬等，非人力强爲，有生之初，卽稟此理，是乃天之所與也，故曰所以然。知所當然，是知性，知所以然，是知天，謂知其理所從來也。”

《大全書》，陳安卿問：“理有能然，有必然，有當然，有自然處，皆須兼之，方於理字訓義爲備云云。凡事皆然，能然必然者，理在事先，當然者，正就事而直言其理，自然者¹⁵⁾，貫事理直言之也云云。”先生曰：“此意甚備。”

滉¹⁶⁾按，明彦以當然爲事，所¹⁷⁾以然爲理，卽朱子與輔漢卿答問之意¹⁸⁾也。然以朱子後兩說及新安 陳氏¹⁹⁾·西山 眞氏²⁰⁾·北溪 陳氏²¹⁾諸說考之，當然者，亦固是理也。子中·明彦兩說，可以通看，不相爲²²⁾

13) 曰：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又’가 있다.

14) 而：上本에는 없다.

15) 者：初本·中本·樊本·上本 ‘則’

16) 滉：初本에는 없다.

17) 所：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앞에 ‘而’가 있다.

18) 意：初本·中本·樊本·上本 ‘說’

19) 陳氏：《文峯集》에는 없다.

20) 眞氏：《文峯集》에는 없다.

21) 陳氏：《文峯集》에는 없다.

礙，而究極論之，當然者爲理之說，爲長.²³⁾ 蓋君仁臣敬之類，皆天命所當然之理²⁴⁾，實精微之極致也.²⁵⁾ 非外此而事別有²⁶⁾所當然也。

子中疑蔡節齋說 “自陰陽未生之時而言，則所謂太極者，即在乎陰陽之中.”【說見《性理大全·論道門》】.²⁷⁾

滉按，蔡氏此語，亦見〈太極圖說〉註. 詳其文則“所謂太極者”之下有“其理已具，自陰陽既生之時而言，則所謂太極者”十九字，則其語意圓足無病. 其見於〈論道門〉者，闕此十九字，所以文義差舛如此. 子中看得出，甚不易也.²⁸⁾

22) 爲：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3) 明彥以……爲長：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24) 之理：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5) 也：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없다.

26) 此而事別有：初本·中本·樊本·上本 ‘此理而事自有’

27) 子中……道門：初本·中本에는 없다；定草本·上本에는 低一字로 되어 있고, 樊本에는 低三字로 되어 있다；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실려 있다.

28) 滉按……易也：初本에는 없다；中本·樊本·上本에는 小註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조금 달라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所疑節齋/蔡氏語, 亦見〈太極圖說〉注. 詳其文, 則“自陰陽未生之時而言, 則所謂太極者”, 此下有“其理已具, 自陰陽既生之時而言, 則所謂太極者”十九字, 而其見於〈論道門〉者, 闕此十九字, 所以文義差舛如此. 子中看得出, 甚不易也.’ 이 부분은 鄭惟一의 文集인 《文峯集》卷4에도 실려 있다. 다만 《文峯集》은 《退溪集》목판본이 나온 후 그 내용을 채록하여 편성하였기에 원고본이 아니라 목판본에 실린 내용대로 실려 있다.

KNL1058 (書-鄭惟一-29) (癸卷25:9右)(樊卷34:52右)

與鄭子中¹⁾

溪上別後，闕於追問，未知何日入都？槐院權仕，世稱其苦，亦當隨地隨時，盡其義而已，正不當有所厭薄。向云：“爲親之切，不免時有他望。”此莫大之病根，不早剷拔，恐無由入道。非唯不入道，亦無由立節爲吉人·君子也。病人從近眼疾尤劇，心恙亦甚。離索之中，加以此撓，思得如²⁾左右晤遣此懷，何可遂耶？所纂錄亦緣無精力，久未就緒，又無宋·元以來諸儒雜著可以旁采，可恨。所諾諸書中，抄得朱門以後諸人事跡，隨所獲輒相錄寄，千萬之幸。仍須以早爲上。明彥處鄙書，不遲轉送，爲佳。滯報匝期，恐得逋慢之誚於君子人也。聞鄭靜而下去豐德欲過夏云，恐非所宜，幸與書曉之，令其速返，如何？餘惟知務植立，莫自鹵莽。(謹問。))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3월 10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暮春初旬】’；庚本 ‘與鄭子中【庚申】’

2) 如：樊本·上本 ‘與’

KNL1059 (書-鄭惟一-30) (癸卷25:10右)(樊卷34:52左)

答鄭子中¹⁾

別後，徒增傾想，忽辱惠問，承知入都來，學履清茂，且移近舊寓之坊，深有燕鴻相違之嘆也。澁且爾²⁾憤憤，沈頓衰嬾³⁾，時復紬⁴⁾玩，不無無味中之雋永，以此消遣。其實孤陋離索，難望進步處，爲可嘆耳。鄭君心地，殊有好處，與之遊可樂。但此翁少不屑於讀書，老復耽酒，此其所闕。僕每進苦口，雖不見怒，亦不見改。近亦有一書，嘗痛責其失。今得其書，則乃出於中間所傳之誤也。吾雖誤聞而妄發，然其言有益於此翁，不知能堪之否？《易》乃理數淵源之書，誠不可不讀，但不如《語》·《孟》·《庸》·《學》之切於學者日用工⁵⁾夫。故先正或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3월 24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三月二十四日】’

2) 爾：上本 ‘以’

3) 嬾：初本·中本·定草本 ‘懶’；中本에는 [부전지 {‘懶’}從女, {傳}本亦同, 本‘嬾’字.][‘懶’疑‘懶’字.]가 있다.

4) 紬：上本 ‘細’

5) 工：初本·中本·樊本·上本 ‘功’

以爲非學之急，其實莫急於窮理盡性之學也．所喻“學不踐履，雖有所知，奚貴？”此真切至之言．讀《易》時，苟忽此意，寢⁶⁾與義理不相交涉而日遠矣⁷⁾，甚可懼也．左相篤行清德，可鎮浮俗，何忽至此？聞音⁸⁾以還，數日惘惘．示及《續伊洛錄》，果有之，金君前日，何不相示？今承相爲求得寄示，甚甚幸幸．其詳略與輟功與否，當待見書而後決，今不可懸斷也．鄭書，得見慰意，復書傳示爲望．明彥書，得留意，深荷．此間，時事了不聞知，雖無所妨，古人亦不如此，其有不害文字間者，時以略及，何如⁹⁾？餘冀勉勉加意．不宣．（謹拜復．）

（近有書寄寧姪處，令傳上，未審達否？）

6) 寢：初本·中本‘寢’；中本에는 [교정기 ‘寢’]이 있다.

7) 學不踐履……日遠矣：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別祿【此下摭出退集長牋中問答句語.】’라고 되어 있다.

8) 音：中本에는 [부전지 ‘音’上疑有闕誤.][傳本無闕誤.]가 있다.

9) 何如：樊本·上本‘如何’

KNL1060 (書-鄭惟一-31) (癸卷25:11右)(樊卷34:54右)

答鄭子中¹⁾

近得流聞，知公來鄉，方欲佯問而未果，忽此枉書，專人存訊，且示盧·奇·李·鄭論學與尺牘。披閱以²⁾還。若與諸人，面相晤語，何幸如之！不任欣沃((欣沃.))³⁾ 僕凡百不異於曩日，惟覺老病與日俱進，而學力則進寸退尺。不但退尺，或至於一⁴⁾落千丈強。以是慄然，日以爲懼耳。如來喻所云駁懶之病，自家正在裏許，因示更有省發處。然如公盛年，只在勉力向前，在暮境，憂非淺淺也。承欲枉顧，甚荷。但秋熱尙熾，不須急急。請姑停，以俟來月望後，秋清神爽，老生暑病可歇。且前此屢枉，每苦匆匆，未盡所懷。今當期會中間山寺，聯榻夜話爲佳。會處則龍壽寺甚好。臨時更相報，來會庶無相違也。《魯齋集》，深荷發蒙。考亭《淵源錄》，正欲

▶ 庚申年(明宗15, 1560년, 60세) 7월 13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七月十三日】’；定草本에는 [부전지 ‘庚申七月’]가 있다.

2) 以：初本·中本·樊本·上本 ‘已’，定草本 ‘已’[교정기 ‘以’]；樊本·上本에는 [두주 ‘已’，一本作‘以’.]가 있다.

3) 欣沃：定草本에는 [말거표시]가 있다.

4) 一：樊本·上本 ‘日’

速得，而事適如此，奈何？諸君議論，不一如此，非獨今日，自古而然。然自家所見，亦豈遽斷爲無可改之定論乎？略一過目，從當更詳，會日更稟耳。明彥豈能千里遣人乎？時未見來人矣。（金帶來時自隨爲當，正非急事也。餘盡俟後，惟冀加重。謹拜復。）

BNL1061 (書-鄭惟一-32) (樊卷34:55右)

與鄭子中¹⁾

秋霖異常，體味何似？秋夕後會面，如前約，會於龍壽寺何如？若無事故，須以十六日夙駕來宿，庶可從容矣。且公能如約，則不須更相侔報，如或有故，其前示及亦幸。惟照。適遇使人，遽未一一謹報。

空冊且受置看如何？尹正字，在京日屢因事相見，心固愛其朴茂，未知其志嚮之能若是也。深可嘉尚，而恨未緣與之相熟耳。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8월 6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仲秋初六日】’

KNL1062 (書-鄭惟一-33) (癸卷25:12右)(樊卷34:55左)

答鄭子中¹⁾

侔至接書，得審侍奉氣味清福，甚慰懸跂。病人一向衰孱²⁾，眼隔昏霧，幾不辨細字。日間，雖時有見得到處，體得真處，氣象意思，一齊恰好，只是神疲氣損，擔得此事不著，俄頃顧眄之際，不覺失去，則依然又只是舊樣人矣。詳味來喻，似亦不能無患於此，此固古今之通患。然在賢者，年富力强，只在勉勉不已，久熟後自有所至。若如老拙，前去光陰幾何？而尚如此悠悠，其何能有所至耶？既望之約，退指廿二，謹已承悉，顒俟顒俟。但初所以欲會龍壽者，爲此寺幽靜有淨室，最宜款話，且籃³⁾輿來返稍近，可少減涉險之勞故耳。今知自此仍作豐山之行，然則不如直來于此，對榻溪齋，或來溫溪齋舍所謂樹谷者之爲好也。若孤山則室不甚淨，有妨雅致矣。惠示與秋巒書，精深細密，三復嘉歎。前日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8월 14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秋夕前一日】’. 定草本에는 [부전지 ‘庚申八月’]가 있다.

2) 孱：中本에는 [부전지 ‘孱’恐誤. 上同.][추가 非誤也.]가 있다. 養校 [‘孱’, 本草作‘孱’]

3) 籃：初本·中本·定草本·庚本·樊本·上本 ‘籃’；養校 [‘籃’當作‘籃’.]

寄來諸人議論，纔閱視領略後，適有理會他文字，未暇深致思焉。近方看得盧解，有少論辨，隨手注其下。至如明彥書，姑俟別日再繹。惟於鄙論中“覺得善惡未定”一句有所未安，甚賴明彥指出之力。思欲改下一轉語，鄭重而未果。今見來示，段段破的，而此一段，尤覺發人意思。得此助以改其謬，當不至大段乖戾也。幸甚甚。滉甚重明彥之爲人。其既得了，又退加工，只此一事，人所不及處。但其豪氣未除，於義理之學，尙未見細意研精，才見人說話，有不合己見處，便奮筆作勢，一向攻他胡說將去，似有立己求勝之意，恐此不是小⁴⁾病。從古許多志學之士，所以不至於大段成就者，其患盡在這裏。滉自度前所與渠書，頗竭底蘊，乃略不虛心思繹，力主本說如此，此難以口舌爭也。且當俟後日報書之來看如何。幸公將公此說，先寄扣之爲佳。多多心事，留俟面披。未間，惟珍勉。(謹拜復。))

4) 小：樊本·上本‘少’

BNL1063 (書-鄭惟一-34) (樊卷34:58右)

與鄭子中¹⁾

日者，枉冒僻險，經宿披晤，爲荷爲幸。別後依依，又不易言也。未知何日定發西行？吳判書·李正郎·南時甫·鄭靜而·金應順諸書，並修同封，以往入都，發之看標面分送，幸幸。盧書，亦依前告善傳爲望。《續淵源錄》，黃仲舉亦云：“此卽洪仁慶佐郎所謄本耳，非別有朱門人錄也。”然須更審問兩錄與一錄中，皆欲速見，至彼加意圖送，至懇至懇。仍兼得《一統志》則尤好，而未敢望也。留示〈閑居廿詠〉，僭易評點，極知非宜，第以僕於公，未可有相外之意，見公有詞藻好處甚好，而鍛鍊精深處，尙不甚加工，往往未免有瑕漏，期以遠業，未可如此。故不揆老謬，露情至此，亦已依韻拙和，以發閑中之趣。今未及寫呈，姑以一首先之，錄在別紙，笑覽是望。然非但未及寫前日陶山拙句，久祕巾衍，不以示人，而首以示公，意非偶然而公率爾過眼，全不會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9월 9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菊節】’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五

人意，僕深有自輕之悔．今呈此廿詠，亦不過如前，故不敢耳．惟冀履此歲寒，加愛勉勉．謹拜白.²⁾

2) 白：樊本·上本에는 [두주 ‘白’，一本作‘復’.]가 있다.

KNL1064 (書-鄭惟一-35) (癸卷25:13左)(樊卷34:59右)

答鄭子中別紙¹⁾

星山前牧盧仁甫作書院於迎鳳山，請記於滉。滉初不肯，再三往復，滉賞其誠懇，聊應之。其祠廟所祭，初以李兆年·李仁復稍未恰人意，久而未定。最後，乃以金先生 宏弼同祠，而其位次之定，儘有曲折，雖定而似不無後議耳。今聞時議大以仁甫爲妄作，并與周景遊爲不當創建書院以開流弊，幾發彈章云。若發則次第當共之矣。三兩年前，猶無此等議論，今忽有之，雖時稱向善識理之人，亦同然一辭。此又別是一等時節，可怪可歎。蓋論仁甫者，非議其所祠之不合，實以立書院爲罪。然則紹修等諸書院，賜額頒書以獎育材之意，何在？皆不可曉也。雖然，此爲子中言耳，未易與人人開口也。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9월 10일~24일. 禮安.

[編輯考] 中本에는 [상란추가 此別紙, 當入庚申年書.]가 있다.

1) 初本·中本 ‘別紙’ ; 中本에는 [부전지 ‘與鄭子中別紙’][추가 ‘答’]가 있다.

KNL1065 (書-鄭惟一-36) (癸卷25:14左)(樊卷33:59左)

答鄭子中¹⁾

頃日僧還，得書具悉，茲復伴來辱牋，兼示講目，足見留意非泛，甚慰所望。前書所云《淵源錄》·《一統志》，得如示諾，使窮山老境，得見所未見書，何幸如之！閒居盛什，妄有評賞，追思汗縮。病中本不合效顰，只愛高情雅致，有以喚起滯思，不能自己。前書雖有所諉，實不欲示人，故云云。今再徵取，不敢終隱，但不及謄寫，直呈元稿，覽後早晚投還，何如²⁾？陶山詩，作之太早，真莊周所謂“見卵而求時夜”，蓋其屋舍皆未成，其言皆預擬者耳，近於非實，雖古人亦有如此，然尚不以示子弟者，以此故也。而前見閒居佳詠，不覺心喜，欲以平生心事所寓者奉酬，以相珍勉，所以遽出。繼而思得與前日自戒者相反，欲少³⁾俟粧成屋子往來栖息之日，出示朋友，相與一笑而罷，庶免虛作之誚，故今亦不敢依索，想容恕察也。明彥書二紙·辯⁴⁾說一冊送呈。其人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9월 2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九月二十五日夕】’

2) 何如：樊本·上本 ‘如何’

3) 少：上本 ‘小’

辨⁵⁾博如此，志氣又如此，將來未可量也。可尚可尚。但患面前著實工夫·端的田地，全未下手腳，只恃超詣之見·絕倫之才，一向胡說將去，非但不許令人容一喙，并與前賢與己異處，輒加非議，深恐下梢弄得來無收殺，未能大有成就也。然謬說有小偏重處，賴其言而修改，甚得益力。且於鄙意，有難苟同者，見已條析⁶⁾，以擬相質。然而觀其自處自信，恐終不能虛己以聽人也。正如被攻之說，擬之失倫，如此之言，豈不爲人笑疾？千萬戒之。所謂向善識理，謂金邦寶也。今書悠悠之歎，何異彼此？病根未除之歎，此甚可畏。滉最下庸質，獨於此處，分數大減，所以用力不甚難耳。若終不能除而行於世，其病不但不近於道而已，不可不早剷滌也。乙卯秋拙句，全未記得，亦無本稿，奈何？策題曲折，此中亦略有聞。前聞仁甫之謗，今又聞此，漆室之憂，身不帖⁷⁾席。深恐此事不但如此而已，如之何如之何？別紙不敢率爾，當俟更詳。餘惟履寒衛嗇，益勵沖尚。不宣。((謹拜復。))

4) 辯：中本·定草本·庚本·樊本·上本‘辨’

5) 辨：初本‘辯’

6) 析：樊本‘折’

7) 帖：養校[‘帖’恐‘貼’]

KNL1066 (書-鄭惟一-37) (癸卷25:16右)(樊卷34:61左)

答鄭子中別紙

奇明彥侔書來，極有議論。其四七之辯¹⁾，別作冊子，將鄙說逐條論說，援引指摘，鋪張羅絡，浩汗汪洋，騁辯馳辭，如懸河盪海，不可測度，真奇才也，真益友也。其大意則只如〈與靜而書〉，而加敷衍搜獵，卓犖恢宏耳。淺識管窺未易得其要領，故姑答其書大概，而辯說隨²⁾後奉報報³⁾之矣。今欲呈其書辯，知公西行已迫，勢未致詳。又觀明彥之意，所以不託都中士友，而直送于此，似不欲其播於都下，雖鄙意亦然，故欲俟明春下覲日奉呈，公無乃以爲遲耶？大抵鄙說病處，因自省及公與靜而書，已覺其一二，今又因明彥說，又覺其一二處，謹已改下語，似頗平穩無病。自餘大旨小段，雖未能精深，若無大謬，而明彥段段攻駁，無一語得完，而自家病處，專⁴⁾不自反，此則大爲朋友之憂矣。奈何？(改下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10월~11월. 禮安.

1) 辯：樊本·上本 '辨'

2) 隨：中本에는 [부전지 '隨'上恐有落字.][추가 傳本無落字.]가 있다.

3) 報：上本에는 [말거표시]가 있다.

語錄稟.))

((又不得以本然之性混稱之也.))

((今改曰：“又不得純以本然之性稱之也.”))

((七情之發，朱子謂本有當然之則，則非無理也.))

((本有當然之則，本說親愛等五者，非指忿懣等四者。誤引故今改曰：“七情之發，程子謂之發於中，朱子亦謂之各有攸當，則固亦兼理氣也.”))

((七情，善惡未定也。故一有之而不能察，則心不得其正，而必發而中節，然後乃謂之和.))

((今改曰：“七情本善而易流於惡，故其發而中節者。乃謂之和。一有之而不能察，則心已不得其正矣.”))

((就理氣相成之中，偏指而獨言氣也.))

4) 專：養校[‘專’恐‘全’.]

〔今改曰：“就理氣相成之中，兼指而主言氣也.”〕〕

〔“其發爲理之本體耶？”此條當在本有當然之則今改之下.〕〕

〔今改曰：“其發爲理之本體，不容以氣言之耶⁵⁾?”〕〕

〔四七說，公如有傳本，須依此改之.〕〕

5) 耶：上本‘也’

BNL1067 (書-鄭惟一-38) (樊卷34:63右)

答鄭子中¹⁾

前蒙許送來《一統志》，故遣人要取于奈城本宅，答以未來，已而具景瑞蒼頭來致惠書及《一統志》，因審入都後安穩，慰賀何勝何勝？老物病伏深隩，邈²⁾無聞知，間得於風過，徒增噁悵。所示固然，亦何足異？當深戒耳。《一統志》，極荷留意遠送，但小紙云二十二冊，而來者只³⁾二十冊，然封識不動圻⁴⁾矣。其餘畢得則何幸！恐遠處難致耳。諸公書，登時分送，尤荷不鄙。朱門事蹟，許欲瞻示，素所寒竚。禮安邸，近連有下來人，《淵源錄》亦告時甫并速⁵⁾之，何如？靜存所有《朱子實錄》云者，實未曾見。靜存必不見悵，須告取寄，幸甚。公前所寄講話及書中語，近因被他撓，尙未訂報，當俟後便，或在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11월 12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十一月十二日】'

2) 邈：上本 '莫'

3) 只：初本·中本 '止'

4) 圻：中本 '圻'；上本에는 [부전지 '圻'恐'圻'之誤.]가 있다. 今按: 上本 부전지에 지적한 바와 같이 '圻'는 '圻'의 誤字로 추정된다.

5) 速：今按: '速'은 '送'의 오자로 추정된다.

來春下鄉日也。奇君辯書，今已答寄，宛轉以致，想難時達。一件在此，欲呈左右，但大冊異名，恐歷人眼，取怪召鬧，故未果，藏以待來耳。靜而，向知其欲往天磨等處，此策非不善，須勸其速決，但不可在衙多飲酒作嬉耳。餘惟慎嘿斂踪，以養遠業。謹拜謝復。

《一統志》，更考則二十一冊，其中一冊，分爲二故二十二冊。今合爲一而計之，故爲二十一冊耳，非有失也。

BNL1068 (書-鄭惟一-39) (樊卷34:64右)

與鄭子中¹⁾

前日具景瑞使人附去報書，領見未？且未審近況何似？尋常馳邇，僕緣今冬候反常調燮，倍費收護，猶數發病，難²⁾待春和耳。前示講目，今欲答上，知來覲不遠，必在春初故姑停。但其所謂《淵源錄》及公所抄朱門人錄，難待難待。明彥得書否？靜存，想必相從，爲致寒暄。景瑞今已免新否？多病當寒，何以支堪？亦不及書，見則傳之。惟照。餘祈迎泰多慶。不宣。謹白。

似聞擬薦翰苑，信否？一入要路，後日爲養乞外，可得耶？

▶ 庚申年 (明宗15, 1560년, 60세) 12월 12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臘望前三日】’

2) 難 : 初本·中本 ‘艱’

KNL1069 (書-鄭惟一-40) (癸卷25:17右)(樊卷34:64左)

答鄭子中【辛酉】¹⁾

縣吏來傳都下書，喜得具悉，且知彼時已臨發行。佇聞稅駕之日，獲擎垂翰，承已趨庭多慶，欣賀無涯。滉老病昏憊，與年增劇，垂盡之命，無復他慮，不意又有此顛沛之勢，憂窘罔措。昨又聞寡嫂之喪，急往溫溪，馬跌溪冰，落水中，因而氣甚不平，徹夜呻吟，諺所謂雪上加霜者耶？朽賤一物，何預時用？而既有召旨，時論又如此，觸藩進退，兩無所宜，如之何如之何？兩難之中，必²⁾不得已者，不過如來喻而已。古人云：“出處當自決，不可謀之於人。”然人言與我脗合者，豈當避之而他圖耶？然千萬勿露此意云云事，此³⁾中略有所聞，而未知端倪，但仰屋浩歎，奈何奈何？公與和叔所教如此，可謂愛人以德。吾輩立脚得定處，正在此等處，禍福非所計也。《淵源續錄》，已蒙洪佐郎送到。但亦太疏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1월 1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辛酉正月十九日】’；定草本에는 [부전지 ‘正月’]가 있다.

2) ‘必’：樊本·上本에는 뒤에 ‘有’가 있다.

3) 事此：定草本 ‘此事’

略耳。今來三冊，甚荷留意。但賤迹如此，頓無意緒可及於此等事，須少待事定，然後可下手耳。尹子固穎脫不凡，可望之人，而仕宦太早，果爲可憂。送冊及筆，領得。後當修謝，今則不暇。靜存書，如見其人，深慰病懷。許欲來枉，感跂⁴⁾深矣。但病中加病，一切謝客，不欲獨有還往。請姑停以俟迹定之日，庶得從容款洽也。前示講目，皆所自得。少有可論處，粗草愚見，今欲寫呈，落時，右臂傷戾，執筆甚艱。⁵⁾兒輩以喪事奔走，未果。當俟後日，殊愧稽緩也。明彥處答，去後無來報。餘冀學履珍厲。不宣。(謹復。))

4) 跂：初本‘企’

5) 艱：庚本·甲本‘難’；甲本에는 [두주 ‘難’，一本作‘艱’.]이 있다.

KNL1070 (書-鄭惟一-41) (癸卷25:18右)(樊卷34:66右)

答鄭子中¹⁾

便中接得惠書，具悉侍慶多福，欣慰無量。漉落馬冰澌中，因致寒證，且傷右肱，頓覺雪上之霜。初欲力疾登途看如何，魔戲至此，又不得如料，止在家具由上狀，乞寢前命，兼鐫樞職。於臣子之義，甚有闕然。然阽危之病，所處只得如此，他無方便之路，席稿以俟，不知如何結末也。奈何奈何？所示爲親祿仕，古人所不免，然尙有不以祿養爲孝者，況因有欲速之心乎？此今人莫大之病，公能漸輕，何善如之？²⁾須勿令春風吹又生，則尤善也。前來講目，久未奉報，殊愧不敏。今略條析以往，其不中處，却望垂誨反覆之，幸甚。尹注空冊，當如戒。但臂傷未差，亦未免稽遲耳。江舍鳩拙，尙未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2월 5일. 禮安.

[編輯考] 中本에는 [부전지 此書, 當在講目上.]이 있다. 이 편집지시는 庚本 이후 그대로 반영되었다.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二月初五日】'；中本에는 [부전지 上]가 있고, 定草本에는 [부전지 '辛酉二月']이 있다.

2) 所示爲親……何善如之：이 부분은 鄭惟一의 文集인 《文峯集》卷4에도 실려 있다.

成形，要俟暮春間，可有栖宿處。欲要公作第一客，幸勿違也。((餘病未一一。謹拜復。))

KNL1071 (書-鄭惟一-42) (癸卷25:19右)(樊卷34:67右)

答鄭子中講目¹⁾

志·意之辨，晦菴諸先生說已詳，而來辯²⁾亦得之。但志公意私，此公私字，非分善惡而言，只如今人言公事私事之類。公事非必皆善，私事非必皆惡，但以官家事屬公共，故謂之公事，民間事屬私獨，故謂之私事耳。亦如人心發於形氣之私，形氣非盡私邪也，但言屬一己所獨云爾。³⁾

情之有善無惡，四端是也。若七情不可言無惡者，以其氣未必純善故也。惻隱之發，而有納交要譽之失者，意爲之，來喻是也。

“仁義禮智，性⁴⁾也。”·“義者，心之制”兩條，所論甚善，而論義處尤精。

▶ 辛酉年(明宗16, 1561년, 61세) 2월.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3에도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講目稟質[辛酉]’로 되어 있다.

1) 初本 ‘與鄭子中講目[孟春]’, 中本 ‘與鄭子中講目’; 中本에는 [부전지 ‘答’]이 있다.

2) 辯: 《文峯集》‘辨’

3) 爾: 上本 ‘耳’

4) 性: 初本·中本·定草本·樊本 ‘情’; 定草本에는 [교정기 ‘性’]이 있다.

懲窒似正心，遷改似修身，然亦可以通言之。故〈益⁵⁾〉之象，程·朱皆以修身爲言，則〈損⁶⁾〉之象，可以正心爲言，可知矣。

“合虛與氣，有性之名”，所論是。

“五性感動云云”，大概得之。蓋合理氣·統性情者心也。故感動者雖是五性，而其發也，理顯而氣順則善，氣掩而理隱則惡耳。

“無知覺”與“陽主發散”兩條，亦是。

屯卦初爻，在三畫卦，一陽動於二陰之下，固當爲主。在六畫卦，方屯難之時，陽剛居初，以貴下賤，乃得時亨屯之人，故爲⁷⁾成卦之主。

朱子論詩，取西晉以前；論杜詩，取夔州以前。自今觀之，江左諸人詩，固不如西晉以前，夔州以後詩，亦太橫肆郎當，大概則然矣。然如建安諸子詩，好者極好，而不好者亦多。子美晚年詩，橫者太橫，亦間有整帖平穩者。而朱子云然。此等處吾輩見未到，不可以臆斷，且守見定言語，俟吾義理熟眼目高，然後徐議之耳。

花潭所見，殊未精密。⁸⁾ 觀其所著諸說，無一篇無病痛，

5) 益：[두주 '益'恐'損']가 있다；《文峯集》'損'

6) 損：[두주 '損'恐'益']가 있다；《文峯集》'益'

7) 爲：上本 '以'

不但如來喻所舉者爲然也。而其諸門人推尊，太不近情。去年，得南時甫書云：“許太輝謂花潭可比白沙，此言何如？”滉所答，今不記其詳，大概謂白沙雖溺禪，其人品實高，花潭之學，誕而雜，恐不及白沙云云。時甫得書，以示太輝。太輝有一書來相詰，反諱其向日比白沙之說，而盛言其學。其末有“與橫渠何異”之云。又太輝所識宗室有鍾城令者，亦嘗學於徐，亦極推其師晚年造詣之高，以斥滉說。滉度此二人，難以口舌爭，姑答之曰：“花潭，公所親炙，滉則得於傳聞，似當以傳聞者爲妄。然花潭著述，滉皆得見之，不知其可比《西銘》者何書？可比《正蒙》者何書？云云。”未知渠後日用何說見報來也。末世，向學者鮮矣。其間僅得一二，而見識議論，疏而且誑如此，安得不爲世俗駭怪笑罵耶？太輝雖好人，固多有病痛，不謂和叔之論亦如此也。他日，若與和叔論及此，亦須以滉所問於太輝者問之，而采其說以見諭，幸甚。至如公之所辨諸條，以滉所見言之，多得其理，而往往有操戈入室處，可喜。但以徐所謂“有聚散而無有無者”，爲甚精，又自云“其氣却散，而與天地之氣混合無間”，此數處爲可疑。蓋理本無有無，而

8) 密：上本‘蜜’

猶有以有無言者，若氣則至而伸聚而形爲有，反而歸散而滅爲無，安得謂無有無耶？【或別有所據，某未記耶？】氣之散也，自然消盡而泯滅，不待必與天地之氣混合無間而後就泯也。來喻欲令滉辨論其是非云云。滉方自在堂下衆人之中，安能辨人之曲直？而況昔與黃仲舉論學，而偶及松堂《白鹿洞規解》，未免指摘其差失處，其門人之見者，必多不平。若今又犯此事，則其敵⁹⁾當尤衆矣。如之何如之何？既作之後，雖欲諱之，恐如東坡所謂“泥中之鬪獸，終不得掩其迹”也。然更俟一二年，少祛其蔽，然後更議之耳。“太極有動靜”之論，甚善；“直方大”之義，亦善。但‘直’字之義，只謂坤厚含藏之氣畢達，必遂於化生之妙，而無撓闕耳，非謂無一毫之僞也。

9) 敵：樊本‘摘’

KNL1072 (書-鄭惟一-43) (癸卷25:22左)(樊卷34:70左)

與鄭子中別紙

明彦所論〈天命圖說〉以理氣分虛靈處，其說亦有得有失。蓋以理氣二字分註虛靈二字之下，果似未安。何者？靈固氣也，然氣安能自靈？緣與理合，所以能靈。此明彦所以力言其不可分註，其說得之，故已就其文，去此二字之註。此意須告靜而知之，可也。但明彦又言理不可以虛言之，則先儒言理爲虛處，甚多。今豈可以欲攻分註之非，而力言理本實，不可言虛耶？蓋自其眞實無妄而言，則天下莫實於理，自其無聲無臭而言，則天下莫虛於理，只“無極而太極”一句，可見矣。而明彦據一邊，以攻本分素定之說，可乎？明彦又言“理虛故無對，無對故無加無損”之非，此則¹⁾見理極精後，心所自得之妙，非言語所能形容處，又安能與之爭是非耶？滉亦

▶ 辛酉年(明宗16, 1561년, 61세) 2월~3월. 禮安.

[編輯考] 中本에는 [부전지 此書, 當在秋巒未死之前, 移置辛酉第三書下.][추가 上]이 있다. 庚本 이후 이 편집지시에 따라 편성되어 있다.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無加無損之非此則：中本에는 [부전지 ‘{無加無}損之非此則’ 考次.][추가 傳本亦同.]이 있다.

數三年來，始依稀見到此。竊恐明彦見得太快，或不屑於精思入妙，而易爲言耶？其他不勝枚舉。滉報辯未及正書，故今未並呈，姑俟後日，或寄京中，或俟來春下鄉日也。((但自今凡所往復文字，尤不欲廣人耳目，須常戒應門人，每遇某人書到，勿於對客處告呈，必俟客去，或不可俟，則姑受置，或入內²⁾，以伺閑處進呈，爲佳。且來書，或用紙太長，後日披閱未便，後須量裁，其或語長紙窮，可用他紙，或聯或別，皆無不可也。))鄉間朋友如趙士敬，確實又有志，但見理未透，病痛不少，可歎。往年所云李大用·金惇叙，皆不如前日。李在喪次，手寫朱子書一通，每來質問，其志向可知，而天資甚美，故尤所期望。其後絕口，更不道此學片句隻字，雖或激勸，不過微笑，或發謙言而已。金亦持服日，意向甚篤，其後一二次入泮來，輒與前不同，今則亦絕口不言學矣。老夫獨處山樊，誰與切磨？如公學解，真不易得³⁾，而仕宦奔走，非徒與如我老友相資有斷續，又恐公志氣不甚堅確，或不能保其終不受變⁴⁾於俗也。

2) 內：上本 '來'

3) 如公……易得：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4) 變：上本에는 없다.

KNL1073 (書-鄭惟一-44) (癸卷25:24右)(樊卷34:72右)

答鄭子中¹⁾

〔前日得連夜之款，又同遊江舍，爲幸則多，但其晚暴雨，恐中路未免蒼黃之窘，奉慮如渴。因循未及修問，而忽已改月，謂已發西行，徒懷悵悵。不意枉書，始知行戒尙停，屬念勤懇，又不勝其愧感也。〕示報秋巒之訃，其信然耶？斯人而²⁾遽至此耶？人生本不堅牢，此翁重有³⁾麴蘖之促，其成疾日久。每憂其難保，苦口頻頻，自言其不能聽用，今果已矣，痛惜不忍言〔不忍言。〕其人疏處太⁴⁾疏，世俗之所嗤點，好處甚好，吾輩之所難得。年未耆艾，卒以窮死。交遊之慟⁵⁾，何可勝耶？聞去年其家無升斗之入，其何以爲喪？尙賴其死於子漸之所。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4월 3일. 禮安.

[編輯考] 中本에는 [부전지 下‘明彦所論’云云一書, 當在此書之上.]가 있다. 庚本 이후 이 편집 지시에 따라 편성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四月初三日】’

2) 而：上本에는 없다.

3) 有：上本에는 없다.

4) 太：中本·樊本 ‘大’

5) 慟：上本 ‘痛’

子漸必盡力，以歸其骸，且經紀其葬祭事矣。滉病伏遠外，莫由往哭其柩傍，幽明之際，負愧益深。白紙三束封去，須卽傳其家，兼告以病友所賻之物，懇懇。欲修慰狀於其壻，而忘其姓名，茲未發書，甚自缺恨。後書，喻及其姓字⁶⁾爲望。且其歸葬，的在何地，在何時？自今其家仍在城中，或往高陽與否并及，何如？（滉近有小冗，不得料理朱門事，但時乘病暇，寫尹子固及公帖幾了，猶有未者，故今未呈納。所留疑目，亦時未奉詳，隨後爲計。《止齋集》，欲如所戒，而其一卷，琴應夾借去未還，獨送九卷，恐尤有遺失之弊。當取還其冊，一時附信便，或俟秋來下鄉之日也。《眞西山集》，得見則何幸如之！餘惟勉學韜蹤，以副遐望。不宣。謹拜復。))

（陶舍，今可寢息於其中，後日若賜惠然，眞可謂有其所矣。第猶多闕事未遂，恒處於彼，踰山往來，又難逐日。昔人所謂“職事甚闕”者，今日見之矣。【齋號，向用克字，其未改耶⁷⁾?】））

6) 字：上本에는 뒤에 ‘字’가 있다.

7) 未改耶：上本에는 [부전지 手筆, ‘未改耶’作‘無改乎’.]가 있다.

KNL1074 (書-鄭惟一-45) (癸卷25:24左)(樊卷34:73左)

答鄭子中別紙¹⁾

朱子云：“志是心之所之一直去底，意是志之經營往來底，是那志底脚，凡營爲謀度往來，皆意也。”又云：“志是公然主張要做事底，意是私地潛行間發底，志如伐，意如侵。”合此數說而觀之，志公意私，可見。

前書“理顯而氣順則善，氣掩而理隱則惡”，初於“氣掩”之氣字下，欲下麤字，又欲下暴字，敲推未定，故空其處。而其後遂忘之，竟不填字而送納耳。今復思之，二字皆未當，不如下一掩字之平穩無病也。

和叔所云“心之有知覺，何故能然？”，公所答，大概得之，不知和叔何故更有“未易窺測”之云？此理朱門所論，無餘蘊矣。有問於朱先生曰：“知覺是心之靈，固如此，抑氣爲之耶？”曰：“不專是氣，是先有知覺之理，理未知覺，氣聚成形，理與氣合，便能知覺。譬如這燭火，是

▶ 辛酉年(明宗16, 1561년, 61세) 4월.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3에도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問目’으로 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別紙【孟夏】’[부전지 ■■■論當採附.]

因得這脂膏，便有許多光焰。”又曰：“所覺者，心之理也；能覺者，氣之靈也。”滉因謂火得脂膏而有許多光焰，故能燭破幽闇；鑑得水銀而有如許精明，故能照見妍媸；理氣合而²⁾爲心，有如許虛靈不測，故事物纔來，便能知覺。今但當因此等明訓，而加涵養³⁾體驗之功，積累多後，自當有豁然貫通處。若猶以爲未也，而欲別求至深至妙之理，則必墮於虛無莽蕩之域，而所惑滋甚矣。“命是繼善，性是成性。”如此看亦得，但繼指流行處言，命指賦與處言，亦微有不同耳。

“莫顯”·“莫見”⁴⁾之論，是。

“《易》，逆數也。”《啓蒙》中邵子·朱子說盡之。今所論雖不無其理，奈非夫⁵⁾子本意何？

〈先天圖〉不是伏羲畫卦次第，乃畫卦後就其中間，截⁶⁾斷而拗轉之，以成此圖。蓋雖似稍涉安排，而陰陽消長運行次第不如此，不成模樣故也。若論畫卦次第，則當以橫圖言之，乃可也。今之《周易》，固文王所次，自是

2) 而：上本에는 없다.

3) 養：初本 ‘泳’

4) 莫顯莫見：《文峯集》‘莫見莫顯’

5) 夫：中本에는 [부전지 ‘夫’字更考.][추가 傳本亦作‘夫’.]가 있다.

6) 截：樊本·上本 ‘裁’

文王意，而其前所未嘗有者，故謂之《周易》，以別於《連山》·《歸藏》《易》耳。且文王八卦，與《周易》次第不同者，文王於八卦，見其有入用⁷⁾變化之妙，故改易伏羲明體之方位於六十四卦，見其有反⁸⁾對之象，又有相受之義，故改易二《易》之次第。二者不同，亦理勢之自然，故朱子謂“後天說中取義又不同”者，正指此等而言也。伏羲只名三畫卦，文王始名六畫卦，昔有問此於晦菴先生者，答以“未有所考”。吳草廬雖有是言，今何敢信其必然耶？先生答問，見《語類》論《易》處。

愚意爻者，逐畫之名，位者，所居之地。胡氏以爻爲才則猶可，以位爲志則滉所未達。不審此說見於何處？示及爲幸。

“易有太極”·“類族辨物”兩條，得之。

聖人立卜筮之法，正如所論，神明固非如世俗所謂鬼神，然亦非是只言氣之主宰而已。朱子嘗答門人曰：“神是理之乘氣以出入者。”滉謂神明之神，須作如此看，方得其妙，全靠‘氣’字，便麤了些子。

康節之術，二程不貴，非獨指推算知來之術，只數學亦

7) 入用：養校〔‘入用’當考〕

8) 反：上本‘及’

不以爲貴。蓋有理便有氣，有氣便有數。理不能遺氣以獨行，亦何能遺却數耶？來喻所謂“數豈理外事”者，正是如此。但主於理，則包數在其中，其或有包不得處，不計利害，而事皆得正；主於數，則其常者，固亦理在其中，其變者，則鮮合於理，而雖趨利避害賊倫滅義之事，皆不憚爲之。此二程所以不貴其術也。然此特因其術而慮夫末流之弊必至於此耳，非謂康節爲然也。至於〈河圖〉·〈洛書〉，乃理數之原。聖人於〈繫辭〉，既明言之，其不可舍⁹⁾此而學《易》，明矣。而二程於康節，并此而不與之講明，此則不可曉。豈此等事發明於天地間，亦有待而然，故康節才能獨得，而至朱子然後乃大闡發，使人人皆得而與聞之耶？然則學者欲學堯夫主數而能該理，固難矣。如晦菴主理而兼明數，又安可不務哉？

五行有生成之序，有運行之序，參互錯綜，千變萬化，不可以一概局定說。自其生成而言之，開闢之始，固有一元五行之生成。然一歲亦有一歲之生成，一日亦有一日之生成。其生成於一歲者，不可謂厥初一元之生成者爲之。然向無一元之生成¹⁰⁾，又豈有一歲之生成乎？其一

9) 舍：上本 ‘捨’

10) 成：上本에는 뒤에 ‘者’가 있다.

日之於一歲，亦然。自其運行而言之，有一元之運行，有一歲之運行，有一日之運行。其運行於今日者，不可謂從古一元之運行者爲之。然若非從古之運行，亦何自而有今日之運行乎？其一日之於一歲，亦然。朱子嘗曰：“氣之已散者，既化而無有矣，而根於理而日生者，固浩然而無¹¹⁾窮。”既曰‘日生而無窮’，則其日運而不窮，可知矣。此所以錯綜變化，不可以一概說也。今以生之序，爲本其初生時而言，行之序，爲自其今之行而言。恐如此排定而無活法，不足以語造化之妙。

所論“一二三四得五，而成六七八九爲五行，得土之數”者，是。

或人所問五行初生之序，殊有意味。故先生然之。【氣之始，濕而已，謂天一生水也。來喻濕誤作溫，恐當改之。】¹²⁾來喻疑“五行有則一時俱有，非生水而後生火”云云，此卽《啓蒙》‘天一地二’章註勉齋黃氏說之意。滉嘗深服其說，以爲確論。及考《性理大全》，載李氏希濂之說，乃苛斥黃氏，何耶？【詳李氏所斥黃氏說，非專¹³⁾是見於《啓蒙》者，當別有其說。然其語意與見《啓蒙》者相同，故今並引爲言。】其間火生金之

11) 無：樊本·上本‘不’

12) 氣之……改之：《文峯集》에는 없다.

13) 專：養校[‘專’恐‘全’.]

說，黃氏果誤矣。其餘黃說之誤，果皆如李說耶？李是何如人？蒙所未悉，幸有得考，明以教示。

卜以环琬，古所未聞，而後世用之。其問於神明之意，則與古奚異？然其爲物，不能如蓍龜之靈，則安能保其必得神明之告而不差乎？只緣龜卜不傳，蓍草又不可得，則不得已而¹⁴⁾用其次，故其於筮占，亦用竹算。意亦如此耳。

“飯含”云云，不獨飯含，如斂絞·舉屍·撫屍之類，皆喪者所當自爲。古人於此，非不知有所不忍，所以必如是者，以愛親之至·痛迫之情，當此終天之事，不自爲而付之人，尤所不忍，故古禮如此。今人不忍於小不忍，而反忍於大不忍，切恐不可之大者也。

“班祔”註“妻祔于祖妣”，所喻者是。而有子之妻，則既祔而主還几筵，及喪畢，別置他室或子室¹⁵⁾，可也。

卑幼於尊長，四拜六拜，未有所考。但嘗見《程氏遺書》一卷有云：“家祭皆當以兩拜爲禮。”今人事生，以四拜爲再拜之禮者，蓋中間有問安之事故也。事死如事生，誠意則當如此，至如死而問安，却是瀆神。若祭祀，有

14) 已而：《文峯集》‘而已’

15) 別置……子室：中本에는 [부전지 ‘別置’及‘子室’,可疑.] [추가 傳本同.]가 있다.

祝有告謝¹⁶⁾神等事，則自當有四拜六拜之禮。據此而推之，則四拜六拜之義，可知矣。但今《家禮》不論祭之有祝有告等，而皆爲再拜，至丘瓊山，則又皆爲四拜，此又未知其何意耳。

爲庶之服，人多疑問，非徒《家禮》·《大明律》等書無之，如《儀禮經傳》，乃集合古禮，無不該載，而亦無其文，尋常不曉其意。竊¹⁷⁾恐古人適¹⁸⁾庶之分雖嚴，而骨肉之恩無異，非如今人待之如奴隸，故其制服¹⁹⁾無所差別歟？未可知也。

父不與祭，而使子弟攝行，則當依宗子越在他國而命介子代祭之例曰：“孝子某使子某。”

忌日與喪三年，並祭考妣，非禮無疑。其遵俗行之無害之說，或可用於忌祭矣。若於喪三年，則吉凶并行，祝辭哀哭，既不可專主於一位，又不可兼行於兩位，於此最所難處。靜存之說，亦去泰去甚之謂耳。父喪母喪，其爲非禮，一也。²⁰⁾

16) 謝：樊本‘事’

17) 竊：上本‘切’

18) 適：《文峯集》‘嫡’

19) 制服：《文峯集》‘服制’

20) 忌日……一也：上本에는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七七齋，聞出於竺教，而不知其何謂。然古人論此等事非一，皆以開諭得許爲第一義，若不幸而終不得許，則亦不可拂親意。此亦古人已言之，今當信古，而以至誠行之。如父母無命，而只出於兄弟之意，則亦當倣右意處之，而其從違之間，難易輕重之差，比於父母之命，則不無斟酌。要在不失友悌之情，而惻怛委曲以行之耳。所論“勿忘勿助”與“鳶飛魚躍”之義以爲取譬之意，但取其自然無爲之氣象者，善矣。然觀古人論此諸說，蓋非取譬以言其氣象，乃因此而舉彼，以見道體自然發見流行之實。如勿忘勿助，則道之在我，而自然發見流行之實，可見；鳶飛魚躍，則道之在物，而自然發見流行之實，可見。又如引浴沂詠歸而並言，則浴沂詠歸，道之在日用而自然發見流行之實，可見，如是而已。如何如何？“將讀書，程課繫縛此心，爲但教此心不走作耳。”此論甚善。程子論司馬溫公·呂申公出處不同處。來諭以爲晦菴·南軒出處亦然者，亦善。世臣雖與他人不同，然諫不用，言不聽，則亦安得不去？但其去之之決，不得如他人之輕且易耳。

BNL1075 (書-鄭惟一-46) (樊卷34:81左)

與鄭子中¹⁾

自公西行，未聞音耗，邇風何堪何堪？滉今在陶山，寂無應接，其於養病，可不謂爰得我所耶？前留別紙，已有草，不欲遠致，姑待秋來耳。就中安東府司所祀三功臣事，大概想公已聞之。今府伯以權幸裔孫，來莅本府，有所增措於祀事，囑滉以粗記事首末，以爲後考，苦辭至今。今則瓜期不遠，煎迫益力，試略應之，則其事蹟漫不可考，其見於《通鑑》·《史略》·《輿地誌》等書，草草不足爲據，欲考《麗史》，則鄉隣無蓄《麗史》者。城中則可易得之，公須撥煩求得。若有傳，則金宣平·權幸·張吉三人，必同傳，無傳，則於《麗祖紀》內始末²⁾，詳考，隨得謄送爲幸。其稱三人之功，只因以吉³⁾昌降麗之故，抑其後別有立功歟？皆不可知。其稱太師，亦未知生授與死贈。凡系三人事，一皆考示，爲望。雷變可駭。餘未一一。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5월 7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五月初七日】'

2) 末：上本 '末'

3) 吉：初本·中本 '古'

BNL1076 (書-鄭惟一-47) (樊卷34:82右)

與鄭子中¹⁾

夏間遣一書，未知達否？久絕聞問，頗深鬱鬱。近見邸報與薦史館，想今已經試入館與否？自是雲路騰騫，風波杳然，不知當如何也？秋來猶可請告來覲耶？抑地禁職劇，未得如意耶？病人一味癯憊，外無可言者。就中前扣《高麗史》內欲考金宣平·權幸·張吉三人有傳與否，有則欲傳以見寄，雖無傳，其事蹟必詳見《麗祖紀》中，須煩爲錄示，望望。權府使欲爲此三人有所記²⁾述，煎迫甚至。苦辭不聽，可笑。今欲考出看如何，外方無其史，故曾考³⁾之。若已考出，須於孫兒安道奴馬還時付送，如何⁴⁾？餘皆留俟下鄉之日。⁵⁾不具。謹拜白。

和叔下鄉後得信否？聞韓士炯並有喪，未知然否？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7월 5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七月初五日】'

2) 記：初本·中本 '紀'

3) 考：初本·中本 '叩'

4) 如何：初本·中本 '何如'

5) 日：上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欲作吊書，恐或妄發故未果耳。時甫好在否？今年絕不得書，悵然。⁶⁾ 尺札附去，幸爲我傳之。

6) 然：初本·中本‘戀’

KNL1077 (書-鄭惟一-48) (癸卷25:32左)(樊卷34:83右)

答鄭子中¹⁾

音耗久闊，承見華翰，喜幸無比。且審所以入翰苑難避曲折，其勢則固有然者。以高明才分，秉筆螭²⁾頭，乃所當然，亦安用避爲？但今世仕宦由要路者，必至於伊優而失故步。入苑正是要路之始，故前者甚憂公之不免者以此，今果不免矣。干求之謗，所示亦然。滉在此深山之中，亦曾聞人有以此議公者，滉亦疑其不慎交遊之所召也。有改無勉兩句，正當十分用力處。然自今待其人，尤當慎審。蓋既不可太露，又不可苟合。如失其宜，則他日狼狽，未³⁾必不由於此也。秋巒碣銘，子漸欲圖之，於長逝者，可少幸矣，但僕未敢當其責而得其言耳。和叔壙誌，見示爲望。權幸等三人事，示及荷感。然滉本意，《麗史》所載雖略⁴⁾，欲得其文字，要有與他書相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8월 14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八月望前一日】'；初本에는 [부전지 '答鄭子中']가 있고, 定草本에는 [부전지 '辛酉八月']가 있다.

2) 螭：中本에는 隔一字되어 있고, [부전지 空一字書之, 未詳.]가 있다.

3) 未：上本 '不'

4) 略：上本 '若'

證左處故也。今只云太略，而不及其文字，爲未盡耳。時事如聾如瞽，理勢然也。南還非但不速，雖來，恐難相從。惟祈千戒萬勵，以副老懇。（謹拜復。）

（靜存，想佳健矣。前來《朱子實紀⁵⁾》六冊中《年譜》一冊，本不送來否？初受時不審冊數，今此一冊無之。意公知滉自有《年譜》，故其一冊不送來矣。示破爲望。聞尹子固爲漣川縣監。信否？想爲親乞外，可謂得計。其帖已寫訖，俟公下鄉附送爲意。）

5) 紀：上本‘記’

BNL1078 (書-鄭惟一-49) (樊卷34:84右)

與鄭子中¹⁾

新霜涼凜，氣味想益佳。頃以一書附便，未知垂覽否？一般心事，少見其書。今以景瑞將至，坐待江上，未暇他及。但前還《止齋集》中一卷，遺在此，且尹子固帖寫就同封，托景瑞送去，視至爲佳。何時來觀？未間，珍勵。謹拜。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8월 29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仲秋廿九日】’

BNL1079 (書-鄭惟一-50) (樊卷34:84左)

答鄭子中¹⁾

近承辱回，具悉示喻之意，深幸深幸。每書有齒舌之云，不知緣何有此？可怪之中，知其亦無足怪。惟當自反猛省，懲忿遷善，兩致其功，而語弇心兵，亦毋²⁾忘戒，爲佳。權太師，考示書，已承領矣。其人亦爾，殊爲可惜。其不爾者，可尙如何？王詩深有意味，但亦有一說，他人患在多變，而此人患在不變耳。筆墨佳貺，荷感荷感。南來定在何時？企企。就中《大明一統志》內吳必大，見於武昌府興國，而本張末端，僅有其名，而其次一張闕焉，其事實未得考錄，恨恨。右志武昌府卷內必大事蹟，搜考錄寄，懇望。此事尤欲速見，報示，如無來信，須問安東京邸有來府者附書，令傳于李訓導演處，且囑演以謹傳之意，必能不至稽失也。惟照。謹拜白。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9월 2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九月廿五日】'

2) 毋：上本 '無'

KNL1080 (書-鄭惟一-51) (癸卷25:33右)(樊卷34:85右)

答鄭子中¹⁾

自京惠書頻頻，既極荷感。冬深，未聞來音爲訝。忽奉辱書，知已稅駕故里，歡侍慶勝，欣賀萬萬。滉幸此跼伏，免被外撓。但日覺老昏之加，而不奈精力之退。或有所見，無地以崇之，自嘆其回頭之晚而至於此也。職思之憂，固宜如此，人之難知，自古所歎，今也尤甚，乃知古有絕人逃世者，其意固有在，可慨想也。然吾輩正當自力，何暇責人？要令人之視我，無至於如我視人耳。吳伯豐，朱門高弟²⁾，《宋史·道學傳》，獨遺此人，可怪。而《一統志》伯豐處，適又缺落，懼無從考得。今得錄示，何幸如之！此事今粗就稿，欲借諸友膽正一件，而試聲之至，皆有忽忽之役。誰人肯作閒工夫耶？兩朴果皆好人，然皆未有向上一著見到處，不知所就終如何也？和叔屢³⁾見擬目，恐不如且在閒地之爲上也。

▶ 辛酉年 (明宗16, 1561년, 61세) 12월 1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臘月朔日】'

2) 弟：初本 '第'

3) 屢：上本 '累'

奇君事，所喻正然，尋常所憂，在此人也。承許見枉，當於陶山書舍，擁爐⁴⁾夜話，企企。前來講目，不欲寄入都中，今乃送呈，晚可愧耳。((餘留對晤。謹拜復。))

((前去明彦往復書等，皆携來。))

4) 爐：上本‘礪’

BNL1081 (書-鄭惟一-52) (樊卷34:86右)

與鄭子中【壬戌】¹⁾

去後，未聞動靜，馳戀馳戀。前云春夏之交下鄉，可期耶？近事不敢奉問。但明彥，想已仕槐院久矣。孫兒之行，適冗擾，未及奉書，幸爲致意，深望深望。秋巒碣文，尙依違未草，恐子漸以我爲異也。非異也，有所商量耳。靜存舊病今如何？亦望多問。皆不及書，愧恨耳。餘惟愼重萬萬，不一。謹拜問。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2월 5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壬戌二月初五日】’

BNL1082 (書-鄭惟一-53) (樊卷34:86左)

與鄭子中¹⁾

傳聞下來，田家乏人，久未相問，卽日侍歡外，趣味想倍清茂。滉春間常在陶山，可至仲夏末方罷，因守僧得病可疑，昨避入溪莊，村務多冗，益令人懷山不置也。前留講目，輒寫瞽說以往。其有差謬，痛惠駁正，庶歸至當，幸甚。何時還上？欲一見攄此伊鬱，但公每來，每枉一遭，恐或難作恒例。且陶山如彼，而溪上茅齋，茅捲雨²⁾漏，欲牽補未能，無可聯床夜話處，如何如何？僧還，示以來否。可來則前云龍壽寺，幽寂可會處，無過於此也。秋巒碣文之作，非敢憚勞，終有難著語處，非但此也，在京相識中，有以碑碣見囑，苦辭不應者非一二家。今若爲此，則彼不得所求者，怨怒益深，故遲至于今。想子漸深以我爲相負幽明間也。仍念公於秋巒，契³⁾義不減於滉，而無取怒他人之患，須得公作此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4월 5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四月初五日】'

2) 雨：中本 '兩' [부전지 '兩'疑'雨'字.] [부전지 傳本作'雨']

3) 契：上本 '稷'

文，以成子漸之志，豈不兩全乎？然慎勿過爲稱揚之語，只著實無沒其善，可也。子漸所撰行狀·和叔誌銘并送，照領母辭，草成見示，或可商量後用之也。所欲言無限，姑不能縷，惟德履益珍。謹拜白。

KNL1083 (書-鄭惟一-54) (癸卷25:37左)(樊卷24:87左)

答鄭子中【壬戌】¹⁾

頃因來書，凝佇數日而未得。茲蒙示喻，審知方在侍藥，適被召旨。行止遲速之間，儘有商量，又豈暇他有過訪意耶？無任悵惘²⁾。所云秋巒碣文，盛意皆當。滉於巒老，豈有相負之理？其所以難於下筆者，雖曰恐取怨於曾辭之家，此則可不屑計，只於措辭，有甚難者。爲其掩實則非所以待秋巒也；紀實則又大有未滿人意。兩者之間，自滉處之之難，更有甚於他人者。以此益難，遲遲至此。想其家及子漸³⁾深怪於吾之慢也。前日敢⁴⁾送誌狀者，欲得公筆草成，相與訂定而用之，乃未蒙肯，尤不知所以爲計也。從當更思而報去。惟照，并告其家以不可欲速而貽悔召鬧之意，幸甚幸甚。見囑題畫，甚荷不鄙，但恐拙詠，適足以累雅賞耳。姑留山室，以洗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4월 1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四月十九日】'，中本·定草本·樊本·上本 '答鄭子中'；定草本에는 [부전지 '壬戌四月']이 있다.

2) 悵惘：初本·中本·樊本·上本 '悵惘悵惘'

3) 子漸：初本에는 [부전지 {子}漸子進■■公請碣文.]이 있다.

4) 敢：養校 ['敢'恐'請']

病鬱，惟鑑察。因有小集，諸友在門，不能一一，惟冀
爲道萬加珍毖，以副老懇。((謹拜復。))

KNL1084 (書-鄭惟一-55) (癸卷25:38右)(樊卷34:88左)

答鄭子中¹⁾

聞當有覲行，以新入銀臺，恐難如意．承辱書，知己趨庭，傾豁倍深．新到固難出入，矧又有營幹耶？來月望，滉亦親忌．俟兩過後，謀會於曩所云龍山僧寺，或直抵陶山，皆無不可．佇幸佇幸．但夙夜賢勞，無暇執冊，勢也如此．²⁾ 野老幸而免此，尋常以書自繞，而病不能讀，雖或寓目，隨掩隨忘，恰與不看無異．常念古昔聖賢，留得許多經籍，以俟來哲，其意爲如何哉？而既不屬那邊，又不屬這邊，舉一世無人肯管了．可嘆又可懼．如之何如之何？然到此桑榆之景，浪作此念，畢竟何補？願公視以爲戒，故妄及之耳．聞奇明彥來久矣，不得一字相問，不知爲況如何？金應順出身後，尙未修賀，每以自愧．今示傳寄其信，而書不至，其或偶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9월 2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九月二十五日】’；定草本에는 [부전지 ‘壬戌十月’]가 있다.

2) 如此：中本에는 [부전지 {‘如此’疑‘如何’}][추기 傳本亦作‘如此’]가 있고, 定草本에는 [부전지 ‘如此’恐作‘如何’, 爲是][추기 子中本亦作此.]가 있다. 今按: ‘子中本’이란 문집 편성시 鄭惟一(子中) 본인 혹은 그의 집안에서 남본한 淨寫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遺拈附³⁾耶？無乃來使道遺之否？前來畫幅，已爲浼墨，適置溪舍，今未付上，當俟後便也。管城香藥，珍惠感佩。鄭子精·趙士敬，皆相聚在此。子精，聞已入實，今且去矣。餘皆留面款，草此謝報。

秋巒家如何？子漸已遞豐邑否？碣文未敢出，其家必深怪望。非面未悉。

3) 附：上本 '拈'

KNL1085 (書-鄭惟一-56) (癸卷25:34右)(樊卷34:89左)

答鄭子中別紙¹⁾

“動而生陽，只是理，做已發看不得”一條，來喻大意得之，但未免間有語病耳。如曰“萬物之理，雖是天地之理，若無生物之理，萬物何緣有此理乎？”，則是天地之理與生物之理，似若有二理也。曰“惟其有所以生是物之理，故能有是物。【止】何莫非天地之理？”，此固是如此。但以是發明延平所言之理，似不親切，乃是剩出之語耳。曰“但言人心動靜，非以此爲理也。至於大本達道，方是言理耳”，此段尤未安，欲改云：“但言人心動靜，非就天地之理言動靜也。然人心動靜之理，卽天地動靜之理，非有二也。故云：‘至於見得大本達道處，又袞同只是此理也。’” 延平答朱子曰：“復見天地之心，此便是動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10월 1일~16일. 禮安.

[編輯考] 무슨 이유에서인지 定草本과 庚本 이후의 木版本에는 이 편지가 KNL1080(書-鄭惟一-51) 다음에 편차되어 있다. 初本 및 中本·樊本·上本の 편성 순서에 근거하여 바로 잡았다.

[資料考] 이 편지는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3에도 실려 있다. ‘上退溪先生問目’이라는 제목하에 앞의 편지 KNL1074(書-鄭惟一-45)와 연이어서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別紙【十月】’[부전지 ■■■論採附.]

而生陽之理。”按朱子嘗曰：“理有動靜，故氣有動靜。若理無動靜，氣何自而有動靜乎？”蓋理動則氣隨而生，氣動則理隨而顯。濂溪云“太極動而生陽”，是言理動而氣生也。《易》言“復，其見天地之心”，是言氣動而理顯故可見也。【凡言心者，皆兼理氣看。】二者皆屬造化，而非二致。故延平以復見天地之心爲動而生陽之理，其言約而盡矣。若朱子所引喜怒哀樂已發未發，雖亦合理氣而言，只是就人心言動靜，不可與說造化處牽合爲說，故延平不以爲然耳。【此朱子初年所見，後來無此等說。】今曰“朱子似以動而生陽專作氣看，故以爲已發”，恐未必然也。又曰²⁾“所謂一陽生者，專指氣言，其下係之以見天地之心，然後專是言理”，亦恐太分開看了。

“約而言之，動而生陽，主言理而氣在其中”，此一句極是。“未發已發，專指氣言耳。”此則未然。當云：“兼理氣渾淪說也。”【喜怒哀樂，與惻隱·羞惡等對說而後有屬理·屬氣之分耳。】其下“動而生陽，^{【止】}重在氣上”，看得儘精。

仁字極難說，仁是心之正理，須是覺這理。³⁾

“仁者心之德”四條說，皆得之。⁴⁾

2) 曰：上本에는 뒤에 주목권점 'O'가 있다.

3) 理：上本 '裏'

4) 仁者……得之：기준본(癸本)에는 低一字로 편집되어 있고 上本에는 上段에 연결되어 있

“虛能生氣”之‘虛’，若作理字看則無害。但老氏元⁵⁾不識‘理’字，何可遷就爲說耶？

“用處亦不見形狀”，‘用’字上，若下⁶⁾‘心之’二字，義更分明，如何？

手持足行目視耳聽，花潭但謂氣之妙處，而不歸之於理，固是偏⁷⁾也。但來喻“非心使之也”一句，亦不覺墮⁸⁾在花潭病處。恐當曰：“云云耳聽，皆有天則，而主之者心也。然而有時不待心使之而自能然者。”如此下語，其意方盡。又“其實理使然也”，‘理’字，作‘心’字，如何？

花潭“冰⁹⁾器涓滴”及“雷霆”之說，恐或然也。

“雨露”·“雲散”·“人¹⁰⁾得水爲精”三條，皆善。

“一¹¹⁾人之身，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皆備”，固然，但如此漫漫地認取，恐無益也¹²⁾。

으나, 中本에 의거하여 極行으로 편집하였다.

5) 元：上本 ‘原’

6) 下：上本에는 뒤에 ‘字’ 있다.

7) 偏：上本 ‘徧’

8) 墮：庚本 ‘隨’

9) 冰：樊本·上本 ‘水’

10) 人：上本에는 隔一字되어 있다.

11) 一：上本에는 隔二子되어 있다.

12) 一人……益也：上本에는 上段과 연결되어 있다.

莊子所見，高於康節處，今不可揣度而言，其氣豪於康節處，則因其語而可知。由其氣豪而辭蕩，故言之能極其所見之高處，此康節所以有不及也。然而彼之毀聖蔑禮得罪名教之病，康節却無之，何可比同之耶？恐朱子此語，有爲而發，姑舉其一端而言之，非全論二人之優劣也。和靖迎觀音事，誠不知其意。如程·朱子，必不爲之，後學亦何敢學此等事耶？

道體流行於日用應酬之間，無有頃刻停息，故必有事而勿忘，不容毫髮安排，故須勿正與助長，然後心與理一，而道體之在我，無虧欠，無壅遏矣。來喻已略見此意，故能有味於延平道體之言，更宜深加玩養體察，不可只如此便謂已了。

末二條“功利”之說·“沖漠無極”之說，皆善。

BNL1086 (書-鄭惟一-57) (樊卷34:92左)

與鄭子中¹⁾

險路夜行，何如？幸荷臨顧，適值客到，殊²⁾未晤洽。且公行雖有遣駟還集之弊，未爲不可私宿，況非有如往年護送時王事趁程之急，乃不解挽宿夜話，追覺此意，臥不成寐。老謬處事之失宜如此，深恨深恨。霜寒惟祈好行。謹此奉問。

河東宰朴思恭，滉在京時隣舊，送雪菊兩色牋，昨夕適來，以奉游戲翰墨之需。³⁾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10월 17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陽月十七】’

2) 殊：上本에는 없다.

3) 河東……之需：上本에는 [부전지 別【附于下書末.】]가 있다.

BNL1087 (書-鄭惟一-58) (樊卷34:93右)

與鄭子中¹⁾

別後未嗣音，未知動履何似？懸想無已。僕他皆依舊，但近於方伯相見日，不覺過飲，至多²⁾失常，恨懼方深。年來自謂已免此過，一日不戒，復墮舊窠，人心操舍之間，眞³⁾可畏也。留畫六幅六絕呈浼，視至一笑。秋巒碣文，今欲送傳，更思之，吾兩人雖慎祕勿播，既入彼家，寧保不犯人眼耶？只今宰相家以碑文敦迫者三四家，皆以未嘗作辭之，忽播此文字，彼將指此煎迫尤力。欲從之則有不可，欲終辭則怨怒難解，碑碣之分，何能戶曉耶？患害非輕，以此姑停。況子漸罷官，亦無可辦之力，不須汲汲，須以此懇喻子漸以紓其悶，幸甚。既作之文，遲速間，豈無可出時耶？何日發行？寒沍，惟幾恙重千萬。謹拜問。

應順處答簡，望傳。

▶ 壬戌年 (明宗17, 1562년, 62세) 11월 1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至月初吉】'. 上本에는 [부친지 別【時耶】]가 있다.

2) 至多：初本·中本 '多至'

3) 眞：上本 '直'

KNL1088 (書-鄭惟一-59) (癸卷25:39右)(樊卷34:94右)

答鄭子中¹⁾

臨行，撥煩伴問，佩荷垂意之至。示喻仕宦之害人，果爲非虛，而能知此事之爲害如公者，亦²⁾鮮矣。³⁾然亦有人每歎而終不免墮落者，願公毋欲速，毋沒榮光，常思有初無終之可恥甚於撻市，而日夕策勵，則庶或有望。不然，只是衰同過一世矣。其隳名辱節之間，或反有甚於隨俗出沒者矣。碣文，已悉諭意。滉非故欲持⁴⁾難於死友之間，事有極難處者故也。昨趙先生孝直之子全州判官容，遣子弟來，求先生碑文，此又最難處之一事，已以例不作拒之而⁵⁾去。一開其端，此等益無可如何？何可輕耶？但有一事，觀其〈行狀〉，乃洪上舍仁祐⁶⁾所撰，而事蹟殊多逸闕，未免草草，假使有作者，

▶ 壬戌年(明宗17, 1562년, 62세) 11월 8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至月初八日】’；定草本에는 [부전지 ‘壬戌十一月’]이 있다.

2) 亦：《文峯集》에는 없다.

3) 示喻仕宦……亦鮮矣：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 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4) 持：樊本·上本 ‘遲’

5) 而：上本에는 없다.

不可據其狀以撰，故已告其子弟，令其極意更求，添補事實，庶幾先賢有傳於後世。不知公亦能有聞見可得錄示耶？其狀如未曾見，後當錄上。然亦須勿煩爲幸。其子弟亦以隨聞見示及事見囑，故欲得之耳。《尹子固事，真是可尚可尚。子固處，拙迹之往，非不足也，今不當更多，姑留之看如何。子進前送紙，近才寫去。而復此送來，病者何堪耶？傳語子進着實工夫，不在于此，須於一部《心經》內求之，可也。太輝啓辭，可得聞耶？寒沍，惟冀好行千萬。不宣。謹拜復。))

《孫兒安道處小簡，命傳何如?))

6) 祐：上本‘佑’

BNL1089 (書-鄭惟一-60) (樊卷35:1右)

答鄭子中【癸亥】¹⁾

邑宰之來，承惠書，知去要劇就清選，體況益勝，欣賀不已。自此可以料理舊業，正如來示，惟在加勉如何耳。滉因春寒異常，久自閉縮，今始出在山堂，但苦昏憊，未免作輟²⁾，殊無見成工程。思之不覺悚厲。示喻論人之難·九折之喻，誠然誠然。此間又有寒心事，敝³⁾邑前宰之罷，滉與左右，多上人口舌，在公尙未安，滉以土民而有此，寧不聳懼聳懼？暮春公雖下鄉，滉於今次不欲相從，以少避世俗之猜謗也。如何如何？其辭緣姑不形於筆牘，惟默會幸甚。謹拜復。⁴⁾

明彥猶在翰苑否？ 年前一書尙未見報， 未知何也？

聞景瑞近當下鄉，故不修問耳。

▶ 癸亥年(明宗18, 1563년, 63세) 2월 1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癸亥二月望日○子中時說書】’

2) 輟：上本 ‘輟’

3) 敝：上本 ‘敝’

4) 謹拜復：初本에는 [부전지 ‘謹拜復’ 此等文字, 皆刪去何如.]가 있다.

BNL1090 (書-鄭惟一-61) (樊卷35:1左)

答鄭子中¹⁾

久聞來覲，今承稅駕多日，欣慰欣慰。滉凡百不異於前，所異者顏鬢，眞如古人所謂“今朝開鏡匣，疑是別逢人”者耳。縣宰之罷，滉以土民亦上人口，豈不甚懼？處甚懼之道，要當少異於常日所爲，庶可心事相副，故果有不欲相見之意。前日以此懇景瑞，景瑞既不聽用，而公今亦然，老物其何以免人之猜謗耶？然當見不見，恨亦非細，當痛掃山室²⁾，共打聯床幽款，是幸是跂。明彥·子進兩君書，荷卽傳示。答在會日，餘皆留俟，姑此奉復。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4월 11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孟夏十一日○子中時正言.】’

2) 室：上本 ‘堂’[교정기 ‘室’]

BNL1091 (書-鄭惟一-62) (樊卷35:2右)

與鄭子中¹⁾

別後惘惘，有無限合商量事，恨如之何？秋巒碣銘草本送呈，更審有不當處，示及，容得改定也。奉贈二絕，思之，有未穩處，改換數字寫呈，伏惟照納。商山·西湖二畫幅，拙句卽欲寫上，恐與向所寫者，位置高下，字畫大小，有不同者，姑停。前題中取一幅送來，則看樣寫送爲意，惟照。謹拜復。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4월 21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孟夏念一日】'

KNL1092 (書-鄭惟一-63) (癸卷26:1右)(樊卷35:2左)

答鄭子中【癸亥】¹⁾

縣人之還，雖無書，宜有說，而兩無之，亦料其人不辭而返所致，今承所諭，果然矣。頃者奉款，幸甚。別後思之，十分未了一分，非徒公有從前悠泛之歎，滉亦恐未免此歎也。雖然，所以致此者，亦緣滉病倦不能夜話，而晝日則人多故爾。所云“義理精深微密，安能以渙散之精神，得致其沈潛研究之功？”，此說甚當。比來閒居中，深思實體，見得此理無時不然無物不有處，真是如此。所謂“百千萬億不爲多，無聲無臭不爲少”，朱先生真不我欺。其在燕閒靜一之中，自覺得明快灑落，猶若可保。然而忽有一等閒事物，來到面前，應接之頃，少失點檢，忽已隨手消泯。此無他，不熟故也。在傍邊看覷，不能真入²⁾其中，以爲己物故也。身常靜處猶若此，若形役於膠擾之境，又加以怠忽因循，雖欲與有志而終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4월 2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四月二十九日】’，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定草本에는 [부전지 ‘癸亥五月’]가 있다.

2) 入：上本 ‘人’

無成者不同其歸，恐不可得也。在今日嚮道之切·嗜學之誠，如吾弟者，何處得來？然竊矚平日所存，似於矜露自喜處占多，沈靜斂退處占少。以此而行於世，到得世味漸深，撓奪益多，吾又恐所嗜之終不可口，而所嚮之終失故步也。³⁾ 況今且不得已出世，如近日駐足事之類，極當如此，自餘凡百，尤當以愼密二字爲第一義，千萬千萬，戒之在心，毋忽是祝。江上沿洄，可少償物外宿債。然吾輩胸襟，不及古人，許多好處，何能盡其風流耶？當日滉所舉晦翁先生與袁機仲諸人泛舟九⁴⁾曲詩四五篇，在詩類第四卷末，可檢得而深諷味之，則妙意眞趣，殆可見也。切欲追和其韻，以紀一時心賞，而第念近年吾弟不以一句詩語見示，雖有拙語，不見辱和，如今次絕句之爲，則所謂獨唱而無和，亦可吝也，故遂輟耳。既看先生詩後，如不⁵⁾辱妙唱之來，則謹當效顰也。畫幅畢寫，并來幅回納，視至爲佳。記文拜領。此文浪傳，深所未安。又其傳者多誤脫，益爲人所嗤罵。如在靜存處，猶可改正者，改正之，何如？書何能盡

3) 義理精深……失故步也：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竊矚……況今且 제목은 '別錄【此下摭出退集長牋中問答句語.】'라고 되어 있다.

4) 九：庚本 '尤'；鄭校 ['尤'，寫本作'九']

5) 不：中本에는 [부전지 '不'字未曉.][추가 恐'不'誤.][추가 傳本亦作'不'.]가 있다.

意？惟冀行赴珍勝，以副遠遡。（謹拜復狀。）

（安道孫，想已發行，故無書。寧姪處小簡，有要事速傳事教下人，爲望。孫兒以奴病事事狼狽，未知行路之何如，日以懸⁶⁾念。或於途中值見，則畧道此意，何如？）

（碣文勿廣事，留意深望深望。其文內“其視世之營營乞墦者何如哉？”，此處文字，未免局促。緣欲簡去繁文，遂致如此。今欲添數字改之曰：“其視世之乞墦間而求饜足者何如哉？”如此則似差勝。如何如何？幸就草本內改添，而付之子漸，子漸處多問亦望。）

6) 懸：上本‘縣’

BNL1093 (書-鄭惟一-64) (樊卷35:5右)

答鄭子中¹⁾

人還，承見六月廿八日惠書，備悉近況，深慰。所云欲辭事，竟作如何？其意外謗者，未知何等事耶？固知難行，不可不十分慎晦，圖爲捧檄之計，斯爲上也。滉今番得病，不比尋常，幾殆者累日，寄致兩藥，皆對證良劑，不住服來，尤覺得效，今少甦痊，深幸且謝。來覲在中秋，或可會款，企仰。病倦不能多及。謹拜謝。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7월 16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孟秋既望】'

BNL1094 (書-鄭惟一-65) (樊卷35:5左)

答鄭子中¹⁾

拜別，東望依依，承手字，欣慰。京奇，闌未更聞，方劇鬱抑，得見委示，殊快人意，深謝深謝。伏惟尊照。餘在落帽之日，須早著鞭爲幸。吳正字子强昨昨來訪，相與寓栖精舍，讀《朱書》甚適，并照。謹拜復。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9월 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九月初五日○子中時爲眞寶宰.】'

KNL1095 (書-鄭惟一-66) (癸卷26:2左)(樊卷35:5左)

答鄭子中¹⁾

當旋駕過縣之日，縣吏不報，又自失偵伺，未及奉問，深用愧恨。茲蒙枉垂珍札，感幸又不可勝也。官敝²⁾民瘼，固應如許。正在明府盡心於補完摩撫之秋，赤子失乳哺之餘，乍見杜³⁾母之至，安得無號呼之擾？久則自當定矣。定後讀《易》，甚善。吾縣雖無佳山水之稱，聞鈴齋⁴⁾臨溪上甚蕭灑，韓公所謂“讀書松桂林，邂逅得初心”者，想可爲今日驗也。儲位遽虛，朝野哀遑罔措，奈何？續聞宗系事得請⁵⁾，敕命當降云，想不墮虛。斯又莫大之慶，庶有乘除，少紓憂懣耳。翻轉之慮，正如所喻，一時取快，爲後日厲階，往事可鑑。但彼既露網打之計，不得不爲拔釘之舉，遂至於此，雖欲調停，有所不可，然已甚則不可耳。九曲韻詩，此亦無留本，且

▶ 癸亥年(明宗18, 1563년, 63세) 10월 1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陽月望日】’，定草本에는 [부전지 ‘癸亥十月’]가 있다.

2) 敝：上本 ‘敝’

3) 杜：上本 ‘社’

4) 齋：上本 ‘齊’

5) 請：上本에는 뒤에 ‘敕’이 있다.

既溷雅覽，不必再溷。閒中偶思靜存贈行詩，用其韻道懷，謾以呈上，笑覽爲佳。如已和成，亦望惠示，幸幸。((生蟬，感感荷荷。邸報亦然。來旬望之約，得見踐過，當要士敬一番款話，企企。伏惟照悉。不宣。謹拜復。))

KNL1096 (書-鄭惟一-67) (癸卷26:3左)(樊卷35:6左)

答鄭子中¹⁾

近日過臨，曾有珍約，凝竚之至．承諭沿牒輟行，姑俟後駕之日．滉自月初，以先人碣陰刊刻事，恒在溫溪齋²⁾舍．緣此應接，未有見定課業，殊覺懍惕．齋³⁾居蕭灑，正好養神與養民之事，本末相資，甚善甚善．讀《易》，欲以《本義》爲先，此亦滉從來所見如此．世儒慮及此者自少，雖或有之，皆牽於講業，而未果去取．滉則方其讀時，同於世儒之牽，及見得此意⁴⁾後，昏⁵⁾病不能讀．主《本義》兼《程傳》以還潔淨精微之舊，正有望於高明之今日也．但所謂讀《易》之法，先正其心者，此又一大件不易言處．來喻已先得之，惟在勉旃⁶⁾爾．和詩之成，

▶ 癸亥年 (明宗18, 1563년, 63세) 11월 15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十一月望日】’

2) 齋：上本 ‘齊’

3) 齋：上本 ‘齊’

4) 意：上本에는 뒤에 ‘然’이 있다.

5) 昏：上本에는 없다.

6) 讀易之法……惟在勉旃：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別錄【此下摭出退集長牋中間答句語.】’라고 되어 있다.

顒望示及。網打之當及草野，聞聲之日，已自臆料。近稍傳聞，名字已見其草幅中者非一二云，一愕一笑。惠件，家姪近行時祭，感荷感荷。但方當蘇敝之政，恐不宜以此等事入思慮也。((以是爲未安耳。伏惟照諒。餘留面悉。謹拜謝復。))

((傳聞用刑似太⁷⁾猛，此亦救正敝俗所不可無。然一向如此，殊非撫摩煦濡之意，切望遄改。))

7) 太：上本‘大’

BNL1097 (書-鄭惟一-68) (樊卷35:7左)

答鄭子中【甲子】¹⁾

日昨因暮夜忽忽，面如不面，今奉惠書，知抵縣無事，稍慰餘鬱。所白事，謗毀固不足掛念，然不無有致此之由，此正君子省身自修之地，故敢白耳。子進書簡，謹已領悉，惟照。餘俟後日。謹拜復。

前索貴簡之在此者，續得三四幅，適來兒舍，未得搜上，并²⁾照。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2월 20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甲子二月廿日】’

2) 并：上本 ‘拜’

BNL1098 (書-鄭惟一-69) (樊卷35:8右)

與鄭子中¹⁾

阻相聞問，久矣。縣齋²⁾清爽³⁾，鳴琴讀書，想日有佳趣。滉憂旱之餘，加以暴風霪雨，病懷殊多未快，索居溪上，斬斬度日耳。似聞晦朔間當有覲省之行，然則徑由可遂拜面，但水齧崖路，人馬殆不通，恐於從人勞頓不少。有一於此，都麻⁴⁾峴近處，有一處泉石頗佳，每欲往觀而未果，今欲約會於彼，則可以免險阻討幽勝，豈非一段好事耶？若以爲可，則城主宿于縣，翌日直指于彼，滉亦早發趁赴其地，在都麻⁵⁾峴未踰，由新井村緣溪而入數里云。發行宿縣之日，須預垂通諭，則可無相違耳。未知盛意以爲何如？如或值雨，則還時亦可，并照量示幸甚。謹拜白。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7월 27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七月二十七日】'；上本 '答鄭子中'

2) 齋：上本 '齊'

3) 清爽：中本에는 [부진지 '{清}爽'改次.]가 있다.

4) 麻：初本 'ㄲ'[부진지 'ㄲ'當作'麻'. 先生本■作'ㄲ', 而先生{平}日嘗言, 此字字{書}無之, 俗稱地名, {當}用'麻'字云. 更{詳}次.]

5) 麻：初本 'ㄲ'

KNL1099 (書-鄭惟一-70) (癸卷26:4左)(樊卷35:8左)

答鄭子中【甲子】¹⁾

阻奉誨帖，久矣。茲忽承睹辱報，鳴琴之暇，日有佳趣，無任欣慰。²⁾ 示喻向外之患，滉自在裏許，何敢有點檢高明那一邊事？然以滉所料，亦意高明比來漸有此端也。蓋此邊功³⁾夫不著緊，而應接俗流·親吏民·料米鹽等事，每每作壞於外，安得而無與之俱化耶？射固男子事，聖人所重，滉亦何敢苦規於左右耶？但觀今世好此習者，無不與麤人武夫相追逐，所益者少，而所喪則多。非獨此也，國家於此一等人，待之正與武班爪牙之類爲一。如柳太浩等輩，恒欲置之南北邊遠之地，雖曰臣子之義，不擇夷險而安之，其於素業素志，何如耶？然如我迂生腐儒冷淡說話，固不當喋喋於兼文武大事業之間也，置之不復道也。憂旱之餘，公私大窘，況有土有社，赤子之命，待我爲死生者耶？伏聞風水等災，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8월 4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八月初四日】’，中本·定草本·樊本·上本 ‘答鄭子中’

2) 欣慰：初本·中本·樊本·上本 ‘欣慰欣慰’

3) 功：上本 ‘工’

貴境甚於此間云，尤所仰慮耳。約會處，雖有惡路，必不至如此間崖險之甚，非不可一往也。何者？有泉石之勝，招人以往，不覺羸馬之蹉跎，老脚⁴⁾之兢危故耳。但滉自十三至望日，連有忌故，數處上塚，皆以十一二日行之，其設祭自滉家。今示行期在九日十日云，正與家中祭事相值，似難赴會。伏想回鞭必在望後，則滉亦無故，可相⁵⁾期會於彼，惟照量更示爲佳。(三冊，謹已擎納。餘窩兒想⁶⁾已具達。不具。謹拜謝復。))

4) 脚：上本 '病'

5) 相：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 '想'；中本에는 [부전지 {'想'}疑'相'.]이 있고, 定草本에는 [부전지 '想'恐作'相'.]이 있다.

6) 想：上本 '相'

BNL1100 (書-鄭惟一-71) (樊卷35:9左)

答鄭子中¹⁾

前日未暇款叙，迨深馳仰。滉近因寒濕左脚，蹇劣不利行步，入保溪舍耳。煩白恐恐，兄孫女壻安潤屋孳弟蘭秀，歲貢生充定事，未可除豁否？未知其所犯如何，而如此請白，甚知未安。只緣家兄以姻家控憫²⁾，故煎迫令達，不得³⁾已敢告。伏惟量⁴⁾處，何如？餘未一一。謹拜白。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8월 28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八月二十八日】’

2) 憫：上本 ‘憫’

3) 得：上本 ‘能’

4) 量：上本 ‘諒’

BNL1101 (書-鄭惟一-72) (樊卷35:10右)

答鄭子中¹⁾

前者勿遽未款之恨，正如來喻，今蒙書問，開慰何勝何勝？滉患脚，雖非大段，尙此盤跚，可爲笑恨。惠致葵杯羅鉢，得於破杯之後，珍荷珍荷。但差大不合於儉歲屢空之用耳，呵呵。魚鱗佳味，亦感亦感。示喻欲聞過之意，甚盛。滉向來不自攻過，而妄獻規切之言，非一二，頃日亦不爲無之，何云不言歟？所可愧者，城主於滉，太無警誨之及耳。適值日暮人忙，且有來月之約，姑未罄竭愚抱，伏惟照諒。謹拜謝復。

今朝有冗懇，拜一狀，至今悚仄。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8월 2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八月晦前一日】'

BNL1102 (書-鄭惟一-73) (樊卷35:10左)

答鄭子中¹⁾

聞有行聲，已深慰佇，蒙惠書喻，許以回程垂訪，款奉不遠，無恨數日之遲也。拙疾固是濕證，而旁證多端，又非獨濕，老境分內事，何足爲怪？第緣此，日用工程不能專一，爲撓耳。此中尙未見試榜，傳聞只琴夾之一人得參云，可知老天今亦不爲趙士敬借一條通路，可爲一笑。餘留面悉。²⁾ 謹拜復。

因憑姪聞本縣紙貢之弊，他亦類此，令人氣悶。且凡書外封，用大狀紙，乃分疏修敬之禮，非頻頻相³⁾繼之道，況以紙貴如縣，而於滉每用此式乎？今後只用片幅爲望。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0월 1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十月一日】'

2) 悉：上本 '審'

3) 相：初本 '常'

KNL1103 (書-鄭惟一-74) (癸卷26:5左)(樊卷35:11右)

與鄭子中¹⁾

近者，枉賁門筵，感荷之深。只緣稠擾，終日相望，未遂款晤。別後幽抱，倍於平日。未審還官爲況何如？前月書來，有樂聞過之意，顧以日曛便遽，草率奉答，殊有餘愧。人惟不學，故不知其不足，不知其不足，故聞過而怒。今能反是，可見其有得於學問之餘者如此，甚善甚善。然妄謂義理無窮，故爲學亦無窮，人心易染，故省改當益急，恐不可專恃往者嘗試暫得之見，而不加今日接續新得之功也。不知見今所讀何書？如何作工夫？凡百應酬間，覺得與向時何如耶？頗亦有見得到信得及處否？湜於數月病中，看《晦菴書》一過，每遇其言懇到痛快喫緊爲人處，未嘗不三復省發，如針筍身，如寐得醒，益知日前爲學，浮泛不親切，正如程門所謂“隔靴爬痒”之病。如是，何曾有絲毫得力處耶？適得南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0월 12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與鄭子中【十月十二日】’；定草本에는 [부전지 ‘甲子十一月’]이 있다.

冥 曹樾仲書云：“近見學者手不知灑掃之節，而口談天理，計欲盜名，而用以欺人，反爲人所中傷，而害及他人，豈非先生長老無有以訶止之故耶？”其下自爲謙辭，而欲令滉十分抑規之。此雖不知所指爲何人，而其言未免有墮落一偏之弊。然而自吾輩言之，實不暇訶人，而當自訶耳。何也？吾輩中心願學，初豈有盜名欺人之意？但立志不篤，遵道中廢，往往口談天理之際，游聲已不禁四馳矣。而在我日用躬行之實，一無有可靠處。然則雖欲免盜欺之責，何可得耶？故南冥之言，眞可謂爲吾輩藥石之言。自今請各更加策勵，以反躬實踐，爲口談天理之本，而日事研窮體驗之功，庶幾知行兩進，言行相顧，不得罪於聖門，而免受訶於高世之士矣。滉盛年不學，及此志力衰邁之日，始有管窺之幸，索居窮山，無與切磨。在前，猶有都中數朋友往還尺紙，得以相發，今則相戒絕之。黃仲舉，所見雖未深密，猶甚能勤懇，爲益不少，今又已矣。所望於今，惟在子中²⁾，而相見無可講，相別無誨帖。此無他，滉自懶廢而然，亦恐子中之於爲學，或不繼曩日之誠切也。如何如何？前

2) 索居窮山……惟在子中：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文峯集》에는 ‘索居’ 앞에 ‘滉’이 있다.

所云青松所索墨跡自奴家要傳致事，鄙意實不在青松傳書，欲因以致此書於左右，以求鐫警之來耳。別小紙，并希采覽。不宣。（謹白。）

KNL1103A (書-鄭惟一-74-1) (癸卷26:7左)(樊卷35:13右)

別紙

責善，朋友之道，況欲聞過而不言乎？衙屬別置外處，已非事體之宜，若大賓入館，尤當避之，乃反不避，而其軍官之類，或有秩高曾經¹⁾守令者，使寓僻陋之處，此豈非慢公徇²⁾私之失乎？竊恐改圖入內，上也；別措他所，次也。二者皆未可，則當大賓時，必須避之，又其次也。觀鄰邑之政，或有初甚得愛民之聲者，及其徵債等事，目³⁾見赤地流莩，而苛刻特甚，期於剝盡。此無他，所欲蔽錮，而失初心也。如此之事，非所慮於高明之見，然不得無過計之虞，恐宜十分斟量。國穀雖不可不徵，毋以必取盈而加忍人之政乃爲善也。

1) 經：初本·中本 '徑'

2) 徇：上本 '循'

3) 目：上本 '日'

KNL1104 (書-鄭惟一-75) (癸卷26:8右)(樊卷25:14右)

答鄭子中¹⁾

忽奉墜翰，諭意懇悉，不任開釋。頃日寒門小慶，得蒙賁然之惠，感荷深至。已修小簡，申致謝意，送在溫溪路傍奴家，以前有貴使過此取去之約故也。其約未遂，而先此委伴，兼有侑書藥清等物，殊非所料。拜領之餘，更深²⁾未安。無他，官清本非他比，加以今遭大歉，豈吾輩相贈寄之日？況其間多有不得已之事，應酬不暇。如³⁾民相知之際，只當以尺書因便問訊，以道情思，足矣。故有使過取書之約。幸須諒照，以安鄙悃。示喻俗務俱化之患・講學疏密之憂，非日加修省之功，亦難及此，甚善。⁴⁾ 滉亦慮不無其事，故前遣書中，攄說頗詳，今不復陳。望令後使之過者，取來俯察，却以數語反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0월 20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陽月廿日夕】’

2) 深：上本 ‘甚’

3) 如：上本 ‘與’

4) 示喻俗務……及此甚善：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復⁵⁾之，又令過者投之奴家而去，何如？邸報所云，此中亦偶得見。所可憂者，不獨此也，難可形言，仰屋浩歎，奈何奈何？《名賢錄》，得許送示，企渴無已。⁶⁾適又曠黑紙窮，草草不具。((謹拜復。))

((奴名孫伊·終伊，兩家皆在同里路頭。))

((往取溫溪書亦不遠，故令此人往取去，并照。))

5) 復：初本·中本·樊本·上本‘覆’

6) 無已：初本·中本·樊本·上本‘無已無已’

BNL1105 (書-鄭惟一-76) (樊卷35:15右)

答鄭子中

日昨來使無事還否? 大雪苦寒, 固已心惻, 其來旣去, 聞其來時, 阻於江冰, 置馬江邊而來, 當夜受答, 念馬所迫, 冒虎豹踰山而去, 未知其後如何? 可矜可矜. 大抵古人傳書往復, 牽多喜因便風, 所以除勞弊可頻數也. 觀朱先生於陳同父, 欲勿專人, 而附書潘·呂, 轉致於周純仁, 直言其專人之勞費, 皆此意也. 今此詩簡, 若如前約, 令奈城使人, 過投溫溪奴家而去, 則無如此未安之事矣. 滉拜復.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1월 초순 추정. 禮安.

KNL1106 (書-鄭惟一-77) (癸卷26:9右)(樊卷35:15左)

答鄭子中¹⁾

忝來，辱惠報答，歷叙平素，辭意懇款，如得面晤，良深慰豁。但滉所以前日致書座下，披露腹心，不憚煩瀆者，實以索居鈍滯，無朋友切磋之益，欲先發其端，冀見麗澤之資。示喻爲學工程隨事警飭之意，圭復之餘，深自悚厲²⁾(悚厲)。所云“未嘗不操存，患不能專一；未嘗不窮格，患不能精密”，時復思之，不覺懷惕，正是寫出老拙心中事，亦當撥病強衰，更加策勉，庶少收桑榆之功耳。³⁾《周禮》不曾讀，今精力不逮，無緣讀得，每撫卷太息而已。但此書，前賢以爲周公運用天理爛熟之書。然而滉未嘗不有疑於其間者，恐其太繁密難施行也。俟他日面稟，胸中無所疑，古人以⁴⁾謂不體行，故

▶ 甲子年(明宗19, 1564년, 64세) 11월 12일. 禮安.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 1) 初本 ‘答鄭子中【至月十二日】’，定草本에는 [부전지 ‘甲子十一月’]가 있다.
- 2) 示喻爲學……深自悚厲：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附退溪先生書’로 되어 있다.
- 3) 未嘗不操……桑榆之功耳：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別祿【此下撫出退集長牋中問答句語.】’라고 되어 있다.

不能疑。此亦彼此所當警耳。畏入題目，正如所諭。人不能篤信好學，才見風吹草動，便驚惶失措，回面汙行，以蘄免於指目。爲是者不足言，吾輩正當自反，而厲壁立之操耳。人吏家，固不可姑仍舊處，有賓則避之。縣側修補之計，甚善。公債幾畢，可喜。下戶不得不徵，然莫太峻責，容令措備而納，其不能措備者，且待明年，乃是眞不擾民。蓋極凶自有寬徵之理，敲朴⁵⁾難加餓莩之民故也。金就礪儘有志，與之處，殊亦有益。但向來讀書不多，見讀《節要》書，講解之際，令人頗費力耳。(冬暖惟珍勉。不宣。謹拜復。))

4) 以：上本‘已’

5) 朴：初本·中本·定草本·庚本·樊本‘扑’

KNL1106A (書-鄭惟一-77-1) (癸卷26:10右)(樊卷35:16左)

別紙

橫渠先生曰：“人雖有功不及於學，心亦不宜忘。心苟不忘，則雖接人事，卽是實行，莫非道也。心若忘之，則終身由之，只是俗事。”

燈下作報書了，閒看《近思錄》，見得此語，有契於心，不可不使吾子中知之。子中非忘學者，然漸習之久，安保其不至於忘耶？

向聞道院，溪山清絕，釣艇新辦，((每飯))心未嘗不在鉅鹿也。吟得兩絕，置之溫溪奴((孫伊))家。用依前約，今侔人直來于此，故令往取去，幸一笑覽。對溪山讀唐·宋人詩，詩興益佳，可得惠示否？

KNL1107 (書-鄭惟一-78) (癸卷26:10左)(樊卷35:17右)

答鄭子中¹⁾

縣人冒寒遠來，惠書珍重，兼寄和詩四章。捧讀玩繹，洗此滯吝，佩荷無已。示喻“策勵”之云，滉不自量己，從前妄有規切則多矣。及得垂報，未嘗以一言相鐫責互磨礪，何耶？豈滉不能虛心求益，無有樂聞過而不憚改之意故耶？又如和詩中，反有指擬非倫處，非但示人爲難，恐人見之或惹起笑怒。後日當面稟請改也。《周禮》，所疑概與鄙意同，而先儒稱重此書處，每每有信不及之歎，當是量未廣見未徹之故耶？壁立之論，誠確論也。每見人風吹草動，便悼惶失措，皆有回頭²⁾汙行以避患之意，極令人警惕發深省也。³⁾ 縣事如此，蘇策果爲戛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2월 4일. 禮安.

[編輯考] 初本에는 KNL1104(書 -鄭惟一-75) 서간 다음에 편차되어 있다. 다만 제목 아래 주석에 “당연히 12월 28일 앞에 있어야 한다.”(當在十二月二十八日上)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 주석과 中本·樊本·上本에 의거하여 이곳에 편성하였다.

[資料考] 편지 내용의 일부가 《文峯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十二月初四日夕. 當在十二月二十八日上】’ ; 定草本에는 [부전지 ‘甲子十二月’]이 있다.

2) 頭 : 養校 [‘頭’當作‘面’.]

3) 壁立之論……深省也 : 이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憂，固宜就其中而漸圖補完。正是欲速不得，大概清心省事，爲要法耳。但兒子騫近在都下，丁景錫來見云：“有欲還左右內職之議。”雖知從前有此議，然聞之不能不以爲撓。不識亦聞之否？奇明彥因事圖歸，計已熟矣。亦不知能成否耳？讀《朱書》，甚善甚善。承許念五六欲過陶⁴⁾山，幸企幸企。但緣滉念八九日爲忌日⁵⁾，故六七日有展墓事，勢必相違，不如開正回路爲約，則無相違之弊。⁶⁾惟照諒，夜燈作此書，眼昏不一。〔謹拜復。〕

〔生鮮感感。〕⁷⁾

4) 陶：上本‘院’

5) 忌日：初本에는 [부전지] 先生外舅忌日，實在十二月念八九，而今書本草云十一月初四日，恐一字乃二字之誤。以‘開正’二字考之，十二月無疑.]가 있다.

6) 弊：上本‘敝’

7) 生鮮感感：初本·中本‘二鮮感感’；初本에는 [부전지 四字亦然.]가 있다.

BNL1108 (書-鄭惟一-79) (樊卷35:18右)

答鄭子中¹⁾

承手翰，知抵宿縣館，又有歲後枉過之約，不任欣企欣企。滉頃因雪寒，痰證峻發，艱保度日，悶悶。惠和詩兩篇，圭復珍幸。伏惟尊照。餘俟奉回。²⁾ 謹拜謝復。

▶ 甲子年 (明宗19, 1564년, 64세) 12월 28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十二月二十八日】’

2) 回：初本·中本·上本 ‘面’

BNL1109 (書-鄭惟一-80) (樊卷35:18左)

與鄭子中【乙丑】¹⁾

終日奉待行色，或恐因雨停行，而侔來乃知過去，深爲悵惘悵惘。近阻有無限相料理事，今次不得款晤，後會又未指日，可勝悠悠。佳辰正臨²⁾，惟冀珍尙珍尙。不具。謹白。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2월 1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乙丑二月花朝】'

2) 臨：上本 '當'

KNL1110 (書-鄭惟一-81) (癸卷26:12右)(樊卷35:18左)

答鄭子中【乙丑】¹⁾

前日違奉之懷，久未相叙．今日，始聞僧獄訊差轉屬於左右．知有會期，而適承侔書，諭以念日之行，欣幸欣幸．滉怯寒藏縮，今日出山舍，山花爛熳，漲淥如醅，風雩之樂，宛在目前，但梅竹二君，經寒太憔悴耳．獄辭果似爲難，然想監司因前日報牒而令刑訊，今只當因其辭而訊得其情耳．安東似不至大嫌怒也．且臨事而太顧人情，必不得其正，亦可戒也．惠物領荷．但藜腸得此，太似不穩帖耳．呵呵．餘留面款．(謹拜謝復．)

(竄往在任所，來書當送彼．)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3월 13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三月十三日】’，中本·定草本·樊本·上本 ‘答鄭子中’；定草本에는 [추가 ‘乙丑’]이 있다.

BNL1111 (書-鄭惟一-82) (樊卷35:19右)

與鄭子中¹⁾

遽遭國恤，恫怛普纏，此間無邸報，未聞上下如何，日夕燭煎。滉近上辭狀，適值變故，恐未入啓。昨得營吏報政院狀奇，似有得遞之意，感幸罔極罔極。自今始真有爰得我所之味，夜臥身得帖席，待盡巖穴矣。聖恩如天，何以稱塞？但有戴祝。不審沿牒之行何時到縣？未聞²⁾，惟珍勉珍勉。不宣。謹拜白。

今進人，乃吏文學官朴枝華奴也。枝華去年來見滉後，去下道徧遊名山，還途復此尋到，見留陶舍。其子壻有奴在治下，爲遣此奴，望須曲採進奴之言，依施俾無滯苦，幸甚幸甚。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4월 28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四月廿八日】’

2) 聞：上本 ‘聞’；初本에는 [부전지 {‘聞’}, 本草作{‘聞’}, {‘聞’}字恐‘聞’. {或誤書耶? {更詳次]}가 있다.

BNL1112 (書-鄭惟一-83) (樊卷35:20右)

答鄭子中¹⁾

頃者旋行歷縣，不及奉侯²⁾爲恨。玆枉侔書，審有陞贊關東蓮幕之除，喜賀則多矣。若以左右所處之宜言之，正有如來喻所云者，況旣失六期之限，推遷騰擢，愈涉要顯，愈見難處，實非故人所望於心契者，不知如何如何？示喻本邑迎送之弊，正然。且小民失怙恃，又當農月尤深不幸。吾鄉至此，眞無著手處，奈何？邸報投示，深荷深荷。³⁾時人攻討異流之罪如此，亦不易得，但無得請之望，又當瘳疾之初，勢難極矣。其欲停，雖似如示，恐不得不爾也。可歎可歎。見後還上，照領，《實紀》·《一統志》兩書在山舍，適以事入溪莊，今又未上，當於歷枉日，具以奉呈。纔蒙恩放，又失彊輔，臨風惘惘，不知所裁。姑俟面別之日，不宣。謹拜復。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5월 17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五月十七日夕】'

2) 侯：初本·上本 '候'

3) 深荷深荷：初本 '深深荷荷'

曹允愼遭母喪，實滉堂姊。今日聞訃，悲冗草草。
《名賢錄》王遂，有姓名而未填錄語，豈偶失照管耶？

BNL1113 (書-鄭惟一-84) (樊卷35:21左)

與鄭子中¹⁾

昨日之別，眞一夢矣．初謂可留一宿，從容叙別，如雲離思，畧不爲準備，頃刻間計，加以年少秀才在傍，話到口頭，豈能一一吐出耶？掩戶還坐，空咏古人“江天獨歸處，寂寞養殘生”之句，正所謂實獲我心者也．五言律二首，聊表行驢，笑覽爲幸．滉辭遞事，專賴權判書景由・宋德恩 台叟諸公指圖之力而爲之．如見二公，爲我致謝．雖有書簡，不可無言謝故云．誤留白版，并送去．惟行色排暑珍重．²⁾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6월 2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六月二日○子中時都事.】’

2) 珍重：初本에는 뒤에 低一字 별행으로 ‘江原方伯令前問安平昌郡守李挺安否家兄查頓郡不成形百窘罔措每事別加護頓’이 있고, [부전지 ‘江原’以下, 不錄似可.]가 있다.

KNL1114 (書-鄭惟一-85) (癸卷26:12左)(樊卷35:22右)

答鄭子中¹⁾

前月中，得見同月初九日惠書，乃貴蒼頭居臨河者，回自奈城，過門致書而去。卽報無便，其後雖見景昭來訪，又未暇坐間草率修報²⁾，稽延至今，恒抱闕然。茲復侔人爲³⁾到，投以長書，具悉前後叙說，滿紙傾倒。覺見近日檢身省己，深有感發惕厲⁴⁾之意，不任歎尙歎尙。數年來，亦竊矚吾弟志道嚮學意思，頗似劉公度 長沙時不如南康時，每懷悵訝，間亦未免形於簡牘往復之際，及得來答，殊未見有省發改度處，又聞所以居官應俗等事，亦往往誠有如來喻所云不慊見譏之病者。蓋嘗慨然太息。以吾弟明敏之資·趣向之正·學問之勤，苟親見聖賢而受其爐⁵⁾錘，則終可見實得力而有大成就者，今不能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9월 7일.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그 일부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都事子中【九月初七日】’[부전지 ‘都事’二字, 似不當存] ; 定草本에는 [부전지 ‘乙丑九月’]이 있다.

2) 報 : 初本 ‘補’[부전지 ‘補’疑作‘報’.]

3) 爲 : 養校 [‘爲’恐‘委’.]

4) 厲 : 《文峯集》‘慮’

5) 爐 : 上本 ‘礪’

然如彼。況如我魯鈍，一生悠悠，至老方悟者乎？於斯時也。爲吾弟切偲規責，固在於朋友，而自家瑣力，無植立無素積可以救拔感動人處。是以，雖或有相⁶⁾告語時，率不能向頂門上下得一針了。來書“何不痛責而峻絕”者，雖滉所難任，而實有其罪矣。不知吾弟去此西行，數月之間，因甚機關，而打發此一段大幹旋，能自回頭轉腦，出脫得誤墮窠臼裏，直向聖賢門庭作家計乎？《易》曰“風雷益。君子以，見善則遷，有過則改”，而朱夫子贊之曰：“遷善如風之速，改過如雷之猛。”昔聞其語，今見其事，真是奇特，可畏可服。⁷⁾且今反復⁸⁾兩書之言，歷數既往之病痛，一一如破的。其中如射獵酒色等之爲害，固人人所共知也。至如耽看史學，喜抄古書，乃吾弟七八年間視以爲第一事業，而一朝幡然悟其非，卽斷置之曰：“此等工夫干身心何事？”非見之明而決之勇，何以及此？夫看史抄書，昔之躬行君子，非不爲此事，但今不於本原心地上細加涵養省察直內方外之工，而惟以匆匆意緒，日向故紙堆中，尋逐已陳底粗迹，搜羅抄掇，以是爲能事而止，則是定無蓄德尊性

6) 相：《文峯集》‘嘗’

7) 服：上本‘畏’

8) 復：《文峯集》‘覆’

之功，而反益麤心浮氣之長矣。往年吾弟之始爲《言行錄》工夫也，滉非⁹⁾不知渠¹⁰⁾成之爲利，然猶屢奉戒，而欲姑徐者，無他。見吾弟年少氣銳，胸中又本熱鬧，於是，更加以史學之熱鬧，末梢¹¹⁾寧不如以火救火之愈¹²⁾盛乎？來書自責云：“日用云爲，全不似學者模樣。”又云：“不知何物作崇¹³⁾而至此？”固必有所指者。而吾意以爲此¹⁴⁾等事亦是作崇¹⁵⁾之一也。大抵人苦不自知耳，吾弟自知之明，既如此，又能知其可治此病之藥，一一皆中其證，此所以不可及也。自今以往，誠能痛湔舊習，凡看書窮理，出言制行，以至日間百爲，最先除去麤浮氣象¹⁶⁾，一以莊敬涵養爲本，沈潛研索爲學，見得此個道理真不可須臾離處，將此身心，親¹⁷⁾切體認，得以優游涵泳於其間，庶積漸悠久之餘，忽然有融釋脫灑處，便是真消息也。方有可據以爲造道積德之地。然此前頭，更有無限¹⁸⁾行程階級爲終身工夫，非謂止如此

9) 非：《文峯集》에는 없다.

10) 渠：養校[‘渠’恐‘集’.]

11) 梢：庚本·擬本·甲本·《文峯集》‘梢’；養校[‘梢’當作‘梢’.]

12) 愈：上本‘俞’

13) 崇：《文峯集》‘崇’

14) 物作崇……以爲此：上本에는 없다.

15) 崇：《文峯集》‘崇’

16) 象：上本‘像’

17) 親：《文峯集》‘眞’

爲¹⁹⁾究竟法也。且吾聞之，“非知之艱，行之惟艱。”人雖自謂已知，而所知非眞見，雖自謂能行，而所行非實得，則孔子所誨“爲仁由己”者，未驗於身，而孟子所憂進銳退速者，已有其責矣。見喻近將《近思錄》·《朱子書》讀之，其悅味猶舊，甚善甚善。更宜以一部《心經》爲早晚誦習夾輔用功²⁰⁾之地，則所謂障川之柱·指南之車·燭幽之鑑，皆可於吾身親見其實矣。黎渦之警，得非有親歷可畏事，故有此言耶？“一刀兩段”，亦嘗於《大慧書》中見此語。顧彼能是，而我乃不能是，使彼挾稊稗之秋，反高視大言，以陵轢名教中人，此爲吾徒學聖人者之大罪過大羞恥也，則朱子詩“虎尾春冰寄此生”之戒，可不勉哉？可不勉哉？來示在京時與人論辨者何事？其人謂何？他日幸略見諭爲佳。此間爲學，亦無甚頭緒。自夏末來，金伯純之弟士純來溪上，其人明穎嗜學，甚不易。初因講“期三百”，迤邐遂及於律呂·《啓蒙》等書。於是，金慎仲·惇叙·琴璵之·禹景善及孫兒安道皆會，共讀《啓蒙》，相與研究講論，多見到前所未到處，至昨方罷去，可樂也。但象數者，至理所寓，精微深妙，

18) 限：《文峯集》‘恨’

19) 爲：《文峯集》‘無’

20) 功：上本‘工’

亦非身外事，然却被日夜留心於此，亦覺德性上工²¹⁾夫不能專一，不無害事，而況他事乎？故心能主宰，則物各付物，物不能爲心害，心不能主宰，則雖作詩寫字，游山玩水，程·朱之門，皆以爲戒者，爲此故也。亦不可不知也。寄送朝報，深荷深荷。²²⁾時事如彼，固有不得已之勢·不可知之憂。草澤所爲，雖出於忠憤，而亦有過當難處者，不知終如何，奈何？中間傳聞，以道主親嫌，似當遞職，殊以撓懷，今乃以朝議，已先赴幕，好好幸幸。秋高氣清，挾天風而昇仙嶽，萬瀑千峯，指顧領略，其樂如何？恨身不得如雲²³⁾生兩翼，騰空而去，與吾弟頡頏遊戲於其間。吟賞來詩，聊自慰耳。蒙許行錄，老境臥遊之興，止有此事，企幸企幸。留來使，夜燈作此書，眼昏神疲，掛一漏萬。陽月觀餘，若承惠顧，可遂面款。未間，惟冀珍衛加勉。((謹拜。))

((順天 李龜巖處，《分類程書》求見之意，遇便當諭之。曩所云濯纓泛舟詩，得於《西山集》卷內，同封去。一笑。))

21) 工：初本‘功’

22) 深荷深荷：初本‘深深荷荷’

23) 雲：養校[‘雲’下恐有脫誤.]

KNL1115 (書-鄭惟一-86) (癸卷26:16左)(樊卷35:26左)

答鄭子中¹⁾

頃聞遞蓮幕入芹宮，已料必來覲親。昨因兒還，今復得書，備審近況超勝，若有神相於其間，其靈區真境，一經遊陟，而得驗遽如許耶？此中，伏睹赦文及十四日朝報，不勝憂灼罔措。其後流聞，旋有慶音，猶未的信。茲獲示諭，普騰驩²⁾抃，不容名言。累書警舊勵新之意，甚盛且善，惟在勉勉，終始勿替。老悃所屬，正³⁾切於此。但自念鄙駸一物，老病廢棄，無一毫與於世事，而近因韋布紛紛，輒爲人有所指目。雖知其言不足介意，而以小推大，因近慮遠，不能不以爲憂也。況公今此還朝，有大機關⁴⁾之可憂，不知何以處之？滉意如公之與我往來相熟，亦是爲人指目之一端。雖相見願切，亦不須相見，只可彼此默⁵⁾會，而各自勉焉，無乃《易傳》所謂

▶ 乙丑年(明宗20, 1565년, 65세) 10월 1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陽月之吉，子中入爲直講.】'；定草本에는 [부전지 '乙丑九月']이 있다.

2) 驩：上本 '歡'

3) 正：庚本·甲本 '止'；養校 ['止'，一本作'正']

4) 關：上本 '開'

5) 默：庚本 '點'

“大善之吉”乎？金士純輩所講，猶未十分，意欲再會，而知老拙意不樂而不果，可笑。《關東行錄》，深發臥遊之興，殆若十洲三島入我几間也。適有過客，率爾抵門，漏萬姑復。

BNL1116 (書-鄭惟一-87) (樊卷35:27左)

與鄭子中¹⁾

別後殊阻音塵，想苜蓿闌干，意味益勝。就中近得順天倅致前所要《程氏書》印本一封，今付閔中立之行，惟照領。其書聞公之風，願見而不得云云，并照。餘萬不云。

▶ 乙丑年 (明宗20, 1565년, 65세) 10월 23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陽月念三日】’

KNL1117 (書-鄭惟一-88) (癸卷26:17左)(樊卷35:27左)

答鄭子中【丙寅】¹⁾

去年十一月中，安道孫人還，奉承惠書，縷縷具悉，感意無比。緣自秋冬以來，流聞賤名多上人口舌，又有都中朋友見愛者，寄聲切責，以不能韜晦爲咎。此意甚當。由是一向畏縮，不以時報答來書，恒懷缺然。茲復自奎城轉致十二月十六日辱書，具審近事，又不勝感荷之至。既自外入，出補已難，重被銓薦，其於爲養本計，大爲梗礙，不知終何以處之？看書功²⁾程，如示固善。聚善良扶正脈之議，甚善。自餘數段，山野何敢深論？《困知記》人心道心說，分明繆³⁾誤。以寡悔之高明，其於學問，亦不可謂不深，而乃反主張其說如彼，深可怪歎((怪歎)). 龜巖有八十病親，雖入玉堂，豈久於朝耶？希正任便，深賀，不及致書。如見希正，布此情悃。((【以上報前書】)公以減祿而得閑官，因銓薦而梗外補。幸不幸之間，終歸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1월 10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正月初十日○子中時正郎】’；上本 ‘答鄭子中’

2) 功：上本 ‘工’

3) 繆：上本 ‘謬’；養校 [‘繆’恐‘謬’，下二十四張可考.]

於未諧心事，想有撓遠懷也。)) 伏惟朝廷一番洗濯，庶見更新之盛。謫還廢起，大快輿鬱，太平萬世⁴⁾，慶頌何勝？其間所可慮者，正如來喻，不於本原之地務盡其道，則一時清明景象，難保久遠。善良雖聚，將何賴以扶正脈乎？此畎畝微衷日夕仄身之憂，而不敢云者。就中病廢老物，積幾年，經幾艱，僅得以沈痼愚劣見信於上下，而恩放得所，曾未幾何，而⁵⁾復欲使聖朝踵前誤而收棄物。此誠何意見何舉措乎？((歲前，因人傳說有此幾微，續聞其論已發，滉不以爲憂曰：“正使有⁶⁾是事，子中·明彥在彼，必能力救。若於此不救。吾當絕交於二君矣。”近禹性傳寄都目政來示曰：“人言臺筭欲請召公。因鄭正郎力止而停之。果如吾所料。”滉平生所蒙朋友之力，復有大於此乎？方感荷之頃，李咸昌·季樑錄示去廿六政內有同知之除，又不能不以爲信，駭怪靡定，今詳來書請召之停，專賴公與和叔之力矣。無乃因臺筭泛言收召而有此除乎？此除雖甚可憂，猶可逡巡延引，伺便辭解。若因此而馴致他除召，則其狼狽窘迫，終必至於違忤罪譴，無疑矣。諸公於滉，本無恨⁷⁾

4) 世：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樊本·上本‘歲’

5) 而：上本에는 없다.

6) 此幾微……使有：上本에는 없다.

隙，若公等力告之如右，宜無不聽從而納人於罪罟也。))
蓋滉前日圖退，如水之萬折必東，非謂時不可仕也，只爲一味病愚之故耳。況今增年六十有六，病日益深，愚日益昏，去冬寒不甚，猶閉戶不能出頭，腰痛腹脹，痰盛咳嗽，無一日之安。不此之顧，乃以時可仕，扶舁以過竹嶺乎？細觀來喻，以時之一字言滉行止，似亦有未相悉者。竊恐公之見救雖切，不免帶此意思而爲言，故人不甚信從，而爲患不止也。更望洞照，專以老病廢棄，力圖終惠，不勝千萬祈懇之至。煩語朴和叔‘所貴於同類相知者，謂其見處得宜，俾可安分以死耳。如其不然，欲使蚊子負山，至則糜⁸⁾耳。豈相知之謂乎？’和叔有意此學，士友之慶。若於此用力之深，自知病人不可強之以使令矣。明彥今已返否？不敢廣作書問，相見，致懇協力圖救之意。靜存將用，固可喜。然亦當以漸乃爲宜。見之，亦望致賀。時甫·士炯，能不替向意否？所欲陳何限？遠書未悉。惟珍恙加重。((謹拜謝。))

((新曆與筆，拜感。前者閔御史 中立之行，順天本《程書》附上，傳否？))

7) 恨：上本‘限’

8) 糜：初本·中本‘靡’；中本에는 [부전지 ‘靡’恐‘糜’。傳本亦作‘靡’.]가 있다.

KNL1117A (書-鄭惟一-88-1) (癸卷26:19左)(樊卷35:30左)

別紙

本原之憂，既然，又今八道饑荒，二邊有釁，而聞有西征之舉。若止爲敵至策應之備，則固不得已，如其不然，而先舉討罪之兵，雖曰名正言順，釁隙一啓，兵連禍結，奈無後段何？此又莫大之憂。諸公其必念之，而非野外所宜言也。

BNL1118 (書-鄭惟一-89) (樊卷35:31右)

答鄭子中¹⁾

承惠書，知來覲而相違未奉，恨不可勝。然雖見吾弟，亦無可言之事，不如不見之爲愈也。和叔諸人，容有不知我之理，知我之實，無有如吾弟。吾弟極力營救，和叔諸人豈有終強之以至於欺天如是之甚？諸人知不可，則勢必上達天聰矣。今而至此，自今便當與吾弟絕交，更復何言？更復何言？滉必蒙違命之罪，嶺海之外乃吾死所，何言何言²⁾？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2월 22일. 醴泉.

1) 初本 '答鄭子中【二月廿二日】'

2) 何言何言：初本·中本에는 뒤에 '罪滉.'이 있다.

KNL1119 (書-鄭惟一-90) (癸卷26:20右)(樊卷36:1右)

答鄭子中¹⁾

前日惠書中，見有陞除之命，出於不意，驚駭之餘，意謂諸公有過越推重之意，故致有此事。怪公不力救，不覺言之太迫，至有絕交之言，徐思之未安。今承再書，示盡曲折，知皆出於天意如此，則公雖有欲救之心，其道無由，益愧前言之率爾也。然本其所以致天意如此者，亦恐別無他故。常時諸公，不知無狀不滿一隅，擬議非倫，至以“大賢出處占時事”等語互爲張皇夸詡，其間主時論而與滉昧平生之人，誤以爲信然，則天意之誤垂拳拳，豈可謂不由於是而有之乎？滉固不知諸公議論如何，只以今來書中明以大賢出處四字，加之於無似觀之，其常時論議，虛夸可知。而令滉有今日罹此百窘，恐公終不得辭其責也。鄙意竊謂吾輩持身與事君無異道，正當口絕夸辭，手無虛著，腳踏實地。如是，雖旁觀悶悶，無足以聳動一時，猶可以免末梢狼狽之憂。不

▶ 丙寅年(明宗21, 1566년, 66세) 2월 27일. 安東(鶴駕山 廣興寺).

1) 初本 ‘答鄭子中【二月二十七日】’；定草本에는 [부전지 ‘丙寅二月’]이 있다.

然，厥終必有大大難收拾致郎當者。拙訥雖不敢言，未免爲諸公深有虞者，奈何奈何？滉二十五日，始受有旨內云云，不許退歸，仍令徐調²⁾上來。又狀面只有工判職銜，狀中不言除工判之意，又無除目朝報之類，亦無親舊一張紙簡，茫不知何謂。竊料如重甫舊有書而今無者，必以新命太不著，物情駭異，不欲有言相預於其間故也。滉震惶靡措，前途³⁾無可留處，不得已少退，昨借得私人馬來，入鶴駕山 廣興寺，爲三辭之計。然緣有新命之故，聽許益難祈望。若不有臺章，其勢必至於獲稽違之譴然後已，撓慮非常，不可言不可言。心事若此，何怪心病之難平？因而發疾多端，羸悴委頓，見者驚嗟，亦可悶耳。所欲言者無窮，悽悽未敢，臨紙耿耿。((謹拜復。))

((李·禹二君書，領幸領幸。明彥竟不來否？))

2) 徐調：初本‘調徐’[부전지 {‘調徐’}疑‘徐調’]

3) 途：樊本·上本‘道’

KNL1120 (書-鄭惟一-91) (癸卷26:21左)(樊卷36:32左)

答鄭子中¹⁾

漂轉羈苦中，惠問三至，慰荷深矣。愚生病勢，雖似少減於榮·豐時，元證依舊，乘間往復者不一，無時了斷，爲悶奈何？三辭去人，今明當還而未還，翹渴方深，未知天意如何，兢惕無地。然新命至此，所不可承受者，極多端矣，而仍前在道俟命，則似有差病冒進之嫌。竊觀古人到如此極難處，則有請辭不待命而徑歸，如杜範·吳澂之事，可倣而行之。故今若又不得請，則復上一狀，略陳右意，因而退歸，雖甚未安，百計無他善策。如此，必觸時議，所不敢避耳。滉踪跡如是之窘，公何可爲來尋見耶？明彥之去，甚善，但到得後日，有不得如意，藏退時，不知何以處之？以病漢之難處，知無病者之尤難處也。退待龍壽等處，不如歸家之可明決不受也，故直歸爲計。餘所欲陳者山積，未敢率爾，姑此奉報。((謹拜復。))

((兒子以行祭之禮安，未還。))

▶ 丙寅年(明宗21, 1566년, 66세) 3월 10일. 安東(天燈山 鳳停寺).

1) 初本 '答鄭子中【三月十日夕】'

KNL1121 (書-鄭惟一-92) (癸卷26:22左)(樊卷36:33左)

與鄭子中¹⁾

枉顧經宿，披霧多幸，猶有無限不盡之懷²⁾，別後惘然，無以自遣。滉今此所遭，大段狼狽，至於此極。若不有在朝相知之人，超出常情之表，急出手救拔，則勢必至於得大譴謫而後已。又恐爲旁窺摘釁者之所乘，則所關豈止於滉一身耶？故所望於吾朴君，如前所云至切。諺不云乎？“縛者解之。”【朴君書中“擬人不倫，拙者之厄”，未³⁾必不由於此，故云。】千萬至祝。⁴⁾二十年前，病不堪從事遠接者，至年迫七十病加百倍之後，乃能堪遠接事耶？然此則猶未到面前事。一入都門，百責填委，乞免不免，欲辦不辦，憂窘惶迫之餘，一死固好，不死則必至於逃歸。其爲辱清朝羞士林，豈非朱子所謂“關風俗⁵⁾之盛衰”者耶？然此當以公意自告之如此，勿以滉言也。((往

▶ 丙寅年(明宗21, 1566년, 66세) 4월 1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四月初一日】’；定草本에는 [부전지 丙寅三月]가 있다.

2) 懷：上本 ‘恨’

3) 未：上本 ‘末’

4) 至祝：初本·中本·樊本·上本 ‘至祝至祝’

5) 俗：上本 ‘化’

年見留空帖，曾寫之，前日忘未奉還，今追寄。幸視至。
餘清和好行。不宣。))

BNL1121A (書-鄭惟一-92-1) (樊卷36:34右)

別紙

前日所舉吳幼清事，其末有褒賞等事，切不可援言。公所云范景仁事，不知無此等相礙事否？雖無之，其人太高，又不宜舉云。公須考得故事之切當而無礙者，援告圖之，又幸。

BNL1122 (書-鄭惟一-93) (樊卷36:34左)

與鄭子中¹⁾

連日得見兩報書，深荷然諾之意，不須三復。煩告但細思之，所援以爲言，如崔·吳數公，既是名賢所遭之時，又似不好。若聞者曲生註解，以成罪目，何所不至？慮至於此，不覺寒心，深悔發言之不審也。乞須曲諒此意，但與和叔極言滉狼狽之狀，以圖朝廷棄置之意而已，不必舉此數人爲故事而言之也。若和叔以無故事爲疑，則公可自考據他事之切當而無礙者告之，極善極善。或他未有可援，則公自以己見微指崔公終不出而得致仕之事以告之，以堅其意，足矣。千萬勿涉辭於滉所云，幸甚幸甚。專爲此故，更煩此簡，惟在切照。不一。

滉今日所遭，非但滉一身事，亦不無有係於公與和叔後日之患，不若善共圖免，庶無後憂也。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4월 8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四月初八日】'

BNL1122A (書-鄭惟一-93-1) (樊卷36:35左)

別紙

追送此簡于榮川而不及，今此附便傳上者，爲公不可不知此意故也，前乎公未入京，得蒙遞閑之命，感幸莫喻。但憲秩知樞，依舊重壓，切欲終遂辭免，方蒙恩旨，卽復控辭，瀆甚未果。前日所望於和叔者，今正在此，幸須極置¹⁾力於其間，懇祝懇祝。滉追恐。

亦非望於今日卽圖，謂異時觀勢圖之耳。

1) 置：上本‘致’

KNL1123 (書-鄭惟一-94) (癸卷26:23右)(樊卷36:35左)

答鄭子中¹⁾

連得四月廿八日五月十六日兩書，備悉諭意曲折，欣荷欣荷。去容臺入頓宮，無所不可。但李叔獻爲銓郎，而公負罰依舊，則乞外之便，尙多梗阻，果似有撓於素懷，然亦無如之何，只得安以俟之耳。和叔不拘一切之論，而能以辭受去就之宜見處，甚幸甚幸。得釋兩重，聖恩如天，濫秩峻職，尙未控辭，日夕憂悶。顧恐煩瀆，迨今遲徊，行且不免瀝乞，未知終何樣結訖也。今茲知樞，出於濫陞之餘，豈與前冒同知時爲比耶？辭不可緩而乃緩，尤以惶悚。和叔所患何證？今想已神相清茂如常矣。如見，爲我致意。明彥書寄示，甚慰離抱。其去就若如來示，有少可疑。然此人前途事，不可如老拙只守一隅，可行則當行，但於審可否之際，不可太草草耳。答書，煩附便風，令勿浮沈也。示喻《大學》通讀，獲聞餘論，何慰如之？其於鄙意未安處，欲一一報白，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6월 1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六月望日○子中時直講.】'；定草本에는 [부진지 '丙寅六月']이 있다.

自顧蹤跡如此，非與人往復辨論之時，亦緣暑病疲臥，未果如意，良深負負。醫官所聞，朝野咸慶。近睹邸報，有問安事，又伏增兢慮，如何如何？秋來覲行，度在何時？惟冀以時愍懋萬萬。不宣。((謹拜。))

((平壤印《朱書》，乃大字云。老眼甚欲得見，不知可於景錫處問得否？子精，想已發行，故不答其書。如或未行，亦望傳說。))

KNL1123A (書-鄭惟一-94-1) (癸卷26:24右)(樊卷36:37右)

別紙

格物・物格，釋辭及兩註中“極處吐”，諸公說異同紛拿久矣。嘗廣考先儒說及此者，抄合參訂，草爲一說，猶有未恰然處，藏之篋笥中。今因來示，欲更加點化，以畢其說。但其中所引¹⁾元判書太²⁾初公昔爲余言：“李晦齋³⁾復古先生，與朴瓢道人 光佑論此，朴公主 金大司成 老泉之說，爭辨甚力，晦齋⁴⁾不以爲然云云。”元公非不詳言，滉年久，記得不分明，恐或謬誤，欲更問而不可得，爲恨。公未可爲問取錄示否？雖未素知，自往或無妨。不然，因人轉問，豈無其便耶？

〔靜存，頻相見否？前得其惠書，至今未報，愧負愧負。〕

[資料考] 이 편지는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실려 있다. 제목은 ‘上退溪先生問目【丙寅】’으로 되어 있다.

1) 引：上本 ‘因’

2) 太：樊本 ‘大’

3) 齋：上本 ‘齊’

4) 齋：上本 ‘齊’

KNL1124 (書-鄭惟一-95) (癸卷26:24左)(樊卷36:37左)

與鄭子中¹⁾

霾鬱異常，蟄鹽苜蓿，起處何似？瞻戀無已。銓郎，叔獻爲之，爲養之計，仍前阻遲，向云負罰，聞亦依舊，想心事多未快也。如何如何？滉癯²⁾日劇，殆無以自支。頃得洪退之·閔景說等書，皆以“名在卿相，與草野不同。屢召不至，安有此理？”責之，至有“棄命中路”之語，令人驚惶失措。³⁾此數公皆平日見愛者，其言猶若是，其不樂者當何如也？集此成罪，恐不但嶺海爲死所也。然老病至此，不可以此而冒進，況今兩任皆遞，只爲恩命難違之故，抗顏而進，虛受虛退，此何等舉措義理耶？久稽辭免，又極未安，不得已又上此狀，未知厥終何如，仄惕顚俟而已。其末乞致仕之云，尤恐激發嫌怒。然此非獨古人以爲家常茶飯，見《筆苑雜記》末云云，是麗時成俗如彼，至成宗⁴⁾朝猶然，皆因自乞致而令致。以滉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7월 9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七月初九日】’；定草本에는 [부전지 ‘丙寅七月’]이 있다.

2) 癯：上本 ‘備’

3) 措：樊本 ‘惜’

老病當致，援例懇乞，豈爲非耶？今去別小紙，本欲示景說，更思此老意思甚好⁵⁾，猶有難盡語者，乃轉以呈左右。度今日物論，盡如洪·閔二公，則雖和叔·方叔，不無有疑於滉所爲也。公未可以己所見古人事有如此者諭知和叔諸君耶？前月，安東府便附一書，未知達否？禍福成敗，一付造物。然此身長在艱危中，何以則能得好出場耶？可歎。未卜面日，珍愛加勉。((不具。))

4) 成宗：中本에는 [부전지 恐是高麗成宗.]이 있다.

5) 好：中本에는 [부전지 ‘好’上恐無脫字, 傳本無脫.]이 있다.

KNL1124A (書-鄭惟一-95-1) (癸卷26:26右)(樊卷36:39右)

別紙

有除樞副而辭不拜者，【司馬公】有召以提宮兼侍讀，且虛門下侍郎以待，而固辭不至者，【范景仁】有¹⁾自謫所放還，在道拜殿學士・宮使，遣中使促入覲，乞歸養疾而不至者，【范純仁】有再召以給事中而不至者，【胡安國】有自除通判，至除直顯謨閣，凡七除召而竟不至者，【劉宰】有以藩臣病歸後，召以禮部²⁾尚書・參政右相，至十三疏而不至者。【崔與之】姑舉此數人，餘不勝記。

右諸公皆抱經濟之具。其出可以尊主庇民。其中除范純仁失明外，其餘老病不至於已甚，又非有其前難仕顛沛之故，而猶如彼，況如滉空疏盜名，每趨召命，輒以難仕，蹭蹬而歸，如是者四五，今又強進，道病窮迫，不得已而至此。恐不可不原情而定罪也。若曰“彼皆賢人君子，故可以道義爲進退，汝滉何人而敢欲效彼？”，此正與滉見相反。滉意妄謂彼足以當恩命而見後效，可受而

1) 有：樊本・上本에는 없다.

2) 部：初本에는 없다.

猶不受，滉不堪恩命而無後效，不當受而冒³⁾受，尤難故也。如此援引，亦恐召謗而取怒。只緣前見洪相書云云，今見令書云云，知時議皆如此，其勢將至於坐以違命之誅。雖所甘受，然臣子而得此名以死，天地鬼神所不容，恐不能瞑⁴⁾目於地下。敢此控呈，庶少露愚衷信古致誤之所由，不知令⁵⁾意可垂矜憫⁶⁾與否？惶仄無已。

3) 冒：上本 '冑'

4) 瞑：初本 '瞑'

5) 令：中本에는 [부전지 '令'字可疑, 傳本不作'令'.]이 있다.

6) 憫：初本·中本 '憫', 定草本 '憫'

KNL1124B (書-鄭惟一-95-2) (癸卷26:27右)(樊卷36:40右)

別紙

宋崔與之自四川制置使，召爲禮部尚書，以疾乞歸廣州，每有除命，皆力辭不起。後以參知政事，召命益力，與之控辭至十三疏，不許，後又辭右丞相不至，未幾，得奉祠三年而卒。論者謂與之年壽既高，胡人方熾，非筋力衰憊者之可辦云云。人¹⁾皆謂滉恩眷隆重，不可固辭，不急趨謝恩，雖滉亦不能無疑於此，今據與之事如彼，方廓然無可疑矣。所慮，時議不深考此例之有無，一以違忤斷之，則區區素抱，無路可明於聖世，故如前日所望者，不可緩耳。但此與前所云數人，皆系名賢出處之大節，如吳則其末又有褒異等事。((【此事尤不可出口】)) 如我庸人，僭妄援引爲言，又是大罪，不但喫人笑罵而已。深恐深恐。所以如此云者，只欲令吾弟，知古人臣老病欲退者，不强拘致而從其志，有某某例，因以善圖之耳。((前紙與此紙，卽付丙丁，千萬勿示人，至懇至祝。))

1) 人：初本에는 앞에 한 칸 비어있고 [부전지 ‘人’上, 本草空, 非落書也. 更詳次.]가 있다.

BNL1125 (書-鄭惟一-96) (樊卷36:41右)

與鄭子中¹⁾

聞有歸期，未知至否，殊以懸懸。臺評之由，流傳不一，甌已墮矣，固不足顧，亦緣臨事失措處，當深作後日之戒耳。然得閑之幸，想大愜高懷矣。滉尚未蒙恩放，憂惶病劇，伏聽嚴譴，奈何奈何？朴子進頃有書來，以形迹之間見責云：“此乃諸友之意也。”此何謂也？不知公亦聞之否？諸有所聞，煩冀示破。會面一事，恐不須太速，徐俟後日乃可。謹姑問候。不具。

李復古先生編述諸稿，全箱送還。有考訂處，敢白。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9월 12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九月十二日】’

BNL1125A (書-鄭惟一-96-1) (樊卷36:41左)

別紙

命召諸人中，成運已入京云，其餘人竟何如？李恒已發行云，何無入京信耶？曹植行止何如？金範・林薰，病辭後，更不促召耶？

BNL1126 (書-鄭惟一-97) (樊卷36:41左)

答鄭子中¹⁾

頃得守山附²⁾便書及諸公書，具審在道安好，又畧聞物情大概，欣慰之餘，悚惕³⁾尤劇。和叔書所云，無非敦曉鑄責之意，中間微露來書所諭之意。自聞此以來，憂恐益深，心疾轉劇，不知所措躬也。奈何？心事如此，杜門謝客，理勢自爾，非過愼也。然而尚不得如意。右點馬金某有先聲，走簡辭之，不聽而來云。此亦似爲年少輩搔擾之一端，必招謗言，恨如之何？所諭果甚不佳。其末，豈但已也？來初欲枉，固所願也，當力疾奉候。姑此拜謝。

李全仁疏所答如何？此事，愚意不欲如此，全仁不聽，奈何？雖得恩獎，恐亦非便耳。曾有小簡，送在末巖審處，尚未傳上左右耶？李二⁴⁾相所纂諸書，來時携來爲望。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9월 27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九月廿七日】'

2) 附：上本 '付'

3) 惕：上本 '仄'

4) 二：上本 '貳'

BNL1127 (書-鄭惟一-98) (樊卷36:42左)

與鄭子中¹⁾

陶僧齋²⁾捧寄書來，未及修謝，具生昨來，復承手字與明彥入都書，喜且釋憊，不可言。葺居勞役，固不得已，但其費入浩煩，殆非清計所可支吾，亦弊居曾所慣經，故知其不易，如何如何？且學職叙復已久，西計尙遠，得無有過限之礙乎？具·白二君要書紙，並收得，但今玆呵凍，似難卒應副耳。玉山先生遺事，深荷留意。其文字猶未了畢，雖了亦似難輕出也。桑林之責，正如所諭，昔人亦有因此等機會，有叫閹之舉，今徒感激暗嘿，有同寒蟬，眞所謂愧古人以忸怩也，明彥行止，果與去年圖退之意相乖，然其來也，亦出於不得已。蓋非有如拙者老病等項可籍以爲辭者，如何易避得耶？答書草上，未西行前，如或與彼書并此致之，望望。士敬又得講經，尤可喜。只有一嶺，不知如何度耳。公旣家多冗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윤10월 26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閏十月廿六日】'

2) 齋：上本 '齊'

務，又已行到豐山，距此絕遠，安能更從迂道³⁾歷此乎？
又西行不遠，難爲面晤，故今因具生之還，畧披區區。
度臨當西邁，更上一書。謹拜。

二公疏，後日到京，收寄未晚也。

3) 道：上本‘路’

BNL1128 (書-鄭惟一-99) (樊卷36:43左)

與鄭子中¹⁾

聞有諫垣之命，朱騶已到，不知當何啓途？具生之還，附²⁾一書，想已收覽否？此間有不盡遐思，無暇對披泓穎，又何能述？明彥處一封書，并前書好傳之，幸甚幸甚。鄭子精有書兼朝報來致，今未報及，李仲久修問亦未暇作，皆爲我多謝。餘惟珍恙自重。謹拜問。

物格知至等處訓釋，須細問元判處，寫示望望。因其壻有可問之勢故云。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11월 6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至月初六日○子中時獻納.】’

2) 附：上本 ‘付’

BNL1129 (書-鄭惟一-100) (樊卷36:44右)

答鄭子中¹⁾

聞有薇垣之除，想行日不遠，今朝奉一書，付從孫宗道呈似，未頃而侁書來入手，慰幸慰幸。安東還日違奉，勢使然耳。奈何？今之進赴，正是難處，元老大臣瀝血如許，猶且若是，尙何他云？然公之去就，不無有辭，在公審幾善處之耳。大概愼密爲上，不能一一。所諭辭受之難，正爲此中所極難處，亦不能爲公謀也，甚可懼也。領相疏寄惠，以豁愚抱，深荷深荷。餘具前書，對客不一。謹拜謝。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11월 7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至月初七日】'

BNL1129A (書-鄭惟一-100-1) (樊卷36:44左)

別紙

奇明彦〈人心道心說〉・〈四端七情後說〉・〈總說〉，曾已見否？今以呈似，覽後封付具生，或從孫宗道贅家送來，令母¹⁾失去也。聞李隱者之蕃，又移卜于慶安驛下小川之上，有書來相問，今此答去，請入京以附²⁾其子正郎君，令其必傳也。

1) 母：上本 '無'

2) 附：上本 '付'

BNL1130 (書-鄭惟一-101) (樊卷36:44左)

與鄭子中¹⁾

安道來云“遇行於逆旅”，稍慰離思。自後一向不聞外事。卽今想惟薇垣清切，神相匪懈。然既居其地，既不可不預時事，又不可不虞事機，不知如之何如之何？老病微物，稽違踰年，漸蒙寬典匿瑕，爲幸。惟以公等在朝，其於爻象得失之際，每以爲憂，不啻在己，不知盛意以爲如何？銓郎，向聞有闕，何久未聞？抑已有除命而此未聞耶？開春，想歸計不遲，然銓除未經，則又恐牽掣不已也。明彥時在蓮亭否？有無限商量事，病倦畏作頻書，未果。如見，幸爲致意。正苦耳中風聒無聊。不宣。惟珍懋迓慶。謹問。

《朱子書》有言及《學易集》云“見其當紹聖·元符之際，愁居懾處之狀云云”，不知此集是何人所著？《文獻通考》諸²⁾集名類中，考出錄示何如？此中無此書故云。聞光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12월 13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十二月十三日】’

2) 諸：上本에는 없다.

州新刊《朱子實紀³⁾》，如見金文之，爲求之何如⁴⁾？

3) 紀：初本·上本 ‘記’

4) 何如：上本 ‘如何’

KNL1131 (書-鄭惟一-102) (癸卷26:28右)(樊卷36:45左)

答鄭子中

((格物·物格¹⁾·欲其極處·物理之極處·表裏精粗五說,
詳在別紙.))

((公謂詣於物理，是也.【但以知言則未安.】 太輝說詣字，非
窮至事物之理.【當云隱.】))

志意之論，昔年往復盡之. 今詳所論，大概公得之. 但
二字，道理元來不相統屬，不相首尾，何可分先後耶？
本不當分而強分之，故往往未免有少費力說處. 或先或
後，當²⁾隨事各作一道理看，可也.

費·隱，以道言，乃形而上之理也. 以其顯而言，則謂
之費，以其微而言，則謂之隱，非有二也. 故曰：“體用
一源，顯微無間.” 若以形而下者爲費，則豈一源無間
之謂乎？ 禹景善亦以太輝說爲是， 引本節小註朱子說

▶ 丙寅年 (明宗21, 1566년, 66세) 12월 13일~30일(그믐) 추정. 禮安.

[資料考] 이 편지는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 〈格物物格俗說辯疑〉 중 退溪가 답한 부분
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 物格：上本 '格物'

2) 分而強分之……後當：上本에는 없다.

爲證，此誤看此段說而云云也。詳朱子意，非以形而下爲費，因或人所舉形而上下兩言而言，故先說形而下者之廣³⁾，而乃曰“形而上者，實行乎其間，而無物不具，無處不有，故曰費”，則⁴⁾其說形而下者，正所以爲說形而上者設耳，實非以費字當形而下之物也。亦如《章句》解“天命之謂性”處，先言陰陽五行，而後乃曰：“理亦賦焉。⁵⁾”今豈可因此而說天命之謂性亦爲氣乎？

又按“道不可離”章《或問》所論龜山 楊氏“無適非道”之說云云。今專以形而下爲道之用，則便是以衣食作息視聽舉履爲道，而不知其義理準則之爲道，豈子思·朱子之意乎？故《語類》中朱子諸說費·隱，皆以道字·理字言之。其中一段，雖云費是形而下者，隱是形而上者，而其下答或說曰：“這個也硬殺裝定說不得，須是意會可矣。以物與理對言之，是如此。只以理言之，是如此看來，費是道之用，隱是道之所以然而不可見處。”此段首說，略似太輝說，其末，終以理字·道字結之。太輝必欲偏守餘意之一說，而不用元來不易之本義，誠不可曉也。

盧寡悔說如彼，切恐所見有差誤處，深可慮。

3) 廣：養校『廣字當考』

4) 則：上本‘之’

5) 焉：上本‘言’

KNL1132 (書-鄭惟一-103) (癸卷26:34右)(樊卷36:47左)

格物・物格俗說辯疑. 答鄭子中.

格物【物乙格乎麻是】註：“欲其極處【_是】，無不到也。”物格【物_是格爲隱】註：“物理之極處【_是是】，無不到也。”格¹⁾字有窮而至之義。格物，重在窮字，故云“物【乙】格【乎麻是】”；物格，重在至字，故云“物【_是】格【爲隱】。”一說“物理之極處【_是】”，亦通。²⁾

〈補亡章〉：“衆³⁾物之表裏精粗⁴⁾【_是】，無不到。”

按今人以【_是是】辭爲疑者，有二焉。一謂理本在吾心，非有彼此，若云【_是是】，則是理與我爲二而分彼此，故不可也。一謂功⁵⁾效，註若云【_是是】，則是涉工夫著力，故不可也。然愚嘗歷考先儒諸說矣。程子曰：“格，至也。窮之而至其極。”朱子曰：“理之在物者，既有以詣其極而

1) 格：初本·中本 앞에 권점 ‘ㅇ’가 있다.

2) 一說……亦通：中本에는 [부전지 ‘一說亦通’此行高低, {更}議次.[부전지 此字行高低, 更議次.]가 있다.

3) 衆：上本 ‘家’

4) 精粗：初本 ‘粗精’[부전지 ‘粗精’疑乙.]

5) 功：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 ‘工’

無餘。”又曰：“須窮極事物之理到盡處。”延平曰：“凡遇一事，且當就此事，反覆⁶⁾推尋，以究其理。”西山曰：“於天下事物之理，窮究到極處。”此皆謂理在事物，故就事物而窮究其理，到極處也。何者？以理言之，固無物我之間·內外精粗之分；若以事物言之，凡天下事物，實皆在吾之外，何可以理一之故，遂謂天下事物皆吾之內耶？羅整菴有一說可取，曰：“近時格物之說，要將物字牽拽⁷⁾向裏來，然畢竟牽拽⁸⁾不得，分定故也。”】惟其事事物物之理，卽吾心所具之理，不以物外而外，亦不以此內而內，故先儒雖謂之理在事物，非遺此而言彼也；雖謂之卽事卽物，非舍己而就彼也；雖曰“詣其極”，曰“到極處”，曰“到盡處”，亦非謂心離軀殼而自此走彼之謂也。然則讀以【厓是】辭，非有與理爲二之嫌，有何所疑⁹⁾乎？或¹⁰⁾曰：“在格物工夫，如此讀可矣。至於物格功¹¹⁾效，則物理之極處，悉皆已至，乃是衆理融會之後。若云【厓

6) 覆：上本‘復’

7) 拽：初本·中本·樊本·上本‘拽’；中本에는 [부진지 ‘拽’从手.][추기 傳本亦作‘拽’.]가 있다.

8) 拽：初本·中本·樊本·上本‘拽’

9) 疑：上本에는 없다.

10) 或：竊本에는 앞에 한 글자를 비웠다；初本·中本에서는 앞에 권점 ‘○’가 있다. 여기에서는 행을 바꾸어 구별하였다.

11) 功：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樊本‘工’

是】，則語有主賓，似若方做逐件工夫，又似有著力意思，爲不可。故須曰‘極處【是】¹²⁾’，乃見其融會之妙，無容力之效矣。”曰：“是亦不然。衆理融會，乃是知至之事，不當言於物格之效。況語有主賓，亦理勢自然，何可避也？昔江德功欲訓致知以窮理，朱子非之曰：‘知者，吾心之知；理者，事物之理。以此知彼，自有主賓之辨，不當以此【知也】字訓彼【理也】字也。’今詳此說，所論乃致知工夫，實是衆理融會之妙，似若無物我之分，猶可以彼此主賓言之。況此物格之說，只是說那事物之理之極處【厓】無不到云耳，未說到這邊融會之妙來。夫指其處而言其已至，則其有主賓之辨，比之朱子之說，豈不更分明乎？【至者爲主，極處爲賓。】如此則讀之以【厓是】辭，何不可之有哉？雖於功¹³⁾效，仍用此辭，豈遽有著力之嫌乎？比如有人自此歷行郡邑至京師，猶格物致知之工夫也。已歷郡邑，已至京師，猶物格知至之功效也。豈可謂於方行方至，可以言郡邑【厓是】歷行【爲也】，京師【厓是】來至【他爲也】，以爲工夫之說，於已歷已至，必變辭曰郡邑【是】已歷【爲也】，京師【是】已至【羅沙】¹⁴⁾，乃可謂功¹⁵⁾

12) 是：甲本에는 큰 글자로 되어 있다；養校 [上‘是’字卽吐，當作小字]

13) 功：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樊本·上本‘工’

14) 羅沙：初本‘라야’

效耶？若如此說，則已歷者非人，乃郡邑也；已至者非人，乃京師也。推之以釋物格，則格者非我，乃物也；釋極處，則到者非我，乃極處也。此不成言語，不成義理，膠謬¹⁶⁾不通之說，不可從也。”

曰¹⁷⁾：“然則只從【厓】辭，足矣。何以云【是】辭亦通乎？”

曰：“此與今人所謂【是】辭者，辭同而旨異者也。夫今所云【是】者，謂物理之極處【是】，自無不到於吾心，卽牽拽向裏之病，非也。吾所云【是】者，謂衆理之極處【是】，無一不到之處也，則理依然自在事物，而吾之窮究無一不到處耳。故曰亦通。”【須於無不到下¹⁸⁾，又帶一處字意說來，方得語意。蓋由其上有處字，下又以無不到之處意看，故“極處”下，【是】辭得通。若不言“無不”，而單言格字到字處，用【是】辭釋，則同歸於上文變辭者之病。故經文物格，不可用【是】辭，惟於註文用之可通耳。】至於〈補亡章〉，則乃合表裏精粗而言其無不到，則渾淪無處之可言，又與向之指極處而言者，意思微有不同，故不用【厓】辭，只用【是】辭讀，其語意方渾成而圓活。斯義也，惟駱峯申先生得之。其說見別紙。¹⁹⁾

15) 功：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樊本·上本 ‘工’

16) 謬：上本 ‘膠’

17) 曰：癸本에는 앞에 한 글자를 비웠고 初本·中本에서는 앞에 권점 ‘○’가 있다. 여기에 서는 행을 바꾸어 구별하였다.

18) 下：《文峯集》‘中’

右，皆就舊傳諸說而論之。嘗欲以愚意爲物格之釋曰：“物【麻多】格【爲隱後厓】。”如此則中含無不到之意，而無兩爭之端，但人創聞新語，未必相信耳。

格物・物格兩註說，記嘗聞見諸公語。

滉少時入成均，時尹先生 倬爲大司成，嘗問物格註“極處”【吐】。尹公曰：“當云【是】。”問：“是謂理之極處【是】，自到吾心否？”公但曰“非也”，不言其所以非之故，每以不能審問爲恨。元判書 太初，往年嘗爲余言：“昔金大司成 老泉，讀‘欲其極處’與‘物理之極處’，皆曰【是】，後朴瓢道人 光佑主金說，而李晦齋 復古則兩處皆讀曰【厓】，深以朴說爲不可。朴亦不服，辨爭甚力。李公因歎‘今人不曉人言意，不可與論學。’”然三公所以爲說者，則皆不可得聞也。癸丑年間，滉忝爲成均日，知館事駱峯 申先生論此，以【厓】辭爲是，而略解其義，又云：“苟知此意，則‘功²⁰效’註，雖云‘極處【是】’，固亦無妨。”因手披傳十章之末而指之曰：“假如言‘讀此書，自卷初

19) 或曰在格物工夫……別紙：樊本・上本에는 별행으로 되어 있다.

20) 功：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樊本 ‘工’

至此處【是】，無不盡也.’ 豈不可也?” 滉竊詳申公此語，實得其意。蓋雖曰“‘極處【是】’，其所謂到者，依舊只是窮至其極處耳，非謂極處【是】自至於我也。”【但申公說亦有未盡者，極處無不到，實謂衆物之極處無一不到之處也。如以傳十章爲《大學》之極處，則〈堯曰〉之末爲《論語》之極處，〈盡心〉之末爲《孟子》之極處，《中庸》之末爲《中庸》之極處，謂此等許多極處，無一不到之²¹⁾處也。今公只以讀到《大學》一書之極處爲無不到，是爲未盡耳。】

世傳一《釋義》云：“格物，推吾之知，至於彼物也；物格，物之法度，自至於法度。”此不知何人說，而元太初云：“金老泉說類此。”滉謂金公號精於經學，恐不至²²⁾如此之謬。蓋推吾之知，乃致知事，今以言於格物，已爲非矣。謂理爲法度，尤所未喻。而謂自至於法度者，卽極處自無不到之意，而謬²³⁾則益深。²⁴⁾若金說果如此，而朴公主之，宜乎李公之不以爲然也。但物格註吐²⁵⁾，如申公所釋之意，則或【厓】或【是】，兩無所礙。李公必欲并此處去【是】而取【厓】，此則微似太²⁶⁾執耳。²⁷⁾

21) 之：樊本·上本에는 없다.

22) 至：《文峯集》‘知’

23) 謬：上本 ‘識’

24) 深：初本 ‘甚’

25) 吐：上本·《文峯集》에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

26) 太：樊本 ‘大’

27) 世傳……執耳：樊本·上本에는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申公又曰：“李復古云‘心到極處’，此說非也。若謂心到，則是已涉知至，非物格也。”元公亦云：“李公謂‘我到極處’，非也。”愚謂窮到極處，固心也，我也。然說著心到我到，便有病，只當云窮到極處，可也。

BNL1133 (書-鄭惟一-104) (樊卷36:53右)

答鄭子中【丁卯】¹⁾

近因鄭子精書，知自關西甫還都中，又見朝報，知與選製官²⁾，恐歸省之行，或未諧遂。忽奉手問，承已稅駕有日，欣釋病鬱，不可名言。滉冬間積纏寒邪，歲初暴發，痰喘徧體，無不受病，證勢險烈，衰殘氣血，掇喪殆盡，數日來僅得舉頭。然尙守床席，未敢出外見客，以畏寒忌風故也。前書所云，聊達鄙悃，豈敢妄議於去就之間乎？華使之來，朝無收拾使令意，自垂死病身言之，固爲寬恩大幸，若自臣子義分言之，平時沐浴膏澤，緩急莫效消³⁾埃，豈理也哉？況當動搖不動搖之間，必多有不平其心不恕其言者，此尤可懼之甚，而無如之何。然以如此之病，使當許大委責，則又當如何？此則不待智者而知滉之情矣。惠及香藥二封及許·奇·金·禹·鄭諸書諸物，俱領受，感愧深至。隨後當各酬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2월 8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丁卯二月初八日○子中時遷直講.】’

2) 官：上本 ‘宦’

3) 消：初本·中本·上本 ‘涓’

答．《晦菴書》，字大合於老眼，但其重如此，不知公何以能挈致耶？蒙許枉訪，企企．倦劇草率．拜復．

似聞中和郡刊《庸·學釋義》，公何不索取燒破耶？急作書託明彥使之燒去，未知書能及達否？不任慚汗．

BYL1134 (書-鄭惟一-105) (樊遺內卷4:12左)

與鄭子中別紙【丁卯】¹⁾

和叔入臺，正如所喻。明彦酒戒，書末畧及之，未知其能聽否？花潭贈典，鄙見不似來喻。滉向來亦甚慕其人，以其能奮於頽俗有以自樹立也。後來見得太自誇逞，全無帖地著實意思，若果真有所得，豈敢如此耶？而其門人推尊亦太過情，此弊不少。竊謂領相議爲是而贈典適中，恐不須以爲不足也。如何如何？昨得朝報數紙，王大妃證候甚危急，主上所以慰安祈懇之意，出於誠切，不勝歎仰之極。幸而證候稍復，未必不出於感格所致，甚盛甚盛。就中宋同知純辭召命書狀，自陳年七十五歲病重難行，意極迫切，而尙未蒙允。以此益知拙迹一展難縮，一入難出。其間滯留應接之際，寧保一一中適而無悔吝乎？積失積毀，駭機飛禍所由而發，一拙或敗，恐不能無累於諸公，亦勢所必至也。傳語和叔·明彦諸公，必須相與周旋，令拙跡仍舊置諸草野中，無所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3월 1일~20일 추정.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別紙[三月]' [부전지 {與鄭子中別紙當入拾遺.}]

預於時事，庶幾可保年歲間。拙者安，則諸公安矣。如何如何？千萬千萬。鄭·具二君書紙，病未及寫，然俟稍安不至忘失耳。欲言甚衆，書何能悉？

BYL1135 (書-鄭惟一-106) (樊遺內卷4:13左)

別紙

僕曾與和叔書別紙，論己卯事云：“比之博者，一手虛著，全局皆敗。自今思之，非但一手，每手皆虛著，加以誤著，安得不敗？”今日朝賢欲獎用虛名士，以聳動觀聽，已是一大虛著，況復有大誤著數手在前乎？太尹事，其必有兇謀。當時雖不能明知，其必無兇謀，今日又豈能明知？況其時可疑蹤跡，非止一二，今豈可追救？尹不可救，則二柳又安可救？三者皆在不可救，則功雖有濫，請罷尤難。元祐諸賢，革新法，復舊法，小人猶託三年無改之說，以起大禍。況此事所關，非革法之比，諸公何不思之甚¹⁾，欲放手誤着乎？若使已誤，吾輩亦不可謂在家不知。公近若遣人入都，須密與明彥書，具道此曲折，使及其未著而力圖止之，幸甚。【兼須力止諸賢銳志欲速，張皇更變，鼓作紛紜等事，并勸之。】²⁾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3월 1일~20일 추정. 禮安.

1) 甚：初本에는 뒤에 ‘而’가 있다.

2) 兼須……勸之：初本에는 별행 본문(추신)으로 되어 있다.

BNL1136 (書-鄭惟一-107) (樊卷36:54右)

答鄭子中¹⁾

想西行在近，或欲佯候，發日私冗乏人，久負鬱恨。反蒙墜翰，愧感不已。知公有營造此²⁾事，曾所慣知，出入安得如意耶？滉兩朔臥病，今亦未剗病根，種種間發，命下之後，稽滯至此，惶震日深，無地自容。奈何？但從前製述抄人，皆臨時赴都，姑以此爲辭，觀其間病勢以處之。此目前苟爲計如此，心中亦自籌度，前既不敢當異恩，今復欲辭例召，誠有甚未安者，故如此云云。然入都之後，事事皆難處，只以頃日諸被召人等在都下時紛紛事觀³⁾之，鄙人事體，又有甚難於諸人者。誠恐或有因致駭機之發者，無乃不如掃萬停行之爲愈也。得都下親舊人所云，亦不一，或云“不可不來”，或云“諸卿相意亦不謂其必來而然也。雖不來，不至相怪也云云”，若此言爲是則尤不必強作也。況一入難出，其末叵測，

▶ 丁卯年 (明宗22, 1567년, 67세) 3월 26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三月二十六日】’

2) 此：上本 ‘化’

3) 觀：上本 ‘言’

慮患未易究陳，只在默喻也．如何如何？至京後審量時勢，速以喻及，懇懇．如公去就，不至甚難而未決，果爲未安．秋來之計，若諧則甚善甚善．持示諸書，許·禹·金·鄭皆已報去，明彥書今修答去，李仲久及平安方伯謝簡并上，照傳爲望．士敬得中，可喜．迷孫不才不中，何怪？餘在別紙．人忙不宣．謹拜復.⁴⁾

4) 初本에는 [부진지 何無別紙.]가 있다.

KNL1137 (書-鄭惟一-108) (癸卷26:29左)(樊卷36:55右)

答鄭子中【丁卯】¹⁾

別後，秋且向盡，日以馳思。金而精奴來，傳去八月二十日書，喜慰可知。滉頃者之歸，誠有徑率不情之疑。當時已料其或致紛紛，今之所聞，過於所料，殊有不可曉者。然靜言思之，亦不足怪，何者？諸公於滉平昔所苦心處與頃日所大懼者，一切不問，而惟以情之一字斷置。非惟諸公爲然，如吾子中與和叔亦然。非惟²⁾兩君爲然，雖如明彥，亦不過如是而已。如之何不以爲罪耶？大抵聲聞³⁾過情，古人以爲大恥。滉乃因此而賭取卿相之位，此何等辱名與喪節事耶？躬乏世用，知無以上報誤恩，只有辭退一段事，庶可以灑濯無恥之累，思欲以此少伸報效。所以忍窮餓，觸雷霆，極力以辭退，此滉數十年來所苦心處也。因事召至，猝遇大變，攀號痛迫之餘，又奔走詔使之至，氣力敗矣，精血漸矣，奄

▶ 丁卯年 (宣祖 즉위년, 1567년, 67세) 9월 20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九月二十日○子中時佐郎.】’，中本·定草本·樊本·上本 ‘答鄭子中’；定草本에는 [부전지 ‘丁卯九月’]이 있다.

2) 惟：上本 ‘有’

3) 聞：初本 ‘問’[부전지 ‘問’本草亦作‘問’，恐‘聞’字之誤也.]

奄微喘，死與爲鄰矣。正當此會，春官⁴⁾寵命，出於新政，委篤困憊，無以供一日之職，則不⁵⁾得已又請辭職，至四至五，而始蒙允矣。前後疾病忝竊無狀之由，歷陳而上聞矣。此又何等猥賤與厭薄事耶？既負先朝，又墜新命，人臣之道，掃地盡矣。使古人介於義分一毫不放過者，當此際，不知其尚且持空情諉山陵而淹滯不去乎？以愚所見，致身之地，義有不行如是，則義轉於退身之路，明如日而急於火，不容昧，亦不容緩矣。若是而猶不知去，因仍尸竊，病遂不救，溘然而逝，則向之所云數十年苦心者，終安在哉？此又滉頃日之所大懼也。如使滉不職辜恩而猶可仕，則已過數十年間，皆當享有榮祿，何苦而必退乎？前既以退而少免僣冒之恥，今豈可蔑退義，徇留情，而自作愆尤乎？滉之此歸，雖多曲折，而此數條尤其大者。諸公苟能息怒平心，設以身處其地，徐究而熟察之，則前後心跡，可通爲一義⁶⁾，了然一出於多病無能，畏義慚恩，欲少自附於廉恥之所爲，其心別無邪辟，恐不須深以爲罪也。雖然，曾在都下，略道一二，而數君之聽既不入。今茲遠來，已難追

4) 官：上本 '宦'

5) 不：上本에는 뒤에 '而'가 있다.

6) 義：上本 '理'

悔，而諸相之怒又如彼，以此成罪，無不足矣。奚待⁷⁾後時之他議哉？惟當惕息省愆，恭俟譴罰而已。奈何奈何？然因是而過情之聞⁸⁾可泯，冒濫之爵可褫，反本還原，以畢餘生，則天恩罔極矣。他尚何望哉？所喻見愛者有疑，是亦恐不然也。人心之靈，無不燭破，天下義理，昭如日星。苟能持此，揆人心跡於出處去就之間，其亦何相疑之有？其所爲，不乖於義，不畔於古，則毋徒以情而疑之；誠乖於義，畔於古，則便可草絕交之書以相處，如之何其浪爲消縮之有哉？明彥來歸，亦有書來攻頗急，未免略報，想未必肯爲然諾也。劉病翁詩曰：“道同符片諾，志異勞事⁹⁾媒。”旨哉言乎！向聞卒哭後有來意，定否何如？李典翰 後白¹⁰⁾氏處詔使所定諸儀註，可索取來示否？李君曾許以膽示。似聞其中值病患，未必記得，須公自以意問取，爲佳。（謹拜復。）

（近以鄙意試告士敬，士敬忿然作氣而答之，亦不致思於其間，亦與¹¹⁾公等無異矣。）

7) 待：上本에는 없다.

8) 聞：初本 '問'

9) 事：中本에는 [부전지 '事'字他本作'百'，傳本亦作'事'.]가 있다.

10) 白：上本에는 [두주 '白'恐'伯'.]가 있다.

11) 與：上本 '如'

BNL1137A (書-鄭惟一-108-1) (樊卷36:58右)

別紙

因山慘淡¹⁾，厥衛載臨，百僚追攀，同展哀痛。病臣無路，來依古寺，眞罪人矣。挽詞製上，後時必不用矣。公如下來，元稿推取齎來，爲望。其中翻成晷昃嗟昃誤作晷，恨仰。

1) 淡：上本‘憺’

BNL1138 (書-鄭惟一-109) (樊卷36:58右)

答鄭子中¹⁾

拜承在途飛簡，知歸覲好行，且悉恩霈普被，蕩雪在亡之冤，喜驩悲慟²⁾，兩不能裁。太平萬歲，讚誦無已，讚誦無已。此事，鄉村所聞，殊未端的，雖聞家兄，亦在復職之類，只有入啓之云，未聞發落如何，日以疑鬱。今所示雖亦未有發落之報，公之在都，非有他礙³⁾，則其終受天恩無疑矣，益增感泣無涯。諸公不以滛罪戾見擯，猶多存問，捧書愧荷，無以爲喻。公之此來，想非速作還朝之計，或可嗣音？今茲信至，夜起作書，眼昏燈下，掛一漏萬，恨恨。謹拜謝復。

孫兒安道自北當還京，竊上京已久，皆無書，未知何故。申暹罷已下鄉否？崔德秀亦無書，可怪⁴⁾？

▶ 丁卯年 (宣祖 즉위년, 1567년, 67세) 10월 18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十月十八日子夜】'

2) 慟：上本 '痛'

3) 礙：上本 '疑'

4) 怪：上本 '愧'

BNL1139 (書-鄭惟一-110) (樊卷36:59右)

與鄭子中

猥煩禮安歲貢，權思敏者，所謂天下之窮民無告者，事有不得已定此役，赤手上來，此乃李龔巖外家切族。鄉人皆委滉極¹⁾濟其急，吾何能著手其間乎？徒切矜惻，徒切矜惻。此於免新立役，固無望矣，雖定吏輩奉足，俾出童叟，萬無一供。詮聞其類有如此者，卽移文本官，定相當軍役，有前²⁾例云。公須援此例，以此處之，卽成給定役關，幸甚幸甚。此意亦告叔獻，共圖之，望望。謹白。

欲令兒子進告此人窮急之狀，聞入仕未果，敢以簡達。

▶ 丁卯年 (宣祖 즉위년, 1567년, 67세) 10월 19일~25일 추정. 禮安.

1) 極：初本·中本 '拯'

2) 前：上本 '詮'

KNL1140 (書-鄭惟一-111) (癸卷26:32右)(樊卷36:59左)

答鄭子中¹⁾

昨因具贊祿之還，欲奉一書，因事相違未果，爲恨。今更專使惠書，誨諭諄悉，感佩何勝？近日²⁾霽恩，曠古所無，天人感動，太平之慶，自今萬世。此中窮僻，昨今始加³⁾承聞大概矣。但其十四人中，圭菴之冤未洩⁴⁾，此尤可痛耳。基景等事，初甚疑之，今果如此，幸甚幸甚。鄙人行止，衆議如彼，固應有之，不怪不恨。在吾人中，亦無洒然見徹，隨聲應和，爲可慊也。所以前日不得不開口分疏。其與明彥者，尤說得索性。⁵⁾近見其答書，雖間有唯諾之語，其實含⁶⁾譏帶弄，正如作⁷⁾好語以誘止兒啼也。如今公書，雖有“頓豁”等語，竊恐公

▶ 丁卯年 (宣祖 즉위년, 1567년, 67세) 10월 26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十月廿六日】’

2) 近日：初本에는 뒤에 ‘垢號’가 있다.

3) 加：中本에는 [부전지 ‘加’恐‘知’].[추가 恐非‘知’字].[추가 傳本亦‘加’.]가 있다.

4) 洩：養校 [‘洩’恐‘雪’.]

5) 索性：擬本에는 [추가 ‘索性’ ㄹ장제 ㅁ음대리]가 있다.

6) 含：上本 ‘含’

7) 作：上本 ‘昨’

若自未到洒然處，只以吾言不欲有異而云云，亦何能大相遠也。然大綱滉所處若至十分，則安有此議？莫非己所惹致，無所歸訾，惟以因此得還本分，永作老農，爲大幸。不意昨奉有旨，召命又下，乃十三日命也。而朝報云經筵官⁸⁾所啓。不知何員又如此拈出，使因以益致紛紜也？且安有人臣過壘山積，而能盡勸講之職者乎？啓員之意，誠不可知也。而當此隆冬⁹⁾，作行極難。假使不死至京，必被彈章，遭逐而出，豈不大爲聖明¹⁰⁾舉措之累乎？不得已又將乞回召旨，不知又更有何事，惶惕罔措，奈何奈何？示欲共作山房數旬相聚，此固甚願。但病骨畏寒如虎，冬月山居不得，又蹤¹¹⁾跡如此，而朋友相從講學，無乃未安於心，而起謗於人乎？此其爲魔障，良可歎也。〔餘具別紙。惟祈侍慶茂福。不宣。謹拜白。¹²⁾〕

8) 官：上本 '宦'

9) 冬：庚本·擬本 '寒'

10) 明：上本 '朝'；養校 ['明'恐'朝']

11) 蹤：上本 '縱'

12) 白：初本에는 뒤에 '別紙'라는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다. 中本에는 '別紙【文不錄】'이라는 제목이 있고 [부전지 同上書札家藏.]이 있다.

BNL1141 (書-鄭惟一-112) (樊卷36:61右)

與鄭子中¹⁾

伏想侍歡外，學履日有清迪。滉今日畢修狀，借人於榮守上送。切²⁾恐緣此又得稽違之罪，憂悶³⁾奈何？今茲榻前拈出，不知何員所爲耶？公在京日未及聞知而來耶？無乃朴和叔否？此人非不相愛，但猶有不相知處，惟主爲國得共事之人，不知如滉者不可與有爲也。況正當顛沛之時，加此難處之事，殆與⁴⁾落井下石之比，何有於相愛之意耶？因遣人修賀權震卿兄弟，聊此附問。〈動靜格物說〉，尙未搜得。謹拜。

吳子强送紙，其一朴舜元也云。未知舜元是何人？示破。

▶ 丁卯年 (宣祖 즉위년, 1567년, 67세) 11월 29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陽月廿九日】’

2) 切：中本에는 [부전지 ‘切’當改‘竊’].[추가 傳本亦作‘切’.]이 있다.

3) 悶：初本 ‘悶’

4) 與：上本 ‘若’

KNL1142 (書-鄭惟一-113) (癸卷26:33左)(樊卷37:3右)

答鄭子中別紙

嫂叔無服，當時只據《儀禮經傳·君爲臣服》等數圖而類推之，疑當如此。今番歸舟，借載《通考》·《通典》等書以來，閒中披閱，始見歷代所云“繼統之服”如彼，乃知前日輕信一書，不徧考閱，而妄出大關之語，不勝愧慄。此事，明彦書中，極其辨論，心服不已¹⁾。但其稱號之辨，於鄙意不能無疑，後日當面論之，今不暇耳。往年格物·物格等及其註吐釋，承辱詢。近已條釋頗詳，欲奉寄，偶忘置處。後日搜出，因便附上。此釋，李仲久亦有問目來，大概與公問同矣。

“今如是明如是”之說，誠然誠然。病物正坐如是，以至此日，昏眩劇甚，難以策勵，浩歎而已。

▶ 丁卯年 (宣祖 즉위년, 1567년, 67세) 11월 1일~5일 추정. 禮安.

[資料考] 이 편지의 ‘往年格物……大概與公問同矣’ 부분은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韓國文集叢刊42, p.221)에도 실려 있다. ‘上退溪先生問目【丙寅】’이라는 제목 하에 앞의 편지 KNL1124A(書-鄭惟一-94-1)에 연이어서 수록되어 있다.

1) 不已：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 ‘不已不已’；定草本에는 [뒤의 ‘不已’에 말거표시]가 있다.

((聞金季應當過彼，與之款²⁾別，好好．滉適與相違，恨不可勝.))

2) 款：上本 '歎'

BNL1143 (書-鄭惟一-114) (樊卷36:61左)

與鄭子中¹⁾

歸來，想日有佳趣。前去鄙書，今已達否？書中所云灑然處，亦非謂滉所處盡善而到灑然處，只是謂吾弟若見得義理²⁾到灑然處，則滉頃者去留之際，去重於留，決然不得已之義，昭如日星，無可疑處，可以見得灑然云耳。山陵前徑歸，固缺始終之義，既大失官³⁾守，何容尸竊以因循？況朝夕恐死尸位之心迫之耶？格物物格說送呈，覽後付具贊祿寄還爲佳。此說未知是否，然積數十年尋究窺斑⁴⁾者，幸留意，疏謬處批示，望望。偶有便風⁵⁾草草。

▶ 丁卯年 (宣祖 즉위년, 1567년, 67세) 11월 6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十一月六日】'

2) 理：上本에는 없다.

3) 官：上本 '宦'

4) 斑：初本·中本·上本 '班'

5) 便風：上本 '風便'

BNL1144 (書-鄭惟一-115) (樊卷37:1右)

答鄭子中【戊辰】¹⁾

忝來承手翰，伏審侍迓新慶，神相多福，欣賀萬萬。滉與老病俱入新年。去年此時，因應接之擾，忽得重病，辛苦特甚，今當其境，多有可怕之端，惴惴度日，又已入春，溫暖將近。前下待溫之旨，何以結末？百思千度，卒無可以承當之者，不免修一疏章，粗叙顛末，以祈懇乞免，或因以更忤朝意，未可知。然禍福姑置之一邊，且當如此救目前之急耳。明彥欲我之此行，此最不知我之甚，他尚何云哉？早晚公見我疏，當畧知此間意耳。凡書中事，未及報答，而安東行忽來相迫，未得畢書，姑此奉去，來使所見，後當因便更詳，惟恕諒。謹拜。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월 6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戊辰正月初六日】'

KNL1145 (書-鄭惟一-116) (癸卷26:39左)(樊卷37:1左)

答鄭子中【戊辰】¹⁾

前日復書未了，安東來迫，報辭多漏，愧愧。示喻工夫荒疏，不易如此省覺得，庶可因此回頭轉腦，漸次加工，振厲修治，行得義理蹊徑，入得聖賢門庭，當有日矣。若只如此慨歎，忽復忘廢，爲係縛，爲誘引，恐與尋常不省覺者不大相遠也。如滉增²⁾茲多口不啻鑠金而漂山，此則當以理排遣，不足以撓吾事。只是被一二公於榻前拈出揄揚，大不近情，太失倫擬，以致聖主誤垂眷意。前事既如彼，以若此老病多罪過，萬無承當之理，方修得一疏，拜上之際，又以天使時應接，召命來下。已上之疏，不可中止，今下之命，行則與疏中陳乞辭退意太乖，不行則又涉稽違，眞所謂進退狼狽者。心緒惶惑，面前無一恰好田地可立脚安身處。奈何奈何？垂死之境，長在窘束憂擾中，此大妨心地工夫。可嘆可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월 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正月初九日】'，中本·定草本·樊本·上本 '答鄭子中'；定草本에는 [부전지 '戊辰正月']이 있다.

2) 增：養校 ['增'恐依經文作'憎'.]

嘆！宣城除日之來，只隔數日，難待難待！明彥所答，如所喻則甚善，但其欲滉之出，此大不可曉耳。格物等說，未知鄙說果得與否，但諸人既執偏見，恐難回也。《儀禮》，韓公猶云難讀，況未曾讀如滉，何能知哉？今欲讀之，非老人事，未果耳。公讀《論語》甚好，恨多違，未有對榻之望耳。沈方叔所囑，不敢作之意，曾已具告于左右，又已懇辭于李仲久矣。蓋向來但做碣文，自去秋冬，困於衆口，碣文亦不敢作，況大家碑文乎？須以此曲謝。³⁾

3) 曲謝：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望望’이 있다；定草本에는 [‘望望’에 말거 표시]가 있다.

BNL1146 (書-鄭惟一-117) (樊卷37:3左)

與鄭子中¹⁾

爲養求外，得縣便²⁾近，邑人之望，亦符宿願，深賀且慶。未審何日發程？天使時多事，飢民待哺，惟祈過駕趣赴，是祝。滉自劾疏末，未知有何事，日深³⁾憂惶，去年之病，多有其漸，左膝疼痛，不能運步，閉縮度日。伏惟尊照。謹拜賀。

城主初歸，與滉書，奇明彥外，他皆以滉爲不可不再來云。滉聞之喜甚，亦每謂早晚爲滉圖遂退閑者，必明彥耳。今則明彥乃如是，何前後之相違耶？不測自劾事如何，不敢答其近書。如見，爲致意何如？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월 15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上元日○時子中初除禮安.】'

2) 便：上本 '吏'

3) 深：上本 '甚'

BNL1147 (書-鄭惟一-118) (樊卷37:4右)

答鄭子中¹⁾

昨拜一書，修上賀忱，茲忽伏承寄書，具審諭意，感幸尤深尤深。春分不遠，謝恩赴任，正宜趁²⁾速。謹承示意，喜副民望。從馬等事，雖有署前之嫌，事勢所不免，亦人所通行，自家辦³⁾行，曾未聞有之，勿疑爲之。但就其中所可除弊者除之，足矣。滉行止之難，前書畧陳。二月旬間發行，乃邑人誤傳，但席稿以俟嚴命而已。惟祝行色珍戢。不宣。謹拜復。

曾見《大明理學錄》章楓山錄中蔡清所與董遵道書否？滉非敢擬楓山，事之不可出，則甚於楓山，恨今世無一人作蔡清見識以處滉也。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월 17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正月十七日】'

2) 趁：上本 '赴'

3) 辦：上本 '辨'

BNL1148 (書-鄭惟一-119) (樊卷37:5右)

與鄭子中¹⁾

伏問行色入洛，體候何如？馳仰。民又遭異數之命，駭迫罔措。不知自劾疏入，朝意如何處之？恐或蒙恩命停召罷閑，日夜禱祝。惟祈促駕來赴，道間珍愍。不宣。謹拜問。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월 25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正月二十五日】'

BNL1149 (書-鄭惟一-120) (樊卷37:5右)

答鄭子中¹⁾

下車伊始，卽蒙存問，兼寄示京中親舊書信，不勝感佩欣慶之至。滉罪戾窘蹙，尙不死滅，今得諸人書，益深惶駭，無所措躬。且承明日辱臨之示，感悚尤極。但滉自頃²⁾用心病日增劇，日寒如此，難以迎拜。卽刻三寸姪妻物故，病中遭重服，益難於應接等事。伏望曲賜寬諒，勉停賁然之辱，不勝幸甚。謹拜賀。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2월 22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二月二十二日】'

2) 頃：上本 '傾'

BNL1150 (書-鄭惟一-121) (樊卷37:5左)

答鄭子中¹⁾

伏蒙再諭，惶感²⁾之至。兄子名宰者，居安東地，其妻死，昨日聞訃，敢達私悃。然示意如此，敢不謹依？伏惟照諒，謹拜復。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2월 23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二月二十三日】’

2) 感：上本 ‘蹙’

BNL1151 (書-鄭惟一-122) (樊卷37:5左)

與鄭子中¹⁾

傳聞昨日當還官，無乃因雨停行否？自歲前空官，下車未幾，去又久留，下情皆有顚望。伏望促駕以逕，用慰群情何如？就中弊家今方燒瓦，須多用空石，私家出處，無由命給，濟窘何如？謹拜煩。

再煩，滉今復擬上一疏，已草定寫訖，欲附解由色吏送上，幸命謹齋²⁾以去。且封裹所用草席，官中如有，可得一葉否？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3월 11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三月十一日】'

2) 齋：上本 '齋'

KNL1152 (書-鄭惟一-123) (癸卷27:1右)(樊卷37:6右)

答鄭子中【戊辰】¹⁾

〔伏承下諭所以遲還之故，果然，仰慰仰慰。〕撤簾以時，又出於馬·鄧之賢所不及，真是盛事，又見冤枉之未盡滌者，盡蒙昭雪，抃賀無涯。〔安東之行，承悉。但還後許臨，雖深企仰。拙軀無一日之安，使行又當不久巡歷。何可相過從爲事？伏望量停²⁾爲佳。使相書來，期欲相訪，亦已辭之。安東府伯，曾亦有辱枉之意，告之如右。并照悉。如有言及，以是答之爲望。餘冗，朝上一書已陳之，悚息不一。謹拜白。〕

〔久欲白之，因循未果。門人二字，今世所笑，請勿見稱，至望至望。欲與諸往還人處，皆請去之，非獨於城主前爲然。千萬諒照。〕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3월 11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三月十一日】'，中本·定草本·樊本·上本 '答鄭子中'。定草本에는 [부전지 '戊辰三月']이 있다.

2) 停：上本 '使'

BNL1153 (書-鄭惟一-124) (樊卷37:6左)

答鄭子中¹⁾

伏承下諭使行等事，仰感仰感。昨夜得使書，“前悉病不接人之意，且因縣吏報避寓清涼，因不遂進候²⁾云云”，豈有過見山寺之理？必下人臆料之說也，滉答書亦有以家隣瘴氣，將避入山等語。今以洞口阻水，不得入山，明上月瀾菴，以實避寓之說，以其雖蒙許不來迫見，然在家有未安故也。伏惟尊照。³⁾不具，謹拜白。【朝報，見後還上。】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3월 20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三月二十日】’

2) 候：中本 ‘候’

3) 照：初本 ‘炤’

BNL1154 (書-鄭惟一-125) (樊卷37:7右)

答鄭子中¹⁾

滉拘於事勢，皇華過行，屏跡不見，殊有未安。歸來獲蒙存問，且惠野味江鮮等，荷佩不可言。伏思近日多事作撓，又將有覲省之行，其前欲賜枉臨。聞甚踳踳，民意俟往還後，徐一惠顧，何如？伏惟諒照²⁾，不具，謹拜謝。

空石，前惠已多，匠者猶云不足，恐或猥濫，故不敢告乏耳。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3월 23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三月二十三日】'

2) 諒照：上本 '照諒'

BNL1155 (書-鄭惟一-126) (樊卷37:7左)

答鄭子中¹⁾

承辱書具悉，仰感。觀監司爲人，雖不踐成跡，亦脫畧無執滯，能解人意中事，故既不固要相見，又無相恨之意，殊不易也。亦荷留意示及，深幸深幸。盜官物人，罪重罔赦。傳聞欲勿報而自官量治，畧徵其物而全其生命，切恐必有逃躲失治之弊，今果然矣。大罪獲脫，人情共忿，可恨奈何？空石，更審問之，果不足，則當使受來，仰感亦深。就中示事，非民所敢妄議。然既蒙俯詢，亦不敢隱嘿，以負謙光之德也。西軒固甚不可，縣司亦不可無移處而占爲別衙也。假使有移司處，別占一衙，已是失體且有弊，不可之大者也。化民中亦有私憂是事者議云：“衙東軒，隨宜以笆籬等物圍排作內，以處副室，則似爲便當。既與內有隔，而亦非有別衙之弊。”此言似有理，如何？衙外軒雖不可無，然豈無隨宜草設之處乎？若以此策爲不可，則他無上策與中策，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3월 24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三月二十四日】’

不如止副室在本宅，乃是不遠之處，與來無甚異也。如何如何？然竊有所聞，爲副侍，似未盡於柔順處下之道，故事多難處。此則在城主思《大易》威如反身之戒以正家法，非細故也。七日欲出迎拜於陶山，只以捧疏人去已久矣，或值有旨陪人來到，以此伏慮，未敢出頭。伏惟尊照。謹姑拜復。

BNL1156 (書-鄭惟一-127) (樊卷37:8左)

答鄭子中¹⁾

伏承手字諄諭，謹具²⁾奉悉。偷物，人所欠，豈無耗虧之數？雖使有耗，罪亦不小。自知罪重，不信寬治之意而逃躲，其姦狡尤可憎疾。事已無及，言之奈何？示事如所諭處之，最爲上策。一以致謹疾之意，一以懲在下之失，觀勢徐圖，甚善甚善。不得近書冊之歎，在老民尤甚，長在憂擾中故也。監司爲書院措意如此，豈不幸甚？但直旨寺田，雖竟得之，恐遠處力不能及，有勞心忉忉之弊，故曾告³⁾諸君欲勿規圖。今旣爲監司所知，勢難中輟耳。七日許過，謹當迎拜。〈晦齋行狀〉，當面稟。謹拜白。【稱念謝狀修送，并⁴⁾惟照。】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3월 2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三月廿五日】'

2) 具：上本 '且'

3) 告：上本 '在'

4) 并：上本에는 없다.

BNL1157 (書-鄭惟一-128) (樊卷37:9左)

答鄭子中¹⁾

還官卽垂問札，仰荷。²⁾ 滉事，得窩兒書及朝報，疏入更下教書，令其速來事傳教，旣以教書，則當遣習讀等官如前日云。如此，終何所底止乎？不勝憂迫之至。人皆曰：“無復更辭之理，不可不來。”如滉愚惑，猶未知可進之義。況詔使臨到，國方多事，稱病避事者，動遭彈駁之時，扶曳病軀而入，是自納於臺章之擊。其他事事礙掣，欲進無路。奈何奈何？想書到³⁾今明間，正此窘蹙恭俟而已。朝報承領。今來朝報送上，照鑑。就中〈李晦齋行狀〉疏繆⁴⁾處，欲改之，前日書送兩貳相。忠順堂啓辭，當參考，并入。而所送幅紙，頓忘置處，徧搜不得，恨恨。如有元本，更命下胥謄寫寄來爲幸。餘惟南行珍重。謹拜復。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4월 4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四月初四日】’

2) 荷：上本 ‘賀’

3) 到：初本에는 뒤에 ‘在’가 있다.

4) 繆：上本 ‘謬’

KNL1158 (書-鄭惟一-129) (癸卷27:1右)(樊卷37:10右)

答鄭子中¹⁾

承奉手簡，謹審鑄諭之意，無任警悚之至。滉雖迷惑，心非木石，豈不知感動於斯？只以虛僞叨大恩，其間有無限害義辱國虧名壞節事，所以不得不抵死求免。而天聽愈邈，時論不省，將納身於罪戾而後已，痛不可言。仄聞奇明彥因疏入後有啓：“某人年老病深，難於立朝，而身被難堪之命，朝鮮致仕之例²⁾，所以爲悶迫。臣意滉之上來，勿須堅留，以成其志云云。”滉聞此，不勝感歎。從前每以此等事有望於此人，而今果然矣。於我極有扶救之力，甚足嘉尚。但猶恨不請停召命，如謝玄之於戴安道，而只請勿留，故滉之狼狽之勢，依舊不脫，是爲不盡耳。若如城主，則恐不得以此等事奉望也。紫溪啓辭，藏之必固，而徧搜不得，深以爲撓。其啓雖不可皆入狀中，然必搜得而與今示及柳仁仲所示，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4월 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四月初五日】’. 定草本에는 [부전지 ‘戊辰四月’]이 있다.

2) 例：中本에는 [부전지 ‘例’下恐有闕字.][추가 傳本無闕字.]가 있다.

參酌載入，乃可。故停修行狀而稟白。承示無留本，恐終未搜得，恨萬恨萬，然如戒更搜。惠貺不敢辭，但官清如水，常時甘旨之奉，且懼難繼，何可旁及若此乎？後日，千萬停休，以安下情，幸甚。（謹拜。）

（前白停燒瓦木事，意謂已行下矣。有一匠戶輸來云：“未聞停命，已令移用於崖路之鑿。”其他戶即命勿輸爲望。此間已備燒木，故敢白。鑿崖亦非急事，不可妨農，并罷尤幸。）

BNL1159 (書-鄭惟一-130) (樊卷37:11右)

與鄭子中¹⁾

謹問行候何如²⁾? 仍恐族姪³⁾李禮綱被捕窮迫事, 城主所洞知也. 此人, 於獄事全不干涉事, 亦推官所徹知也, 但以屍身給親時參見之故, 推捉而已. 其初現身, 則亦無一事而畏恟不見, 以至舉家侵擾, 老母飢餓, 至爲憐痛. 今則其獄事已有歸著, 欲入現身, 惟恐推官憎其逃避, 加以刑杖, 不勝哀憫哀憫.⁴⁾ 欲達此意於奉化, 大獄之事, 簡囑推官, 至爲未安, 未果. 城主來路, 必見奉化, 須面告曲折, 使免捶杖⁵⁾以救窮族無妄之厄, 懇懇. 其事城主已知, 故不復一一. 謹拜.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1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五月初一日】'

2) 何如: 上本 '如如'

3) 姪: 上本 '侄' [두주 '侄'恐'孫'字.]

4) 哀憫哀憫: 初本·上本 '哀悶哀悶'

5) 杖: 上本 '杖'

BNL1160 (書-鄭惟一-131) (樊卷37:12右)

答鄭子中¹⁾

伏承辱答，感仰²⁾之至。城主近以公事久於在遠，頗有未安，然公事何病？李禮綱若蒙城主囑濟，何幸如之？落幅多惠，仰荷仰荷。伏惟尊照。適以節祠來在齋舍，草恐。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3일. 禮安.

1) ‘答鄭子中【五月初三日】’

2) 仰：上本 ‘慰’ [교정기 ‘仰’]

BNL1161 (書-鄭惟一-132) (樊卷37:12右)

答鄭子中¹⁾

伏承遣吏惠致落幅，兼示榜目，無任感荷感荷。伏惟尊
照。餘俟後日。謹拜謝。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4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五月四日】'

BNL1162 (書-鄭惟一-133) (樊卷37:12右)

答鄭子中¹⁾

拜擎墜札，且問來使，審知皂蓋雨前已還，欣仰。民今在精舍，幸無別事。大概身境未穩，百慮關心，近復上一狀，未測如何，僅僅度日，亦何能專意於素業耶？明日祖²⁾忌，今夕之溫溪行祭，此後近無他故，但雨水如此，崖路險絕，未宜辱枉。如有往復，自可用片簡，何必速耶？李全仁筭錄，未曾得見，後日投示爲望。但錄得道義語，不失旨意，亦非易事，全仁何爲率然爲此事耶？唐紙及兩冊，皆當依戒。謹姑拜復。

格物說，所諭謹悉。以所引朱子兩語釋之，則物【厓】格【乎个是】甚當。來說看得亦審細，但格之一字，有窮而至之兩字義，曰格物曰物格兩格字，皆兼兩義。然當格物工夫時，取窮字義重，故當曰物【乙】格【乎个是】；當物格工效時，取至字義重，故當曰物【厓】格【乎个是】。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1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五月望日】’

2) 祖：上本 ‘朝【두주 ‘朝’恐‘祖’.]

如此分別，方是穩恰。今以所引所釋攻³⁾破諸人必欲釋物格曰物【是】格【為隱】之說，則甚快，乃欲以改釋格物處云云，則恐思之猶有一重膜子未透了處也。如何如何？“除非”之說，率爾入思議不得，當更反復而報之。

3) 攻：上本‘恐’

BNL1162A (書-鄭惟一-133-1) (樊卷37:13右)

別紙

似聞凡係故例等事，多詢用下人說，故吏史輩，因得售其奸計，以爲前政如此，此恐爲害不少也。與其詢下人，不若鄉任人。鄉任人雖未必皆謹慎，然士人畏鄉議，不至如下人無忌憚也。他事不暇舉，此邑吹火軍之弊，甚鉅，皆官人代立，秋徵其價，一日三斗式責捧。官人利之，故多其巡數，或一年至六七八巡，民甚苦之。前政知其弊，故嚴明考覈，下不得濫加巡數，止三四巡而已，民情甚悅此事。滉未聞今日下人濫術與否，但恐鄉任人不¹⁾達此弊，而城主未及照管，則或不無如前之弊，故豫白之耳。然此等事亦默而處之，不須云出於某人言也。

1) 不：上本‘末’

BNL1163 (書-鄭惟一-134) (樊卷37:14右)

答鄭子中¹⁾

伏承書示，謹具承悉．且審明日辱枉，尤深感荷．但崖路水損險絕，殆不容馬足，何以經行？仰慮．晦齋記語，亦謹承見．伏惟照諒．謹拜復．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17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五月十七日】’

BNL1164 (書-鄭惟一-135) (樊卷37:14右)

答鄭子中¹⁾

伏承俯問，感荷。滉特蒙天鑑下察，獲釋重負，洪恩罔極，深自慶幸。但誤眷猶前，促召愈堅，反覆²⁾以思，更辭無說，極難善處。恐終不免扶曳一行，炎酷如此，心熱間作，觸冒之危，甚於綴旒，奈何奈何？且崇品，時未改正，若此不改，不但於身山壓難勝，行於朝有甚相礙處。頃上狀內懇乞職秩俱改之意，恐因此得蒙并改之恩，悚惕企仰。以此憂撓，未見慶幸之至也。不宣。謹拜。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20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五月廿日】'

2) 覆：上本 '復'

BNL1165 (書-鄭惟一-136) (樊卷37:14左)

答鄭子中¹⁾

謹拜承問，仰感仰感。赤子尙活，不可忍視，棺槨適皆具，故卽瘞藏者，其勢然耳。明日許欲枉顧，固所願也。但曾經邑守少有出入，必有官弊，近聞城主出適新還，又將有奈城之行，而明若臨此，其間豈少勞弊耶？別無緊急事，請停明臨，以俟往還後徐圖展晤，無乃可乎？伏惟照諒。謹拜復。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23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五月廿三日】'

BNL1166 (書-鄭惟一-137) (樊卷37:15右)

與鄭子中¹⁾

煩仰恐恐。八十老姊，居醴泉得病甚重，欲嘗銀口魚，
今刻俸來。雖聞今年難得此物，情迫敢達，可得一尾
否？伏惟照下。謹拜白。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24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五月廿四日】'

BNL1167 (書-鄭惟一-138) (樊卷37:15右)

答鄭子中¹⁾

伏承示以行次之由，仰荷仰荷。滬以老姊病重，遣人探問，阻水空返，未知其病如何，憂灼罔措。銀唇非徒絕產，水漲如此，奈何？且今次水災，振古所無，田畝蕩覆殆盡，溫溪尤甚，門族舉將飢餓，啜泣冤籲，不忍聞見。伏惟照鑑。謹拜謝。

水路難通，前已陳白。況今加以倍險，何以枉顧？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5월 27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五月廿七日】'

BNL1168 (書-鄭惟一-139) (樊卷37:15左)

答鄭子中¹⁾

伏承垂札，審已好還，仰喜。老姊病探，問人阻水，昨日始還，尙彌留危重云。不知厥終，慮悶方劇。銀唇至貴，得蒙惠及，可副病索，深感深感。就中今得京報，仍授崇品准職。然則何異於前日負重之悶乎？大失本望，奈何？初意欲以望時發程，庶及小祥之期。今見此報，頓乖情緒，計慮難定，不知何時可發也。水災極慘，其中溫溪尤甚，門族舉將飢餓，不忍聞見。報使固當爲之。²⁾屢許臨枉，雖未敢每辭，崖路不通人馬云，殊爲未安。惟照量。謹拜謝。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2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六月初二日】'

2) 報使固當爲之：今按: 이 부분에는 誤脫字 또는 闕文이 있는 듯하다.

BNL1169 (書-鄭惟一-140) (樊卷37:16右)

與鄭子中¹⁾

明日城主欲臨，雖不敢每辭，以崖路險絕，殊未安。不意又聞安東之來，尤深悚惕之至。且滉姊病危重，未知有何報，應接亦甚非時，只緣時已迫矣，未及請辭於彼，奈何？惟²⁾當出候於³⁾山舍，伏惟照鑑。謹拜復。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5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六月初五日】’

2) 惟：上本에는 뒤에 ‘뿐’이 있다.

3) 於：上本에는 없다.

BNL1170 (書-鄭惟一-141) (樊卷37:16左)

答鄭子中

昨承惠然，感荷之至．寄示三紙，尤切佩幸．伏惟照鑑．
謹拜白．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7일 추정. 禮安.

BNL1171 (書-鄭惟一-142) (樊卷37:16左)

答鄭子中¹⁾

頃蒙涉險僉顧，佩幸之至。茲復寄示榜目，書意拳拳²⁾，感荷又不可言。行事，毋出此月爲計，但以熱證在身，而冒此庚熱，危慮不淺，要看近日調攝如何，而應接恐不勝煩耳。二冊，收附來使送還。其柳文第十二卷“別集”二字，當列書於《龍城集》之上，而不察書於題下，恨恨。十紙，昨已寫訖，不得依所戒，亦恨。然所書十先生詩，亦甚好，起發人意思。其間箴警語又多有之，無乃不妨乎？子固處，拙跡曾多浼呈，今又臨行當熱，何能強作？姑置之，以俟來歸後又不能然後還之，亦未晚也。惟照。謹拜復。【榜目還上。】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8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六月初八日】’

2) 拳拳：上本 ‘眷眷’

BNL1172 (書-鄭惟一-143) (樊卷37:17右)

與鄭子中¹⁾

問安. 煩恐頃因眼前事, 急貸用²⁾棺槨各一具, 今當償還, 棺板已買得, 槨板未買, 官中屬公板子無乃有否? 雖無准廣者, 合作亦無妨. 貸者雖家奴, 其妻得重病, 若不及償, 義甚不忍, 敢此煩白. 惟照. 謹拜.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14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六月十四日】'

2) 用 : 初本에는 뒤에 '人'이 있다.

BNL1173 (書-鄭惟一-144) (樊卷37:17左)

答鄭子中¹⁾

伏審書意，且示榜目朝報，仰感仰感。榜中得人，正如所喻。朴姓之人，幼學，而父名世貞，似是顛字誤傳，果爾則豈不深賀？報中云云事，殊有未安，不知終何如耶？許以臨枉，冒暑越險，至爲惶恐。然不敢違教，謹當溪上伏候。謹拜。

槲板，蒙惠極感。從當命取以來。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16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六月十六日】’

BNL1174 (書-鄭惟一-145) (樊卷37:18右)

答鄭子中¹⁾

伏蒙垂訪，從容盡日，今復寄書，示以朝報，感荷無已。
滉昨日飲冰多，而飲燒酒少，酒力不能勝冰冷氣，因失
平，今且向差矣。兒婦病亦少減，而不盡調復，不得已
退行期，觀勢而發爲計。布帽送圖，仰荷。朝報及政目
送上，照領。謹拜復。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1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六月十九日】'

BNL1175 (書-鄭惟一-146) (樊卷37:18右)

與鄭子中¹⁾

聞安奇以弊行之故入縣云，心甚悚仄。況民以身病與兒婦病退定行期，何可久留以待乎？須白此意還驛爲望。及滉到彼，可以從容奉面矣。且²⁾練時易服，禮曹公文，至今不來否？搜得文定王后喪公文謄草³⁾送上，詳此節次，則當別製新冠乃可。而今則加練於舊冠，其初入哭時，無冠可著，奈何？伏望商度示下。謹拜稟。

若舊冠既已去布加練，則今所別製者，當爲布冠，追製布冠，尤爲未便，如何？況不多日內製造亦未及也。妄意欲於所改練冠上，暫假加布以行，入哭後，去布以行終禮，何如？雖近苟且，勢似不得已也。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20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六月二十日】'

2) 中本에는 [부전지 '練時'以下, 存何如.]가 있다.

3) 草：上本 '艸'

BNL1176 (書-鄭惟一-147) (樊卷37:18左)

與鄭子中¹⁾

冰丁，每承官致，悚仄之至。就中該曹公文，今已來矣。帽上加布之意通于府前否？通則兼通漉帽事，何如？昨因奉化，聞昌樂道他驛吏預來留待者，多緣退行期，致有此弊，至爲未安。須教令退去，發行日早來，猶可及也。且安奇留待事，亦極未安。乞須懇白還駕，至望至望。謹拜稟。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22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六月廿二日】'

BNL1177 (書-鄭惟一-148) (樊卷37:19右)

答鄭子中¹⁾

伏承垂示諸事，具悉諭意。安東，馬輜便好。以此極熱，專用人力，人將喝死，豈若用馬之爲安也？惠味，仰荷仰荷。惟照。謹拜。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6월 22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二日夕】'

KNL1178 (書-鄭惟一-149) (癸卷27:2右)(樊卷37:19左)

答鄭子中¹⁾

滉不意復作此行，懷抱甚惡．城主與別，尤覺惘惘．昨早避熱乘涼，反爲涼襲．中虛暴下，連夜不止，今始少差，尙未快已．不知前途何如²⁾，疑慮多撓，奈何？示事，眞是莫大之憂，如諭意先事防後³⁾，甚善．但恐因而脫致紛擾，或有不測之端．滉意姑勿議此典，先須力勸主上以爲後爲子天經地義不可易之典，使上意洞曉其理，確然堅定，然後乃議厥典，可保無他惑之憂也．如何如何？時事可憂者，不止《小學》⁴⁾，浩無涯際．禹・金輩，每切以勿激加戒，以頃日從祀之請觀之，似不相聽信．奈何奈何？(病伏草⁵⁾率，不能掛一．惟珍勵萬萬．謹拜．))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6월 27일, 安東.

1) 初本 ‘答鄭子中【六月廿七日】’

2) 何如：上本에는 [두주 手筆‘何如’作‘如何’.]가 있다.

3) 後：甲本에는 [두주 ‘後’疑‘微’之誤.]가 있다.

4) 小學：中本에는 [부전지 ‘小學’未詳.][추기 更考.][추기 傳本亦‘小學’.] [부전지 ‘小學’本傳.] 이 있고, 樊本에는 [두주 ‘小學’未詳.]이 있다.

5) 草：上本 ‘艸’

KNL1179 (書-鄭惟一-150) (癸卷27:2左)(樊卷37:20右)

答鄭子中¹⁾

(裴汝友來，伏承手翰，具審莅度清暇，仰深欣豁。滉自患痢不久而差，道間雖他證間發，不至繁重。第孫郎朴欏²⁾苦痢，不能運身，留置聞慶，抵留忠州幾十日，乃發船行，凡廿四日始得達京，酸若³⁾不可言也。舟中又遇大風雨，身病加添，入城累日，未得出謝，明日始將詣謝。在道二次辭狀，皆未蒙允，到京更欲力辭，而上畏雷霆，下迫物情，未遂一辭，微愴竟至掃空，慨痛愧恨，無以見人也。士敬捧檄之屈，何可已耶？向喜向喜。應接之擾，倍甚於前，閉門牢拒，雖勉而難行，將不能支，奈何?)所諭先入之虞，誠可慮也。近日玉堂疏中所云，雖少定人心，然世不無觀望之人，至爲未安。疏及朝報數幅送上，照鑑。且中學生將疏爭淨業院事，奇明彦力止之。止之善矣，但不能溫辭諭止，而語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7월 23일. 서울.

1) 初本 ‘答鄭子中【七月廿三日】’

2) 欏：初本 ‘樛’[부전지 ‘樛’後改‘欏’.]

3) 若：初本·上本 ‘苦’

或鄙斥儒生等．諸生因此憤激，非但不聽，且有譁譙，不計師生之義，甚非美風．不知終如何出場也．其他時事，不暇縷及，大概敦厚未見，紛囂多聞也．(謹姑拜復.)

(盧寡悔今日歸養呈辭下去.)⁴⁾

4) 盧寡悔……下去：上本에는 없고 [추가 '盧寡悔今日歸養呈辭下去.']가 있다.

KNL1180 (書-鄭惟一-151) (癸卷27:3右)(樊卷37:21右)

答鄭子中¹⁾

〔承七月十五日書，具審雅履多福，欣賀欣賀。〕滉帶病入城，謝恩後一入經筵，緣違未再，而疊遭未安之事。既有晝夕講兼入之旨，隨除提學。方乞辭避之際，朴和叔又以文衡猥作推讓，遂不免焉。此豈老病近死者所可堪耶？況實錄設局，尤不可作勞供職，不得已呈病，期於得請者，不欲以許大重任旋受旋遞故也。既得請，則因欲辭去定計，未知能如志否？撓慮萬萬。都下消息，極多未安，不可盡形於筆札間，行將面白。奇明彥以禁儒生上疏事，師生相激，至於師²⁾去師席。其間事勢，至爲不佳。明彥雖不無有過當處，儒生氣習如此，而不悟其非，可嘆可嘆！華使人品文雅，大不逮許·魏，可怪。中國人才亦有限而然耶？〔士敬來此。別無得謗等事。未知去後如何耳。聞彼中旱傷失稔，民命奈何？朴生之病，貽弊所經，今僅得蘇耳。餘付士敬之行。謹姑不具。〕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8월 7일. 서울.

1) 初本 '答鄭子中【八月初七日】'

2) 師：養校 [上'師'字無，或'辭'字之誤否.]

KNL1181 (書-鄭惟一-152) (癸卷27:4右)(樊卷37:22右)

答鄭子中¹⁾

權東美人來，奉接辱問²⁾，備悉近況佳裕，欣仰無涯。清涼仙賞，適在爛楓之時，濃興可想。但靳惜酬唱，不以遠示，洗此塵鬱，爲可憾耳。滉重負幸釋，濫秩誤渥，愈解愈嬰，將過三冬於此。士敬所云“不遞亦欲歸”，非不知無此道理，不仕食祿，益知無此道理。故欲就二者之間，擇其稍近知恥者處之而已。雖知如此，而事不謀心，遂作無恥之人，俯仰羞汗，無以見朋友³⁾也。搜補軍額，國之大事，爲救水火之急，不得已請停，豈可尙之事耶？與明彥辨論，果有之。此人有奇才雄辯⁴⁾，今世難得其比。雖有往往誤執強爭者，亦是不苟同，豪氣所致，不當以此少之。但於斂約細密處，終欠著力，爲可慮耳。拙句，錄在別紙，一粲何如？(謹拜。))

▶ 戊辰年 (宣祖1, 1568년, 68세) 10월 12일. 서울.

1) 初本 ‘答鄭子中【十月十二日】’

2) 問：上本 ‘聞’

3) 友：庚本 ‘反’

4) 辯：上本 ‘辨’

KNL1182 (書-鄭惟一-153) (癸卷27:4左)(樊卷37:22左)

答鄭子中¹⁾

《(邱奴仇叱同²⁾歸， 修上一狀， 想今已達。 茲承國馬人齋³⁾書， 獲審近日起處清勝， 無任浣慰。)》知與尹子固枉駕山舍， 示及黃花蒼竹之景。 可見天之餉人， 不改前度。 而主人昧於去就， 抗塵走俗， 使山阿寂寞， 無主無賞， 空起遊賢寓目而含譏， 爲可愧也。 出宰讀書， 會得初心。 昔人心事， 城主心事， 而猶有耿耿之歎。 如滉老病， 黽勉同作波瀾於世， 舊茫新汨， 終何如也？ 丹砂之遊， 尤使人馳遡慨然。 至如因循架漏之諭， 非不知警責之意， 自古安有舍其田而能芸人田之理？ 不自量而妄作， 誠亦爲難， 百思千度， 走是上計， 而淹留待春， 以是愈不自快耳。 南冥不自爲而欲責人， 亦何耶？ 冬雷等變， 處處陸續， 朝意惶恐， 莫求其端。 言不可盡， 謹此拜復。

《(今日王大妃⁴⁾殿·大殿， 移御昌敬宮。)》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10월 20일, 서울.

1) 初本 '答鄭子中【十月廿日】'

2) 仇叱同：中本에는 [부전지 '仇叱同'三字, 去之何如.]가 있다.

3) 齋：上本 '齋'

4) 妃：初本 '妃'；上本 '妣'

KNL1183 (書-鄭惟一-154) (癸卷27:5右)(樊卷37:23左)

與鄭子中¹⁾

((頃承前月廿一日書，縷縷備悉，欣寫²⁾鬱陶。擬於旬間
審姪之歸，修報而))縣民無佑³⁾，今忽有寵除玉署之命，
不任歎惋，失圖失圖。固知因銓曹故事或有徑去之日，
豈料徵黃之舉遽出於坐席未煖之際耶？且民情之悶，
不暇云云，在城主爲求外補之意，亦成乖張，想亦軫懷
不少也。然此皆私計之言。朝廷用人，重內輕外，勢不
得不爾，奈何？御史失於寬，正如諡意。詩卷，玩詠反
復，非但盛作甚進，屬和諸人詩亦進。豈時月之間交相
切磨所變耶？可尚可尚。但一向馳思於雲水峩洋之間，
專無一句道著這邊意思，何耶？拙者在此，未安事極
多，今當來見，不須云云。明彥雖不能沈密，甚不易得，
吾於此人，所得亦多矣。彥遇似有堅臥意，其竟何爲？
夜燈昏翳，不能悉布。唯冀好行萬萬。(謹白。))

▶ 戊辰年(宣祖1, 1568년, 68세) 11월 6일. 서울.

1) 初本 '與鄭子中【至月初六日】'

2) 寫：上本 '瀉'

3) 佑：中本에는 [부전지 '佑'恐'■'].[추가 傳本亦作'佑'].가 있다.

BIL1184 (書-鄭惟一-155) (樊遺外卷2:22右)

與鄭子中別紙【九代孫野淳輯錄.下全】

右相辭不得，已出矣。洪判爲都目政後，復三呈得遞。俞也方呈辭。吳之事，未及聞知。大抵與金同者，非獨數人，如南與李，不足怪，不足數，如士偉·馨之皆力主之，台叟亦不免而首相亦似兩徇。此非一朝一夕之間一二人牽爾所爲，其勢必無畏戢自止之理。天若祚盛朝，主上聖德日新，學問日進，則此事自當烟消冰釋矣。不然，決無可勝之理。自古如此爻象，惟有先事去之，可無大患，而今此路蕪¹⁾廢，諸人似無意於此，尤可慮也。方叔已辭銀臺，明彥亦有欲辭之意，未知終如何？其中明彥，最爲人所忌，而其人疏雋，喜陵折人，怨惡者尤多，殊可憂也。已貽書切戒，不知能見記否？近聞厭諫倍甚，而諸人於不必爭處，爭執太苦，是適所以致疏外此一邊人之漸，奈何奈何？

乙巳削勳之事，兩司彌年爭論。翰苑則雖在近密，亦非言責而猶逐日陳疏，恐非所宜也。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1월 추정. 서울.

1) 蕪：上本 '茂'

BNL1185 (書-鄭惟一-156) (樊卷37:24右)

答鄭子中【己巳】¹⁾

投示長篇與改律，深荷不鄙。如此立心自勵，非不好矣。但於言論之際，每每有病，傳聞昨日晝講啓辭，於滉心事，專似不曾委悉，於進退一事，極有妨礙。聞之不禁縮頸寒心，終夜不寐。何故不念孤拙難處之蹤至此耶？此事當待面言，恐一日之間，亦或有如此之言，故及之，千萬切祝切祝。【此紙去之。】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1월~2월 추정. 서울.

1) 初本 '答鄭子中'

BNL1186 (書-鄭惟一-157) (樊卷37:24左)

答鄭子中

辱和拙韻，承荷寵示，珍玩無已。數三日後，當有歸鄉人，挽章煩惠是望。崔郎每至不利，恨恨。謹拜謝。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1월~2월 추정. 서울.

BNL1187 (書-鄭惟一-158) (樊卷37:24左)

答鄭子中

披閱垂簡，阻懷幸甚。四十日在告，不勝惶愧，力疾出拜，乞辭不得而還，愁悶而已。遊山詩，今在奇明彥處，如欲索還，俟其出而問索爲佳。明彥亦云“詩格變前”，又謂“夾之等詩亦好”，可喜。思歸可歸，在公何憂？只老妄人爲可慮耳。俟面姑此。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1월~2월. 서울.

BNL1188 (書-鄭惟一-159) (樊卷37:25右)

答鄭子中¹⁾

近頗阻，奉承示爲慰．來諭“易有太極，節齋之說，以無體之易當之”，似有未穩．“大哉易也”之‘易’，豈專指無體之易？所云“變易雖氣，而所以變易爲理”者得之．愚意爲然，故敢白，未知是否．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2월 1일~26일. 서울.

1) 中本 ‘答鄭子中【己巳】’

BNL1189 (書-鄭惟一-160) (樊卷37:25左)

與鄭子中¹⁾

謹問歸去侍歡外，體履何如？二十五日政，授君中書郎，自是可無銓郎之拘礙，於爲親去就之際，亦當如意，可賀可賀。但明彦云：“政府郎，非他之比，在外不來，不可輕遞，恐不可不來謝。”不知於此作如何處之耶？滉乞退之請，今日將再呈，欲於踏青日間出郊，因遂掛帆而去，未知能無魔事否？朝無他事。文昭殿已擬拆毀改構，物情極未安，欲將爭論而時未發。如滉方在乞身，未暇他事，甚不滿意，浩歎而已。餘必本府吏報。惟自崇珍愍。謹拜。

▶ 己巳年 (宣祖1, 1569년, 69세) 2월 27일. 서울.

1) 初本 ‘與鄭子中【二月廿七日】’

BNL1190 (書-鄭惟一-161) (樊卷37:26右)

答鄭子中¹⁾

路聞今日當來于此，企竚之際，承示停罷，深恨失圖之甚也。滉今始得請骸骨而退，天恩罔極，感激無涯，喜幸不容口。舟行連值風雨，亦免他患，乃知順境無魔障也。左右今次除命，亦似出於眷意，而政府郎，例不速改，在朝所聞皆然，加以親意如許，則何可不作一行耶？況既謝母爲久留，亦無未安之意耶？諸友之言，雖不廣聞，大概皆然矣。承許枉顧於山家，須及梅花未落爲佳。餘惟善調微恙。不具謹復。

▶ 己巳年 (1569년, 69세) 3월 14일. 丹陽.

1) 初本 '答鄭子中【三月望前一日】'

KNL1191 (書-鄭惟一-162) (癸卷27:6右)((樊卷37:26左)

答鄭子中[己巳]¹⁾

辱書具悉，欣審比日侍養歡慶。滉請骸還山，溪山依舊，雲物改觀。以今日所蒙，揆平昔所報，有萬無一，感恩慚德之至。向所謂優游林下之樂，尙未入手，然昔人稱自今已入清涼境界中矣。此事今於吾身，可以親見之，其爲欣幸戴祝，曷勝云喻？示詢行止，鄭員外之言甚善。此固至善之策，不易之理。但其間有非他人所與知者。一則視尊府體候康寧與否如何，一則稟親命固欲與否如何，當以此二事而量宜決之。若必至於因惱生患，曲陳不許，則亦可勉作一行，此前書所云之意也。((承得寵示佳篇，深荷。有客在門，未及賡謝。四日許枉，翹佇²⁾披霧。不具謹白。))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3월 20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三月廿日]’，中本·樊本·上本 ‘答鄭子中’；定草本에는 [부전지 ‘三月’]이 있다.

2) 佇：上本 ‘竚’

BNL1192 (書-鄭惟一-163) (樊卷37:27右)

與鄭子中¹⁾

昨昨何以還宅？雖幸兩日之奉，客煩殊未款展，別後悵懷，不可爲喻。內賜胡椒一封，因便附²⁾上，照領。餘望行色萬珍。不具。謹拜問。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3월 27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三月廿七日】'

2) 附：上本 '付'

BNL1193 (書-鄭惟一-164) (樊卷37:27右)

答鄭子中¹⁾

月初六在山舍得寄書，知以其日發行西上事，固不得已也。卽今鳳池藥階，人詠羔羊，可無馳賀？所諭云云奈何之嘆，則不以遠外而少弛。續得邸報，首相又已再辭，此又大悶。不知終無出意否？李憲之辭，其竟如何？又聞殿議尙未定，亦有後出他論，奈何奈何？凡事皆不敢深問，妄說於入都紙上，徒增鬱結。自處則如所示當矣。子精玉堂所慮亦然，須相與警慎規益，勿迂勿媮，千萬是望。尤以不思前後輕發言論爲戒，幸幸。朝報之寄，深荷。餘在兒行，不縷。謹拜。

明彥處，有小文字去，勿煩尋見。鄭季涵處²⁾，拙句可傳致否？³⁾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4월 14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四月十四日】’

2) 鄭季涵處：初本·中本에는 앞에 권점 ‘○’가 있다.

3) 明彥處……致否：初本에는 上段과 연결하여 小註로 편집되어 있다.

KNL1194 (書-鄭惟一-165) (癸卷27:6左)((焚卷37:28右)

與鄭子中¹⁾

((滂餘酷熱，不審孝候安否何如？馳遡日劇。)) 滉邇來尤覺衰憊，往往心恍惚，目昏翳，耳聞蟬鳴，雖欲日近書冊以自警益，一二所得，無田地可以安頓培養，爲恨奈何？權震卿兄弟書來，欲速得〈議政大人行狀〉，趁遂請諡之計，固當如此。此文字曾已僭率草創，顧以乙巳間事，多涉嫌諱，欲避則掩美，欲盡則召鬧，其間極有難處之者。雖已隨事商量去取，以就此文，殊覺難以示人者多。今將直長錄示事實元草²⁾本及拙稿，一併呈上，幸讀禮之暇，細加參訂，一一指出示教。其中如“三陟餞席，沖菴臥而不應”一條，旣入而追刪。又如《陰崖日錄》所云，最關於相公善處己卯間事，故引以爲證。但其所謂“後來諸賢，年少氣銳”等語，存之未安，故連其上語意相接處欲去之，所以用別紙貼其面，而更以數句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윤6월 18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閏六月十八日】’；定草本에는 [부전지 ‘己巳閏六月’]이 있다.

2) 草：上本 ‘艸’

點綴過了。雖近於太略，無乃不妨乎？蓋存此數條，則似訾抑己卯人太過，安知不有人復如近日某人斥舉〈趙先生行狀〉中語而攻己卯者耶？以是，故欲去之，如何如何？其他不中理太觸諱處，無惜盡底裏容得修改，庶免大過，幸甚。伏觀近日爻象，益難以此等文字，上干朝聽，而震卿兄弟，急於請諡，唯務速得，此不可之大者也。并望轉曉此意。不宣。（謹稟。）

BNL1194A (書-鄭惟一-165-1) (樊卷37:29右)

別紙

禮雖云：“卒哭後答人書疏。”此泛指言酬答慰狀之類耳。若於親密契厚往復之間，有不得已咨報事，恐不應膠此一說而盡廢却也。妄料如此，故敢以冒稟。裁諒何如？

KNL1195 (書-鄭惟一-166) (癸卷27:7左)(樊卷37:29左)

答鄭子中¹⁾

〔滉拜白. 伏蒙惠答, 獲審孝候支勝, 無任慰釋之至.〕
滉保拙屏伏. 別幅所諭〈權相公行狀〉謬誤處, 得承指出, 幸莫甚焉. 其各條及他事, 詳在別紙. 詢及葬地前後之宜, 古禮未有考, 只以世俗所行及事理度之, 似以考前妣後爲當. 然前旣無地可占, 合葬雙墳, 勢俱爲難, 則似不得不隨地勢以處, 更須十分商度以決, 何如? 〔伏惟鑑察. 不宣. 謹上復狀.〕

〔挽章, 隨後製上, 伏計.〕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7월 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七月初九日】'

KNL1195A (書-鄭惟一-166-1) (癸卷27:8右)(樊卷37:30右)

別紙

狀中“爲季父後”·“自兵曹移持平”·“明年丁外憂”三條，分明是謬誤處，卽當改之。“猶以爲其黨”，‘猶’字，果亦似有病，當更思之。與尹書直切之辭，不錄似可惜。但愚意於此，固已三復商量矣。所以不盡錄其辭者，當是時，逢迎主張，大作此禍，皆此老姦所作，乃如此多致觸忤¹⁾之言，非但不能紓其禍，適所以激其虓怒而增其勢也。故只舉其大概，如此云云，足矣。子壻泣諫事，本當載入，緣見當此際，事急忠激，如赴救焚拯溺之時，著此等旁邊所爲事，參入爲言，竊²⁾恐令其間文辭意氣，或致疏緩，所以去之。今因來喻更思之，顧於此措辭著語，得失如何？得則不至如所慮，從當添入。“有罪者處之得宜”·“不知而營³⁾救”·“其事可付之空雲”，此數條，在相公行事中，此最是大關處。撰〈相公行狀〉中，此最是難斷處。滉在都下，已撰起狀草，首尾粗具，到此等處，處之極難，所以未得了訖。還山以來，百思千度，僅成如

1) 忤：上本‘誤’

2) 竊：初本·中本·樊本·上本‘切’

3) 營：上本‘勞’

此。雖甚知主簿兄弟之急於請諡望如飢渴之意，而不敢出呈者，正爲此事故也。乙巳諸人，爲仁廟多積忠憤之餘，事勢忽爾大變，授受以正，則忠反疑邪，邪反似正。於是，邪得託正以報讎，大加誣陷，率被以反逆之罪。此滉所謂無罪者糜⁴⁾爛而俱焚者然也。至於尹任事，當時以爲實有而加大罪，人心或不能必其實有。況今日以爲實無而洗大罪，人心豈盡能必其實無乎？此所以難處而難斷也。朴和叔之意，滉亦略知之。竊恐斯人於此不能無少偏於權度之定也。而餘姦之得以藉⁵⁾口者，或不在於有罪與不知之公言，而正在⁶⁾於全無罪之不能無偏之說也。且今朝廷，雖蕩滌諸冤枉，而任以下未蒙蕩滌者尙多，固非以爲皆無罪，又與和叔同仕史局，時或語及，亦未見誦言三人實皆無罪也。故滉於此，有此等語，不敢以禍福利害恐慌計較而有更變也，又以爻象之說，果有來諭之慮。第近日一番騷動，雖攻他人，而意實在滉。當此際，以此文字出於朝廷，而徹於御覽，豈獨於滉有可虞，亦或有不利於相公。茲以近姑篋藏，少觀爻象而出之。願以是善諭主簿兄弟，爲幸。

4) 糜：初本‘糜’[부진지 ‘糜’恐作‘糜’]

5) 藉：定草本·庚本·擬本·甲本·上本‘籍’；甲本에는 [교정기 ‘藉’]가 있다.

6) 在：庚本‘直’

KNL1196 (書-鄭惟一-167) (癸卷27:10右)(樊卷37:31左)

答鄭子中別紙¹⁾

((近日孝履何如？無任馳戀。前來挽幅及京來不知何人慰狀一封送上，惟照納。謹拜狀。))

((近見朝報，朴和叔，銓長不得終辭，已出謝恩。此人非不强人，意合人望。但既被指目之後，當此囂囂之際，而黽勉就職，不知何以善其後耶？甚爲吾徒之憂耳。時勢角立，久而益甚，其中構毀，尤集於明彥，似不能終免云。若此人去，則餘豈能保？然嘗竊謂今之事勢，尙不至如宋朝，聖明在上，恐不若且倣調停之說，鎮而安之，庶幾兩無事也。諸人何不思之甚，乃如此紛紛不已耶？)) <權相行狀>疏謬處，已依示修改。但於三人事，全以無罪處之極難，故更爲商量下語，比²⁾前似稍得宜，竟不知果合於公論與否。當此多言之際，出此狀，甚爲非時，顧以震卿兄弟欲得之急，難於每匿。昨已上送其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8월 10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八月初十日】'；中本·樊本·上本 '與鄭子中'

2) 比：上本 '此'

稿，且丁寧戒毋³⁾輕出，須更細度時宜，然後可出。恐彼徒迫於請諡而遽出，追悔上送之虛疏也。幸急與二君書，切戒姑藏置，少待時事之如何，懇仰懇仰。金舜舉竟至溘然，哀哉哀哉!⁴⁾

3) 毋：上本‘無’

4) 近見……哀哉：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低一字로 되어 있다.

BNL1197 (書-鄭惟一-168) (樊卷37:33右)

答鄭子中¹⁾

滉再拜，伏承來書，具審孝候支勝。襄期且近，伏想倍難堪處。前來挽幅，謹已寫訖，并拜一狀，封送于從孫宗道家，令其傳上，明日當有歸人云。已囑之丁寧矣，其人未去，而煩²⁾有倅來，深負不及事之愧。今³⁾使來人歷取而去，惟照。領定兆出於不得已，雖若有異，亦無如之何矣。油蜜果不欲用之，滉意亦然。但前於母喪，諸兄欲用而用之，今年來歸墓所焚黃祭，亦循俗用之耳，常時則不用，且欲遺戒兒孫，令勿用於吾前。若全不用未安，可作平排一二櫟，以代果實之不足，則無甚害也。此老生平日之志如此故云云，非欲以遵⁴⁾人爲之也。伏惟純孝俯就順變。不具。謹拜白。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8월 15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八月十五日】'

2) 煩：上本 '頗'

3) 今：上本 '令'

4) 遵：初本·中本 '導'

KNL1198 (書-鄭惟一-169) (癸卷27:10左)(樊卷37:33左)

答鄭子中別紙¹⁾

題奉祀左方，以神主左方爲是者，不勝其多。不獨今人爲然，何氏〈小學圖〉等古書，亦或有之。故金慕齋亦從之，許·魏兩使所云如此，無足怪也。然滉所以不敢遽信彼而直欲從《家禮》者，亦有說。試言今人展紙寫字，一行既寫了，次寫第二行者，其先寫第一行，必在人右，次寫第二行，必在人左，以此分上下，故例稱在²⁾右者爲上，在左者爲下矣。朱子於題幾主後，既明言其下左方題云云。此必以先所寫一行爲上，故以次行爲其下，以在上者爲右，故以在下者爲左耳。然則其分左右，正與³⁾《大學》序次如左之說同，皆以人對書而稱其方位。恒言莫不爲然。豈於此獨舍恒言，而遽易其方位向背，以先寫在人右爲上者，變爲在神右爲上，又以當在人左爲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9월. 禮安.

1) 初本 ‘答鄭子中別紙[九月]’；中本에는 [부전지 去‘答鄭子中’四字, 只存‘別紙’二字.]가 있다.

2) 在：上本 ‘左’

3) 與：初本·中本·定草本·上本 ‘如’；初本에는 [부전지 ‘如’, 本草亦作‘與’], (恐)‘與’字之誤也.]가 있다；中本·定草本에는 [교정기 ‘與’]가 있다.

下者，遷就在神左而爲下耶？此必無之理也。況於書標石處，謂刻自左方，轉及後右而周焉，豈可謂自標石左始而乃及後右耶？此亦爲證，無可疑也。〈家禮圖〉，雖或有誤，豈容皆誤？《大明會典》既從〈家禮圖〉，我國〈禮圖〉又從《會典》，今必欲舍先賢時王之制，而從何氏，易恒言方位，而強立無據之方位，豈爲當乎？然今人主彼說者，皆以神道尚右爲說。滉又以謂今入啓單子書狀之類，初面先具銜書姓名。神座自西而東，題奉祀於神主右邊，安知其不與此同意耶？然今既已從何氏說書之，改書恐亦未安。但金字宏兄弟，初從何氏說，後自覺其非，以書來問：“欲改書，當於何時改乎？”滉答以“必改書，得失未可知。欲改則不可以非時，或於小祥爲之，何如？”云。未知彼如何耳。

卒哭後有吊者，亦如其前。非但卒哭後，以古禮言之，似三年內皆然。

《葬後朝夕上食，《家禮》不言罷，亦不言行，不知何意。然以朱子葬後恒居墳庵朔望來奠几筵觀之，疑其并罷上食，故如此。若不罷，則豈容在他耶？但今人終三年上食，已成俗禮，宜從厚義，亦無害終三年上食爲善。其上食節次，自初至終，只焚香斟酒，拜，食頃，點茶

【代以熟冷】而輟，有何異乎？）

朔望奠，在禮亦無三獻等依祭之文，恐當從禮。而滉兄弟喪中，依祭行之。今思之，恐未爲得也。（曉燈眼暗，草⁴恐。）

4) 草：上本‘艸’

KNL1199 (書-鄭惟一-170) (癸卷27:12右)(樊卷37:36右)

答鄭子中¹⁾

近有過客自云：“歷拜廬所，微有愆候。”窩子來云：“因侔候，所聞亦然。”殊用懸懸。今承手字，且問²⁾權君，知今復常，慰釋曷喻³⁾？至如神思損減等項，在憂疚中，理應如此，讀禮餘力，持攝得宜，豈不反爲益勝平昔之資也耶？滉方此老昏之劇，退屏以來，緣被⁴⁾從前衆家煎⁵⁾囑墓碣文字之類，不免強作猥酬之計。一了復有一，葛藤不斷，見今尚未斷訖，衰殘心力，受困不少。擬謂已受者今垂斷訖，明年七十，并與致事⁶⁾而斷之，更不被衆侵矣。不意沈方叔又送其先公行狀，欲強取碑製。此則素定難改，固不能應副。必多得嗔怒於其人，奈何奈何？時議紛沓⁷⁾，其初勢似⁸⁾河決，得稍寢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11월 9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至月初九日】’；定草本에는 [부전지 ‘己巳十一月’]이 있다.

2) 問：上本 ‘聞’

3) 曷喻：初本·中本·樊本·上本·定草本 ‘曷喻曷喻’；定草本에는 [뒤의 ‘曷喻’에 말거표시]가 있다.

4) 被：上本 ‘彼’

5) 煎：庚本·擬本 ‘煎’

6) 事：上本 ‘仕’

息，專賴君相明⁹⁾良之力。然舊紛雖息而猶在，新紛又兆而更厲。不知天意如何而有此景象，甚可憂懼。近得奇明彦書，亦自言其爲當路所憎¹⁰⁾疾之故，且云：“欲去而爲朋儕所絆，不果。”愚恐古人處此，似不應如是也。安有不合如許而可強留之理乎？朴子進出身，可喜。但此人處此際，亦甚難，不知彼將如何而得善其道耶？窩兒得近邑，出於意料之外。闔境皆親舊，其於官方，必多妨礙，衆怨必興，又有妻親田莊，尤爲未安。初謂法當換，竟不遂而來赴，適爲老父之憂惱，何喜之有？餘在別幅¹¹⁾，惟慎嗇孝履萬萬。（謹奉復。）

7) 沓：上本‘奮’

8) 似：上本‘若’

9) 明：上本‘朋’

10) 憎：上本‘增’

11) 初本에는 [부진지 ‘別幅’不錄, 何耶.]가 있다.

BNL1200 (書-鄭惟一-171) (樊卷37:35左)

與鄭子中¹⁾

隆寒，未審孝候何似？常切馳戀。滉近患痰證爲悶。就中吳守盈來傳諭意，此事於滉，亦非不切。所謂經濟者乃家兄外孫壻也，欲救之情，何限？但故出入人罪，自古以爲大罪，敬差之官，受耳目之任，勢難緣私請有所寬縱。若請囑之言騰播，則在滉得謗，不但如李剛而²⁾已，將必有得罪之虞，故不敢爲營救之計，坐而待天，何痛愧如斯？且尹子固亦知事體如此，未結事之前，必不來見我，雖欲來，我亦不敢見矣。以此不得如諭，恨仰恨仰。³⁾餘筆凍不具。謹拜。

▶ 己巳年 (宣祖2, 1569년, 69세) 11월 30일(그믐).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十一月晦日】’

2) 中本에는 [부전지 ‘而’下恐闕‘而’字.][추가 傳本無‘而’字.]가 있다.

3) 仰：上本에는 없다.

BNL1201 (書-鄭惟一-172) (樊卷37:37左)

與鄭子中【庚午】¹⁾

改歲，不審孝候何如？滉寒疾痰涎，保至新陽，亦云幸甚。京報無聞，時事莫知，如何？鄉間凡事，甚敗人意，況於左右之心乎？然亦無如之何矣。惟冀勉抑萬萬。謹拜問。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1월 8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庚午正月初八日】’；上本 ‘與鄭子中’

BNL1201A (書-鄭惟一-172-1) (樊卷37:37左)

別紙

傳聞監司謂人曰：“似聞鄭司諫方有造成，乃小家也。此非尋常人之比，今在服中有此事，甚¹⁾恐招人指點。誰能爲告此意乎？云云。”聞之未安，故敢白。

1) 甚：初本·中本‘深’

KNL1202 (書-鄭惟一-173) (癸卷27:13左)(樊卷37:38右)

答鄭子中別紙【庚午】¹⁾

題主左右之得失，滉亦未敢質言之。但朱子《家禮》所謂左方，定指人左，非神主左也。近又見《濂洛風雅》南軒〈諸葛忠武侯贊〉末注，“南軒作此贊，文公跋其左方”云云，亦謂人左爲左方，是亦明證，不獨前書所引“標石刻左”之左字爲證也。改題之說，如欲爲之，當如來喻。時祭，極事神之道，故齊²⁾三日。忌日墓祭，則後世隨俗之祭，故齊³⁾一日。祭義有不同，齊⁴⁾安得不異？

大祥日，只云杖斷棄，不言衰與經⁵⁾，處之如何？

按禮云：“祭服敝⁶⁾則焚之。”衰經⁷⁾似亦如此。然禮無明文，不敢臆說。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1월 9일~12일 추정. 禮安.

1) 初本·中本·樊本·上本 ‘重答鄭子中’

2) 齊：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甲本 ‘齋’；養校 [‘齋’當作‘齊’]

3) 齊：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甲本 ‘齋’；養校 [二‘齋’字同上]

4) 齊：初本·中本·定草本·庚本·擬本·甲本 ‘齋’；養校 [二‘齋’字同上]

5) 經：上本 ‘經’

6) 敝：上本 ‘弊’

7) 經：上本 ‘經’

虞祭朔望奠，則降神之禮，焚香酌酒，各行再拜。時祭則二者并行一再拜，何以不同？

按非獨虞祭，其於祔⁸⁾及祥禫，皆各再拜。夫虞朔之類，禮宜簡節而反備，時祭，禮宜繁縟而反略，皆不可曉。徐更詳之。

銘旌，初立於右，終立於左，何？

按尸南首而靈座在其東，則疑其初所謂立於靈座之右與其後立於柩東者，同是爲右。蓋自尸南首而言，則東爲右，非左也。如何？

《小祥練冠練服，而衰獨不練，衰重故然乎？》

《《檀弓》“練衣云云”註：“練衣者，以練爲中衣也。正服不可變，中衣非正服，但承衰而已。”此所謂正服不可變，正與來喻所謂衰重故然之語合矣。》

挽章，納于壙中，禮雖無據，從俗恐無害。蓋不納則置

8) 祔：上本‘附’

之無所宜故也。

《禮，庶母之有子者服緦，而《大典》加給假二十三日，當從《大典》否？》

《古緦三月，而今緦只行七日。庶母服以古之月數言，則不可加；以今之日數言，則太薄不近情。故國典加二十三日。然視古緦，猶僅得三之一耳。時王之制，何可不從耶？》

庶人，只祭考妣？

來喻論辯⁹⁾，恐皆得之。蓋《禮》既有妾子爲祖後之文，又《喪服小記》云：“妾祔¹⁰⁾於妾祖姑。”萬正淳嘗舉此以問，朱子所答，亦以《疏義》“妾母不世祭”之說爲未可從。【說見《節要書》第十卷】然則庶人只祭考妣，只謂閒雜常人耳。若士大夫無後者之妾子承重者，不應只祭考妣。故《大典》只云：“妾子祭其母，止其身而已。”如今韓明澮奉祀之類，未聞朝廷以只祭考妣之法禁之也。

9) 辯：上本‘辨’

10) 祔：上本‘附’

妾子之於嫡母，稱於人則曰嫡母，可也。但以方言稱於母前及家內，則別無可當之稱，恐只得如今人家婢御稱主母之辭而已。蓋於父既不得稱曰父主，於母安得而直稱曰¹¹⁾母主耶？

庶母於己妻，貴賤雖不同，猶是姑婦之行，其行坐位次・飲食先後，當如何處之？【嫡女¹²⁾同。】

此亦未有明據，然父在而母死，父不得已使一妾代幹內事，一家之人，豈可不稍以攝母之義事之乎？故古有攝女君之稱。《雜記》曰：“攝女君則不爲先女君之黨服。”註：“妾攝女君則稍尊也。”又曰：“主妾之喪云云，殯祭不於正室。”註：“攝女君之妾死，則君主其喪，猶降於正嫡，故殯祭不得在正室也。”以此觀之，攝女君稍尊於衆妾，可知。如是而子妻與諸女諸孫女，直以貴賤之分，每事輒先於彼，則非但於庶母不知有攝母稍尊之義，其於事父之禮，亦有所未盡。故謂宜坐位則當避，食則當讓。【讓食之節，在家內當然也。若成衆燕會，或他有壓尊處，或不得讓矣。】惟同出於一路，乘馬者先於乘轎¹³⁾者，事體殊異，

11) 曰：上本에는 없다.

12) 女：上本 ‘母’

故不得不輶先而馬後矣。【若可相避則避之，未可避則如上云。】

古人謂正寢爲前堂，蓋古之正寢，皆在人家正南，故祠廟皆在其東而無所礙。今人正寢，或東或西，其在西者，祠堂難立於其東矣。弊門繼曾祖小宗家在安東，西寢而東祠，勢甚不便，近年，方移置西軒之後。蓋隨地勢，不得不爾耳。遺衣服祭器，依古制，藏於廟，固善，而密爲防盜之策亦可。若患此而藏於他，各在其人善處，他人似難爲說也。

國俗，既有奴婢相傳，與田宅無異，則置承重奴婢，豈有不可？況兄弟衆多之家，不置承重奴婢，泛同於衆兄弟，亦非尊祖重宗崇奉祭祀之義，甚不可也。

滉嘗推得伊川引“哭則不歌”之說，正與來諭同矣。朱先生乃以伊川爲不是，竊有疑焉。蓋是時，一慶一吊，皆同朝共舉，一日之間，吉凶相襲，旋罷旋集，禮瀆情散。恐不如翌日早吊之爲得，不宜以恒人聞親戚之喪卽趁奔赴¹⁴⁾者例論之也。伊川豈不思而失言於其間哉？

《左傳》不可盡信處，非但易占夢驗爲然。凡有死喪成敗之類，必先借作當時有名人先知先見之說，以爲張本，

13) 輶：上本‘驕’

14) 赴：上本‘走’

而後著其事以應之。種種皆是，直是令人厭觀。可見其人之浮誕巧言，多不足尚也。

程嬰當初與杵臼約皆死，而後不死，則果如所諭。觀史云：“杵臼謂程嬰曰：‘子爲其難’云爾，則是杵臼但勸程嬰立孤，而自期以死保孤耳，非約以同死。故劉向以爲不必死。然先儒又以此事不見於《左傳》等書，疑其本無是事，而後人爲之。不知此說如何也。

《禮》曰“外患弗避”，則當靖康禍難之極，臣子固無可去之義，然不可執一論也。是時，排禍難救君父之責，在李忠定一身。身存策用，則君可救，國可存矣，乃爲小人所扼，策不用而君將虜，國將亡。如此而獨存其身，欲何爲哉？徒殺其身，亦何益哉？忠定所以欲去者，庶幾因此而少悟君心，以¹⁵⁾反其所爲，則或可用“取日虞淵”之手耳。瓊山擇義未精，好惡多謬，至以宋朝士大夫必謹進退爲非，何足以知此¹⁶⁾義哉？

理宗爲彌遠所立，其事近篡¹⁷⁾，千載之下，尚令人扼腕憤歎¹⁸⁾，況當時之人乎？然猶不可以篡¹⁹⁾論者，彌遠

15) 以：上本‘心’

16) 此：上本에는 없다.

17) 篡：上本‘篡’

18) 歎：樊本‘難’

以太后之命立之也。且西山於王府爲教授，乃處賓師之位，非如王·魏爲宮²⁰⁾僚之比，又其在王府，見王過失，竭誠直諫，不用而後，力請外而去。及理宗卽位，召除講職，卽至不辭。蓋以前非爲臣於彼，故後可爲臣於此。是以，後之論者以前去爲先見之明，後至爲能擇其君，斯言當矣。其於理宗²¹⁾初，又極陳²²⁾濟王之冤，力主贈典之舉，乃以此爲群小劾逐而去。既不負濟王之分義，亦不徇²³⁾理宗之過惡。大賢之所爲，衆人固不識，而輒肆攻貶，恐我輩不當助爲害正之論也。

濂溪·明道仕州縣²⁴⁾，卽孔子可以仕則仕之意。伊川止晚年²⁵⁾一出，是人君不致敬盡禮，則不足以致之之義。大抵君子之道，或出或處，或去或不去，何可同也？歸潔其身而已。

茅纏紙裹 【此下，《朱書節要》。】

19) 纂：上本‘纂’

20) 宮：上本‘官’

21) 理宗：上本‘宗理’

22) 陳：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諫’；中本에는 [두주 ‘諫’疑‘陳’字.]가 있고, 樊本·上本에도 동일한 내용의 두주가 있다. 定草本에는 [교정기 ‘陳’]이 있다.

23) 徇：上本‘循’

24) 縣：上本‘懸’

25) 止晚年：中本에는 [부전지 ‘{止}晚年’更詳.] [추기 傳本同.]가 있다.

以茅纏之，以紙裹之，是苟且行禮者假物作真之爲。此必古有是說，而先生引之，恨未知出何書耳。

大拍頭

‘拍’，音白。樂書“樂有拍板”，如今樂所用拍板也。生僧孺以拍板爲樂句，韓退之大稱賞。又王維見《按樂圖》曰：“此霓裳第三疊拍也。”又“虞美人草，有爲虞美人曲，則應拍而舞。”又“〈霓裳曲〉，散序六徧無拍，中序始有拍。”今以此等語參詳，拍者，乃樂節之名，合九板或六板，繩穿而手拍之，出聲以表樂曲之節，故謂之拍，如蔡琰胡笳分爲十八拍也。頭者，如歌頭・詞頭，是一拍之題頭也。其曰大拍頭者，言大張皇作曲拍，如今云大作長歌之類。以比子靜平日，自是已見，其於論學，大張皇作氣勢，厲聲色，胡亂說道，無忌憚也。

代翕代張

‘翕’，斂闔而欲去之也。‘張’，張開而復作也。言欲去人欲而更迭復作也。

天上無不識字神仙

言此以比自古無不博學之聖賢也。叔昌，浙人。當時浙中諸人，尚史學，以通古今討世變爲務，不於根本上做工，先生力辯²⁶⁾其非。故叔昌答以此言，乃掩過遂非之辭。先生又斥之如下文所云也。

《郢書燕說》

《《韻府》以爲出《韓非子》。》

驀直之義

來諭以爲直截，得之。蓋不爲左牽右掣而直前做上去也。

《杜撰扛夯作壞了》

《‘扛’²⁷⁾，舉也，‘夯’，音向，用力擔荷之意。謂誠之撰造無義無實底見識言語，又以是強費力擡舉擔荷，皆其爲學病處，故爲此等伎倆所壞了也。》

26) 辯：上本‘辨’

27) 扛：上本‘杜’

〔小祥不練衰，往者國恤時，臣僚議此事。有朝報草一幅，送上，考後因便風見還。〕

KNL1203 (書-鄭惟一-174) (癸卷27:20右)(樊卷37:45左)

答鄭子中¹⁾

〔滉拜.〕 伏承垂答，縷縷滿紙，審悉示意曲折。〔且知嘗有患寒，今已痊差，無任慰釋之至。滉身在屏廢，未免外來之撓，恒不知其故，近因歲時，應接益煩，護寒保病，皆不得如意，殊可悶也。云云事，此中所聞，亦云京官之意，只據其一事，狀啓已定，似無發明之路，天下果有此事乎？不忍言也.〕 今士大夫服中²⁾營造等事，固多有之，人亦不以爲怪。當初左右所料，必出於此。然想李按使之意，欲責備於左右，又以其小營，故以爲言耳。不往監，善矣。然安能家到而戶說耶？不如聞謗速改之爲得也。但已豎者，不可付之腐倒³⁾，此則似可量處也。所云“監司處有求，故爲其所詆”，滉所聞於人者，亦正舉其事而言之云云。古人有言曰：“見人輒有求，所以事事賤。”嘿觀世間事，正是此一字爲病，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 1월 13일. 禮安.

1) 初本 ‘答鄭子中[正月十三日]’；定草本에는 [부전지 ‘庚午’]가 있다.

2) 中：初本·中本·樊本·上本에는 뒤에 ‘有’가 있다.

3) 倒：上本 ‘到’

而來諭之言，眞個實見得非也。滉年來於此，極著力激昂，深覺有味，而今欲爲先瑩石物之故，爐炭不足⁴⁾，不免求數石於官以補之。以此爲心，將恐不獨此一事，深懼破戒之害也。爲人作請簡，雖與自己之求有間，然亦多爲人所賤惡，故尋常所聽從者十居二三，往往猶有⁵⁾羞吝，欲一切不爲，則又不近情。可否之擇，眞不易也。大抵吾輩既有志於學問，事事不放過，乃爲得之。而持身行世，率多疏闊，招人謗議，豈不可畏可警耶？（別紙所詢，多非愚見所逮。今未及奉報，徐俟後便，照遲。朝寒筆凍，不宣。謹拜。）

4) 足：[두주 一本，‘足’下有‘勢’字.]가 있다；初本·中本·擬本·樊本·上本에는 뒤에 ‘勢’가 있다；養校 [‘足’字下，本有‘勢’字.]

5) 猶有：上本 ‘有所’

BNL1204 (書-鄭惟一-175) (樊卷37:47右)

與鄭子中¹⁾

比來未審孝候安否何如？滉老昏日甚，以今年七十，上箋乞休致，非但未遂所懇，反承召旨之下，雖非因此而有復進之理，然畢竟事歸蹉跌，未免更乞期於得請之勢，豈謂賜退之後，猶有此等撓悶耶？聞奇明彥已作南行，和叔則雖免銓長，復長春官，於去就，極有拘牽不如意處，可念可惜。²⁾ 領相再辭再不允，期欲不出云，又不知何意也。餘事不敢多云，想亦已聞之矣。前辱詢諸條，久乃畧報去，其不中理處，裁量去就，甚者反以鑄喻，冀得因有開³⁾發處也，明彥不能制酒之病，已於書中痛言之，但惜此人豪習未除，學力尚淺，恐未必能聽人說話也。又曾不知子進亦好酒。其書之來，尚未報，報則當如示。餘在小紙。⁴⁾ 不宣。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2월 26일. 禮安.

1) 初本 '與鄭子中【二月二十六日】'

2) 惜：上本 '借'

3) 開：上本 '改'

4) 小紙：初本에는 [부전지 小紙亦闕.]이 있다.

KNL1205 (書-鄭惟一-176) (癸卷27:21右)(樊卷37:47左)

答鄭子中¹⁾

辱垂問書，來自奉化，承悉練變以來，孝履支順，甚慰瞻邇。不遠伊邇，非但一未趨慰，至如修問，亦多闕然，深覺愧歉。滉自被調來之旨，苟偷時月之間²⁾，然頰肩未釋，一日難安，擬復上箋，煩瀆惶恐，將發且已。在廷諸公之誤人，不亦甚乎？愁撓不可名言。承諭讀《朱書》有味，甚善甚幸。人苟於此，得味之深，其久也必得力之多矣。如滉者，纔味其味，年來蹤跡蹉跎，不復嚼齧，奄忽星霜。今夏陶山，可讀其書，緣諸人溫繹《啓蒙》，又不果，今移來避暑於易東，始欲料理舊業。祇恐更被他人他業所轉了也。多口可怪亦可愕。然古人處此，惟云：“莫如自修。”今詳來示，正得此義。若能實踐無謾，而行己如處子，則鑠金漂³⁾山，當變爲雲消霧散矣。第慮於根本上培養，不甚牢厚，則所謂不覺其依

▶ 庚午年(宣祖3, 1570년, 70세) 7월 3일. 易東書院.

1) 初本 ‘答鄭子中【七月初三日】’

2) 問：養校[‘問’當作‘閒’.]

3) 漂：初本 ‘飄’

舊發出者，爲可畏耳。屢空之歎，吾輩常事，又因連饑，況重以喪祭之事，勢應至此。稱貸非便，窮裏所同患，然朱子云：“窮須是忍，忍到熟時自好。”此言當深味也。“廷臣發大論”此意甚好。但丁巳年事得請，已爲大幸，若乙年⁴⁾事，有至難之⁵⁾勢，極未安之義，爭之不得，莫如速已之愈也。傳聞去月廿日後，猶不得⁶⁾停啓。天語嚴峻之劇，似無聽許之望，假使或從，亦有大可憂者。不知諸公何故如此？殊不可知。明彥，節使參望，不受點矣，且大成之除，亦無來意云。若非命召之職，此人不應率爾來也。朴子進名太早，實不掩，尋常爲其人憂之，果然踰躐，可惜可惜。安道只一男，奄爾失去，所系非偶，悼念何已？議草領得。惟冀愍衛加重，不宣。（謹拜復。）

4) 乙年：養校[‘乙年’當考.]

5) 之：上本‘事’

6) 得：[두주 一本，‘停’上無‘得’字.]가 있다；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에는 없다；養校[一本，‘停’上無‘得’字.]

KNL1205A (書-鄭惟一-176-1) (癸卷27:22左)(樊卷37:49右)

別紙

近趙士敬持示草本一紙，乃滉往年妄報來書別紙論格物等說也。其中說“費·隱”處，引“體用一源，顯微無間”之語一段，今更詳之，有未穩，故改之曰：“費·隱，子思·朱子既以道言，皆是形而¹⁾上之理也。以散在之廣且多言，則謂之費，以無形象可見言，則謂之隱，非有二也。若以形而下者爲費，則是分道爲二，而認其一端以器當之，其可乎？”禹景善以下，如舊不改。

〔去四月間，有旨下來，其間極多未安之辭。滉不勝惶駭憂惱，方閉戶草辭謝書狀，有儒生一人來欲見。應門僮兒輩，以主翁方在憂恐中，奉旨來人，尙守門不去。當此際，通見京來儒生甚非，其時辭不得通報。其人自云：“我初欲受業於鄭司諫而來，司諫不許留，故往見安東官員，自彼來此，今又如此，奈何？”拂衣而去。既去乃始聞之，慙恨何極何極？雖不得留，相見後具告難留之意而遣之，可也，直自外絕拒之，甚埋²⁾沒也。

1) 而：上本‘以’

欲以一紙書追謝之，不知其姓名誰某，居住在某坊，未果，尤恨。想左右必知之，須細示及爲望。似聞是琴應鍾族屬人，果然否？并示破，幸幸。))

2) 理：上本‘理’

KNL1206 (書-鄭惟一-177) (癸卷27:23右)(樊卷37:50右)

答鄭子中¹⁾

(滉拜復. 近殊阻音, 伏承惠書, 具審孝候支勝, 無任慰豁. 滉保拙依然, 第昏眩特甚, 雖云老病常理, 深怪耗荒之早, 絕異於他人也.) 示及悔吝之救治·工夫之易奪, 皆出於諳歷之餘惴惴之言. 以此自勵, 加以歲月之久, 橫渠所謂庶游心浸熟, 脫然如大寐之醒, 豈不有其日乎? 所謂《心經》·《節要》等書, 此亦頗從事於其間, 日用應接, 持守體驗, 方是²⁾真實用功³⁾, 往往不覺有心融神會, 若有所得, 乃知古人之言真不我欺, 然後又知前此雖曰有志於此事, 實未嘗造其堂嚙其齋也. 亦歎衰病之極, 屋舍頽敝, 來日無多, 恐不能究竟此一大事耳. 廷爭事, 所憂正如來諭, 雖曰忠憤所激, 自古豈有如此而可回天之故事乎⁴⁾? 假使幸而得回, 亦恐不得爲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9월 6일. 禮安.

[資料考] 내용 중 “示及悔吝……其日乎”는 鄭惟一의 문집인 《文峯集》卷4에도 수록되어 있다.

1) 初本 ‘答鄭子中【九月初六日】’

2) 是：初本·中本·定草本·樊本·上本 ‘始’

3) 功：上本 ‘工’

正當道理，甚可憂鬱。然敢出此言，亦恐未安耳。明彥之去，差強人意。其兩疏亦皆得見，亦非有大不可，但以此施於今日，駭俗深矣，逢怒劇矣。似聞以此言及於鄙人，以爲彼之爲此，某人之所使然也。此其根連株逮收司連坐之兆，已見矣。朴子進名過其實，而昧於自處，躓踣無怪，而其意亦不止於此一人。然當⁵⁾靜以俟之⁶⁾，尙何爲哉？李季眞之意如此，亦好，但以近侍受由來，雖欲不還，勢恐難得如意耳。格物說，謬見不過如此。明彥必欲以到字爲理到，今又合聚得理到字出處三四條來爭，時未答去，又恐或愚見自誤而不覺，姑留以深思之耳。（李生首末，今始承悉。當日適值召命壓頭，捧書人守門不去。閉戶草⁷⁾狀惶⁸⁾遽窘迫之際，僮奴輩妄料徑⁹⁾自辭謝，致令其人重趼誤求之誠意，竟至於空返。何愧負若此之甚乎？本欲作一書，致意於其人。今適因客至淹晷，客去始修此書，而來使立俟。未暇修書，尤恨。伏願任君處，歷數此曲折，懇伸謝意，

4) 乎：上本‘耶’

5) 然當：上本‘當然’

6) 之：上本‘一’

7) 草：上本‘艸’

8) 惶：初本·中本‘遑’

9) 徑：上本‘經’

庶令傳布，是望是望。惟照諒。霜寒¹⁰⁾，更冀勉重。不宣。謹拜復。))

((季應如此，曾是不意。人固不可知也。))

10) 寒：上本에는 없다.

BIL1207 (書-鄭惟一-178) (樊遺外卷2:23右)

與鄭子中別紙

朝爭乙巳事，昨得親舊書報。兩柳伸雪，既已得請，甚賀。但臺諫就職後，仍論削勳事，朝意必以爲上既知兩柳之冤而洗雪，則奸兇搆捏之罪益顯，洗冤削勳，不可以一舉一否，自是，爭之必尤力。愚意或不然，昔管仲射帶鉤，魏徵勸先發，桓公·太宗猶收而用之。況今上無爭國之事，二人無射鉤勸發之罪，今特雪其冤，豈不美舉乎？與用管·魏事，事不同而義實同矣。然則削勳事，雖未得請，自可并行而不相悖。蓋大尹無異謀，不能明知，則苦請削勳，似有傷於聖上孝慈之至，不審朝意於此將何如也？流聞時議以滉無一疏及此事爲非者，滉謬見如此，有疏，則不敢不露此意，恐反有害於同朝共請一國輿情之間，故不敢發，如何如何？今以告左右，亦甚未安。然左右職帶秉筆，尤不可不知此義，故聊及之。然不可輕發於人，千萬千萬。其隨衆所處至難，極宜審度。姑以既明二柳之請，此一事既有臺諫，可停史院之爭云云。如何如何？

▶ 庚午年 (宣祖3, 1570년, 70세) 11월 6일 추정. 禮安.

